

21세기의 서울 Seoul of the 21st Century

이영희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ee

한강에 유람선을 띄운지도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에 몇번씩이나 강변을 달리면서 유유히 달리는 유람선을 보면 제법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한번도 한강의 유람선을 타 보지 못했다. 티볼 생각을 몇번 한적은 있었으나 배를 타고 무엇을 보며, 어떤 이야기거리를 들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포기하고 밀었던 기억이 난다.

10여년전 언젠가 파리 세느강의 유람선에 승선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기대감에 충분되었던 생각이 난다. 파리의 세느강은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구성의 기본요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강을 따라 역사가 살아 숨쉰다. 그러나 강으로 치면 우리의 한강만큼 방대하고 넉넉한 강이 세계 어느 도시에 있는가! 서울을 건설하고 서울을 가꾸어온 우리 조상들이 한강의 잠재력을 미처 내다보지 못했음을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발전에 따른 급격하고 무질서한 도시팽창은 무병비 상태였다.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 그룹들은 짧은 기간에 봇물처럼 터지는 사회적 요구를 양적으로나마 급히 소화함이 보다 절박하였다고 변명하겠지만, 돌이켜 보건데 참으로 후회스럽다. 개발도상국의 상징적 모델이었고, 인구 천만의 세계 5대 도시에 속하는 서울의 한복판을 유유히 흐르는 천혜의 네네함이 있는데도 외국 관광객의 고정코스 하나 개발할 수 없는 현실적 환경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인가! 최근에 와서 강변의 경관을 걱정하는 전문가그룹이 형성되고 그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건축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강변을 따라 구축되는 콘크리트 장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63빌딩은 건축물 자체로 볼 때는 현대건축으로서 손상이 없지만 도시공간구조로 보면 무척 외롭다. 건축물이라기보다 하나의 탑이다. 12층 높이의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오만하게 내려다 보면서 독존하고 있다. 도시에는 허(虛) 공간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한다. 초고층 건물군은 군락을 이루고 건물과 건물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한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해 멀리 산능선도 보이고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도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획일적인 높이의 지붕선 너머의 풍경은 숨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바로 그것이다. 왜 우리는 강 양안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했는가! 강변을 따라 군데군데 수

도 서울의 대규모 문화시설, 운동시설, 저희시설 등을 유치했다면 한강은 보다 더 인간적이고, 여유로움이 느껴졌을 것이다. 활기차고 생기에 넘치는, 가고 싶은 강변의 도시여유공간을 시민들은 즐겁게 찾을 것이다. 80년대 초까지만해도 아파트 건축의 높이는 12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행정지침이 있었다. 이유인즉 화재시 소방 고가사다리가 12층 이상이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아파트를 분양할 시 루일층은 5층이었다. 비상시 피난의 한계범위에 속하고 정전시 걸어다닐 수도 있는 적정한 높이이므로 통풍도 잘 되고 지반면으로부터 발생되는 먼지 등의 공해로부터도 유리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앞을 보지 못하는 단순 논리는 고층건축에 대한 거부감을 일반 관념화시켰다. 외국의 도시주거나 업무공간일 경우 높이 위치할수록 값이 비싸다는 가치판단 기준을 왜 진작 대입해 보지 못했을까? 이러한 소극적 판단기준은 아파트단지의 경우 판상형 남동향 일번도의 획일적인 콘크리트 정벽을 양산하고 말았다. 강변의 아파트 군들이 탑상형으로 초고층화되고 고층군과 군 사이 도시의 허공간을 만들어(저층의 아파트와 타시설) 관악산을 보고, 남산을 보고, 북악산을 볼 수 있다면 한강유람선에서 관광안내자는 갖고있는 마이크를 놓을 사이조차 없을 것이다. 이제 지방의 읍면에 이르기까지 판상형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전 국토의 경관을 조악하게 만들고 있다. 더 늦기전에 시급한 조율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율이 건축적인 접근으로 가능할 수는 없을까? 감히 나는 아파트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판상형은 6층이하로 한정하고 6층이상은 탑상형으로 설계되어야한다”고.

우리가 매일 보고있는 한강변의 경관에 대해 한가지만 더 연장해보자.

입법부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오늘날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고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시각도 잘 지어지지 못한 건물로 치부된다. 이는 물론 개발독재시대에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행정논리가 우선한 중구(衆口)의 산물이긴 하지만, 국회의사당 부지 결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작성에서 설계과정까지 말단실무자로 옆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부끄럼기 그지 없다. 의사당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했고 현재 사무처 기능의 스페이스가 부족하여 사무처동, 별동 증축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다 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감히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사당을 증개축하여 REMODELING 하자는 것이다. 현재 본관 건물을 그대로 두고 도색이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가소요되는 사무처공간과 연계하여 현재 건물의 형태를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전문가의 중지가 결집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의사당이 반드시 탄생하리라 믿는다. 그러면 한강변의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적이 있다. 그는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다.

요즘 강남의 테헤란로 변에는 거의 공기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그런데 보기에는 옛날에 지은 집도 아닌데 모든 건물이 비슷비슷하여 전연 흥미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물음에 대해 각 건물의 설계가 어떤 특색이 있고, 건축어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테헤란로 변은 서울의 어느 곳보다도 최근에 건축된 화려한 (적어도 건축적으로는) 가로환경이다. 그러나 개별건축물의 표정보다 강남역에서 잠실까지 수 km의 길이의 20층 내외의 한 개의 MASS로 인지됨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도시는 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는 도시를 용도지역으로 공간 분할할 때 가로를 중심으로 평행하게 띠의 형상으로 지정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이 그 주원인이다. 우리의 국토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의 평면적 팽창은 기습적 억제하여야 한다. 좁은땅에 많은 사람이 일하고 살다보면 도시의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로 중심의 지역계획을 탈피하여 도시의 핵을 설정하고 환형으로 고밀과 저밀도의 유기적인 연속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밀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에 장애가 되는 법규제도를 과감히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이란 도시가 세계화 하기 위해서는 교통, 금융, 무역에 있어 동북아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하이테크화한 초고층 건물군의 아름다움이 서울의 이미지로 기억되게 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을 위해서는 현재의 일조권, 건폐율 기준 등 법규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반면에서 1.0m 이상 돌출되면 건폐율에 산입(算入)하는 기준에 있어 인공대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Deck Plaza나 공중의 보행 통로로 사용되는 공개공간은 건폐율 산입에 제외되어야 한다. 공개 공간도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공개된 건축공간은 시민의 보행체계를 즐겁게 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1년중 옥외에서 생활하기에 기분좋은 기간은 6개월 뿐이다.

초고층 건축을 건립하면 교통이 혼잡하고 인구집중의 요인이 된다는 단순논리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땅에 대한 밀도(용적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팽창에서 수직적으로 팽창하는 것 뿐이다. 같은 용적에서 건축을 고층화함으로써 지반면에 보다 많은 공개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도시 에너지 공급체계가 집약, 체계화되고 또한 계획적인 교통체계도 확립할 수가 있게 된다.

초기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21세기의 서울이란 도시를 훈자 그려 본다.

재건축의 대안은 없는가

New Alternative to Housing Reconstruction System

문홍길 / (주)하우드 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oon Hong-kil

재건축과 공공 개입의 논리 - 주택 종합 마스터플랜 필요

서울의 대표적 저밀도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재건축방안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현상공모형태로 진행중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본 저밀도지구의 경우 민간개발권의 판단기준이 서울시 전체차원에서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공공정책의 큰 진환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자본의 유입이 전제될 수 밖에 없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와 유지의 차원에서 '사회는 개인에 선행하는 독립된 실체'라는 시각에 근거한 공공의 계획수립과 조정권은 본 저밀도 지구들의 경우 유효하다. 저밀도지구가 아닌 일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전면철거 고밀도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지구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주변 파급영향까지 감안한 균형잡힌 판단준거의 마련을 위해서 이러한 공공적 시각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계획 검토가 아닌 도시 전체의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도시전체적 문제는 상하수도, 도로용량 등 도시 인프리의 용량, 도시밀도의 불균형 등 주로 도시계획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부각되며, 그 다음 도시미관의 악화,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도시경관적 문제, 그리고 도시주거의 수급과 소득계층간 이동 등 사회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재건축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사전 분석검토 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종합 마스터플랜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불량주택의 정비와 신규 택지개발사업 등을 함께 포함시켜 고려하여야 하며, 종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별지구별 건립 규모, 시기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계획은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작성이 가능할 것이며, 도시계획, 경관, 사회경제, 환경 등 모든 관련 분야를 주택개발의 측면에서 종합 구성해보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띠며 본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지의 재건축·재개발 가능성과 예상밀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남

으로써 현재와 같은 암중모색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관련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허와 실 - 기억나지 않는 도시

재건축사업의 결정적 이유는 기존 아파트단지의 입지변화에 따른 토지가격상승의 이익을 현재화하는데 있다. 즉 그것은 노후주택의 쇄신과 거주면적의 증가로 나타나며 곧 주택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투입된 대규모 자본의 잉여이익 환수까지를 감안해 볼 때 재건축 이전의 잠재적 미실현이익의 일부분만이 주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소유주민의 입장에서도 부분적인 개발이익의 확보를 위해서 지불하게되는 주거환경의 고밀도화와 개발 피금영향의 주변 전기효과를 이제는 심각하게 저울질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도심입지 5층아파트의 25층내외의 고층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20평주택은 30평내지 40평대의 주택을 공급받음으로써 1.5배내지 2배의 주거면적 증가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전용면적의 증가측면에서 조금 더 따져보면 면적증가효과는 현저히 낮아진다. 즉 기존 계단식 20평 5층 아파트의 경우 17.8평(전용면적비89%)에서 초고층아파트의 30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20.1평(전용면적비 67%, 지하 포함공유면적비33%내외), 40평형의 경우 26.8평의 전용면적으로 증가되어 1.13~1.5배의 전용면적비 증가효과를 보일 뿐이다.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은 주거환경지표의 악화와 도시인프라의 과부하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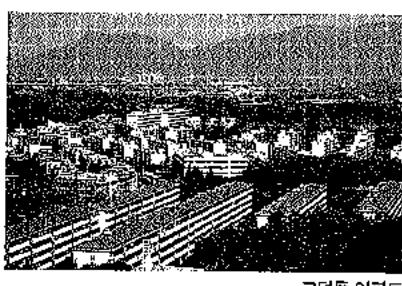
주거환경지표의 경우 용적률 3배(100%에서 300%내외), 세대수, 인구수 2배이상, 포장비율 1.5배, 건물크기(마스) 9배내외로, 인당녹지면적의 경우는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재건축 방안은 세입자문제, 중·저소득층의 거주환경 보호문제 등을 차치하더라도 개발이익의 일부분만이 주민에게 돌아갈 뿐이며, 부분적 이익을 위해 도시내의 역사가 축적된 일부분을 재생이 불가능한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나중에 이 도시의 어디를 방황하며 자신의 유년시절을 기억해내려 애쓸 것인가? 건축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곧 환경조절이다.

인간이 배우라면 건축과 주거환경은 무대인 것이다. 즉 주거환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주자의 의지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조절되어 가야 한다.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융통성있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인간의 거주공간은 보다 융통적이고 혁신적으로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의 복합화는 유동화, 다기능화와 함께 진행된다.

재건축의 결과는 과연 그러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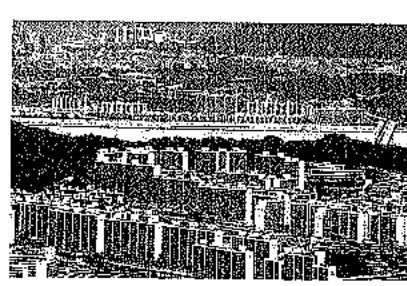
우리가 지나간 전통을 회상하고 오늘에 되살리고 보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건축과 주거는 우리 도시의 감각적인 성격과 개성을 개발하고 공공의 도시적 공간을 정의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예전에 알려졌던 정체성과 풍요로움이 더욱



고덕동 아파트



도곡동 주공아파트



사당동 아파트

더 없어지고, 지역의 역사적인 감각이나 고유의 조직과 무관한 새롭고 전인류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근대 도시의 시간축적이 부족한 우리의 도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축적된 약간의 시간과 공간을 계속 쇄신해 나갈 것인가. 나대지 개발보다 더욱 나쁜 것은 기존구조의 전면철거 재건축이다. 오늘의 경제논리로서 도시의 공동체공간을 기억나지 않는, 기억할 수 없는 그리고 재생이 불가능한 뚝 같은 모습의 파편으로 계속 메워갈 것인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 주택정책의 전환과 기술개발

이러한 관점은 도시내 저층아파트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유효하다.

이제 기존 아파트단지의 입지변화에 따른 가격상승의 이익을 공공부분과 조화되는 가운데 손실없이 기존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신규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택공급 시장환경을 기존주택과 단지의 유지·개보수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토지가격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잠재적 여유를 현재의 최고밀도개발로 당장 실현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주거면적 확충기법을 강구하고, 전체주거환경의 지표수준은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낮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용적률을 높여 건축비 등 사업추진비용을 충당

할 수 있었으므로 추진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고층 아파트 등의 재건축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면, 건축비 부담문제는 재건축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공지원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존건물 철거 후 재건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구조적 보강, 내부 배관 및 기마저 교체, 수선 등을 통한 개량, 복구 등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여 노후·불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용 기술의 개발이 가장 필요하며 제도적 장치보완이 요구된다. 재건축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새로운 문제해결 기법의 적용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소유주민, 행정관청, 시공회사, 건축설계자, 도시계획가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각에 의한 접근방법이 요청되며 그 것은 공익적 혜안을 가진 전문계에 의한 비전제시 및 외부 설득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더 큰 미래를 보고자 노력하는 실천집단의 이니셔티브를 일차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사회적 이슈의 제기와 해결 노력과 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의 주변에서 맴돌기보다는 사회를 역동적으로 구조화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건축시집단을 연결시켜 봄은 유쾌하다. 다행히 그간 재건축진단업무를 많이 쌓아온 신뢰와 재건축사업의 한부분을 담당해온 건축시협회의 실무능력으로 보아 이와 같은 전환기의 한 기축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복동 아파트



계획 당시 부지주변의 모습(봉천동아파트)



봉천동 아파트

행웅어린이집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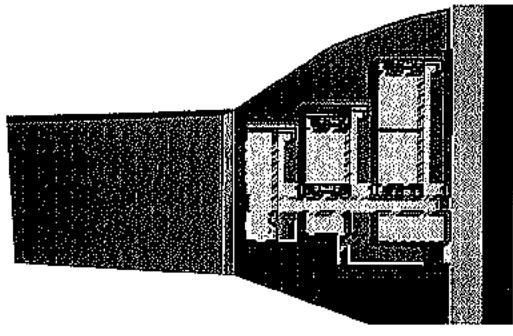
review

Between (Children's House of Hang-Ung)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카움
designed by Kim In-Cheul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1-45
지역지구	일반주거, 주차장 점비
대지면적	1,573.00m ²
건축면적	317.25m ² (+기준 98.10m ²)
연 면 적	687.06m ²
건 폐 율	26.40%
용 적 률	30.78%
설계담당	박병욱
규 모	지하1층, 지상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3.75m
설비방식	폐널히팅
주요용도	어린이 보육시설
외부마감	벽 - 노출콘크리트 지붕 -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바닥 - 비닐시트 벽 - 드라이버트 천장 - 드라이버트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264.59m ²
건 축 주	성동구청
시 공 자	부미건설
설계기간	1996. 10. 5~1996. 12. 20
공사기간	1997. 2~1997. 8. 30
사 진	박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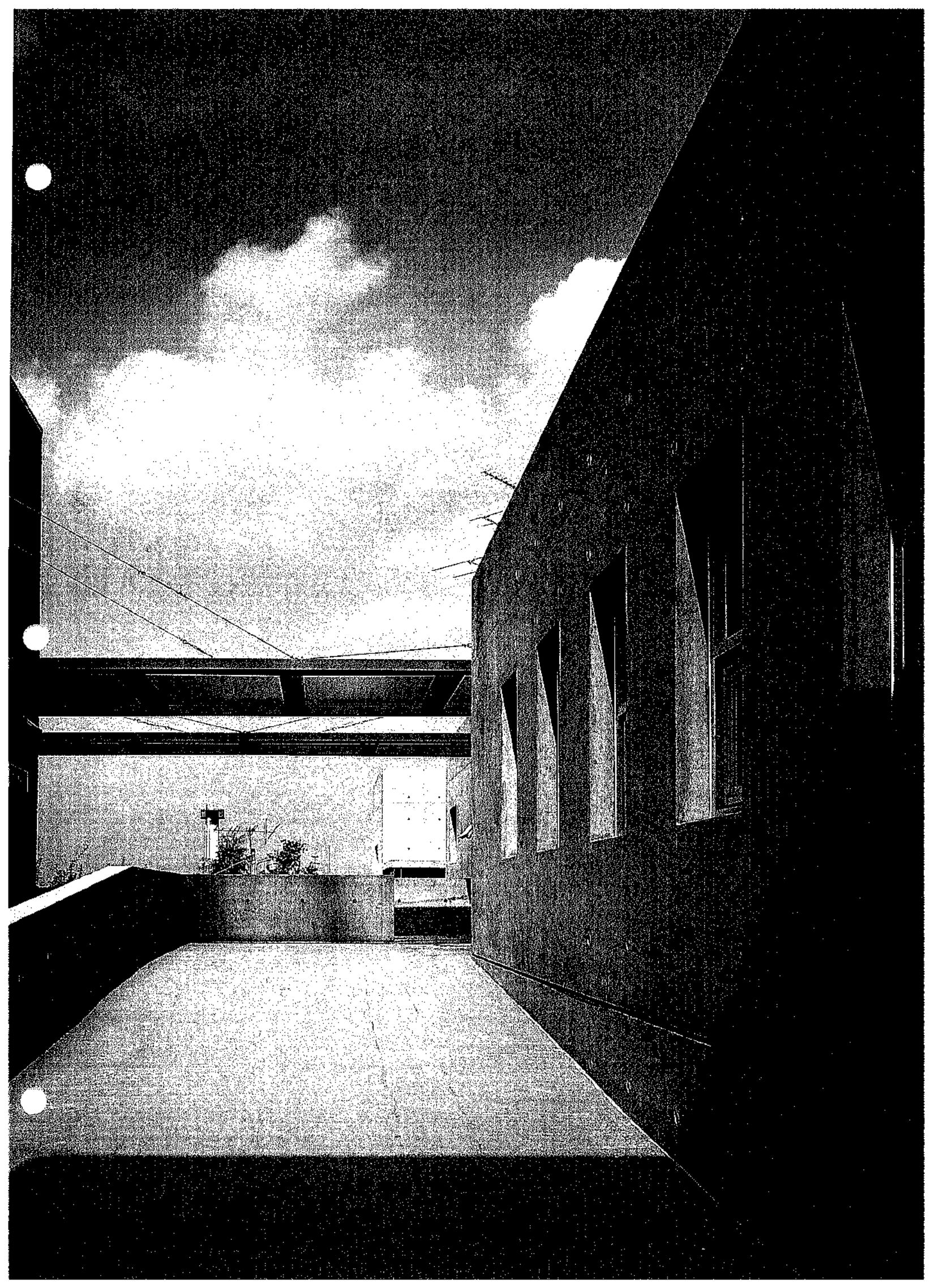
왕십리에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고산자로와 독서당길이 만나는 언덕길에서 오른쪽 산비탈을 따라 오르면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달동네가 있다. 이단 기어로도 숨이 차는 산자락길은 정점에 오르자마자 북동쪽으로 시야가 트이며 다시 가파른 비탈이 되어 시가지로 쏟아져 내린다. 잡목들에 지나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숲이 남아있는 언덕밭이 언저리에 어린이의 집을 위한 대지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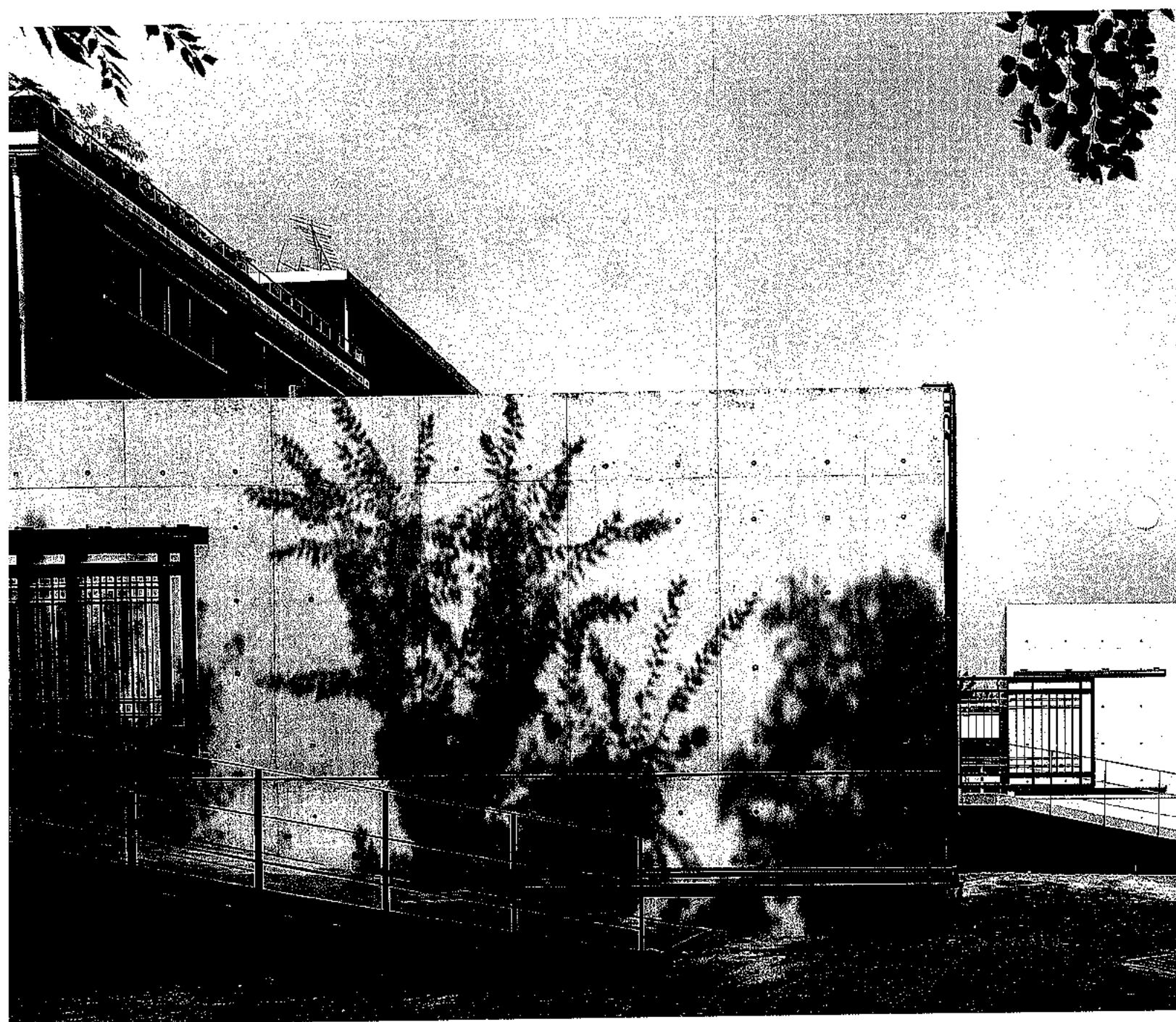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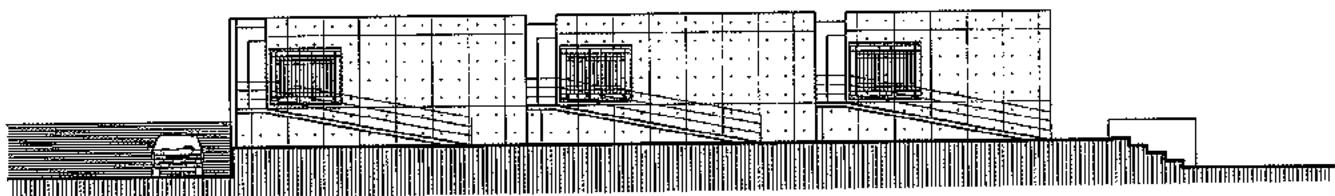
전부터 행당·용봉동의 어린이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낡은 건물을 치워내고 새집을 짓도록 성동구에서 계획을 마련하였다. 헐어내야 할 옛집은 기능에만 충실한 채 한 덩어리로 뭉쳐진 공간을 움켜쥐고 있는 완고한 모습이었다. 턱이 소부터 유치원까지를 겸하는 자잘한 기능들이 뒤범벅되어 음색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짧고 단순한 동선, 낭비없는 공간 활용의 정신에 충실히 나머지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마치 소도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최근에 손질된 이층 건물만 남기고 모두 비워지면 그래도 상당한 대지의 여유가 있을 공간이었다. 놀이 기구를 운동장으로 옮기고 경사진 도로의 아래쪽에 주차장을 놓아 가능한 넓게 건축이 자리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단층으로도 충분한 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뒤 요구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떼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시작하였다.

길게 그리고 넓게 펴져 있는 공간은 사이사이가 비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반복으로 하나이기도 하고 너댓개이기도 한 건축을 만들었다. 있음과 없음의 되풀이는 안과 밖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결국 안도 아니며 밖도 아닌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안과 밖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딘가를 막기만 하면 된다. 규정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줄어들 수도 있다. 형식이 없으므로 형태도 없다.

입면이라 그려진 것은 구획에 지나지 않으며 평면이라 정해진 것 역시 영역의 설정일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가변성이라 말해지는 것보다 통합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다.





Children's House of Hang-Ung; Between

There is hill at the junction of Gosanja Boulevard and Dokseodang Road, and following up the hill on the right to the mountains, one comes across a ghetto area, still containing the looks of this kind from the 50s and 60s. This hill, which even an automobile set in second gear has a hard time getting up, commands, at its peak, an open view to the north-east, and then continues to another steep road down to the city. A hillside, with a few

trees gladly suggesting a now-lost forest, is the site for the Children's House. There used to be a house for the children of Hangdang and Ungbong region, and it was the idea of Sungdong Regional Administration Office to replace this with a new building. The remaining one was a stubborn old house containing a singular volume of space, with the sole concern for its function. Its function was an unclassified multiple of kindergarten and nursery. Functional intentions for short circulations and full use of every space has left the children and their spaces in secondary impor-

Title Between **Architect** Kim InCheul of Archium
Site 341-45 Hangdang-dong, Sungdong-gu, Seoul Residential Area.
Site Area 1573.00m²
Building Area 317.25m² (+98.10m² of the Remaining Building)
Total Floor Area 687.06m²
Gross Floor Ratio 30.78%
Total Floors 1 Story, 1 Basement
Floor Height 3.75m

Architect Kim InCheul of Archium
Building Coverage Ratio 26.40%
Project Architect Park ByungUk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Installation Panel Heating

Function Education Facility for Children
Exterior Finishing Wall-Exposed Concrete, Roof-Exposed Concrete
Interior Finishing Floor-Vinyl Sheet, Wall-Dryvit, Ceiling-Dryvit
Parking Spaces 3 **Garden Area** 264.59m²
Client Sungdong Regional Administration Office
Construction Bumi Constructions **Design Period** Oct 5 1996 - Dec 20 1996
Construction Period Feb 1997 - Aug 30 1997
Photographs Park Yung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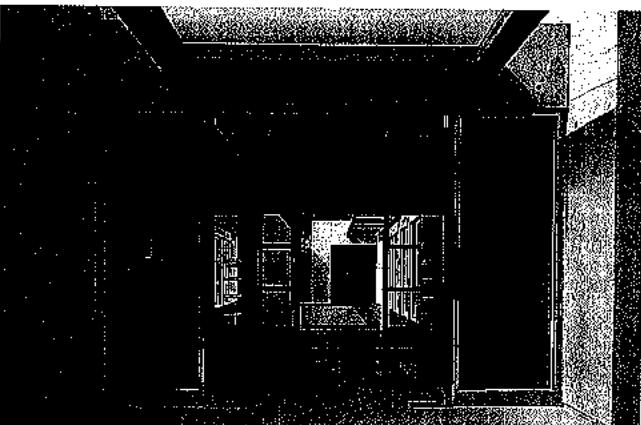


동측입면

tance. Clearing out the rooms, except the recently repaired second story, seemed to allow enough space. By replacing the playing facilities to the outdoors, and by locating the parking area to the lower part of the slanted road, more spaces could be obtained. To house the requested programs to a single story building, scattering each functions, I needed as much space as possible. A long, broad architecture inevitably contains many in-between spaces. I have used this method for this project, and by its repetition created an architecture that could either be one, or several. The rep-



동남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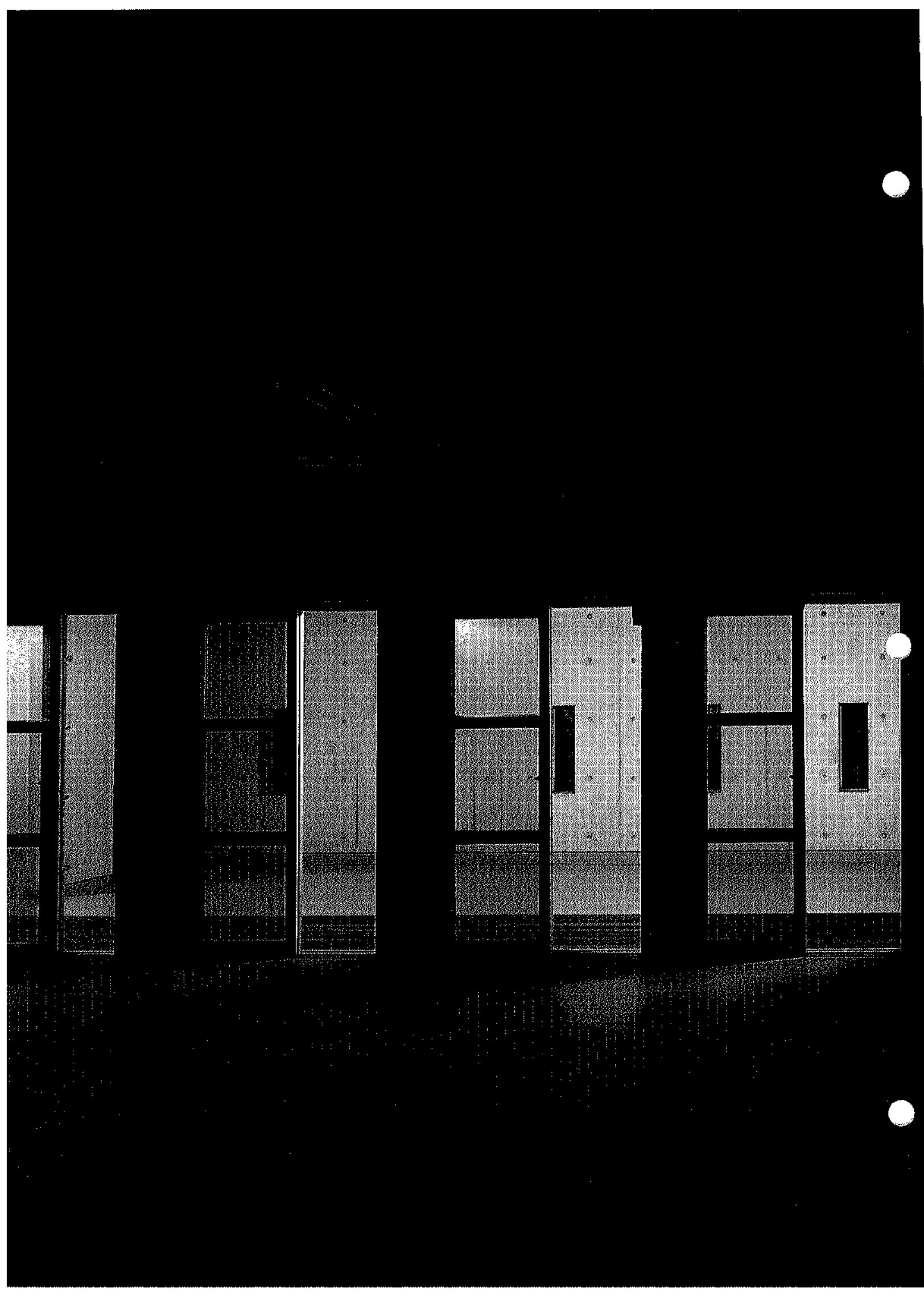
현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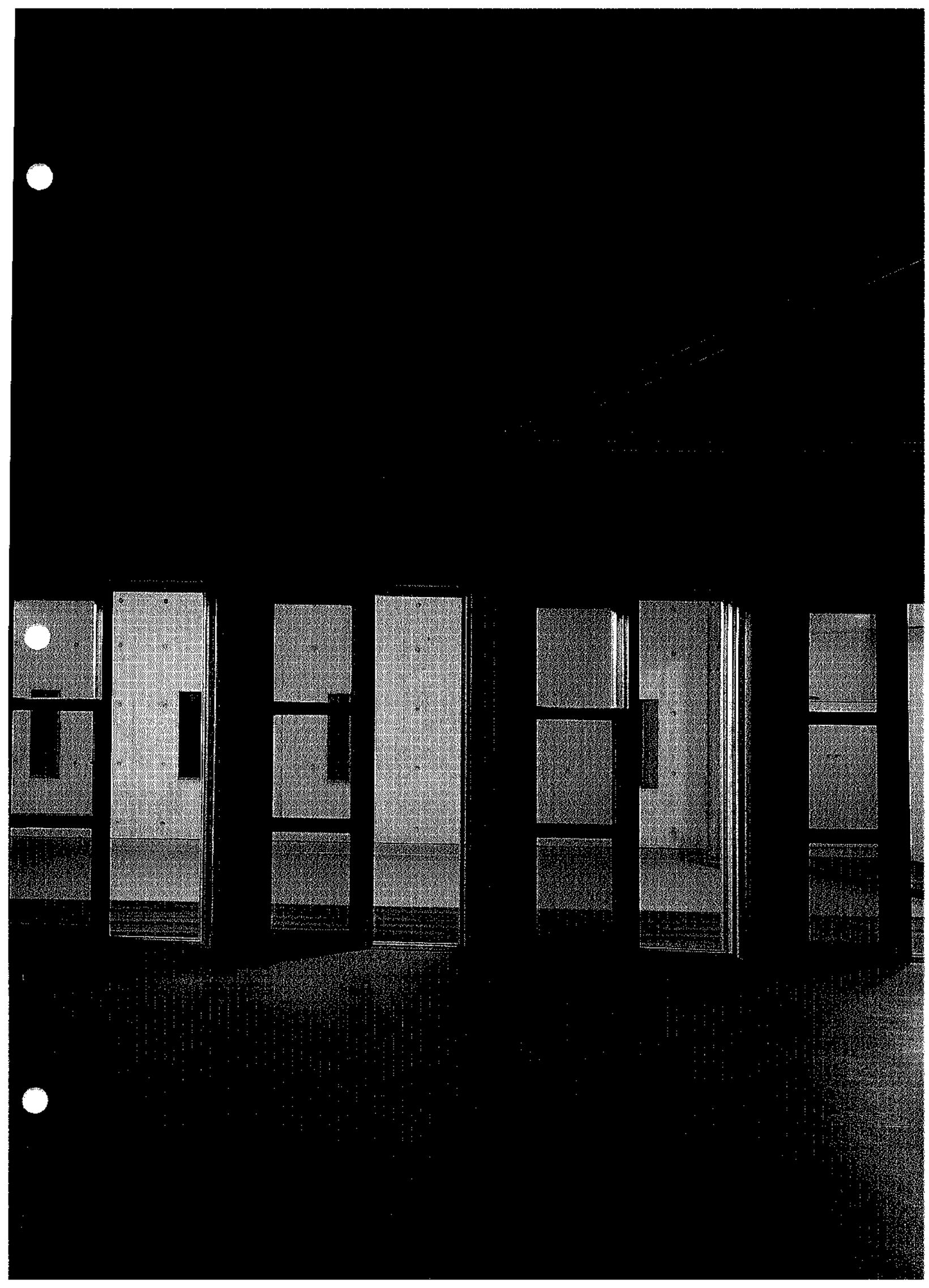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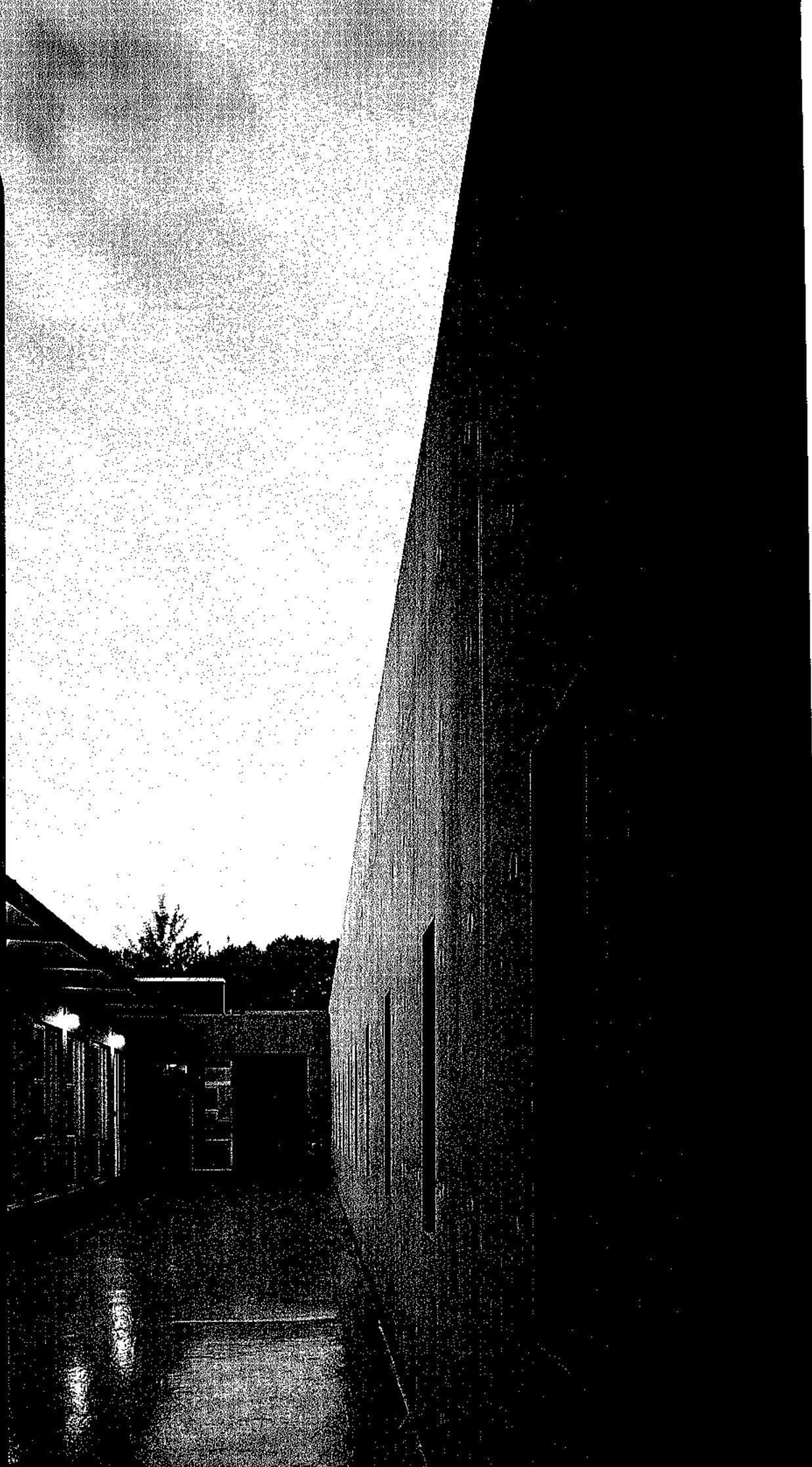
남측일면

etition of solid and void obscures the boundary of indoor and outdoor, creating a space with both features. The indoor and outdoor are basically one - one only has to block somewhere that needs to be classified. As it has no set rules, it could be either lengthened or shortened. There is no form of regulation, therefore no form of shape.

An elevation is no more than distribution and so is the plan. They are not static - in respect not to the potential for change but to achieving whol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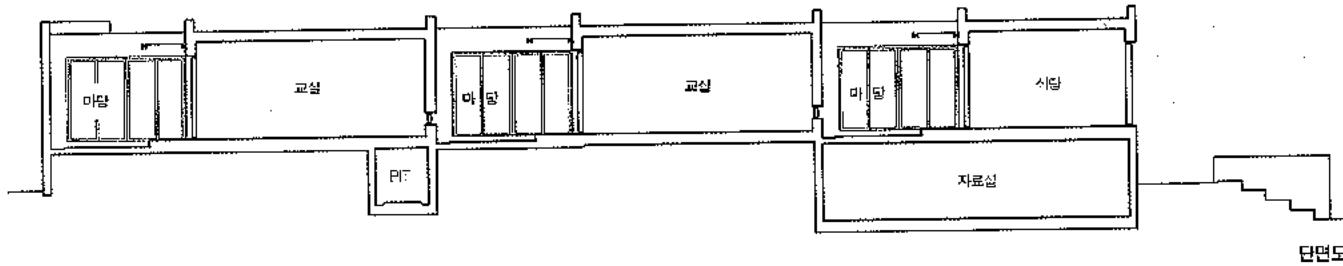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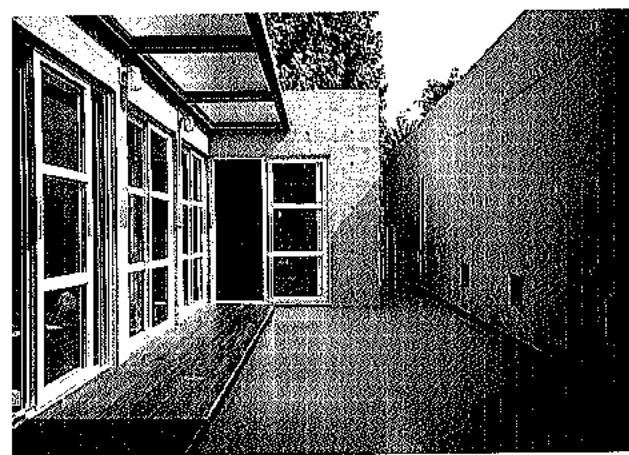




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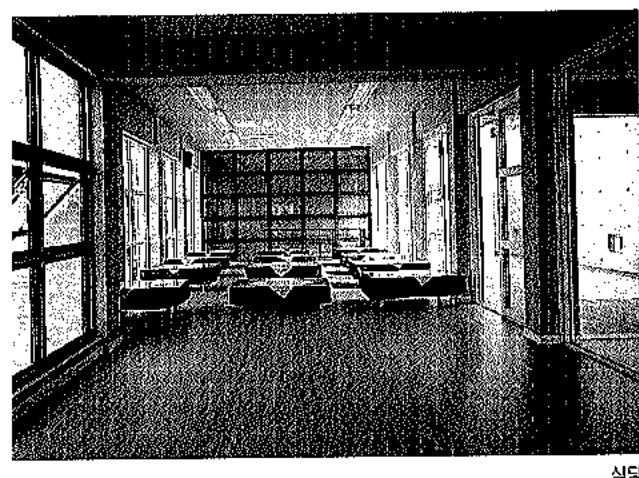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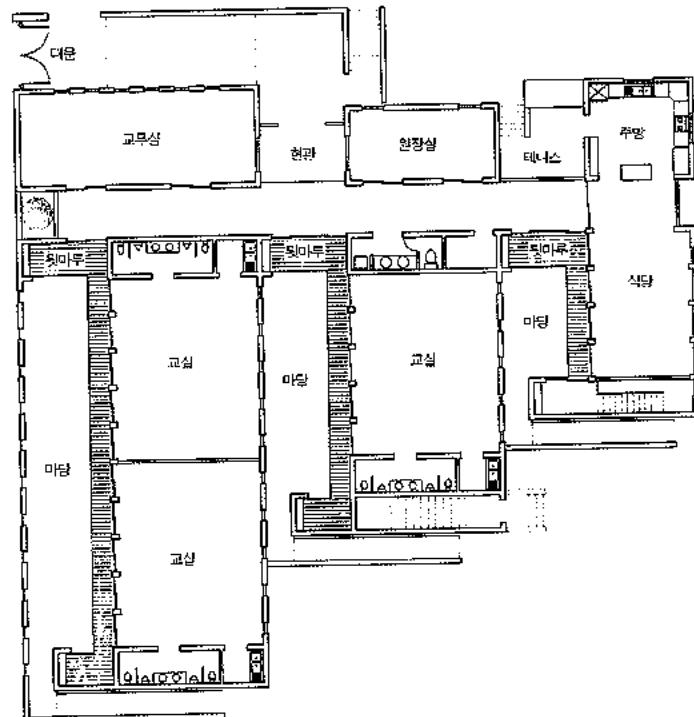
작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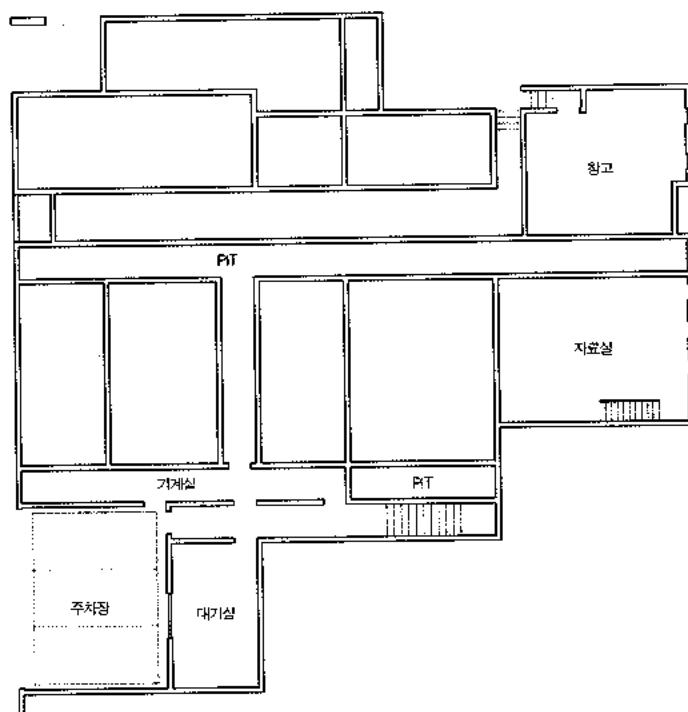
식당에서 본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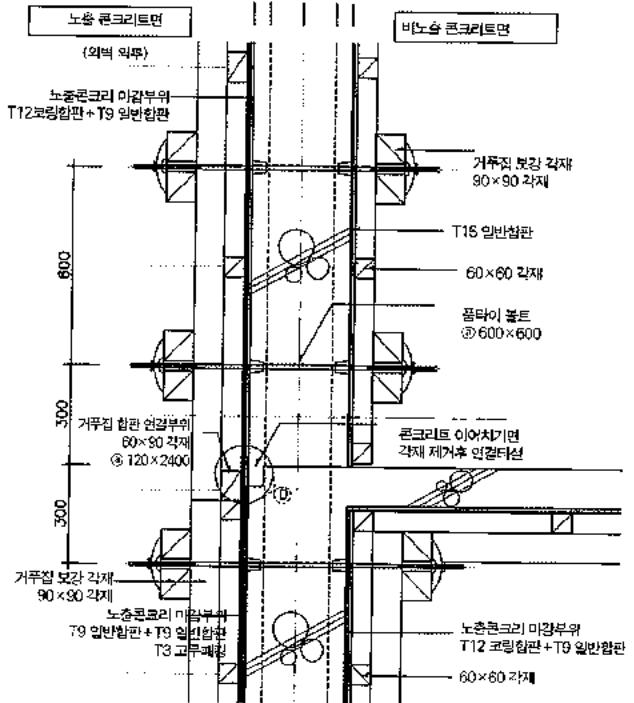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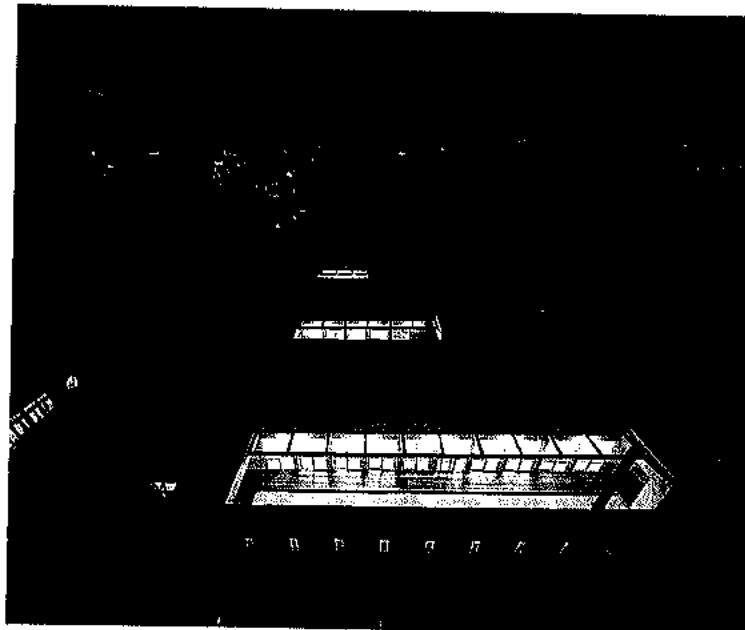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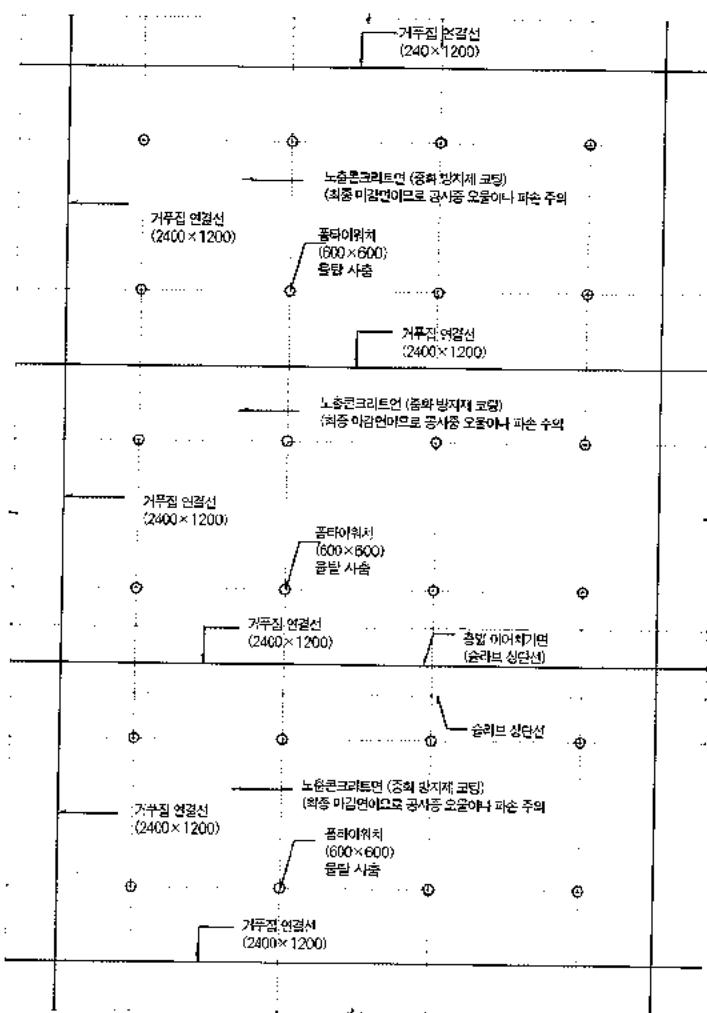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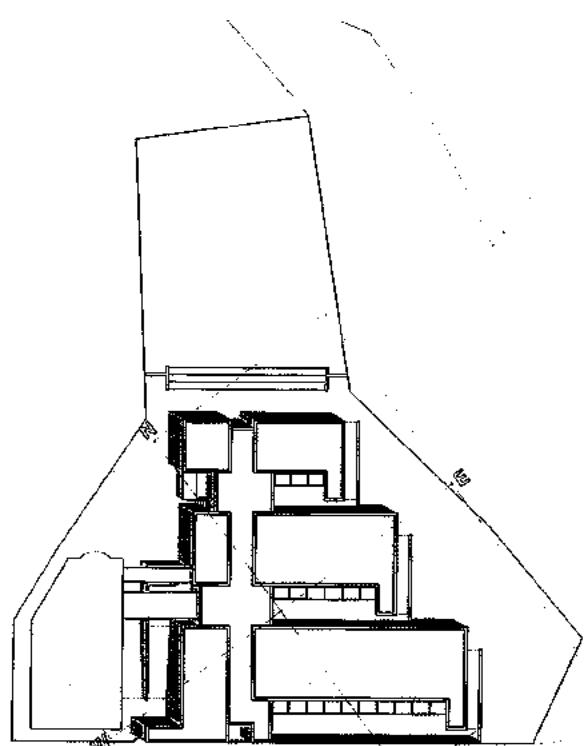
외벽 노출부위 거푸집 연결 상세도



외경



노출콘크리트 입면 상세도



배치도

탈각의 몸짓

Breaking Away

대담자 / 이일훈(이일훈 건축연구소,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설계자 / 김인철(건축사사무소 아르카움)

Lee Il-Hoon & Kim In-Cheul

일 시 / 1997. 9. 5 오후 5:00

장 소 / 행운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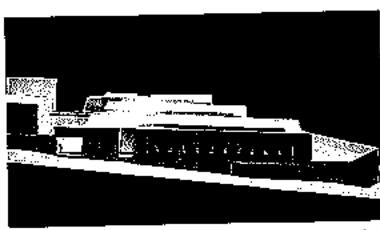
대담광경(좌로부터 이일훈, 김인철, 강혁)

이일훈 우선 적은 예산의 어린이집을 완공시킨 노력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주변의 이야기부터 들어가자. 그간의 여러 작업에서 형태적 탐구욕이 강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조형적 표현을 피하고자 하는 듯이 보이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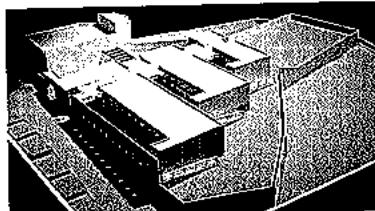
김인철 최근에 들어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형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떠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철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왔던 것들이 부질없게 생각된다. 우리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는 다가구주택 같은 작은 것들을 만지게 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많지 않은 경험 이긴 하지만 전통건축의 현장에서 느낀 것 역시 형태가 아니라 공간이었으므로 지금이라는 시점에 그것을 접목시켜 보려는 의도가 최근의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형태는 공간을 위한 형식이라는 생각, 형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 수단을 갖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야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생각, 공간을 굳이 안과 밖으로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의문, 안과 밖의 구분을 없이하였을 때 어떤 형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 상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은 공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등이 요즈음의 생각들이다.

이일훈 평소 건축이 지나는 공공성(어린이집 만큼 공공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없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럴 때 건축가의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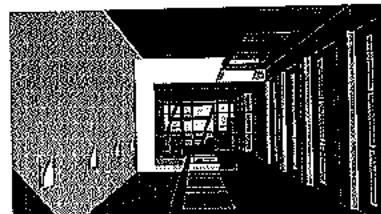
김인철 이상하게도 건축의 기능적인 공공성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어진 대지와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 이후의 작업은 나만의 세계 속에서 진행된다. 좋은 건축, 제대로 된 건축이 무엇일까에만 집착할 뿐이다. 당연히 상식과 감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각론적인 공공성보다 원론적인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싶다. 대중적인 상식의 선보다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부터 일탈하고 싶다. 뒤집어 생각하는 버릇이 요즈음 심해졌다. 건축가의 할 일 이란 상식에 상장을 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내가 하려 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구획으로부터의 자유, 어른의 감시로부터의 자유, 알록달록 아기자기로 규정지어진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으로 어린이의 집이 상징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운어린이집



행운어린이집



행운어린이집

이일훈 매번 발표되는 작업들에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에서 제일 즐겁게 만든(즐긴) 부분은 무엇인가?

김인철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빈 공간들이다.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한 것도 재미있었지만 그것은 과정이었고, 결과로서 즐기려 한 것은 건축의 사이에 만들어지는 틈새의 감각이었다.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교실들이 나열된 것보다 그 사이에 만들어진 헛것에 애착을 느낀다. 괴장한다면 그것을 장치하기 위해 교실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상상하기에 어린이의 공간은 교실 안이 아니라 빈 마당이 될 것이다. 교실 안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곳으로만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의 전문영역이기에 나로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곳에서의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 만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일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일까?

이일훈 뒤진어 생각하기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한 방법일 뿐이다. 안과 밖을 병치시킨다고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축공간은 내외부공간이 서로 장악·연결·관입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공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설명처럼 빈 공간이 주된 의도였다면 외부와 외부의 연결 방식 또는 외부공간 자체의 구성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김인철 내가 생각하는 안과 밖의 개념은 이분법적이거나 짹(Pair)의 의미가 아니다. + 와 - 가 아닌 0의 관념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 연결방식이나 구성방법에서 적극적인 의도는 포기하였다. 봉정사의 영선암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연히 조합된 느슨함 때문이다. 계산된 의도에 의해서 건축과 공간을 긴장시키기 보다 풀어놓은 편안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깨의 힘을 빼고 쳐야 상대를 눕힐 수 있듯이 목적이

앞서는 방법론은 경직되어 서투른 결과를 만들고 만다. 형식과 구성에서 긴장을 의도하지 않은 것은 형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게을러서 편안한 것과 부지런해서 편해지는 것은 다르다. 이번의 작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치워내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런저런 군더더기들을 걸어내고 낸 나머지가 지금의 모습이다. 혁전하게도 무미건조하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공간의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당을 향한 문들을 모두 열거나 떼어놓을 수 있게 한 것은 굳이 고정하는 것보다 느슨한 틀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일훈 기존의 보육시설은 흡사 새집지으면서 방치된 듯이 보인다. 마치 귀찮아서 비려 놓은 듯이 무신경하게 처리되었다. 장차 새로 만들어도 연결의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주진입의 방향과 직교하여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체는 1층으로 끌나고 있어 중층에 대비한 흔적이 없다. 말을 바꾸면 사이공간 만드는데 주력하여 땅을 넓게 자리잡고 토지의 비효율을 가져온 듯이 보이는데… 꼭 1층이어야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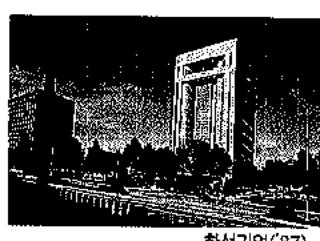
김인철 기존 건물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철자하게 내버려두었다. 고려되었다면 그것이 다시 지어질 때를 위한 작은 융통성을 둈 것 정도이다. 그것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실미리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두어 둔다고 해서 방해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것을 그곳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 어설픈 배려보다 솔직한 인정을 택한 것이다. 그것에 다시 손을 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드는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를 단정지울 수 없는 것이다. 단층으로 넓게 펴놓은 것은 궤변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규모를 압축하거나 2층으로 만들어서 대지의 여유공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었



심현제('85)



연희초등학교('86)



한성기업('87)



원불교경주교당('88)

으나 빈 곳과 채운 곳이 스며들 듯이 어울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2층이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더라도 집의 암음새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일훈 이번 프로젝트를 형식주의를 벌여 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형식으로 설명하기엔 공간 구성의 내용이 단조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도를 Spine으로 삼고 좌우에 Wing을 붙인 구성은 단순 명쾌해서 좋다. 하지만 Spine의 끝과 시작이 결국 풍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끝났다. 특히 가존의 놀이터와의 연결이 내부의 주동선 축과 관계없이 이어져 아쉬운데.

김인철 나 역시 어떤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 더욱 단조로울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복도의 천정을 열어 놓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끝이 끝으로 끝나고 만 것은 나의 매너리즘 때문이다. 검붉은 벽돌의 다가구주택들이 가득한 동네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왕십리를 내려다보는 조망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되었다. 집과 놀이터를 건너서 시가지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성토지반, 예산, 그대로 두어 달라는 요구)과 쉽게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동네 주민에게도 개방되는 놀이와 모임의 장소이자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집과 일체가 되도록 동선의 연결이 아닌 공간의 상징적인 처리를 시도하였는데 난해하였는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설득과 타협 중에서 타협을 택한 안이함은 결국 나의 탓이다.

이일훈 어린이 집은 그냥 탁아소가 아니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드나든다. 나는 매일 드나드는 부모들의 입장이 설계자의 좋은 디자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연관시키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이웃을 사귀고 수다떨고 그런 사랑방 같은 기능이 아쉽다. 증축할 때쯤이면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언덕

위에 있다는 장소의 특성도 살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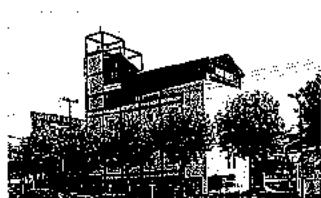
김인철 커뮤니케이션이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오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만나져야 하고 또 말 나눌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장소라는 단어 때문에 건축이 곧잘 만남의 장, 대화의 장 등 졸업작품의 제목 같이 거론된다. 나는 그런 날뛰기식 논리전개가 텁텁치 않다. 아무 곳에서나 기대어 서서도 좋고 담그는 아래 쭈그려 앉아서도 좋지 않은가? 완고하게 버티어 서서 갓 이사온 새댁을 쭈뼛거리게 하거나 현관 문틈으로 아이만 들어 미는 살벌함은 피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나자는 곳, 마주치는 곳, 그것이 만남의 장이고, 대화의 장일 것이다. 만났으니 대화를 나눌 장소가 필요하다거나 대화의 장에 들어왔으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리는 것은 동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뒤틀어진 것이다. 여자와 어린이만 있는 공간이어서 불상사를 염려하는 보모들에게 사랑방을 열어 둠으로써 오히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사랑방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할 공간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 집의 대지와 건축 전체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일훈 과정없이 말해 뚱뚱 콘크리트 덩어리 집이다. 특히 외부는 100% 콘크리트로 끝내고 있다. 재료가 지닌 물성과 아이들의 심성이 충돌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건축가의 의지를 앞세운 독단의 측면이 우려된다.

김인철 현대문명의 혐용시가 되어 버린 콘크리트의 상투적인 이미지를 객관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거칠고 투박하고 건조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하였다. 출근이 늦기 때문에 아침의 어린이 방송을 피할 수 없어 난감해 한 적이 많다. 어른이 이를 흉내내어 하는 말투가 내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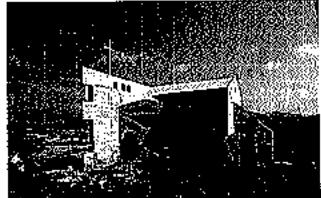
SOLSTICE('89)



OXID('90)



CAMPORTS('91)



EQUINOX('92)

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의 공간이라고 해서 둑근 창, 세로창 만들고 꼬깔지붕 만들어 알록달록 칠하는 것은 아이를 아이로 만 있게 하려는 어른의 기만이라 생각한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텅빈 벽을 아이들 앞에 놓기 위해 콘크리트는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온갖 것이 배려되어 있는 친절한 벽보다 단순한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함이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아가면 대상이 아이이거나 어른이거나에 관계 없이 건축의 물성과 인간의 심성이 만나는 점점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진다. 물성에 좌우되는 일蹶한 오늘의 심성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물성에 초연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철없는 아이들을 그릇된 물성으로 오염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소신일까?

이일훈 유사한 경험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노하우(Knowhow)하고 부른다. 그것은 결국 기술이다. 건축가의 노하우는 단순한 기술 자체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풀 것인가?

김인철 두 번째의 어린이의집이 끝났을에도 노하우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만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 모른다. 이리의 첫 번째와 성동의 두 번째는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혹시 형식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개념이 달랐기에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성격의 일이 다시 주어진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또 다른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모방 또는 연속되는 복제가 가장 두렵다고 한 어느 회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또 이년 후가 다를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도 보다 그렇게 하니까 안되겠더라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를 경멸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묘한 마조히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꾸준히 변할 것이 분명하다. 주변으로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평을 그래서 듣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전처럼 생각없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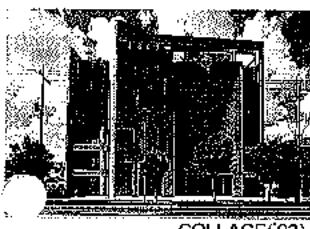
다. 또한다면 어떤 것이 만들어질지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일훈 「형태 만들기에 관심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형태는 만들어진다. 또 비웠다고 하나 「사이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지 속에서 결국 또 채워진다. 건축가로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김인철 물론 형태는 당연히 만들어진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건축의 시작을 형태로부터 끌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과로서의 형태 역시 부수적인 의지일 뿐이다. 이미지를 스케치할 때 투시적인 그림보다 배치도 같은 평면도를 더 많이 그리고 있다. 공간구성에 의해서 형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되므로 「Form Follow Function」을 「Form Follow Space」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이는 분명히 의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서 비어 있는 곳이 되지만 그것은 전체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속의 부분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무궁한 가능성을 갖는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규정되거나 고정된 장치와 기능을 갖기보다 확장과 응집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두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일훈 최근에 자주 말하는 「무성의 공간·없음의 미학」은 결국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일진데 그러한 허무를 드러내면서 만드는 건축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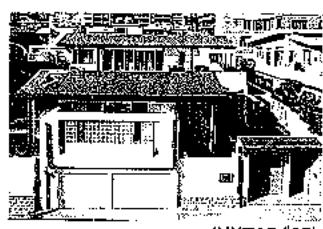
김인철 「없음」을 요즘의 회두로 삼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본적인 부정에서 비롯되었다. 무작정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분법으로 전개되기 쉬운 우리 작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빈곤한 머리와 여리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속성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더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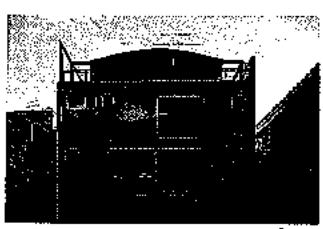
COLLAGE(93)



이리어린이의 집(94)



JUXTAD(95)



NOMAD(96)

도 있다는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다. ‘없음’이란 명제가 ‘허무’로 읽혀진다는 것은 의외다. 그처럼 낭만주의자가 되기에 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전쟁하듯이 집을 만들어야 할 지경에 감상적인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만

들어지는 것에 거는 기대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이다.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나 절제될 수 있는, 철저하게 의도되었으나 결코 드러나지 않는, 그러므로써 그것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대답 후기 우리가 건축을…

집구경은 신나는 일이다. 온래된 집은 사람사는 시간의 때가 배여 있어 녹녹하고, 새집은 자은이의 생각이 막 펼쳐져 신선하다. 건축가 김인철의 어린이집을 구경하자는 제안에 헤아히 응한 이유는 그와의 개인적 친분도 작용했지만 사실은 새집구경의 설레임이 주된 이유였다. 방문전에 받아본 간략한 자료때문에 나는 적당히 흥분했는데 그 이유는 그집이 자리한 곳이 내가 잘아는 언덕 꼭대기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곳에서는 여느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기가막힌 왕십리 지나 성동벌을 가르는 시원하게 트인 전망이 아차산을 부른다. 보통의 어린이집이 동네구석의 짜투리 땅에 혹은 쳐박힌듯이 마련된 현실에 비하면 위치의 프레미엄이 너무나 벅찬 것이었다. 나의 기대는 온통 언덕위의 전망좋은 집이 갖는 설레임 뿐이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저렇게 풀려야 된다는 건축적 해결은 솔직히 나의 관심밖이다. 그건 그 일의 총체적 리더인 건축가 김인철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사 후에 도면과 현장의 느낌이 다르거나 생각보다 달라보인다는 감상을 토하는 평론가나 건축가를 마음속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도면화된 정보가 정확하다면 어느 경우든 변함없이, 그려진 집은 세워진 집과 같아야 하고 또 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 꼭 현장을 봐야하는 이유는 건축내용의 즉흥성이 혹시 있나 없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교유하는가의 문제다. 건축가들의 제공에 의하는 정보는 때때로 주변을 생략하기 일쑤이고 부분적인 과장과 확대된 의미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집이 자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새집임을 알리는 프랭카드가 골목벽에 붙어 있다.

〈원아모집〉
꿈과 사랑의 교육마당
최고의 시설로 신축한 행웅어린이집

나는 다시 되짚어 생각했다.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꿈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가? 최고의 시설은 무엇을 말하

는가? 그걸 싸잡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건축적 제안이 교육프로그램과 적합하게 조우하거나 나이가 변화되는 여러 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은 첨단의 장비가 동원되지 않고도 공간의 첨단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게 최고요, 새로움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전위를 보이는 첨단은 보편의 영역으로 확장됨이 마땅할 것이고, 결국 건축이 기댈 곳은 공간이 가장 깊숙하다.

다시 나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자. 집구경 전에 기대했던 동네와 풍경의 호기심은 결국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김인철의 육성고백을 통해 솔직한 반성때문이다. 나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인철의 솔직함은 대화의 피로를 덜어준다. 나는 그의 그런 솔직함이 좋다. 그래서 편안하게 후기를 통해서 다시 밀줄을 그어본다. 그의 말중

- 건축가의 할 일이란 상식에 상장을 더하는 것
- 계산된 의도에 의해서 건축과 공간을 긴장시키기보다 풀어놓은 편안함에 관심을 갖는다.
- 아이들을 그릇된 물성으로 오염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
- 만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 모른다. 등 그외에도 더 많다.

그의 말은 말끼리 충돌한다. 왜 그럴까? 그의 말의 옥망은 손의 욕구보다 강하고 사고의 욕심보다도 앞서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만들어진 그집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가 따르기 전에 “설득과 타협 중에서 타협을 택한 안이함은 결국 나의 탓”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은 “~나의 매너리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의 반성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가 매너리즘의 굴레를 벗으려하는 강한 몸부림을 본다. 그 탈각의 몸짓이 무슨 동기때문인지는 나는 짐작 할 뿐 알 수가 없다. 그의 마음속을 읽는 재주를 갖지 못한 나는 다시 개진 설레임을 주워 담으며 그의 만들지 않으려한 사이를 이루는 건축의 모습을 떠올린다.

우리가 건축을…

〈이일훈〉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은 집 Where the Spatial Entropy is High

강 혁 /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by Kang Hyuk



1. 학교라는 배움의 집에 대하여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이 된다. 우리는 배워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배워서 더불어 살 줄 알게 되며, 배워서 무엇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 세상을 볼 수 있는 힘도 배움을 통해 얻어진다. 배움은 가르침과 연결되니, 교육은 곧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루어진다.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라면 가장 중요하고 큰 학교는 가정이고 사회이며, 더 크게 보아서 문화이다. 그것들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존재의 집이다. 그러나 제도화된 학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근대 사회의 시민으로 키워진다. 학교라 불리는 특수한 장소와 공간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품성과 쓸모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학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유치원일 수밖에 없다. “너는 소중하고 기본적인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 가장 많은 인간 형성의 경험을 얻는 배움의 집이 바로 유치원이다. 거기서 우리는 읽고 쓰는 일 이전의 몸기침과 삶의 규율을 습득하며 자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기관이 국민학교일 것이며, 다음이 중 고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먹고살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대학을 위해 모든 배움의 과정이 존재하고 종속되는 한국의 교육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잘못된 한국의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숙한 자아를 일구는 ‘장소’로서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기능적인 도구를 주조해내는 ‘공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었다. 거기에 공헌하고 스스로 일조한 것이 건축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규율과 훈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한국의 학교 건축 같은 좋은 예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건축에 대해 우리 모두 선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커다란 운동장과 그 뒤에 서 있는 큰 건물 한채, 기기 무서웠던 변소와 교문 곁의 마류나무. 그리고 그 밑의 철봉틀. 실상 초등학교의 공간 배치의 모범(model)은 일제의 막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거론한 훈육을 위한 판옵티콘적 공간-기계이

다. 일제의 병영을 번역한 공간 형식을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학교 건축으로 답습해온 우리의 무지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명칭변경함으로써 극복했다고 믿는 순진함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무의식 중에 그곳을 감옥으로 느꼈던 필자의 아득한 기억이 단순히 열등생의 그것 만은 아니었음을 자식을 다시 그곳에 보내는 요즈음 깨닫고 있다. 우리 건축계에서 학교 건축, 특히 초중등학교 건축은 버려진 황무지나 다름없는 미답의 분야이다. 이제까지의 반복해온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라는 배움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무의식 간에 반복하면서 굳어져버린 과거의 껌대기를 철저히 망각하고, 나무 아래 한 스승과 학생 간의 만남과 대화에서 학교의 시작을 본 루이스 칸과 같은 근본주의자적 자세로 학교 건축에 임하는 자세가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이다.

2. 유치원 건축에 대하여

유아원 혹은 유치원이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필자 세대에게 유치원은 잘 사는 집 아들이나 가는 특수 교육기관이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틈에 모든 아동들이 거쳐가야 할 관문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유치원이라는 배움의 제도와 그것을 담는 건축은 여전히 낯설다. 아니면 어설프다.

그것은 그 교육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솟속들이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80년대 이후 갑작스래 유치원 건축이라는 새로운 파지가 이 땅의 건축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치원 건축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니 어쩌면 유치원이라는 놀면서 배우는 집에 어떠한 고정된 형식도 필요없을 지 모른다. 그렇지 만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유치원을 지을만큼 지었는 데도 이 땅의 현실에 적실한 바람직한 유치원의 상에 대한 뚜렷한 전범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막사를 방불하는 초등학교 건축 만큼이나 문제적인 상황이다. 유치원 설계를 위해서 그동안 자주 인용되곤 하던 성장기 아동의 특수한 신체

조건과 심리 상태, 그리고 그에 필요한 환경계획적 대응 등을 되뇌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저절로 좋은 유치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우리 현실 상황에 적합한 유치원 건축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공간으로 풀어내는 능력이다.

그러한 근본이 결핍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유치원 건축을 원색으로 도배한 몽당연필이나 레고 모양의 장난감 형태로 만들어서 앤리스적인 원더랜드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환상과 경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디즈니식 발상도 필요할뿐지 모른다. 그러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아동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공동 생활을 배우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지각하는 생활의 장소이기에 그곳은 일상 생활의 터로서 집의 연장이자 현실 망각의 공간은 아니다. 공간을 통한 삶의 즐거움과 호기심 유발은 보다 고차원적인 공간·장치를 통해서 유발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시각적인 자극으로 아동을 유혹하는 유치원 건축은 그 안에 교육을 상업화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시중에는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벼랑별 종류의 사설 학교들이 난립하고 있다. 아무나 아동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가 사업성과 결합한 터일 것이다. 구미에서는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과 어려움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경험을 가진 아들 만이 교육을 담당한다고 들었다. 우리는 유치원 건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릴수록 자신이 거하는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 건축이 가장 까다롭고 진지한 프로젝트여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3. 행동 어린이의 집에 대하여

김인철이 설계하여 지은 행동 어린이의 집은 산비탈 자락 달동네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집에 대한 주변 설명과 설계 의도는 건축기가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다만 이 집이 생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해야하는 저소득층 부부가 애들을 맞겨놓는 탁아소겸 유치원으로 구청에서 건설비를 댄 공공 시설이며, 과거에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집이라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산동네에 자리잡고 있지만 놀이터와 마당이 있고 단층이라는 점에서 아파트촌이나 중산층 동네에 흔한 상가식의 유치원 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자지고 있다. 이 집은 여느 유치원과는 사뭇 다르다. 평면의 구성이 그러하고, 형태가 그러하고, 재료가 그러하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이 집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평면 구성과 단순하기 짝이 없는 삼자각 형태, 노출 콘크리트라는 무기적 재료의 사용을 문제삼아 어린이들의 심성과 행태를 무시한 채 건축기가 자기의 건축적 취향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억압적인 건축이라는 시

각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기능적인 의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막사식의 공간 조합이나 아동들을 위한 배려어린 장치가 눈에 띠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 있다. 필자도 처음 건물에 들어서면서 잠시 그런 오해를 했다. 그러나 찬찬히 건물을 둘러보고 내부의 공간들이 지어내는 분위기와 아동들의 공간 이용 행태를 관찰하고는 전혀 반대의 시각에서 이 건물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일한 공간의 유형학이 그 스케일과 조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선 이 건물은 개별 공간들이 고유의 성격을 부여받아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전혀 담고있지 않다. 다양한 행위를 가능하게 할 중심적인 공간이 단순 명료한 평면 형식 내에 담겨져 있을 뿐이다. 건물 외부 가로에 수직하게 뻗은 중앙 복도에 크기를 달리 하는 방들이 날개(wing)되어 붙어있는 평범한 배치는 특별나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종 건물이라는 호조건 때문에 마당을 두고 각 방이 한옥의 마루나 사랑 같은 공간- 그러나 그보다는 공간 밀도가 높은-을 만들고 있다. 마당과 방 사이에는 공간의 역전이 일어나 미당이가 방이 되고 방이 미당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미당은 방 못지않게 비중있는 공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공간(served space)과 서비스 공간(servant space) 사이의 관계 역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 건물 내부에는 아동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해 놓은 장치나 내밀한 공간이 눈에 띠지 않는다. 그 대신 사용자를 위해 건물 전체의 스케일을 낮춰 놓았기에 친밀하고 아늑한 공간감을 이루어냈다. 처음부터 유치원 용도로 설계되었기에 차수와 척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 건물 규모가 조그마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미리 지은 근생시설에 내부를 꾸며 조성한 여느 유치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는 여기에서 오고 있다. 작가의 전작 중 목격되는 스케일의 축소가 다소 작위적이라 느껴지는 데 비해 여기서는 자연스러움을 확보하고 있다. 이 집은 필자가 여러 해 전에 방문한 바 있는 안도 다다오 설계의 일본 관서 지역 소재의 어린이의 집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동일한 기능에 같은 노출 콘크리트 조각지만 안도의 것은 스케일의 장대와 공간 연출에 대한 의욕이 내부 사용자의 활동과 꾀리되어 있음을 느꼈다. 공간의 분위기도 안온하기보다는 긴장되고 차가웠다. 행동 어린이의 집의 경우 노출 콘크리트 조각 야기시킬 수 있는 셀렁한 공간을 만들 위험은 최소한 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가 행동 어린이 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한가지는 이 건물의 공간 구성이 아동들로 하여금 상당히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와는 달리 이 건물의 평면은 아동들이 다양한 통로와 출구, 계단과 경사로, 마당 등을 통하여 여러 장소와 방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각각의 공간은 단절되어 독립되어 있기보다 연결되고 이어

져 있다. 아동들이 자기 식 대로 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집인 셈이다. 외관상의 재미 속에 통제의 의도를 담고 다른 유치원과는 반대이다. 팔자는 공간 내에서 활동의 자유도 가크며 변화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다고 표현하는 데, 이 집의 경우가 그러하다. 엔트로피가 지나치게 크면 혼란도 커지며 궁극적으로 미로 같은 혼돈의 공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건물은 실 배치나 동선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동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엔트로피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물은 여전히 경직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공간 그 자체가 변화 있고 풍요롭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자의적이고 극적인 공간의 연출을 억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매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단조로울 수도 있는 공간이다. 자연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건조함을 완화시켜도 좋지 않았을까? 특히 마당을 인공적인 공간으로 놔두기보다 나무 같은 생명체의 도입으로 계절과 자연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더 좋으

리라 생각해본다. 무분별한 곡선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호가 그리는 부드러움과 운동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저예산을 가지고 이 모두를 성취하기는 무리이다. 하지만 아직 손보지 않은 외부 공간들에도 조경과 디자인적 배려가 가능해져야만 이 집이 살리나리라는 점은 특별히 지적하고 싶다.

4. 맷는말

김인철의 행운 어린이 집은 여러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습화된 여타 유치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좀더 섬세한 부분까지 손길이 미쳤으면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의 가능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한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더구나 달동네의 아동들에게 편하면서도 색다른 공간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집은 방문하는 이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이 집은 아직 완성되어 않았다. 건축가는 남아있는 기존 건물을 헐고 별동을 새로이 덧붙일 것을 꿈꾸며 현재의 건물을 설계했다. 전체의 건물이 완성될 때를 기대하며 이 집이 동네의 진정한 코뮤니티의 장으로서 정착되길 빈다.

1. A Place of Learning: The School

We become a true human being only after our learning. Our speaking and thinking only comes after our learning, and it is then when we realize how to live together, or to create things. Learning provides us how to look at the world. Learning is possible when someone else is teaching, therefore education gives birth to true human beings.

The place for education is the school, and in its broadest sense includes home, society, and ultimately the culture. These are the house of existence that has allowed my own one. But we must never fail to value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through there where we finally become a citizen of contemporary society. In a specified place and space, usually known as school, we grow up to be a man of good character, welcome to the society. The first, therefore most important, educational institute one comes across is the kindergarten. Some best-seller bears the title "I've learned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hings in kindergarten", but it is needless to mention it here: Kindergarten simply is where we enter for the first time of our lives, and experience life that develops you into an independent human being. Before reading and writing, we learn to accept the orders of living in kindergarten. Next will come elementary school, and then the middle school followed by the high school. In this respect, our own tendency to submit every other educations to the university, which is essentially an academy teaching people how to earn a living, is thoroughly mistaken. The falsely oriented educational system of Korea has made the school, not a 'place' for developing the individual's possibilities and maturing their personalities, but a 'factory' that produces functional human resources. And the architecture has only contributed to this degradation. To look for an exemplary case of school architecture in the ag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doesn't seem too hopeful.

We all have a memory of the elementary school - A long, linear building standing behind a big playground, perhaps a restroom that you were afraid to go to, a tree next to the main gate, and the horizontal bars under them... This so-called model of elementary schools was directly borrowed from the Japanese,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Panopticon space-machine in Michel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he casual application of Japanese military facilities to our elementary school could never be overcome by simply changing its Japanese-based title. As I look at my son who goes to the same kind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at I had attended, I sense that my unconscious impression of them as a prison was not totally a feeling of my own.

In Korea, school architecture,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is a neglected field. To break away from this vicious repetition, we must look into the basic idea of school as a place to learn. It is helpful to think of Louis I. Kahn's essentialist approach, which viewed the beginning of school in the meeting of a student and a teacher under a tree.

2. On Kindergarten Architecture

It isn't long since the essential role of kindergartens and nurseries begun to be fully acknowledged. In my childhood, they were strictly limited to wellborn, wealthy kids; now it is a necessary course in education. But the system and the architecture that contains this early education is still very remote, or rather awkward. It's because the education system has not yet thoroughly developed into the lives of the people, or because the urgent request for kindergartens in the 80s still has unprepared architects in confusion.

Contrary to the elementary school, we do not have a memory of kindergartens. We did not even have a formal set of cognition on the kindergarten as a place of playing and learning. But what is disappointing is that, now when we have a large number of kindergartens nationwide, we still do not share an ideal image of this institute. This is even more problematic tha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s.

What were often mentioned in the design of kindergartens were the architect's standard data on the physical dimension of its young users, their psychological patterns, and its requested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These, however necessary they are, do not itself derive a good kindergarten. What we mostly need is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a kindergarten that our age needs, and the ability to build it into space.

And this is what we lack – and the kindergartens are becoming more like Alice's Wonderland. These sort of "Disney" ideas will surely present fantasies and dreams, but the kindergarten is far too important to be left in illusionary space. It is where children, for the first time, leave home and become socially involved, acknowledge himself/herself as a social member. Luring children by visual extravaganza is a symptom of education's excess commercialism. There actually exists various kinds of institutes for pre-kindergarten children, a joint result of commercialism with a naive belief that anyone can be qualified for teaching. In the West, where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eaching this early age is recognized, only the highly-skilled in this profession are qualified. This exemplifies how relatively easy we consider the education of kindergartens, and its architecture.

3. On Hang-Ung Children's House

The Hang-Ung Children's House, a work of architect Kim InCheurl, is located at a ghetto area on a hillside. The introduction on this project has already been addressed by the architect, but I'd like to note two points; that it is a kindergarten and nursery, built by the regional administration office, where low-income couples, both inevitably contributing to the income, can take their children, and that it replaced an old house that served the same function. Although it is at a ghetto area, a single story building with a playground and a lawn is not a bad condition, even better than the ones in high rise apartment areas. Its composition of plan, form, and material also shows much difference to the usual kindergartens, and this can be valued either positive or negative,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First, its simple form of a box containing a rigid and mechanic plan, materialized in cold exposed concrete could be criticized as an oppressive architecture, where the architect, with no concern for its users, maintained his much-too-personal vision. Its first impression actually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boxes" that constitute most of our education facilities.

This was also a view that I shared, at least in the first glance. But experiencing the Children's House, feeling the atmosphere the interior space creates and watching the children's activities in them, I could find a totally opposite virtue. The simple truth, that the same topological dimension can be so different according to its scale and composition, could once again be proved.

The space of this architecture does not intend to induce the user's specific activities by the specifically classified volumes. The neutral plan, where anything is possible, dominates the overall design. Various sizes of rooms attached to the long, horizontal center corridor is not so unusual in its type, but its single story allows each of the spaces to, although more dense, present an atmosphere of Maru or Sarang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between the garden and the room, a spatial subversion occurs, where the garden becomes the room and the room becomes the garden, which proves that the garden is as meaningful in the design as the rooms.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ed and the servant spaces seems to be functionally fit.

There are no special gadgets or specialized spaces to amuse its little users, but the diminished overall scale forms a friendly mood for them. This could be possible since it was intended as a kindergarten in the first place, and the building area was relatively small - there are other usual cases where the kindergarten is inserted into a already-finished neighborhood facility. The architect's past tendency to reduce the architecture's scale finds its most reasonable justification in this project. This scale, used with exposed concrete, creates an effect quite the contrary to Ando Tadao's architecture. Ando's buildings, with large scale and unusually strong form-will, where the atmosphere is rather tense and cold than comforting, disconnected itself from the heart of its users, whereas the Hang-Ung Children's House already overcomes the use of the material. Another point I'd like to value in this project is that its spatial composition allows so much freedom to the children. Its plan, unlike the first impression one might get, connects the rooms to the path, the exit, stairs, ramp, and the garden. The spaces are connected so as to let the children play around with the utmost freedom. This is the opposite from the static plans of visually amusing kindergartens. I enjoy the expression of 'high entropy' in a space where activities and changes are open, and this project certainly deserves this praise. Enabling the children's creativity within a clear distribution of spaces and circulation is where its most important achievement can be found. But in respect of entropy, its interior has shortcomings when we consider its diversity. Overcoming the lure of creating overly-eager spatial effects is welcome, but it could be monotonous to its everyday users. Some natural materials could have helped to ease the silence of the exposed concrete, and the garden could also be less artificial, allowing the children to feel the changing seasons. Solving every problem with so less money is always a limit, but some care for its outdoor spaces could surely enhance the appreciation of this house.

4. Conclusion

Architect Kim InCheurl succeeds in creating an alternative kindergarten, in a relatively tight condition. Some subtle touches are missed but since it presents another method in school architecture, the overall achievement could be positively valued. Its importance is doubled as it is constructed in a ghetto area, presenting joy to its children. This building is not yet finished - it awaits a new addition in the near future. I look forward to its completion with hopes that it will become a true gift to the community.

선사에서 현재까지 인천의 성장과 발전

From the Ancient to Today : The Rise and Development of Inchon

문상범 /인천연수고 교사
by Moon Sang-Boem

1. 근대 이전의 인천

선사시대의 모습을 이는 것은 그 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의 흔적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천지역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익동, 관교동, 만석동, 주안동, 영종도, 용유도 등지에서 돌도끼(石斧), 돌화살촉(石鏃), 돌검(石劍)등의 간석기(磨製石器) 몇 점과 매우 적은 수의 토기가 발견되었고, 문학동, 학익동, 주안동에서 청동기 시대 부족장들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고인돌이 발견되었다.¹⁹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인천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는 점차적인 세력을 갖춘 진단이 성장하여온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 이후 인천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나
타난 것은 기원전 1세기 때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형 비류가
문학산 꼭대기에 나라 터를 잡으면서이다. 대체로 인천의 역사
를 이야기할 때에는 비류 백제부터 시작된다. 이때의 인천의
지명은 미추홀(彌鄒忽)이었고, 이것이 인천의 철 이름이다.

문학상을 중심으로 창건된 비류 백제의 영역은 땅이 습하고 척박하며 물이 짜서 농경과 취락 발달에 매우 불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폐망의 길을 걸었다고 고문현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서해안과 통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동시에 해산물과 소금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단순히 농경에 불리하다 하여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송도 근방에 있는 능허대는 비류왕 시후에 인천지방을 병합한 백제의 사신이 중국을 오가던 바닷길의 오충지에 해당된다. 근초고왕 때에는 인천을 근거지로 강력한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이 교통로를 통해 중국 요서지방을 지배하였다. 이후 100여 년간 백제의 사신들이 중국을 오가는 데 이 길이 이용되었다. 아마 비류도 이러한 까닭으로 인천을 도읍지로 나라를 세웠으리라 여겨진다. 비류 백제의 몰락과 함께 인천은 삼국의 대결장으로 변하여 백제 땅에서 고구려 땅으로 넘어가 마소흘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다시 신라로 넘어가 소성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인천은 외세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만다. 그것은 인천에 남아있는

지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의 진산인 소래산(蘇來山)이나, 덕적도 옆에 있는 소야도(蘇爺島)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들어와 미물던 곳이라 하여 유래된 이름들이다. 한동안 역사의 중심에서 벗겨있던 인천이 그 전면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고려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왕조의 교체와 도읍지 변천은 한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놓는데 인천지방은 고려의 건국을 계기로 왕도에 가까운 고을이 된다. 고려시대 역사의 축은 고려, 송, 여진, 거란으로, 각국은 팽팽한 대립 속에서 치열한 외교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고려의 도읍지 개경은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고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인천은 한강과 예성강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위치하므로 조운로와 대외 무역로가 통과하는 중요 지점이다. 예성강에서 인천 앞바다, 자연도(영종도), 덕적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은 송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선이 빈번히 왕래하는 뱃길이었다. 이러한 전략적인 면으로 인천은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인천은 왕실 직할지인 경기도에 편입되어 지위가 향상된다. 이후 인천의 행정적 지위는 계속 향상되는데 그것은 인천을 본거지로 하는 명문 거족 세력들²⁾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주(仁州) 이씨³⁾ 세력은 왕실과 혼인을 맺어 왕비를 계속 배출하여 문종대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7대 80여 년 간 왕실의 외척으로서 문벌 귀족정치 시대의 대표적 기운으로 영화를 누리고, 인천은 '칠대 어향(七代御鄉)'으로 불린다. 이 힘이 인천 토호 세력인 이자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으킨 난의 토대가 된다. 연수동에 인주 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와 사당이 원인재가 있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인천은 다시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새로운 체제와 질서 앞에 구세력(고려)의 토대인 인천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로써 인천은 철저히 정치무대에서 소외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평지역이 떠오르게 된다. 원래 부평은 인천과는 다른 배경으로 분리 성장하여 왔는데 부평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조선 건국초 부평 심씨 세력이 정도전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도전의 물략으로 그 중요성이 반감되기는 하나 조선시대에는 줄곧 부평지역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인천의 소외는 19세기 말 외세의 위협이 가해지며 인천의 전략적 가치가 재인식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개항 이후의 인천

인천이 근대적 의미의 도시로 성장하며 역사
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조약이
맺어져 부산(1876), 원산((1880)에 이어 1883년 인천 제물
포에 청국과 영국이 동시에 진주되었다.

1) 이경설, *석기시대의 인천*, *기전문화연구* 3, 1973, 16-17쪽

2) 인천을 본관으로 하는 고려 시대의 토호는 인천의 죽씨, 級씨, 막씨, 河씨, 袁씨, 부평의 죽씨, 級씨, 막씨 등이 있다.

3) 경원(慶原) 이씨라고도 하고 현제는 익현 이씨라고 하

포가 개항이 되면서부터이다. 인천의 개항이 강화도조약 체결 후 7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 강압적인 일본의 태도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특히 인천은 수도 서울이 가까워 민심의 동요가 우려되었고 이미 제물포항은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조선의 국제 정치·외교의 항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개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항구를 개방하여 사람과 물을 드나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민의 거주를 허용하는 동시에 그들이 거주할 토지와 그들 전용의 공동묘지를 대여 또는 불하를 통해 설정하며, 항만시설의 축조 혹은 이용을 규정하고, 세관 규정을 정하는 등의 거주에 따르는 각종 특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천은 개항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먼저 일본은 한적한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제물포를 조선침략의 교두보로 삼는데 이는 인천의 토착세력 중심지인 인천도호부, 부평도호부 지역을 피해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함으로써 토착세력의 해체를 시도하여 보다 쉽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후 일본의 의도대로 인천의 중심은 오늘날의 하인천, 동인천 지역으로 옮겨지고 새로운 중심지에는 일본인, 중국인, 외국인의 거류지가 형성되어 이 땅의 주인들은 한쪽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게 된다.〈그림1, 2〉

이들 거류지중
일본 지계는
1883년 일본
영사관(현 중
구청 자리)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 중앙동
지역 등 자유
공원의 남서면
쪽 평탄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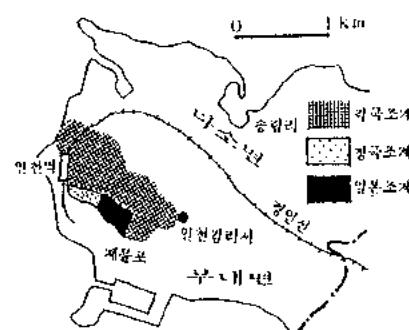


그림 1. 제물포 개항장(1910년) (자료 : 인천시사)

역 7천여 평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일정한 구획을 확정하여 작은 목조건물을 많이 두었고, 주택은 영사관 등 관청 양쪽으



그림 2. 인천시가도(자료 : 인천부사)

로, 영사관 앞쪽으로는 각종 은행, 상사, 해운회사 등 업무 지구를 형성하였다. 그 밖 해변가에는 창고 건물을 지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당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거리와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일본지계는 개항 10년이 채 못되어 심각한 토지난예 봉착하자 각국 지계와 내동, 담동, 전동으로 뻗어갔고, 항동, 해안동, 만석동 등지의 해변을 매축하여 점거하게 되어 일본인은 인천시 전역에 걸쳐 거주하게 되었다.

청국지계는 1884년에 자유공원의 서남서면의 경사지인 선린동 일대의 언덕을 중심으로 약 5천여 평이 해당된다. 건축물들은 벽돌로 지은 대규모의 건물이 많았고, 도로는 일본지계보다 넓었으나 지형조건 때문에 가로망이 일본지계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못하였다. 지역분화를 배려하여 고지대에는 주택을, 중간지대에는 공공시설을, 저지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였다. 이 건물들은 6.25 전쟁 중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지금도 독특한 난간의 빛비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중국식 건물들과 그 주인들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급증하는 한중 교류의 물줄기 속에서 새 단장을 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지계는 '각국지계'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송

4) 김용희, 인천 개항 초기의 시기지 형성과 변천, 연하대 건축과 석사논문, 1982, 9쪽
5) 최성언, 개항과 양민억정, 1969, 30쪽



각국지계의 거리
- 성공회 교회



일본지계의 거리



조계지 거리

학동, 송월동, 만석동, 북성동 일대 항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로 무려 14만평이나 되었다. 이 안에 있는 응봉산에는 우리나라 첫 서구식 공원인 만국공원(지금의 자유공원)을 만들었고, 외국인 공동묘지도 세웠다. 또 자치를 위해 지금의 인성여중과 자리에 시공서, 시의회, 경찰서 등을 설치하였다. 이곳에 거주한 구미계 주민의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우리에게 미친 문화적 영향은 지대하였다. 즉 구미계 선교요원들은 교육·의료 사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구문화를 전달하였으며, 해외유학생의 파견으로 한국인이 서방세계에 진출하도록 자극하였다. 또한 각국지계의 도시계획법과 건축양식은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당시 한국인들이 내동, 경동, 전동, 화수동, 을목동, 송림동, 금곡동, 창영동, 도원동, 유동 등에 주로 거주하였다. 내·경동은 상업지역이며, 을목동은 부촌이었고, 송림동, 송현동은 빈촌이었다.

이와 같이 인천의 개항은 인천의 시가지를 번모시켜 중국인 마을, 일본인 마을, 서양인 마을과 한국인 거주마을 등으로 나누어져 각기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나 인천의 근대 도시화 과정이 한국인들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들, 특히 일본에 의해 주도되어 당시 한국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

한편 경인선 철도의 부설은 인천의 도시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경인선은 1899년 제물포(지금의 하인천)를 기점으로 노량진까지 33.2km가 개통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된다. 경인선은 당초 부설권을 갖고 있던 미국인 모尔斯에게서 일본이 부설권을 인수하여 건설하였다. 당시에 만들 어진 근대적인 시설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생활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물론 철도의 부설도 외세가 자신의 조선 진출을 기속화하고 조선을 자기나라의 상품소비지와 원료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다. 또한 철도의 부설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것 이므로 외세의 경쟁이 치열하여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부터 토지의 무단 점령이나 헐값 매입 등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인천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실상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군사적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되었고, 지금도 경인선의 역기능이 심각하다. 경인선은 일제의 침략 의도에 따라 인천의 구읍인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 지역을 비켜 논밭이나 매립지, 염전지대를 통과하게 되어 경인선을 따라 새로운 시가지가 발달한다. 반면에 경인선에서 비켜 선 토착세력의 근거지는 점차 낙후되어 경인선 주변지역과 심한 지역격차가 생겼다. 또 한 경인선은 인천을 반으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경인선의 건설로 인천의 서울 지향성이 강화되어 인천의 정체성이 악화되고 소외감이 증폭된 것이다.

그리고 외세의 치열한 각축전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의 세력이 급속도로 강화되어, 일본인의 유입이 급증한다. 그 결과 일본인 거류지를 확장해야만 했다. 일본인 거류지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해면 매립을 통해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안 매립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였고 새로운 시설을 제멋대로 설치하였다.

〈그림 3〉

계속된 해안 매립
공사로 제반 도시
시설이 설치되어
개항 전의 단순했던 인천의 경관은
많이 변화하였고,
인천의 지도 모양
이 많이 바뀌어서
근대도시 인천의
기본골격이 이루



그림 3. 월인천지역의 지형(자료 : 인천시사)

어졌다. 해안매립은 옹지난의 극복 외에 항만정비의 이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인천의 도시근대화는 개항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인천의 개항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이후 인천은 일본침략



청국조계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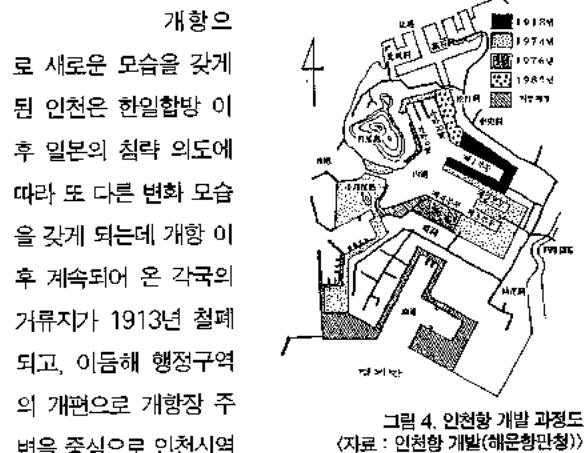
청국조계지의 거리



일본조계지의 거리

의 전진기지로 이용되었다. 이는 민족의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항장 가운데 부산과 원산이 대일 무역항 내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구실을 담당한 데 비하여 인천항은 수도의 관문이란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여 서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개항장이 되어 우리나라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의 발달은 인천항의 성장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항은 항구로서 불리한 자연 조건을 인위적으로 극복하여 오며 인천의 공간확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항 이후 해안 매립, 빙파제 건설, 등대 설치 등의 항만정비공사를 계속해 왔으나 청일 전쟁후 급증하는 물동량의 처리가 어렵자 1911년에서 1918년에 걸쳐 2종 갑문식 도크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제1도크는 면적이 약 3만평으로 4,500톤급 선박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해마다 급증하는 물동량과 만주사변 이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서의 인천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 제2도크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어 1935년에는 인천항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제1도크의 5배 크기인 제2도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1943년에 중단되고 만다. 그후 1974년에 1만톤급과 5만톤급의 수문식 도크를 각각 1기씩 건설하여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며 항구도시로서의 인천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그림 4)



이 국한되어 부(府)로 승격 독립되는데, 이때 인천의 잔여 지역과 부평군이 합해져 부천군으로 되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서의 공업화 정책을 시도함에 따라 공업용지와 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해 시역을 확장하게 되었고, 1937년에는 최초로 도시계획령이 공포되었다. 그후 1940년에 다시 시역을 확장하는 등 계속하여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을 통해 시역을 넓혀 갔다.〈그림 5〉

개항 이후 인천

온 근대 항만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계속된 해안매립과 근대 공업시설의 설치로 일제침략의 발판이자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하며 개항장을



그림 5. 인천市域의 변화(자료 : 인천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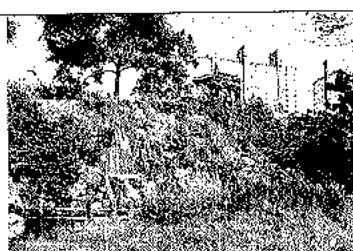
중심으로 근대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의 성격을 형성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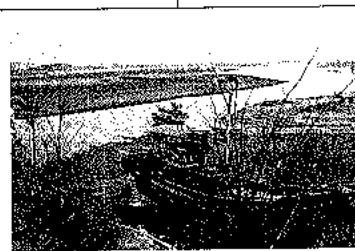
그림 6. 1931년 당시의 인천(자료 : 인천시사)

3. 현대의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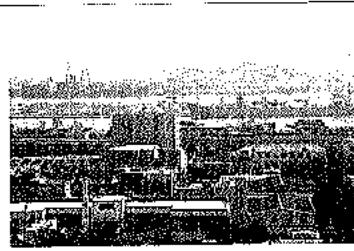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였고, 이후 인천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격동기



능허대지의 현재 모습



마지막 소래포구



인천항구

를 거치면서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한 발돋움을 시작한다.

모든 산업이 민족산업으로 재편성되고, 도시화도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으나, 생활기반이 없는 피난민과 농촌 인구의 유입으로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과잉 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경인지구 특정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공업단지가 계속해서 건설되어 산업개발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원자재 수입과 제품의 수출을 위해 항만시설이 정비되고 경인선의 복선화와 전철화가 이루어지고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국 근대화의 선도적 위치를 계속적으로 지켜 왔다. 그러나 점차 중심성의 지향이 높은 상업이나 도매업은 서울의 상권으로 흡수되고, 일상생활의 상업중심가는 분산되어 시가지의 형태는 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및 도로변을 따라서 발달하여 구 시가지와 부평 시가지가 서로 연결되었다. 이후 인천시는 계속 확대되어 1981년 7월 1일에는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5년 1월 1일 옹진군과 강화군, 그리고 김포군 검단면이 통합되어 광역시가 되어 오늘까지 계속된 성장을 해 오고 있다. (그림 7,8,9) 오늘날의

인천은 꾸준한 항만개발과 경인공업지구의 형성으로 항구 도시이자 상공업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지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권의 절대적인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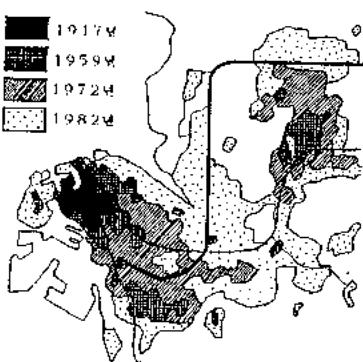


그림 7. 인천의 시가지 확장
(자료 : 한국지자(건설부, 국립자리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정세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끝내고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한·러 수교가 성사되어 동북 아시아 경제권의 중요성이 높아만가고 있다. 인천은 백제시대 이후 대중국의 중

요 교역창구였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인천의 입지는 들통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의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이 인천의 새 모습 찾기 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수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인운하건설사업, 경인전철 복복선화 사업, 송도 해상도시 개발, 영종 융유 지역에 건설 중인 신국제 공항과 국제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은 남북교역의 중심지이고 대중국 교역의 발판으로 삼아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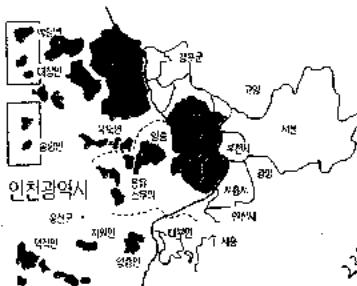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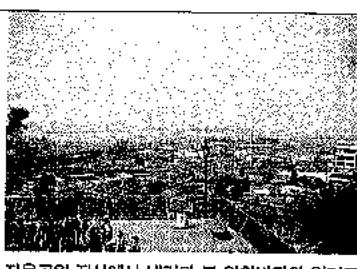


그림 9. 오늘날의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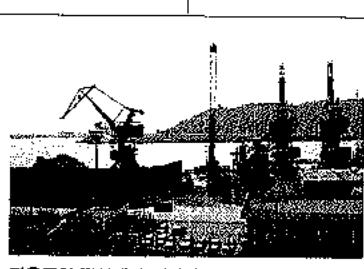
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인운하건설사업, 경인전철 복복선화 사업, 송도 해상도시 개발, 영종 융유 지역에 건설 중인 신국제 공항과 국제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은 남북교역의 중심지이고 대중국 교역의 발판으로 삼아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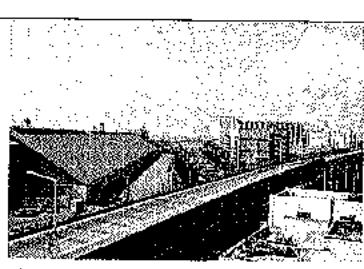
- 인천부청, 인천부사, 1993
- 건설부 국립자리원, 한국자자, 지방편 1, 1984
- 인천광역시, 인천 개항 100년사, 1983
- 인천광역시시립한우원회, 인천시사, 1994
- 이경식, 석기시대의 인천, 기전문화연구 3, 1973
- 최성언, 개항과 양관역경, 1959
- 김용희, 인천 개항초기의 시가지 형성과 변천, 인하대 건축과 석사논문, 1982
- 심재만, 인천 시가지의 성장과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 건축과 석사논문, 1986



자유공원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인천바다와 월미도 주변



자유공원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인천바다와 월미도 주변



인천시내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구영민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용인하는 배금의 상흔, 아무 구석이나 병풍 세우고 아무 벽이나 족자 거는 졸부의 취향… 이들의 짐짓기, 글쓰기 그리고 마음쓰기의 모든 모토는〈주변은 둘보지 않는다〉이다.

- 김영민의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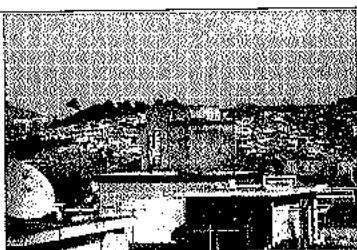
최근 인천은 용진, 강화군을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며 광역시로 새출발을 했다. 대단하게는 서해의 관문, 작게는 서울의 위성도시 품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인천은 광역이라는 접두사를 달고 총 138여개의 유·무인도를 포함하는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가진 최대의 도시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라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서면 곧 크고 작은 공장들과 아파트, 연립주택들의 산만한 전개로 인하여 새로운 광역도시에 진입한다는 느낌에 앞서 서울의 언저리쯤에 도달한 느낌을 받게된다. 경계의 소멸, 중심의 부재, 입구와 출구의 불확정성 등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이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게된다. 더구나 인천은 분명 항구도시인데 다가갈 수 있는 바다가 없다. 다만 올림포스 호텔이나 자유공원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와 배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르던 시절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심정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 바다가 무슨 원수리도 되는 듯이 도처에서 메우고 막고 덮는 통에 그리움에 대한 낭만은 없어진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제와 광역도시

의 환상은 그야말로 인천의 구석구석을 뒤덮어 놓고 있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도시 개발에 열중이다. 인천 향토사의 젊줄이었던 문학산 줄기의 한쪽 끝이 붕괴되는가하면 진짜 때려부수고 싶을 정도로 눈에 익은 고층 아파트들로 가려지고 있는데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동과 수탈,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개발의 득지에 늘 수동적인 대상¹⁾이었던 우리네 형편에서는 눈을 들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다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행정가들이 지방자치를 한답시고 벌여놓은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심하다 못해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어느 지방 도시를 기든 명당자리엔 우스울 정도로 비대한 규모의 신청사가 들어가 있다. 문화회관,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은 이제 지방자치제의 문화(文禍)단골 메뉴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 지배체제에서 지방호서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화강암덩어리들이 우리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내일 일도 감당치 못하면서 그 놈의 '백년대계'를 열심히 외쳐대는 걸 보면, 그래도 앞날이 두려운 것일 게다. 100개의 공장보다는 천년을 내려온 개펄이, 스타디움보다는 철따라 색이 변하는 산이 백년대계라는 상식은 혼란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논리와 추세에 암도되어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새술은 새포대에'라는 상황적인 경구를 교리로 부상시켜 시민들을 쇄뇌하고 거대 도시 구상과 함께 역사와의 단절을 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일획을 긋겠다'는 신념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자칫 우리는 정체성 회복의 시기에 정체성 상실이라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도시를 다녀온 거개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왜이래?'하고 푸념을 늘어 놓는 것은 외국에서 보았던 근사한 건물들에 대한 부러움때문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도시언어를 통하여 형성된 컨테스트에서 풍기는 그 도시들만의 정체성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인천과 같이 이구석 저구석을 찢어내면서 성장해온 도시에서 일정한 흐름을 타고 온전히 이어져 온 인천성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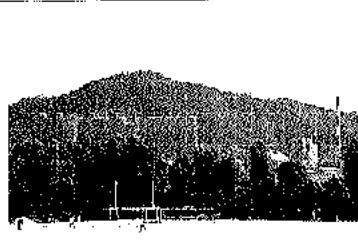
1)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p. 112



인천시내



매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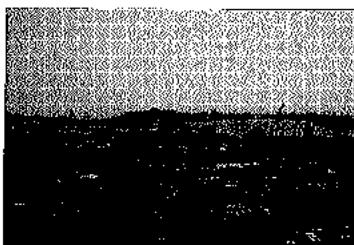
문학산

때 사람들은 흔히 시각적인 다른으로부터 오는 특정 도시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배경과 함께 그 속에 배어 있는 정신적인 줄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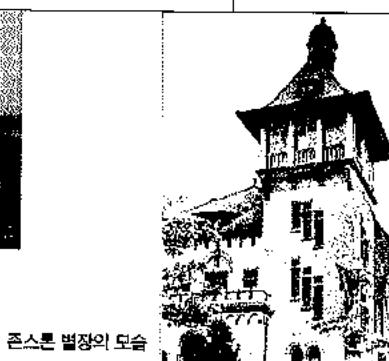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무어란 말이냐? 혼돈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의 질서인 것이다.”

-로버트 벤츄리 「라스베가스의 교훈」-

콜린 로우(Collin Rowe)는 도시를 '기억의 극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인간의 열망과 좌절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기록이 쌓여 있는 장소로서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으며 과거와 영원성의 초시간적이며 동시적인 혼존을 뜻하는 말이다. 인천은 특히 개항으로부터 연장된 근대도시로의 발전을 담고 있는 한 편의 기록영화를 연상시킨다. 또한 로우는 「꼴리주 시티(Collage City)」에서 맥락주의(Contextualism)나 충돌의 도시(Collision City)와 같은 이론들을 성립하였는데, 이는 인천을 좀 더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심리문화적 배경(Psycho-cultural field)으로서 모든 종류의 맥락에 가치를 두고 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맥락주의는 장소와 문화의 독특함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이론으로서 근대건축과 도시의 억측된 보편성을 견제하며 획일화된 양상에 저항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내의 충돌(그리드의 충돌, 시간적 충돌의 의미)은 개발의 독재가 횡행하였던 근대도시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주로 미개발지역이나 수변 또는 주요 조경지역과 결속할 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돌(Collision)의 문제점이 도시내부에 위계성과 중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도시의 맥락을 훌륭한 구성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리네 도시의 모습이 어눌함과 즉흥성, 그리고 덜 성숙된 조형들이 이루는 불안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과거와 항구 도시의 혼적을 통한 인천만의 아우라가 있을 법하다.



인천바다와 도시



존스톤 벌장의 모습

근대화와 근대건축이 미국의 도시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실을 꼭로하였던 제인 제콥스(Jane Jacobs)의 비관 속에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풍토적 친근함과 존속 가능한 이웃에 대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벤츄리(Robert Venturi)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통념적인 것을 사용하여 비통념적인 것으로 만드는 혁명함으로, 20세기말 도시인천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 꿈은 아니겠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리어왕」1막4장 -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천은 오히려 일정시대가 향구도시다운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들 말한다. 그들의 말은 인천이 일제문화의 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천의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지역문화, 즉 인천의 각 국지계(各國地界)가 어우러진 자유공원 기술과 바다, 그리고 월미도를 연결하여 보존되었던 시대를 통틀어 일컫는 것일게다. 사실 얼마되지 않은 과거에 인천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거의가 인천 곳곳에 서있는 양관들의 모습에서 조금은 미국의 정취를 느꼈으며 낭만적인 멋에 젖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양의 미향에는 이를 수 없을 지라도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의 요코하마 정도의 이그조틱한 멋이라도 있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 그나마 몇 안되는 양관들은 여관으로 바뀌고, 전설의 존스톤벌장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라는 흉칙한 추상화로 둔갑되어 버렸다.

파괴의 신 시바를 숭배하는 인도인들처럼, 인류는 파괴를 통해 창조를 예비하는 것일까? 세기말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서 지역성을 획득하는 방편으로 권력자들은 '비전'이라는 도구를 손쉽게 사용한다. 정체성 혼란은 미래시제와 연결될 때 오히려 창조적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체성 찾기는 과거시제인 경우가 많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감정과 사고능력을 지닌 복제인간과 인간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구분짓는 것은 기억인 것처럼, 「토탈리콜」의 코웨이드가 미지의 과거를 캐며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처럼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가 연관된 현재에 더 밀접하다.

인천을 과거의 수려했던 항구도시로, 비릿한 바다냄새가 실려오는 염전의 한가로운 풍경으로 대입시키려하는 것은 개발의 빠른 발걸음에 지친 시민들의 무의식적 균형잡기인 것이다. 이렇게 과거를 쫓는 정체성은 역사와 마주친다.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천은 근대화, 전쟁, 개항, 조선, 고려 및 삼국시대, 미추홀의 백제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특히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천부 군명조에서 시대순으로 열거해 놓은 인천의 옛이름들을 살펴보아도 인천의 역사는 족히 2천여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비류 백제의 미추홀(彌趨忽)에서 고구려때의 매소흘(賈召忽), 신라 경덕왕때의 소성(邵城), 고려때와서 일명 경원(慶原) 또는 인주(仁州)라고 불리운다. 조선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미추홀의 구체적 소재지는 지금의 남구 문학산성으로서 초반부에서 언급하였던 한줄기가 사라진 문학산의 정상이었다. 또한 인천 도서지역에 널려 있는 각종 문화유적은 우리의 관심을 선사시대 이전으로 끌어 올린다. 특히 인천 신공항이 건설되는 영종·옹유지역(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등)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서 최근에 이르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은 서해바다와의 인연때문에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또는 외세침략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셈이다. 즉, '인천에는 중심공간이 없다'라는 문제제기는 '다양한 중심공간의 혼재'라는 이중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천의 풍토적 도시풍경은 크게 식민지풍의 건물군이 집결해 있는 자유공원 기술(Colonial Vernacular), 탈산업시대의 유물로서 남아있는 오래된 공장과 창고군(Industrial Vernacular), 그 위를 덮쳐가고 있는 소비문화의 경관(Commercial Vernacula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소적으로는 신포동과 자유공원 기술의 조계지(租界

地), 경인고속국도 주변으로 난립해 있는 크고 작은 공장과 인천 제2부두와 월미도입구 주변에 이끼처럼 연결되어 있는 미국 창고군과 사일로 건물들, 그리고 송도와 신포동, 주안역을 중심으로 산개하는 입고, 먹고, 놀자의 현란한 간판골목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도시의 인조물들이 조닝이라는 구색에 맞춰 조율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타성에 젖은 근대 계획가의 눈에는 혼돈이나 폐허 그 자체이다. 그러나 '중심들의 혼재'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인천은 더없이 훌륭한 기록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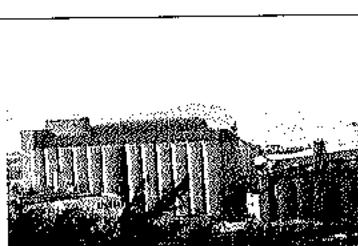
"…사실 도시에서는 어느 단일한 요소가 중심이 될 수 없다. 혼합이야말로 중심이 되는 요소이며 그 안에서의 상호 보완은 질서이다…"

- Camillo Sitte 「예술적 원리에 의거한 도시계획」 -

동인천역으로부터 자유공원으로 연결되는 언덕길과 그 사이로 시선을 던져 바라 볼 수 있는 인천 앞바다, 그리고 산업사회를 지탱하였던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갖가지 도시의 인조물들(Urban Artifacts), 빼곡히 어우러져 골목길을 형성하며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간 외국초개지가 던져주는 시간과 스케일의 친숙한 감각들이 원경과 중경, 그리고 근경이 중첩되는 시각의 흐름 속에서 부조화음의 인천 도시역시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월미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유공원은 동인천으로부터 담동, 신포동 기슭 어디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구도심의 위치성으로 볼 때 이 곳의 정상은 도시의 테라스(Urban Terrace)이다. 그곳으로부터 바라다 보이는 사면을 통하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을 일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월미도쪽으로 형성되어 간 산업철도와 제분소, 그리고 싸일로의 거대함과 역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사진 운반로, 거대한 공장 담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며 마주치는 월미도 앞바다와 월미산의 하리, 또한 눈앞에 펼쳐진 수백개의 거대한 크레인과 화물선의 사열 등 모든 것들이 혼재해 있는 모습에서 항구도시의 거센 과거를 읽을 수 있다.

자유공원의 등고선을 따라 내려오면 각국지계



자유공원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인천바다와 월미도 주변



신포동 소비문화의 거리



신포동 소비문화의 거리

의 주거, 공공시설, 상업지역의 순서를 읽을 수 있는데 마치 나 이태와 같이 안에서 밖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대라는 시간과 만나고 있다. 일본지계, 중국지계에는 양관들을 흉내내기하다가 인천의 풍토와 혼합되어 만들어진 혼종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이국적이면서도 인천적인 난해한 스케일감을 제공한다. 이들 혼종의 건물들은 현재 신포동의 소비문화가면을 쓰고 4~5층 정도의 균형잡힌 높이의 건물들에 의해 신작로 뒷켠으로 물러나 있다. 정리된 중앙로 변의 근대건물 위로 미로와 같은 구거리들이 켜를 이루며 숨어들어간 모습에서 역사의 단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달리면서 경험하는 기계적인 풍경이나 열악한 공장지붕들, 그리고 간판들이 담고 있는 산업적 풍토성(Industrial Vernacular)을 뒤로하고 자유공원으로 이르는 역사의 등고선을 오르면서 서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인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록영화속의 도보여행이다. 더 멀게는 문학산, 청량산 그리고 낙조를 배경으로 흐느적거리는 도시 지평선과 공장의 굴뚝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인천의 도시경관은 현대의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적인 공간 속에서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한편의 동타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인 것이다.

1995년 이후 송도는 인천의 정체성 혼란을 21세기 미래시제로 연결시켜주는 결절지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미디어파크,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미디어아카데미, 소프트웨어파크 등 알 수 없는 기능들을 수용하는 송도미디어밸리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언젠가부터 엄청난 면적의 바다를 메우더니 인천신공항의 꿈과 함께 송도매립지가 생겨났고 문학산 학구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인 미추홀, 그리고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로 재생되었지만, 과거 대중(對中)해상통로라는 교역의 결절지였던 능허대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척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발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송도의 이미지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개장된 송도 유원지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송도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던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소나무 숲이 있는 바다'라는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는 향락과 소비문화의 숲으로 변모해버렸다. 청량산을 배경으로 서해의 낙조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언덕배기에는 상업광고의 경관이 눈을 가득 메우고 있다. 관광이라는 전통을 위한 소비가 아닌, 소비를 위한 저질 소비 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졸속한 시행정, 무분별한 천민자본주의가 남긴 상처로 간주하는 비판의 눈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막위에 펼쳐진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광고판과 건축물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장소 확인의 매개체로서 부각시킨 벤츄리의 용의주도함을 인용해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다. 이제 송도의 밤을 지배하는 원색의 상업광고네온들은 장소적 도시공간을 인식하게 해주는 새로운 장대로 소개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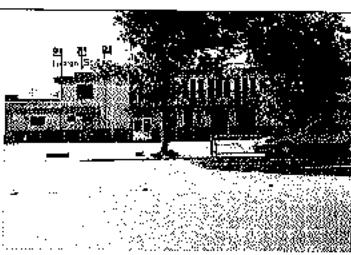
자유공원에서 바라보았던 공장과 창고건물들처럼, 소비를 위한 국적불명의 건물과 광고판들도 '건축가없는 건축'으로서의 자태를 찾아가면서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전용소비공간의 전통을 재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떻게 근대화하면서 또 그 원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또 과거의 습겨진 문명을 발굴하여 세계문명에 통참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역설이다.”

- Paul Ricoeur, 「역사와 진리」 -

'그래도 인천에서 가를 만한 곳'을 묻는다면 대개의 인천사람들은 서해의 낙조를 관망할 수 있는 청량산 중턱의 한 까페를 필두로 하여, 소래포구, 연안부두와 수산물 공판장, 부평 깡시장(전통 야채 및 농산물 야시장) 등 서해와 낙조에 관련된 풍경이나 문화를 들이댄다. 심지어 어떤이는 한화에너지 단지가 있는 울도에서 느끼는 척박한 소외감까지도 인천만의 감동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130여개의 섬들을 향한 서해의 뱃길과 광역화되면서 행정 편입된 강화도의 역사관광자원에 대한 얘기는 생소한 편이다.

알다시피 강화에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이 풍부하다. 석기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굵직굵직한 정치외교적 사건들 고려 도읍



하인천역



인천 제2부두앞 창고군(倉庫群)



송도 소비문화의 공간

천도, 병자호란, 강화도조약으로 불리우는 병자수호조약등을 치루어 낸 현장들과 함께 아직도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작은 포구와 어촌의 풍경들이 살아 있다. 또한 마니산의 참성단과 같은 단군신왕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어서 민족종교의 성지로 꼽히는가 하면, 성공회 강화성당을 비롯하여 개화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강화성당 및 개신교교회등이 남아 있어서 강화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근대화의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이 강화를 얘기하면서부터 인천의 문화지도(地圖)는 개국으로부터 개항에 이르는 참으로 긴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인천의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다시 말하면 강화로부터 인천항에 다다르는 역사의 탑방이야 말로 인천성을 획득하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이다. 앞서 묘사하였던 불연속의 도시 모습속에서 역사의 리듬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실천으로 파악될 때 비로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이때 정체성이란 실천결과에 붙이는 이름이다.”
- 알튀세르 -

오늘날 개발과 보존의 대립적 구상에서 개발의 논리가 독재화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라는 행정적 도구를 무기화하여 다시금 ‘증산, 수출, 개발’의 국풍을 세워 놓고 인천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려는 술책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인천시민이 다 떠나고 나서 국제공항이니, 초고층 건물이니, 미디어밸리 따위만 남은 인천을 시장이 훔자서 지키겠다는 말인가? 소위 인천 토박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인천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 ‘인천사람의 부지’다. 적극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의 운명과 같이할 인천인의 정체성 부재라는 얘기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라는 행정적인 배려는 계몽적 근대화의 속도에서 인간중심의 속도로 바꿔가자는 내막이 더 깊다. 인천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천이 어디나?’라는 반문을 할 때 정체성은 타자 속에서 타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리캉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즉,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는 또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공장이나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나 짓자는 얘기-외발적(外發的) 개발-에서 지역 내의 소재를 발굴하여 활용하자는 얘기-내발적(內發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인천의 골목과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개항직후의 근대 건축물, 흐르는 역사의 리듬, 바다와 개펄의 포근함 등,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동인천에서 자유공원을 넘어 열린 바다로 연결되는 한국적 풍토의 수변도시계획, 버려진 벽돌창고군을 재생한 수변 문화공간계획, 하인천역으로부터 월미도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을 통하여 실감하는 산업화현장 견학, 또다시 130여개의 섬들로 이어지는 뱃길을 개발하여 만든 바다체험 실습장, 해안도로의 친수(親水)적 재개발, 문학산 미추홀 성지의 부활 등 진정한 개발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천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 등의 시설이 절대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기념하는 철도박물관, 인천미술관, 염전박물관, 선박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의 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이니 예술의전당이니 하는 것들 처럼 거창하지 않을수록 좋다. 각국지계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재활용해보는 것도 좋고, 부둣가의 벽돌창고군(群)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 도시팀방을 통한 지역성에 관한 논의는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장소성의 회복은 고유한 양식과 전통에 입각한 지역주의 건축을 통한 또다른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성의 성찰을 지향함을 알 수 있었다. 프랭프톤은 지역주의를 장소성에 토대를 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건축태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천성의 회복은 건축가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문화영역에서의 균형잡힌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미디어밸리’ 등과 같은 전체주의적 환상을 의해서 보다는, ‘인천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잠재적 가능성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인천시립박물관(1991, 임장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994, 장석웅)

인천건축의 현재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Inchon

손장원 / 안동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by Son Jang-Won

인천의 지역적 특성

지역문화는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총체적인 양상이다. 지역문화의 주체인 지역주민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역사환경과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양상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문화는 외래문화를 배척하는 수구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역문화의 올타리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된 현대생활에서 다른 지역과 혁경한 차이를 갖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는 것보다 특성을 상실한 사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손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점은 인천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¹⁾가 이루어진 인천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형성된 것과 같은 독특한 지역문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서울에 인접한 인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지역문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천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없이 인천을 잠시 머무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천에는 '주인이 없다', '지역색이 없다'라는 말을 안팎에서 한다. 그러나 바다를 배경으로 지역문화를 형성한 인천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방 후 인천에서 사라진 "인천바다"를 찾는 일이

다. 인천의 바다는 공업화와 남북분단이 만든 공장과 철책너머에만 존재하는 피안의 바다이다.

바다에 인접한 고장은 많다. 그러나 인천바다는 물상으로 존재하는 바다가 아니다. 인천바다는 여기서 전개되었던 역사 속에 함축된 개방성, 포용성, 진취성을 담고 있다. 결국 바다를 상실한 인천은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을 잃어버린 채 인구250만을 수용한 서울의 변두리가 되어있다. 지역의 문화여건이 열악한 인천에서 지역문화를 나타내는 직접적, 가시적인 요소인 지역건축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배경으로 해방 후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와 대표적인 건축물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인천건축의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을 전개하고자 한다.

인천건축의 연대별 특성

조선 말 비록 외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개항 이후 인천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역과 문물교류가 이루어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고착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정책과 서울과 인접한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은 지역성을 잃었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그대로 지역건축가와 건축물에 파급되었다.

1950년대 인천건축은 전후복구와 관련하여 관청, 학교, 극장, 상업시설이 건축된 시기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 경향의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인천 최초의 국제주의 건축물로 인하공대 기계공학과(鄭寅國, 1955) 세련된 고층의 단순미를 강조한 구 인천사범학교 본관(현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1957), 근대건축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유리의 사용이 두드러진 제물포 고등학교 도서관(1959), 수직, 수평루버를 과도하게 표현한 인천세관(1959) <사진1>등의 건축물이 세워진다. 당시 인천에서 활동한 건축가는 심의권(青松公務所), 김동진(大成公務所), 김중희(合同),

1)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능허대(凌虛臺)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중엽(광해군 대)까지 중국으로 기는 사신이 출발하면 장소이다.



사진1. 인천세관(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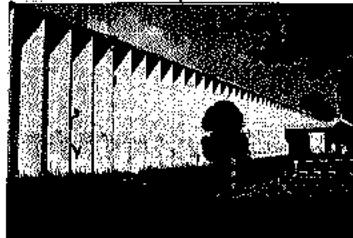


사진2. UNESCO 실험관(1962)



사진3. 인천시립도서관(1962)

김남구(仁川公務所), 박창준(中央公務所), 김응연(新興公務所) 등이다.

1960년대 인천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수출 진흥정책에 따라 공업의 거점도시로 변모한다. 이 당시 인천시에서 공업지역이 차지한 면적은 35.216㎢로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20.8%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장건축물과 사무실이 건축되었지만 인천성을 건축으로 승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다만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단순모방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상징성과 형태의 다원화를 도모한 건축물의 등장과 인천에서 건축을 수학한 인하대학 교 건축과의 건축참여이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UNESCO실습관(1962, 독일인)<사진2>, 인천시립도서관(1962, 인하대 건축과)<사진3>, 인천 제1공보관(1965, 인하대 건축과), 인하공대 수조관(1969, 인하대 건축과), 올림프스호텔(1965), 인천소년회관(1969, 김중희), 제일은행 인천지점(1970, 나상기) 등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인천은 근대공업도시로의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된다. 서울의 구로공단과 연계하여 한국 수출산업4·5·6공단²⁾ 인천기계공단 등 총 5.7㎢에 달하는 공단이 조성되었으며 공장건축은 더욱 가속된다. 이와 같은 공업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규모나 성격면에서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근대건축이 퇴조하고 지역성을 추구하는 건축이 성행된 당시의 세계적인 건축경향과 달리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전진기지인 인천에서는 힙리주의에 충실한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축된다.

이 시기는 주로 수직성, 수평성을 강조한 건물 인하대학교 본관(1971, 원정수)<사진4>, 인천지방항만관리청(1973)<사진5>, 인천시민회관(1974)<사진6>, 인천상공회의소(1975)<사진7>과 용진군청(1971), 인천실내체육관(1975), 인천체육전문대학 교사 및 체육관(1975, 김중희), 화도교회 신관(1976), 경기반공회관(현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1978, 홍철수)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주택수요충족을 위해 ADB차관을 재원으로

서민아파트(15평형 5층)단지가 구월동에 건설되었다.

1980년대 인천은 직할시로 승격(1981)하였으며,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화와 인구집중제한정책이 실시된다. 그러나 남동공단조성사업(면적 9.55㎢, 1985)이 착공되어 수도권에 산재하고 있던 공장들이 인천으로 입주하여 공업도시화가 심화된다. 또한 경기도에 속한 계양면(김포군), 영종면과 용유면(옹진군)을 편입(1989)하여 관할면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도시화, 공업화는 지역경제규모의 확대, 인구유입의 촉발, 경제활동과 유입인구를 수용할 많은 건축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가정신에 투철한 지역건축가들의 작품활동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작품성을 갖춘 건물이 인천 여러 곳에 세워져 건축관련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사례도 늘어나지만, 인천성을 탐구하고 이를 건축화하는 작업은 없었다.

이 시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퀄리유리를 커튼월로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도모한 잔치뷔페(1989, 송광섭), 인천투자금융사옥(1989, 최동규)<사진8>과 석재를 주요 마감재료로 사용한 인천직할시청사(1982, 박승)<사진9>,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1983)<사진10>, 한국은행 인천지점(1983, 원정수+지순)<사진11>, 인천상록작전기념관(1984, 김수근) 등이 있다. 이외에 부평도서관(1981, 동인건축), 인천길병원(1981) 한국전력 인천사옥(1981, 윤주현), 강화도산불전시관(1984, 김지덕), 인천송도호텔(1986, 송기덕), 주안도서관(1988, 동인건축), 부평도서관(1989, 동인건축), 인천상공회의소 남동지소(1989, 태건축), 등을 대표적인 건축물로 들 수 있다. 특히 인하대학교 학생회관(1986, 조성룡+장기성)<사진12>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90년대에 들어서 인천은 인천-중국간 정기여객선 취항(1990),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1991, 인천국제공항 착공(1992) 등으로 입체적인 교통망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들 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공장이 빠난 대지에는 예외 없이 아파트가 건설되며, 이 아파트에는 서울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인천과 서울의 관계가 단밀없이 자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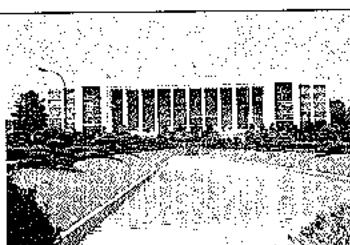


사진4. 인하대학 본관(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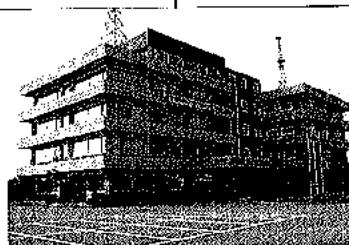


사진5. 인천지방 항만관리청(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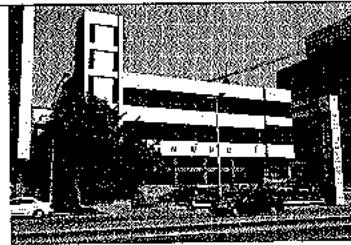


사진6. 인천 시민회관(1974)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며, 경기도에 속한 강화군,옹진군,경단면(김포군)지역을 인천으로 흡수(1995)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물리적인 여건의 확충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건축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시민의식의 변화는 해방 후 상실되었던 관문기능의 부활과 인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다양한 방식의 설계경기와 인천광역시건축상을 신설(1995)하여 지역건축가의 창작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창작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여러 곳에서 세워져 인천건축의 정립에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의식없이 단지 건축설계를 건축물 앞부분 꾸미기 정도로 오해한 건축가들은 적당한 크기의 창문과 모양, 수직, 수평의 데두르기, 입구장식(캐노피, 삼각프리즘, 반원형)정면에 과도한 유리마감 등 판에 박힌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위 짐작사라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도면화는 건축가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축가들은 지역성을 갖는 건축물이나 창작과정을 통한 설계보다는 건축법의 협용한도 내에서 최대의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양산하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인천건축이 갖는 단면의 하나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는 인천약사회관(홍대원), 인천시립박물관(1991, 임장렬), 송도성당(1992, 김중섭), 경기은행 본점(1992, 정립건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994, 장석웅), 부평구청(1996, 창일건축), 박내과의원(1996, 두인건축), 인천남동농협(1996, 김영섭), 인천혈액원(1997, 무영건축), 서구청, 남동구청 등의 공공건물과 더불어 다천장(1993, 송광설), 후연재(최의자) 등의 주택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인천의 변천과정과 지역에서 이루어진 건축활동을 살펴보았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데 따른 반사이익의 추구만으로도 도시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

었다. 또한 인천성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건축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성을 상실한 인천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의 개막,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인천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인천의 독자적인 발전추구와 실질적인 의미의 지역문화가 인천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건축을 위한 시론(試論)

건축은 건축가의 창조적 행위가 끌어안아야 할 인간생활의 총체적 요구이다. 지역건축의 형성근거는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형성된 지역민의 공통적 성향에 따른 인간생활의 총체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건축은 단시 특정한 시기에 존재한 양식이나 사건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 사람들의 성격, 지리적 특성들이 결합된 피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각 지방에서 그 지방임을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것이 있는 것처럼 인천에도 분명 인천을 나타내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천건축시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인천건축의 행위자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건축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가라 해도 인천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행위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인천의 외양만을 건축형태로 구현하였다고 인천건축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인천성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면 대지의 장소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변의 건물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인천건축에 좀더 다가서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건축은 건축가들의 노력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들의 지역성 탐구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축주가 많아야 한다. 건축주가 시민인 공공건물이나 관청의 경우는 인천의 지역성의 구체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성이 건축물의 내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설계시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높은 기단, 열주랑으로 대표되는 어설픈



사진7. 인천상공회의소(1975)



사진8. 인천투자금융사옥(1989)



사진9. 인천시청(1982)

전통성 문제, 수직성이나 수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시민을 위압하는 문제, 프로그램이 같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유사한 평면구성 문제 등을 건축가의 창작의욕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지역성 구현을 어렵게 한다.

다음은 인천건축의 형상화 과정으로 인천에서 찾을 수 있는 물상을 추상화하고 이를 건축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건축가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형태 속에서 찾아낸 법칙이나 모티프를 건축에 표현하고자 한 것처럼 '인천법칙', '인천모티프'를 찾아 이를 건축작업과 연계해야 한다. 예로부터 그 기능을 수행한 관문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인천이나, 지금처럼 각 지방에서 모여 든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인천이 갖는 공통개념을 찾고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 속에 인천 모티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성된 인천모티프는 지역건축물에 추상적,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푸른색을 표현한다든지, 파도모양으로 외관을 덮는 식의 접근은 유치한 발상일 수 있다. 인천의 해양성과 관련하여 배를 형상화함에 있어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상으로서의 배가 아니라 배가 갖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삶의 기쁨과 슬픔이어야 하며, 또한 인천의 배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사실들을 엮어 이를 올바르게 형상화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만일 은유와 추상이 아닌 그저 물상으로서의 배에 집착한다면 모든 항구도시에는 배처럼 생긴 건축들로 가득 할 것이다.

인천건축은 인천적인 요소를 재현하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인천성을 탐구하는 적극적인 창작행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상화된 건축물의 이미지에서 인천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성에서 출발하는 형상화작업으로서의 인천건축은 철저한 자기인식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성의 표현방법 또한 창작적 사고를 통한 인내의 결과어야 한다. 전통건물의 외양을 묘사한 강화도특산품전시관, 강화군립도서관이나, 고인돌의 형태를 여과없이 표현한 인천시립박물관³⁾은 직설적인 표현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인

천시립박물관은 작위적인 형태를 위한 내부공간과 고리된 내밀기, 과도하게 돌출된 처마와 거대한 성벽 같은 이미지에서 친근감을 갖는 인천시민은 없다. 아울러 인천종합문화예술관(장석웅)은 경남문화예술관(1985, 김중업)의 기단, 기둥처리 및 처마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요소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다 해도 인천종합문화예술관⁴⁾과 원주치악예술관(장석웅)의 외관과 어프로치(Approach)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전통성에 집착하여 지역성을 잃은 예이다.

장소성을 나타내는 작업으로서의 인천건축은 지역건축에서 발견되는 공통요소로 장소와 지형에 대한 예리한 의식을 드는 케네쓰 프랫튼의 이야기처럼 대지에 애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는 인천이 갖는 자연환경과 건물을 배경으로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인천건축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외양에서 품기는 권위적인 요소와 달리 청량산과의 조화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인천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대지 내에 세운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시민이 가장 아끼는 청량산의 능선을 어지없이 파괴하여 장소성 부재를 나타내는 단적 인 예이다. 1층 바닥을 20m정도 밑으로 내려 박물관 전면도로에서 고저차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면 지금처럼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장소성을 읽을 수 있는 공공건물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장소성이 뛰어난 주택은 인천건축의 편린을 보여준다. "다천장"은 청량산과 송도 앞바다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동에 인접한 "후연재"는 도시화 이전에 대지주변에 형성되었던 이미지를 형태화하고 있다.

인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시된 국가주도의 공업도시화는 인천의 건축가는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건축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인천사람 누구나 '인천성'을 화두로 안고 살아야 한다.

3)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1991년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하였다.

4)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종합문화예술관은 인천시가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건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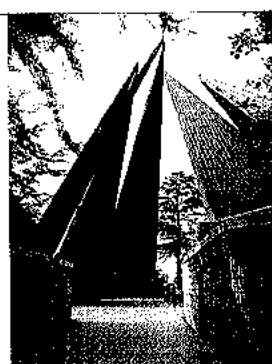


사진10.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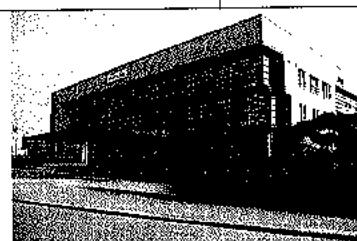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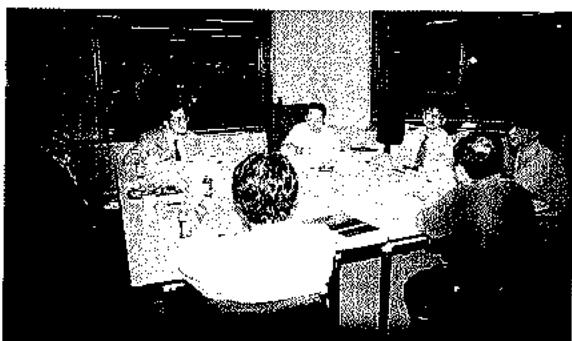


사진12. 인하대학교 학생회관(1986)

좌담 : 건축과 도시, 그리고 지역성

Architecture, City and Regionalism

일 시 / 1997. 9. 17. 18:00~
 장 소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의실
 참석자 / 구영민(안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용해(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서규환(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해문화」 편집주간)
 이호정(무이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본부장)
 전진삼(월간 「건축인」 편집주간, 건축비평가)
 조원민(무이건축 대표, 인천 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원식(인하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창작과 비평」 주간
 황영삼(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황영삼, 정리 / 이호정)

구영민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인천 지역의 현주소, 지역성 등 조금은 난해하고 범위가 넓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인천지역 건축의 방향제시에 대한 의견모음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시탐색'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고 한참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좌담회의 기본적인 틀은 진행해 나가면서 물고를 트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으신 황영삼교수께서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지역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최원식 처음부터 지역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꼬일 여지가 있으니까요. 먼저 인천지역의 문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영민 예, 그러시죠. 먼저 최원식 교수님부터… 아무래도 인천지역에 오래 사셨고 인천문제에 대해 오래 다루어 오신 바 있으시니 먼저 이야기 해주시죠.

최원식 인천에 사시는 분이나 인천을 들르시는 분이나 다 느끼는 것 이지만 인천은 지역적 특성이라



고 할까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는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천이라는 도시에는 일단 중심광장이 없습니다. 과거 80년대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시위하기가 무척 어려웠답니다. 디중심 혹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공간적 할거 상태이죠. 왜 공간적 할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원래 부평 도호부가 있고, 인천도호부가 있었죠. 그런데 개항과 함께, 일제의 교두보로서 하인천 역 근방 즉, 포구에 새인천을 건설했죠. 그래서 일제는 옛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를 인천지역에서 털어냈어요. 즉 끼워가 이야기하는 과거가 없는 도시. 과거를 지워버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천이라는 도시의 기형성이 나타나죠. 그다음에는 개항장으로부터 서서히 넓혀갔죠. 부평까지 포함되면서요, 전통적인 코아가 해체되면서… 이 도시처럼 무계획적인 도시가 없죠. 한편으로 일제시대에는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했죠. 중국교역의 거점이고 남북교역의 중심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양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즉 잡종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시대를 보내면서 잡종성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름대로 근대건축사에서는 중요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대건축에서도 없어진 건물이 많습니다. 외세와 교두보로서 세워졌지만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도시인데 해방이후 도시가 더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건물을 보존시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간적 할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의 복원입니다. 옛인천지역의 정체성을 찾자는 소박한 수준에서는 안되며 새인천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재 창안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잡종성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건축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인천지역의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존스톤별장으로 인천각이었지요. 그걸 부수고 지은 한미수호 100주년 기념탑의 철거가 내 소원입니다. 거기에 인천각을 복원해서 거기서 양식을 먹어보는 것이 내 바램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바로 중심광장, 또는 중심건축이 없습니다. 이번 좌담에서 이런 점을 얘기하고, 토론도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영민_____ 최교수님께서 인천의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심성의 회복을 다루게 된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특히 광역이라는 행정적특권을 부여받은 지금의 현실에서 말입니다. 즉 현재 인천은 용진, 검포의 겹단, 강화까지 포함합니다. 인천의 지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범주 속에서 얘기해야 할지, 지금의 상황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만.

서규환_____ 인천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다는…, 역사는 잘 모를뿐더러 제 경우 92년에 돌연히 인천에 오게되어서 관찰한 것인데, 첫째 중심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즉, 중심공간, 중심건물, 중심거리가 없습니다. 둘째, 단절된 도시공간입니다. 도심을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도시는 단절됩니다. 세째, 인천의 중요한 지리학적 특징이 바다인데, 바다가 없는 도시 즉, 바다와 단절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네째 어느 도시 어느 건물이든 입구가 중요한데, 인천에는 입구가 없습니다. 첫인상인 입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참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나오면서 인천이 어디나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있습니다. 결국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의 주변도시라는 것이죠 즉 서울의 옆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치지리학에서 서울의 종속도시라는 것이죠. 여섯째, 정치경제학, 행정경제학으로 볼 때,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속질주한 부산물로 공

업단지가 있습니다. 일곱째, 종속도시로서의 위치로 인해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다시말하면, 여기 머물러서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말이죠. 인천출신의 유력한 사람중에 출세한 사람은 서울로 이주합니다. 인천에서는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주인의식이 부족한 실례로 매체가 없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체가 부족합니다. 인천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죠. 여덟째, 지식인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대학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교수 대부분이 대체로 서울지향적입니다. 제 표현에 불쾌해 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 즉, 대학을 중심으로한 사회문제가 표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지역은 특색이 없다'라고 하지만, 굳이 있다면 몰골이 흥악한 추악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특징이 없는 특징이랄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이 좀 심하다는 것 뿐입니다.

구영민_____ 두 분 선생께서 간단하게 인천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체의 부족에 대



해서는 인천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규환 선생께서는 「황해문화」의 편집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전진삼 선생도 거기에 글도 쓰시고, 건축비평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황해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진삼_____ 인천출신이면서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황해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우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타개하려는 지식인층의 모습이 좋았고, 또 하나 지식인층의 주변에서 지식인층을 도우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의 유력한 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황해문화」는 3, 4년전 즉, 90년대에 창간된 책으로 그 편재나 지향하는 목적의식과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자속적으로 재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90년대가 지향하는 매체에 대한 부여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특하고 유익한 주제의식에 대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규환_____ 가능하면 인천문제를 많이 다루려 합니다만 필자가 없습니다. 인천문제를 다루려면 인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해문화」 만큼은 인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다루려합니다.

조원민_____ 제생각으로는 대중성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여기있는 분들은 황해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성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만 저는 인천에 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현재 인천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10여 분 정도이죠. 그러다보니 대개 나쁜 뉴스만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서울 등지에서 보기에는 살기 삭막하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시절 인천에 연고가 있었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과 비교해서 인천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중매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천을 도시계획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천은 빨래를 하려고 벗어놓은 옷들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인천은 도시계획적인 중심을 가지고 정리된 도시가 아니라 개항부터, 처음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늘어나 부평까지 확대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공단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볼때 인천은 희생률입니다. 다른지역에 공단이 없을 때 인천에 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수준 자체가 낮은 일부부터 해왔습니다. 나중에 생긴 공단들은 첨단공업을 중심으로 하게되니까 비교적 깨끗한 공단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물동량 측면에서도 인천은 서울의 입이자 항문입니다. 인천으로 모든 물자를 들여와서 생산하고 남은 쓰레기들은 또 인천으로 옵니다. 도시계획적인 틀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 그리고 전후(戰後) 역사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인천이야말로 건축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천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맡은 분들은 기존도시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니 많은 문제가 걸리게 되고 시에서는 송도신도시 등의 새로운 계획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

천이야말로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정_____ 지금까지는 건축인들끼리만 이야기하다가 건축이외의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려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나 하면 건축이외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도시와 건축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에 관심이 쓸린다는 것입니다. 최원식교수와 서규환교수 두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건축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사회과학 내지는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도시의 문제점이라 생각되는데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지금부터 저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문제점을 장소성(Placeness, Genius loci)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려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생각과 유사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 단어에 대한 개념정립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간과 장소 그것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공간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우주공간 혹은 물리학적인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간이 장소화가 되면 그 공간은 의미가 있고 활기있는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소화된 그 공간에서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기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 장소화되면 그 도시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애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를 장소화시킬 수 있을까?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어떤 공간을 장소화시키기 위해 꾸며야 할 공간적 장치가 학자들과 건축가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인지를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사막에 혼자 서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기둥 하나를 세워 놓았을 때 훨씬 다른 심리적인, 육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들 수 있겠죠.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파리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시이건 그도시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타워(남산타워, 토쿄타워 등)가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는 방향성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도시도 방향성이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어떤 흐름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북악산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에 펼쳐진 세종로는 옛 조선의 육조거리로, 계속 나가면 남대문이 되고 서대문과 동대문이 직교축을 이루는 과거로 부터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줄기없는 인생, 줄기없는 소설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줄기없는 도시는 거기서 사는 사람 뿐 아니라 행정가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성 혹은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역사나 상징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로 매우 강한 작용을 합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시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 남원, 혹은 안동에서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신흥도시들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일부 도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극히 다른 도시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는 경계성입니다. 즉 도시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중심성과 위계성과도 중요한 관계를 기집니다. 앞서 서규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입구와 터로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즐겨하는 놀이가 자기 주위에 모래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자기영역을 확보하는 작업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실존적인 자기영역확보 행위이죠. 특히 현대도시에서는 강한 중심성과 위계성 그리고 방향성으로 경계성을 대치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모두 갖추어 놓았을 때 대체적으로 도시에는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되고, 따라서 그 도시민들은 자기도시에 애착감을 가질 수 있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며 비로소 자기가 그 도시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우리 도시라는 생각, 그리고 더욱이 그 도시에 산다는 것을 자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는 정말 살아있는 숨쉬는 생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규환 사실 공간과 장소의 철학적인 혹은 이념적인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없다'라고 할 때의 중심을 '중심들'이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도시공간이 발전되는 양상에서 인천의 지형학적인 구조에서도 하나의 중심을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화시키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중심적인 공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이념으로는 비우하우스, 즉 모더니즘, 그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중심을 형성시키고 위계화, 질서화시키고, 도시공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천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인천을 하나의 충팔적인 개념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을 부각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발전기능성 있는 곳 즉 송도, 신포동, 문예회관 등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송도와 문예회관이 위계질서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름대로의 공간이 다른 논리로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문화적인 혁명, 문화적인 현대화에 대한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공간이나 건축이념의 심도있는 평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호정선생께서 이야기한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비단 인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장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하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이호정 서교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데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어 다른 것이 그것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의 흐름 자체가 어느 줄기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중심을 갖지 않고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내지는 가풍을 어기

면서까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각개인이 나름대로 키간다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큰 틀은 존재해야 하고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영민 인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김용하 박사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진삼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통해서 인천을 진단하려는 생각인데 그러면 도시에 대해 건축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건축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정도 완성도나 특질을 차지했을 때 과연 우리인천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 아까 서규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심들'이라는 이야기, 저도 그 중심들이라는 데 대해 공감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인천과 같은 도시에서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예 그 시점에서 건축 하나하나로 돌아가서 각자의 전문성이 찾아진다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거대한 도시공간구조를 새삼스럽게 총괄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구영민 문제점에서 이제 압축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아까 서교수께서 말씀하신 중심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전 진삼선생의 말씀, 이호정선생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공간 구성 요소 등, 그것들은 심리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문제가 다루어졌으니까 이제 김용하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용하 저는 학부때는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인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또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인천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있게 분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손종목교수가 서울의 야시지만 정



리한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계획이 없다는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없이 어떻게 인천이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계획은 누군가에 의해 있었습니다. '인천은 잡종성이다'라고 최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창구로서 일시적으로 나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또 그밑에 중앙동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의 확장 및 개발의 비교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최초로 상수도를 노량진에서 끌어왔고 송림 배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보급선이 오면 배에 물을 실어갔습니다. 1890, 1900년 경인철도가 건설된 것도 계획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이 계획없는 도시는 아니었고 계획은 있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또 이호정선생의 '도시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에 도심 또는 관교동 혹은 문학산 밑의 역사에 대한 분석에 대해 연구한 자료는 없고 문제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해문화가 좀더 인천에 관심을 두고 지역적인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하는 입장에서, 인천인의 입장에서 제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경험한 것 중 인상에 남는

것은 문서고에 대한 좋은 환기시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배려이겠지요… (중략) 그러나 인천은 정말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송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북부, 강화도, 겹단 등 엄청난 땅이 건축가의 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영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인천은 근대화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인 제콥스가 60년대 미국의 위대한 도시들을 '죽음의 도시'라고 표현했던 때에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풍토적인 것, 존속 가능한 기준의 것들에 대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벤츄리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어진 기준의 것들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것들을 비상투적인 것들로 만들면서 자기네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렸던, '복합성과 대립성'이나 '拉斯베가스' 등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인 제콥스의 에세이와 벤츄리의 책은 원인과 결과적인 사건이 된 셈이지요. 우리 주변 특히,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와 철도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주변의 공장들, 어지러운 간판들이 인천 근대화의 유물이라할 때, 그것도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해서 간판들을 새로운 지평의 장소라고 한 것처럼, 인천도 산업적인 버내큘라(Industrial Vernacular)를 그대로 끌어 안으면서 무계획적으로 신만하게 흘러진 것도 끌어왔을 때, 인천이 가지는 탈 중심적, 또는 다중심적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리오타르가 얘기하듯이, 이성중심의 전체가 소멸되고, 작은 것, 부분, 주변이 부각된다는 현대의 경향을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주제의 범위를 둘러 인천의 긍정적인 면, 또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규환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가면서, 건축의 문제가 결코 건축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인천의 공간문제가 새롭게 간신되려 한다면 다음 4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경제적인 불평등의 극복, 이런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미학화 하자는 점서 등 '우리시대의 점서가 사치만이 아니다, 문화만이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학교육이 역시 중요한데, 미학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시(市)와 더불어 협상이 중요한데 시만으로는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일반 시민 단체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문화운동과 더불어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도시공간을 미화하자는 날도 정하고, 반성도 하고, 실포지엄도 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촉발시켜 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째, 도시공간 전체를 완전히 합리화 하자는 것은 인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공간 몇몇만을 선택해서 해야 하고 그곳에서는 총체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심미적 품격주의', 이것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정한곳에서 만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건축가들이 개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건물이 주변환경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촉발시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다른 여타문제와 같이 하고 있다는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간의 색깔, 버스, 가로등, 가로의 꽃, 수퍼그래픽 등의 통일성 등이 인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촉발시켜 보자는 운동이 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구영민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황영삼교수께서 도착하셨는데 좌담장소 연락을 잘못받으신 것 같습니다.

황영삼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와도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원민 가락히 말해서 인천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막 그것을 압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영민 이것만 마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되고 했으니까. 제가 특정원고를 조사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진삼선생께서도 주안역, 비무장지대 등 황해 문화를 통해 인천건축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글을 실으신 것으로 이는데, 인천의 문제를, 특히 건축적인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진삼 서교수께서 말씀 중에 심미적 품격주의라는 좋은 언어를 써주셨는데 저도 생각은 비슷하나 약간 구체적인 것으로 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계양산, 청량산, 문학산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운동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간에 그 도시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그 도시의 자연환경 등, 예를 들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산 혹은 자연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찌든 도시라는 혐오스런 이름이 주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의 슬로건으로 인천이야 말로 'Clean City' 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제철이 있었던 북큐슈만 하더라도 지금은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시식할 수 있을만큼 물이 맑아졌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매개와 환경이라고 하는 매개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건축은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컨디션을 존중하고 기왕에 있는 가로에 그 속성을 두고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성격을 부각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이 CI 작업을 통해서 도시를 하나로 묶은 노력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교수 말씀대로 스트리트 퍼너처나 거리를 잇는 요소들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 하나 뚱치면, 물론 건축가의 역할이 일부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부러 중심성을 통해 끊어 나가지 않아도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무정형의 상태보다는 많은 색깔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계획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도시가 어떻게 누가 어떤 시정(市政) 책임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슬로건이 있는 상태에서 몇가지 건축적인 혹은 사회적인 장치에 의해서 커갈 수 있다면 인천의 도시는 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주안역이 바로 그 한 사례였어요

김용하 특히, 인천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자동차 1000만대, 인천은 60만대가 되어 길도 보면 모두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길이 좋은 길인지 송림 등에서 청림동 넘어가는 2차선 도로의 플라타너스가 있는 도로가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도 인천 도호부든지 부평 도호부든지 서울로 가는 옛길이 있었습니다. 그 옛길을 찾아서 그길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공장을 유치시키다 보니 해안선들이 모두 직선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 좋은 것인

지… 강화도도 그 해안선이 공유 수면매립계획에 다 잡혀서 모두 직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유공원 위의 광장을 확장시켰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는 인천항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전에 있던 것 보다, 제입장에서는, 인간적이 아닙니다. 규모만 커졌지 별로 안좋습니다. 이런 일에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난간 하나라도 심미적 품격주의에 의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동해안은 일조가 유명하지만 서해는 낙조가 유명합니다. 그런 자원들은 인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노을이 질때 연인들이 앉아서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한데 안타깝습니다.

구영민 제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하나의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의 테라스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바라볼 수 있는 바다는 있는데 다가갈 수 있는 바다가 없다는 것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도시, 항구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역으로부터 걸어서 자유공원을 걸어올리가 바다를 볼 수 있는 행로, 그리고 제 2부두를 오픈하여 시민들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하인천역과 월미도로 연장되는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천 도시디자인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변계획 등을 착상한다면 이는 어디서 도 볼수 없는 좋은 특수한 워터 프론트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천의 많은 섬들, 약 138개의 섬, 또한 많은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원 회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등의 계획이 고작이죠. 그리스처럼 많은 섬들을 관광자원화했다면 도시의 색깔을 부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이 해안, 섬 등의 천혜의 환경을 관광자원화하는 추세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엄청난 대비, 예를 들어 송도 신도시 혹은 영종도 신공항이 인천에 어떻게 영향을 줄것인가도 심각하게 이야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황영삼 간담회에 나오면서 생각한 것은 인천이 활기가 없다, 도시로서의 포근함이 없다 할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애가 엄마와 떨어지면 아이는 엄미를 찾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들어 여행을 떠났다고 했을 때 과연 인천에 대해 우리 자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동해에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와 닿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즉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으니까 관계형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정 앞에서 서규환교수께서 말씀하신 사회문화운동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축을 문화와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양과목으로 건축과 주거환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건축과 학생들한테 건축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차 건축 혹은 문화를 만들어나갈 이들한테 건축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자가 아니라 도시민들입니다. 그들의 건축문화를 보는 눈이 높아질 때 만이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각 구마다 구민회관,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장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또한 그 지역에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삼 저는 인천사람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정신적인 결핍에 빠져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해문화가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인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10여년 전부터 우리문화가꾸기모임이나 해반 갤러리 등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따져서 날카롭게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단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도록 하는 것, 환경공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느끼도록 건축적인 풀리를 세워서라도 말입니다.

건축을 투영시켜서 풀어나가면 재미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호정 도시의 지역성을 찾는데 건축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만 이런 문제에는 오히려 지역의 문화가 더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장식 혹은 실행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건축가임에도 건축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건축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에서의 건축은 크게 두가지의 줄기

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개항장 혹은 동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의 발전과 둘째는, 구월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그것입니다. 1980년대초 인천은 지금의 구월동에 신도심을 만들고 시청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월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의 도시설계는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이곳이 시민들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행정,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활기 넘치는 도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서규환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개별건물을 어떻게 지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은 어떤 심미적 품격주의라는 데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학교만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공공 건물 중에서 심미적 품격주의를 통해서 한차원 성숙시켜 방침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공간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름을 빌리면 Collective Consumption 즉, 집합적 소비영역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집합적이라는 것은 사적 소유영역의 개념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는 개별적으로는 사적 소유영역이지만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사실 공적이라 봐야 마땅합니다. 여기에도 좀 적극적인 건축가의 역할, 즉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건축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건물은 멋진데 완공후 건물 간판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은데 왜 간판설계는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조원민 제가 답변좀 해 드릴까요? 인문계통을 전공하신 분치고는 꽤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고민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천은 과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짐작사 위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건설회사 측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쁘고 좋은 건물 설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실상은 건축사 200여명 중에서 심미안을 가지고 인천을 위해 힘써 보자고 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약 3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

운동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제 자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의 목적은 진정 시민운동을 통해서 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받고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써 뿐이라는 생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문화예술인들 즉, 무용, 미술, 음악, 문학인들은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하게도 건축가들은 인천에서 자기네끼리도 만나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해 관심도 없는 건축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천에서 밥벌이로 건축을 해야겠다는 무면허 건축사무소 사람들이 전체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간판까지 설계합니다. 그러나 완공후 약 2년정도 만 지나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반창고 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우리가 기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규합체 혹은 풍토가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인천시민의 복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없느냐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어야만 합니다. 인하대, 인천대를 중심으로, 건축과 교수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문화인의 모임을 결성하여, 기구 아닌 기구가 형성되고 모든 계획이 거기에서의 스코린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이런 힘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워져서는 안되는 건물이 이 순간에도 세워지고 있다는데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엘리트들이 뛰어들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고 건축인들 역시 무언가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전진삼씨가 말한 것처럼 널리져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삼 많은 문제점이 자작되었고, 또한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정열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여기서 좌담회를 마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모임이 지속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정해진 주제에 의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지라도 자주 모여서 인천의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조선생 말씀처럼 기구아닌 기구를 결성하여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빼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Korean Architecture Awards '97

국내 최대의 건축작품경연대회인 「97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돼 지난 9월8일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데 이어 9월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상작전시회가 개최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재미 건축가인 김태수씨와 (주)창조건축이 공동설계한 「LG화학 대덕연구소」가 차지했으며, 대상수상자중 건축가 김태수씨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 한 분상에는 (주)간·삼건축(대표 지순)의 코오롱 타워(경기도 파천시)를 비롯해 6점이 선정됐고, 입선작은 (주)정림건축(대표 김정철)의 한국가스공사사옥과 15점이 뽑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크게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등 두 부문에 걸쳐 출품작을 공모하였으며 이중 준공건축물부문은 다시 주거와 비주거 분야로 구분돼 당선작이 결정됐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어진 전국의 건축물중 예술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건축가들이 직접 응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최근 지어진 건축물들중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모여 경쟁을 벌이는 건축작품 경연대회다. 준공건축물부문의 올해 총 응모작은 67점이었다. 이중 주거부문은 18점이었는데 지난해 28점보다 10점이 줄었다. 그러나 비주거부문은 47점으로 2점이 늘었다. 이중 입선이상에 당선된 작품은 모두 23점.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전공 학생, 설계사무소 종사자(건축사 제외)등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일정한 주제하에 「건축디자인 및 설계개념 소회능력」 등을 겨루는 것이다. 올해 주제는 「도시의 여백」이었는데 총 응모작은 3백3점으로 작년보다 67점이 늘었다. 계획건축물부문 금상은 「空」이란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김연주씨(25·세창건축 근무)와 박영준씨(홍익대 건축과 4년)가 차지했으며 은상 2점과 동상 5점, 입선 28점 등 모두 36점이 상을 수여받았다. (편집자 주)



■ 개요**▷ 작품점수현황(67점)**

- 접수마감 : '97. 8. 2(토)
- 주거부문 : 18점, 비주거부문 : 47점

▷ 심사일자

- 1차 심사(시진첨심사) : '97. 8. 8
- 2차 심사(현장심사) : '97. 8. 11~12

▷ 심사위원(기나다 순)

-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경실련 운영위원장)
- 김무언(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박현령(시인, 추계예대 강사)
- 이동배(인하대 건축과 교수)
- 정 훈(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심사평**총괄 / 한창진(심사위원장)**

올해도 주거부문, 비주거부문을 합해서 6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다만 비고 우위 원칙으로 치르고 폴리내고 해서 23점의 입선작을 간추렸다. 이를 놓고 대상과 각 부문 3점씩의 본상을 골랐다.

심사의 주안점은 ▲사회적 공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여도 ▲미래지향성 ▲새로운 시도 ▲환경파의 친화성 ▲우리 문화에의 친근성 등에 두었다. 두드러진 현상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상적인 평면·외관으로는 경쟁대상이 되지 못하고 배치나 장소성,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주거건축에서 우열을 가리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모두 본상 수상임에도 그중 몇 개를 고르다보니 역대 수상작과 비슷한 작품, 지나치게 독특한 실험적 건축물 등을 상에서 밀려나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본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아까운 작품들은 이렇다. 이화상 성교육문화관은 학교건축물도 질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축면을 보여 주었다. 명휘원장애인재활센터는 적은 비용으로 그나마 높은 완성도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니콘프레시션코리아시목은 설계자의 재주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도서관은 광활한 학교도 서관으로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점이 본상으로의 선정을 주제하게 만들었다. 주거부문의 신사동 K씨주택은 괴김한 시도와 작가의 실험적 능력이 돋보였으나 실용성이 의문시된다라는 점에서 입선에 물러왔다. 이밖에 괴천의 단독주택인 자하당도 삶의 질을 높인 수작이었다. 결국 주거부문 본상작에는 삼청동주택,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 분당집합주거를 선정했다. 삼청동주택은 작가의 재주가 반짝이는 수작으로 현대건축과 우리 고유건축파의 조화 축면이나 기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웨스턴빌라는 춥은 대자 등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미를 유감없이 발휘. 마장도 하세도 없는 매력을 자닌 집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분당집합주거는 밀집된 고급빌리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 공간배치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삶

- 한창진(심사위원장 / 전 대한건축사협회장, 한정건축 대표)

- 황상모(한양대 겹임교수, LG건설 기술자문)

▷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97. 9. 8(월)~9. 19(금)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 600년 기념관

▷ 수상작 현황: 주·준공 / 설계자 / A·공자 / 건축주

- 대통령표창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
- 대상
 - LG화학 대덕연구소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
/ (주)LG건설 / (주)LG화학
- 본상
 - 삼청동주택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선 / (주)예림건축의장/최희종
 - 분당집합주거 (주)전인건축 안명제 / (주)동서개발 / (주)동서개발

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본상에 올렸다.

비주거부문은 코오롱타워, 분당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연수원이 뽑혔다. 코오롱타워는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의 전형적인 건물이면서 구조적으로도 이중유리벽의 선택 등으로 업무공간을 최대한으로 넓힌 작기의 의도나 기방이 돋보이는 수작이었다. 블루힐은 산도시 역세권의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을 특수한 광법으로 해결했다. 주차장과 매장을 바로 연결하고 매장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객들의 편의를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국민생명연수원은 대지선정 때부터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같이 협동했다는 축면에서 환경·장소성·삶의 질 등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걸작으로 뽑혔다. 빗물을 배경으로 한 건물의 전체적인 조형처라는 설계자의 면모에는 저지를 엿보게 했다.

대상은 LG화학 대덕연구소가 민장일치로 결정됐다. 5단계 공사 총 6만여평 중 2만3천여평의 공간과 일부 연구소, 탁월한 구조구사, 종축을 고려한 평면, 현경파의 조화 등 연구소로서의 기능과 건축미를 유감 없이 발휘한 걸작이었다.

권용우

건축물을 평가하는 시각은 바라다 보는 시장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건축기는 건축물의 작품성을 중시할 것이고 건설업 종사자는 사업성을 따질 것이며 행정관은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건축물이 공간을 점유하는 실체인 동시에 도시의 내용물을 가능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때 도시시리학도인 필자에게도 건축물은 아주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구조 연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건축물은 지역성과 시대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외 도시지역을 답사하면서 치형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필자의 시각이다. 예컨대 서베이러인의 건축물에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상업성이 짓들어 있으나 농배커리의 건축물은 노동의 생산성을 우선시하여 조거지인 「마르잔」과 생산리인이 집단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60여편의 작품은 여려

- 웨스틴 조선호텔H빌라 건축사사무소 디건축 유원재/(주) 디자인 신세계/(주)조선호텔
- 코오롱타워 원정수+(주)간·삼 건축/코오롱건설(주)/(주) 코오롱
- 블루힐 백화점 (주)원도시건축 변용, 김석주/(주)청구/(주) 블루힐백화점
- 국민생명 연수원 (주)김태수건축사사무소 김태수/(주)장학 건설/국민생명보험(주)
- 입선
 - 일산주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림 이상연 이상연/이성구
 - 신사동 K씨주택 (주)인우 건축사사무소 향안선/(주)인우건축
 - 반포한신타워아파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막홀길, 김종국/한신공영(주)
 - 자하당 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건축 신언학 (주)고아인디리아
 - 대우분당빌라 (주)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길수/(주)대우
 - 진천배티성당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구현/(주)광국건설
 - 명휘원 장애자 재활체육센터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LG화학 대덕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우리나라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편안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국 주제들을 유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동배

건축분야에 주어지는 상 가운데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을 가장 통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수상하려 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설계자·시공자와 더불어 건축주를 동시에 수상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의 난임일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값어치를 매김하는 상이 되려면 그 속에서 삶을 연출하는 사용자가 심사위원이면서 이율러 수상자가 되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상의 삶이 혼통 인공환경으로 암도된 오늘날 개체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인류의 삶을 기리는 건축만이 궁극적 존재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조가 곧 문화유산으로 태어남을 전제하는 새로운 건축문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운영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대표자를 심사위원회에 초청도록 한 것은 환영받을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두해 전 신사 때에 비해 많은 수상작품들이 명쾌한 개념정리로 어지적 형태와 험리적 기능을 엮어 완결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내적 충실에 진일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기뻤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근 의미의 문화적 지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황상모

설계도서가 완성되고 시공자가 결정되면 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의도하고 희망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계획에 의한 시공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또 시공사는 자재를 선정·조달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완성후 건물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따라서 우수작품상을 받은 건물은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기능 및 건축미에 전혀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의 청조적 예

- 김영섭/한울종합건설(주)
- 독도박물관 (주)시·상건축 유건, 김해정/삼성물산 건설부문
-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이로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승호상/씽 용건설(주)
- 금정시민도서관 (주)세진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재평/대 륙종합건설(주)
- 한순십 산부인과 (주)일간씨앤씨 건축사사무소 최관영, 정 동명/(주)삼협특건
- 나콘 프레시전 코리아(주)사옥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 소 이영희, 정영균/흥화공업(주), 한미인테리어
- 삼성자동차 기술연구소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삼성 물산 건설부문
- 이화 삼성교육문화관 (주)정림건축/극동건설(주)
- 한국가스공사사옥 (주)정림건축/극동건설(주)
- 설악워터파크 (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주)한화건설
- 공로상
 -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

술성·상징성·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시공의 품질확보와 유지관리의 안전성 역시 건물의 리아프사이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준공된 건축들을 심사 평가,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도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창작 예술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공의 품질과 유지관리의 기능과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는지에 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명실공히 훌륭한 건축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빙어 되고 그에야만 대상의 가치가 인정되고 계속 보전될 수 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든 건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과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용 건물들의 심사다.

박현령

건축문화대상 심사를 끝내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충족감에 빠졌다. 평소 필자의 전공인 글쓰기를 다하고 낸 때와 같은 충족감과 기쁨이 트이는 듯한 상쾌함이 일려들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건축물, 특히 집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담고 있거나 자신이 드나드는 곳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자대하다. 그런 면에서 건축물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무한의 상상력과 창조력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술 작품일 것이고 그것도 모든 예술작품 중에서 인간과 가장 밀접하고 행복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찍이 어떤 이는 「건축물은 생물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 개의 건축물은 그 완성의 선상에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펼펼 살아나는 것임을 짚지도 이번에 실감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건축물을도哪怕 상상해서 시어보고 헤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성이리라면 그런 면에서 건축이라는 예술은 가장 사랑받을 예술이랄 수 있다. 예컨대 왜 우리는 멋진 공간, 잘지은 건축물 속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멋지고 잘 생긴듯한 자기암시에 빠지지 않는가.

■ 개요

▷ 주제 : 도시의 여백 / 채워 넣기로 이루어진 오늘의 도시에
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뜻은 무엇
인가? 비집고 들어서서 그조차 가득채우기가 능사인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워내기로 바꾸자. 한 뼘 바닥,
한 융큼의 공간이라도 소중히 다루어 공간, 그 비어
있는곳이 여백일 수 있게 하자. 건축과 도시의 제 모
습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백의 빈 곳에 초점
을 모운다.

▷ 작품접수현황 : 303점(마감 : 9. 3, 심사 : 9. 4)

▷ 심사위원(가나다 순)

- 강철구(동우건축)
- 김광현(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 김영섭(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 김인철(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 유원재(건축사사무소 다건축)

■ 심사평

윤석우(총평, 심사위원장)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은 「도시의 여백」을 주제로 했다. 실제 대지를 일의 선정해 설계토록 했다. 응모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용통성을 충분히 부여해 가능한 한 제한조건들을 없애도록 했다. 모작들은 도시에서 우리가 실제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시장내용을 지난해와 달리한 때문인지, 아니면 응모자들의 열성때문인지 이 상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3백3점이 응모했다.

「도시의 여백」은 가득 채워진 오늘날의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비워내기로 바꾸어질지, 단 한치의 공간이라도 소중히 다뤄서 도시의 참 모습이 찾아질지, 그래서 도시의 위기에서 탈출할지를 모색하고자 한 것 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어느 방향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실현했는가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작품들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됐다고 본다. 특히 기성건축가의 솜씨같은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주택지 재개발, 지하철역 개조, 자트리밍 이용, 하천부지의 이용, 골목길의 개조 등 여러 상황을 작은 테마로 해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했다. 공간활용, 조형성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나하나 해결한 작품들이 많은 것은 우리 가 얼마나 도시생활에 짜들어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숨쉬는 도시, 여유로운 도시를 갈망하는 욕구가 분출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다만 조형이나 테마, 대지선정 등에서 너무 입장을 겨냥한 즉, 피거의 입상작품들의 성격이나 심사위원들의 설탐 등을 의식한 작품들이 많았다. 이는 순수성 결여로 이어운 점이라 하겠다. 입상작들은 여

- 윤석우(심사위원장 / 종합건축 건축사사무소)

▷ 전시기간 및 장소(준공부문과 동일)

▷ 수상작 현황

- 금상 : 空 김연주, 박창준(건축사사무소 세창, 홍익대학교 건축
공학과)

- 은상

• Divided Elevation 백종태, 이승관(숭실대 대학원 건축과)

• 투명성 류상보, 채호경(서울시립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건축
과)

- 동상

• A Prototype for the Space in Between 친경환(고려
대학교 건축공학과)

• 문혀진 여백 인규태, 류정민(동의대학교 건축과)

• 경계의 여백 문정석, 명영온(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 철길 그리고 삶 이형석, 임채찬(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 Deviation machine 정태종, 이강훈(홍익대학교 건축과)

- 입선

• An Urban Place 흥유표, 최진석((주)유림건축)

라가지 경우를 다루고 제안하고 있다.

금상 수상작인 「空」은 삶을 땅밑으로 넣어 도심 3세대의 주거 계획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여백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에 기여하고, 또 자신도 만족한 쪽고 소박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호감을 얻었다. 주택도 채광이나 기능상 아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상 수상작 중 하나는 철도변을 개발해 거리와 철도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공간적 대립을 허퇴 사람들의 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건축작은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또 하나의 은상작은 여성뿐 아니라 시각적인 여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세안한 것이다. 도시가 보여주는 시작적 장애물을 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결방법의 한 예를 제시한 작품이었다.

우리는 도시생활에 너무 짜들어 있다. 생활자체도 그러할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제인들이 작품들 속에 암암이 박혀 있다. 입상작들 뿐만 아니라 모든 출품작에 잘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거둔 성과들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다. 주최 측에 성원을 보내며 우리 건축문화의 밝은 앞날을 기대한다.

김인철

주제로 주어진 「도시의 여백」은 이 시내의 도시를 되돌아켜 보아 양적팽창으로 치달은 결과로부터 숨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회복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다.

입선을 비롯한 입상작들은 다양한 각도로 오늘의 도시를 파악

- 도원 박건섭, 박영자(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엘룸 김배원, 우평현(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On and Off 차홍석, 김선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시에서 임윤규, 김승수(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 시각예술센터 국병일, 김동만(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마당갤러리 윤호진 유병민(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심 폐연탄공장 재활용 배관유, 정수철(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 관계 유범석, 이훈길(충남대학교 건축과)
- 도시, 마을, 가정의 여백 최성만, 한승이(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부산다시보기 최연승, 김광진(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일집주거지역을 위한 문화공간 김상엽, 윤종태(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3m의 의미를 찾아서 김광일(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보이드 코어 권영석, 고흥권(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정림건축
- Urban Pocket 정원재(금오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시위에 세운 허수아비 허인철, 이정완((주)종합건축사사

- 무소 당종합, 건축대학(교) 건축공학과)
- Silence & Vertical 송기훈(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 틈 양승진, 신승호(중앙대학교 건축과)
- 근원 배은숙, 송형규(동의대학교 건축과 신도시 설계감리(주))
- 채움 민형준, 정길수 ((주)내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충의대학교 건축과)
- 한옥 Renovation 김지원, 김지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서지학사 권성근, 김태우(인하대학교 건축과, 향·도시건축사무소)
- 진상의 도시 강기진(금오공대)
- 발상전환사이의 지하철역 출입구 Renovation 정제옹(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느림 정성용, 박재우(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가능성? 흥승모
- Omnibus Scrap 정상철, 양병일(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Flow The Stay 선승희, 손형욱(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하고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적 욕망으로 이뤄진 포아동풍경에서 질과 질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A Prototype For The Space In Between」, 국제시장의 혼란을 새로운 상황으로 재구성한 「불투명 여백」, 보호의 기능을 다하고 이제는 징역이 되어버린 창신동 성벽을 새롭게 열어보려는 「경계의 여백」, 같은 의미에서 도시시설의 기능을 다한 철도와 그 주변을 기억의 장치로 활용시키려 한 「철길 그리고 삶」, 전형적인 모더니즘, 고보빌딩의 멋있함에 파격의 실마리를 뿌펴하려는 「Deviation Machine」 등은 도시의 건축에 대한 접근방식이 흥미롭고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상황설정의 타당성과 작품의 완성도에서 높이 평가된 것이 철로변의 버려진 환경을 활기 넘치는 투명한 공간으로 재생시킨 「Transparency」와 서울역앞 D빌딩의 무모한 덩어리에 파김히 여백을 만들려고 한 「Divided Elevation」이었다. 특히 「Divided Elevation」은 누구 리도 생각했을 법한 착상이었지만 그것에 질착해 대안을 제시한 컬럼버스적인 착상이 높이 평가돼 대지막까지 금상의 경쟁작이 됐다. 개발위주의 도시 만들기에 일침을 놓은 아이디어였다.

도심의 주택 만들기로서 땅위를 열어 두고 땅 아래에 3대를 위한 주거를 계획한 「호」으로 금상이 결정된 것은 도시의 기본단위인 주거공간에 주목한 점과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 과다하게 꾸며지는 공간의 낭비를 절제로 끌어나간 단순 명료함이 호감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곳에서 그같은 활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은 도시문화를 일으키는 건축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룰것인가를 묻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이다. 빈 곳은 무작정 가득 채우고 채워진 틈에 기능

만 주어지면 그만이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이제 새로운 거리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건축과 도시는 미래를 잃고 말 것이라는 입장을 비롯한 참여자 모두의 가능성에 무한한 기대를 갖다.

강철구

전반적인 인상은 상당한 현실 감각에 충실히 작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작품은 주제를 잘 파악하여 도시에서의 빈곳을 만들기에 애쓴 흔적이 보인다.

막연한 소재와 분명하지 못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소재선택과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깔끔하고도 잘 정리된 작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대우빌딩 입면개선안은 그 건물 건축주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언제나 서울역 앞을 지날 때 도시에서의 막힌 공간의 대표로서 무엇인가 손을 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금상은 잘 정리된 표현으로 주제에 꼭 맞는 소재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본다. 또 다른 은상의 철로역 근생시설은 몇년전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나 나름대로의 완성도는 아주 출중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부탁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어떻게 작은 패널과 모형에 잘 정리해서 그 의사를 전달시킬것인가에 힘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오랫동안의 명상과 고민은 출중한 작품의 모체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일것이다.

LG화학 대덕연구소

LG Chemical Research Park

김태수 / (주)김태수 건축사사무소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Tai-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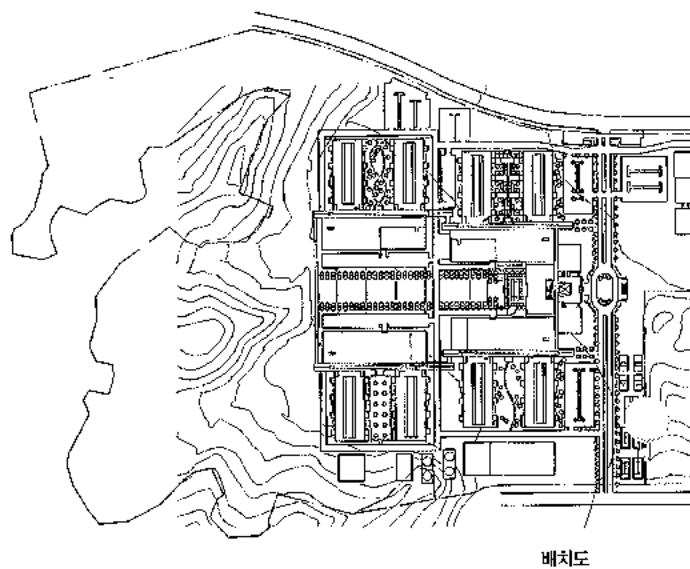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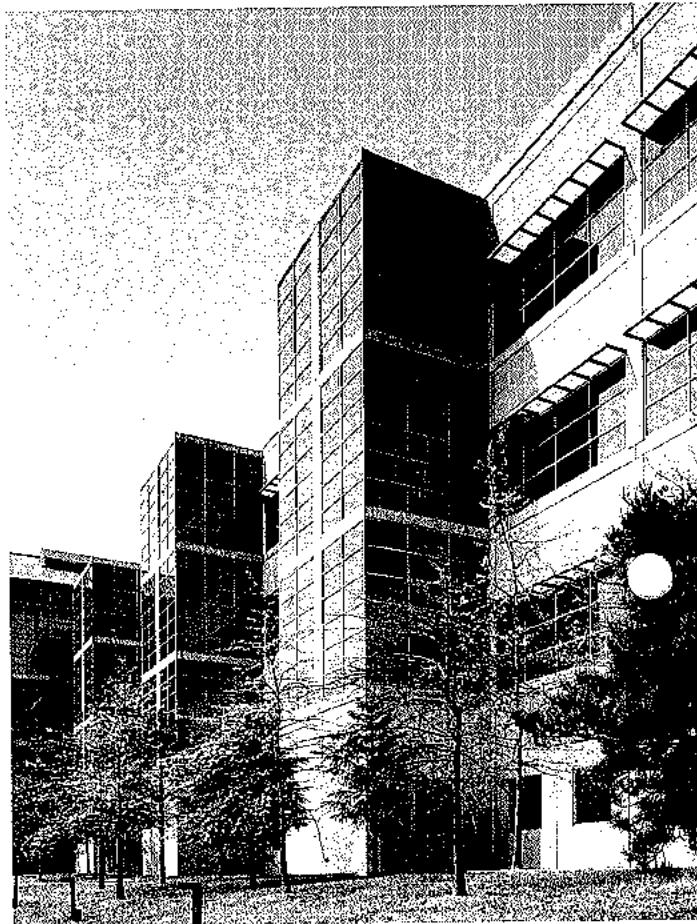
이 연구소는 첨단 화학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시설이다. 총 5단계로 계획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그 중 3 단계가 완성되었다. 모두 완성되었을 경우 단일 연구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좌우 대칭의 배열은 토마스 제퍼슨 설계에 의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을 연상케 하며, 장래의 확장 및 동선의 효율, 대지 활용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규칙적인 배열 및 석재와 알루미늄, 유리의 간결한 재료 조합을 통해 과학적 연구가 갖는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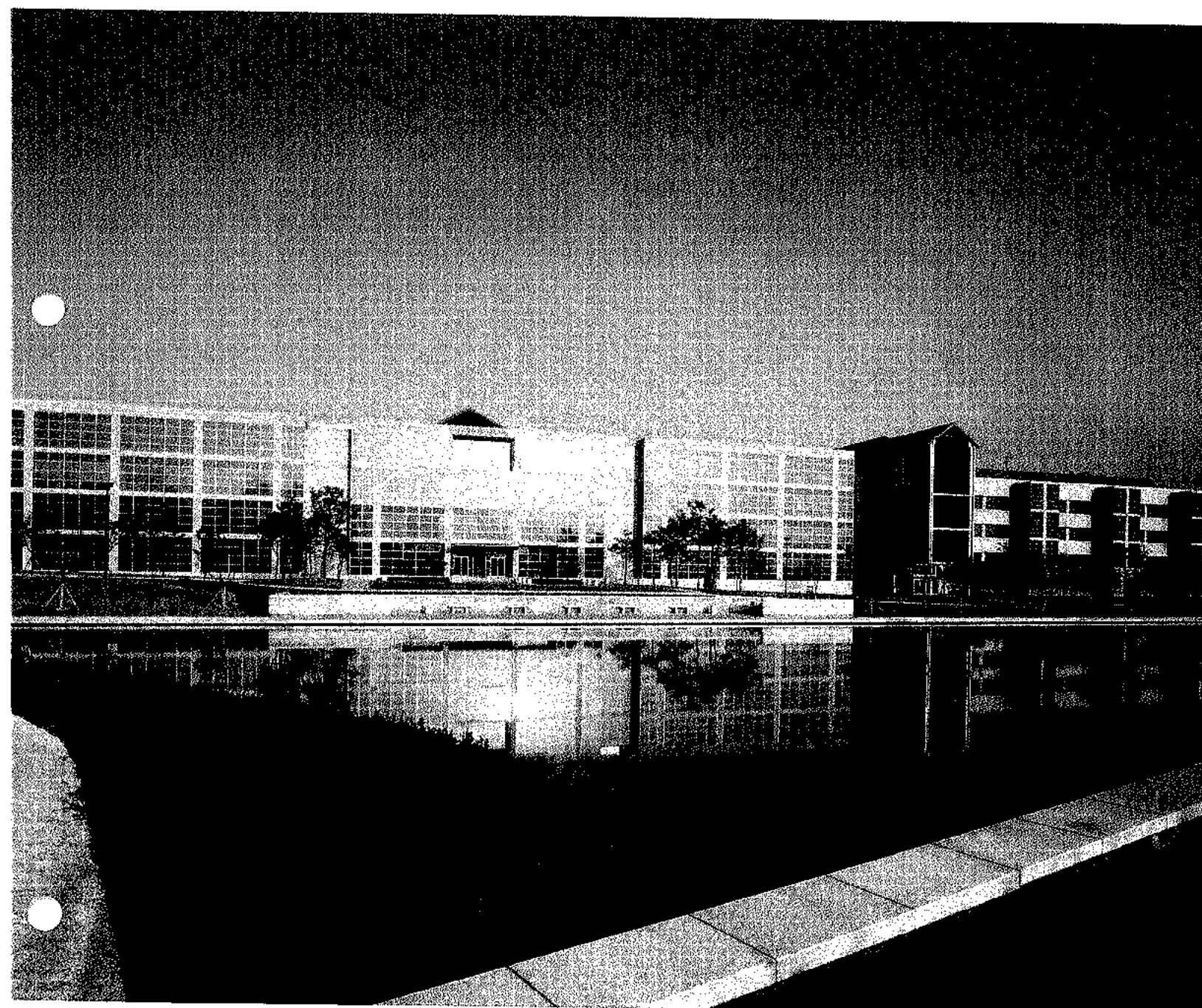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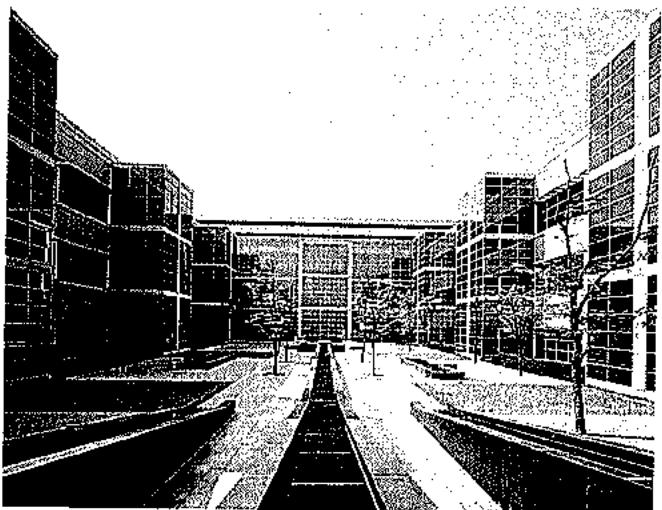
각 건물은 노출된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5개층 높이의 유리 복도로 연결되며 이것을 사이에 두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와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유리 복도는 치열한 경쟁 속에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들에게 매우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며 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중세 고딕 성당의 내부를 연상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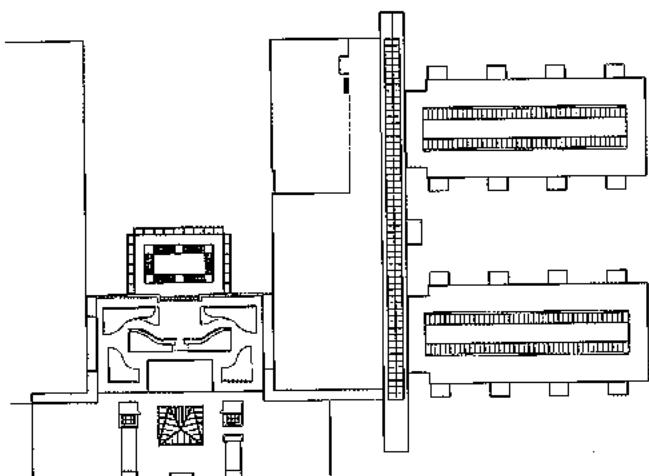
건물의 중앙에는 행정동을 위치하여 약 500여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운동시설, 강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부터 각 양팔을 벌린 것처럼 유리복도가 배치되고 여기에 연구실과 파일럿 플랜트가 붙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동선이 명쾌하면서도 부분들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연구활동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배려가 건물 곳곳에 적용되었다. 건물 전면에 대형 호수가 설치되어 있고 연구동 사이의 중정에는 서로 테마를 달리는 조경방식이 도입되어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행정동 중앙에는 추상적 테마에 의한 중정이 신선한 놀라움을 주며, 그 건물 위에 옥상정원이 설치되어 휴식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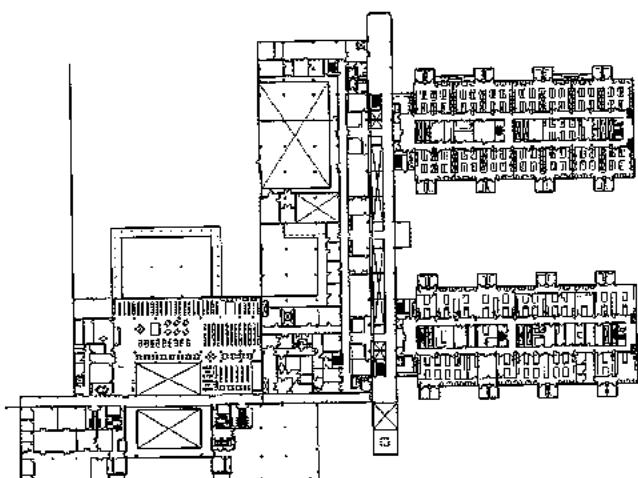
대지면적	291,439m ²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연구단지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건축면적	행정 식당동 - 6,201.74m ²
	연구1동 - 11,342.75m ² 계 - 17,544.5m ²
연 면 적	행정 식당동 - 22,982.56m ²
	연구1동 - 48,586.62m ² 계 - 71,569.18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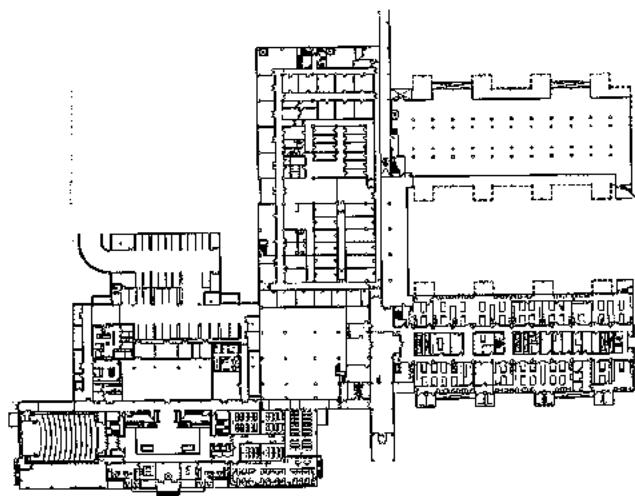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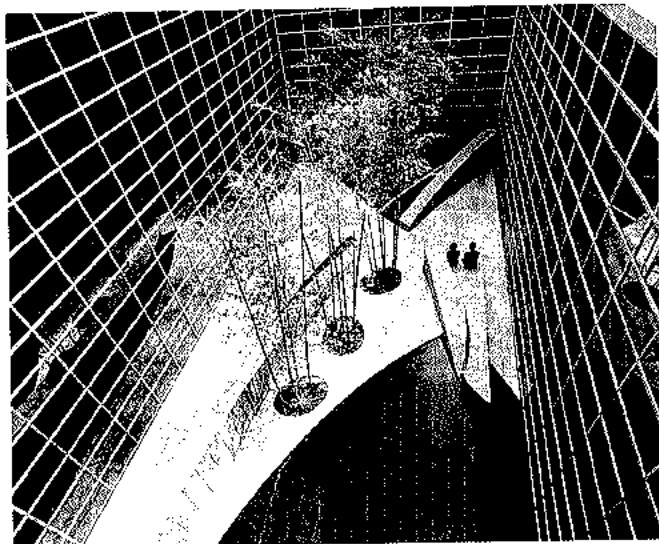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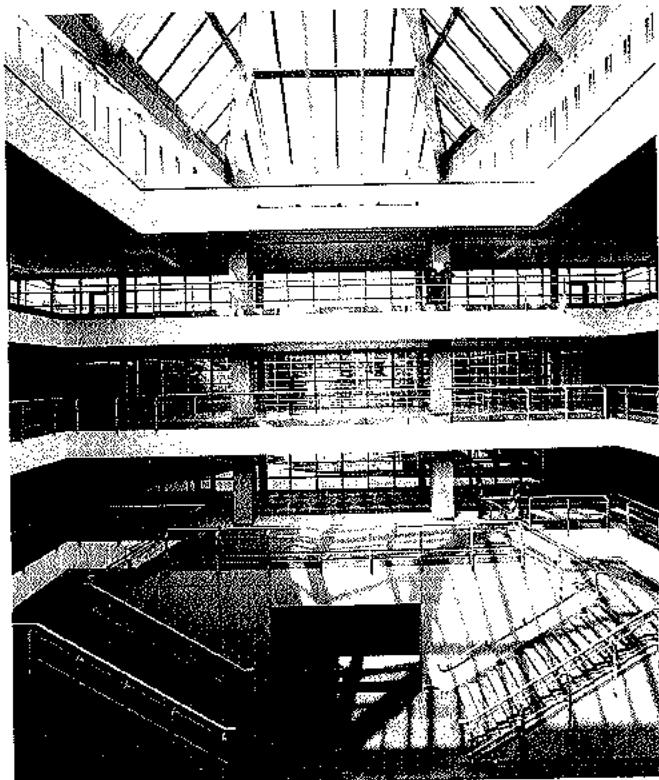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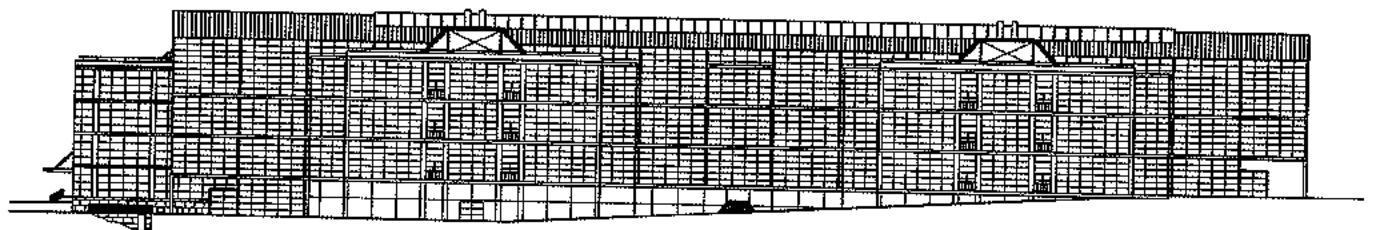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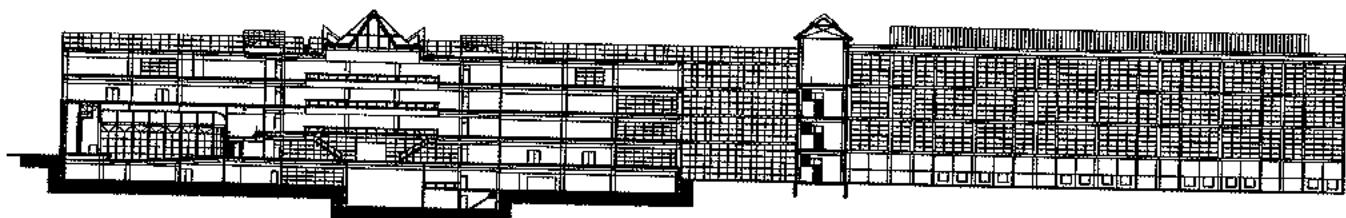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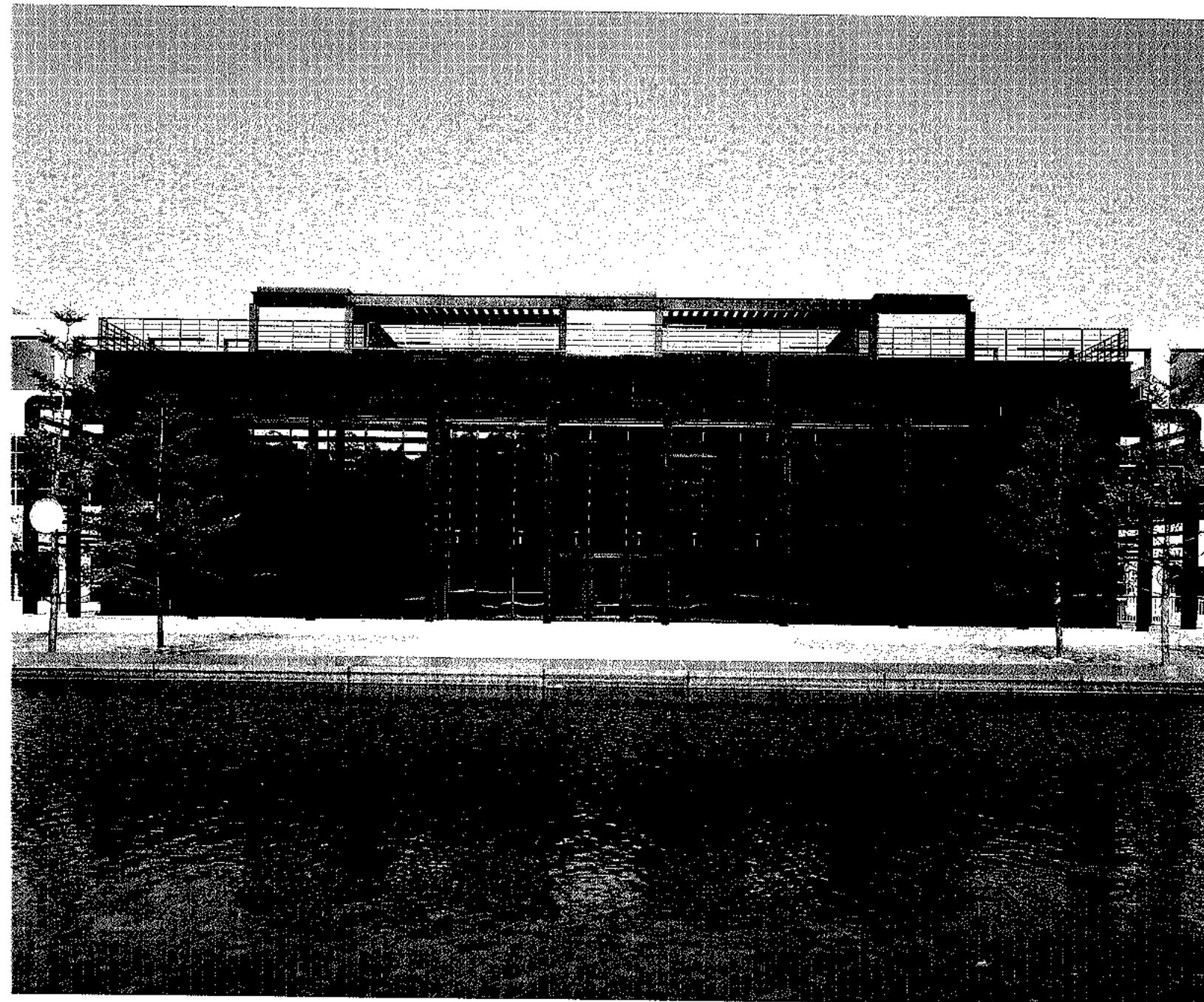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일면도



단면도

삼청동 주택

East & West

김영섭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ub

삼청동주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비극적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저항이며, 또 다른 길에 대한 제시일지도 모른다. 서울 북촌마을의 재개발 사업이 몇년 전부터 벽산그룹에서 촉진되고 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한옥 밀집지역(그들은 세청 불량주거지역이라 부른다)만을 골라 모든 한옥을 없애고 - 아마도 몇 채는 전시용으로 남산골 어딘가에 옮길지도 모르겠다 - 그 유구한 터에 양식 빌라촌을 짓으려는 것이다. 이에 삼청동주택은 후안무치한 개발업자의 손에서 한 두 채라도 건져 보려는, 건축하는 사람 이 자기영역에서 하는 작은 움부림이다.

삼청동 3-2 주택은 한옥의 원형을 그 터와 장소에 그대로 두고 지하를 굴착하여 3대가 사는 살림집을 만든 가록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연과 집주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특히 돋보였던 프로젝트였다. 주택은 내부분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밀년까지의 삶을 보낼 중년의 부부가 거처하는 한옥, 지하의 살림공간은 - 이곳은 아이들이 분기하여 또 다른 세대의 중년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 차지가 될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노부모와 아이들의 분화된 주거공간 - 자식들이 분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가구 용도로 세입가구를 들일 수 있도록 큰방 하나가 Built-in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밖에 진입부와 주차공간, 기계실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삼청동주택은 진입도로에서 한옥마당까지 약 7m의 표고 차를 보이고 있다. 진입도로와 한옥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진입 레벨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을, 그 윗 레벨에는 양식 주거공간을 펼쳐놓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식 주거공간은 지하화 되는 관계로 보다 많은 채광과 통풍이 주요 설계 포인트가 되었고 다양한 레벨 차이를 극복하여 유기적인 동선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한옥과의 연계 문제는 시공시에도 수치에 걸친 설계 변경을 하였는데 그것은 한옥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당과의 단차(약 3자 尺)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돌출된 양옥(집주인은 크리스탈 하우스라 부른다)의

지붕은 바로 맞은편 자연의 바위에서 모티브를 인용한 것으로서 진입로 초입의 칠보사 문앞에서 바라보는 뒷산 북악의 연설봉 두 봉의 형상을 따온 것이다.

내부공간은 Kurt Schwitters(근대건축의 파이오니아)의 Mertz Bau를 연상케하는 다각형 천정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방에 누워보면 주위의 가시나무 잎새를 스치는 바람이 보이고 소리없이 별빛이 찾아드는 밤하늘이 가득한 방이 된다. 한옥마당 지하의 생활공간은 상부의 한옥구조를 이어받아 일부가 오버랩 되기 때문에 구조상의 제약을 받는 공간들로 분할되어 있다. 한옥과의 연계동선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활처럼 구부려진 복도를 두었는데 이 곳은 조그만 전시 그림들이나 가족사진들로 채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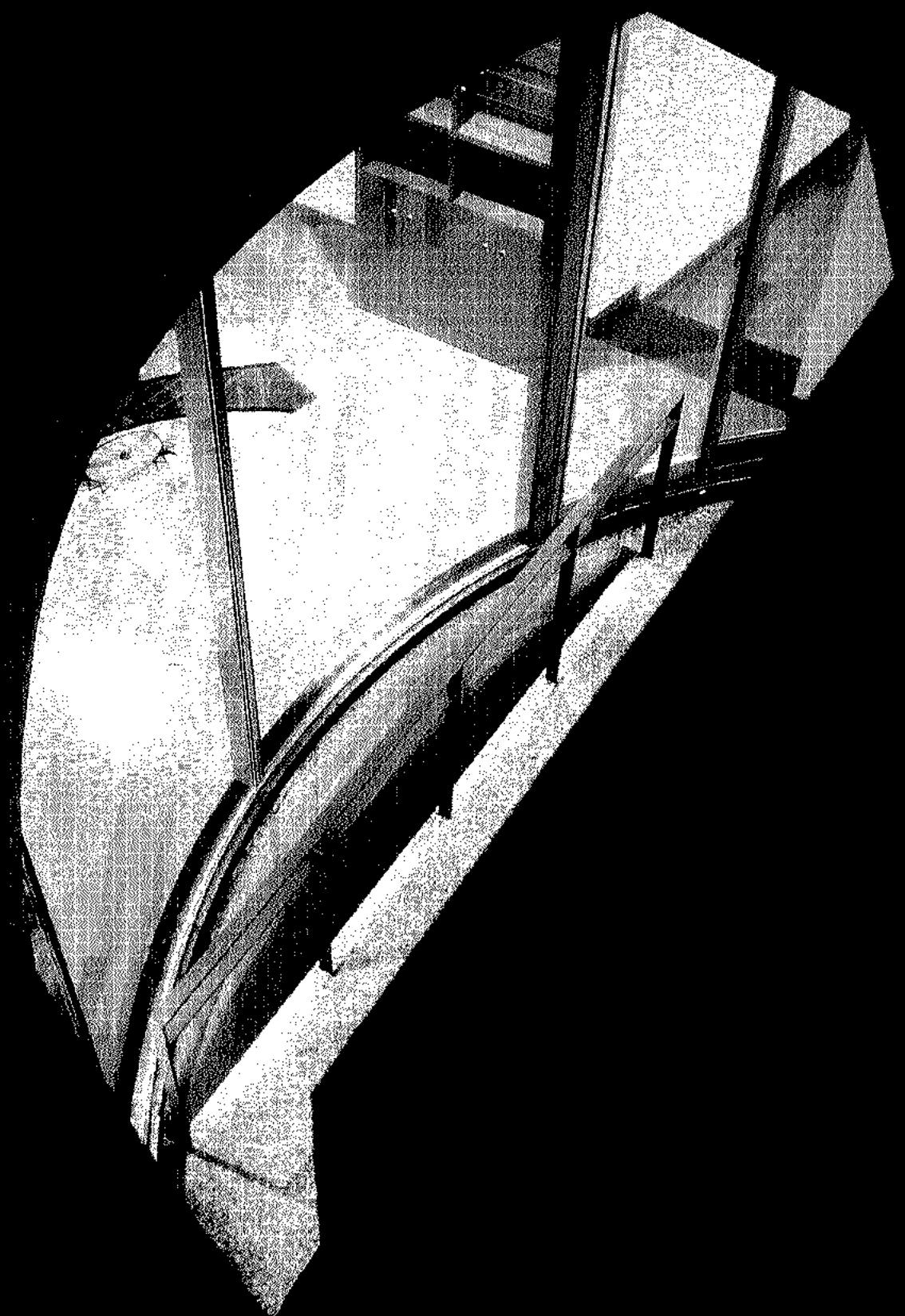
또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집주인의 간절한 소망으로 지하공간에 음악감상실이 마련된 것인데(집주인은 오디오 매니어로서 아마 이 공간이 가장 소중한 곳일지도 모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공간은 음향이 밖으로 새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겹겹으로 막혀 있다. 가족들을 위한 음악은 거실벽에 미리 설계된 Bang and Olfsen의 깔끔한 오디오 콤포넌트 몇이다. 한옥구성은 매우 단출하다. 커다란 안방과 건너방 그리고 별실로 꾸며져 있는 다실이 전부이다. 한옥수리를 하면서 재배치한 것은 안주인을 위한 작은 대청을 마련한 것과 그 옆의 작은 공간들을 분할하여 화장실과 목욕실로 만든 것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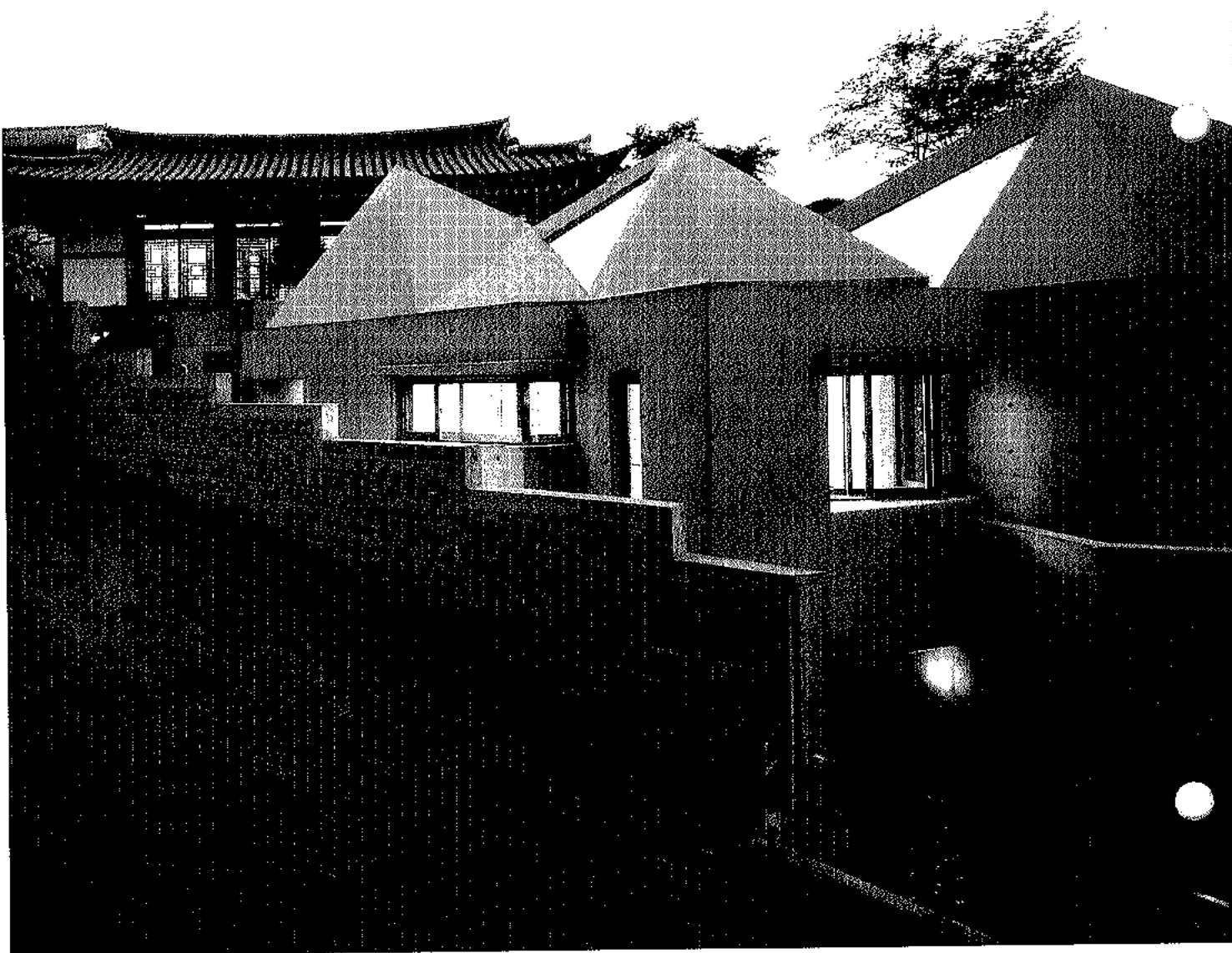
한옥은 잘 고쳐만 놓으면 스스로 채광과 환기, 습도조절을 모두 해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경친화력이 매우 높은 건축물이 된다. 집주인은 삼청동 3-2호의 한옥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여 집을 수리복원한후 한학자이신 영남대 서경교 명예교수께 부탁하여 益淸閣이라는 당호를 받아 裕泉 金時亨氏께 부탁하여 현판을 써 달았고 기둥앞에 주련을 달아 멋을 내었다. 솟을 대문은 구례 회암사의 慶寂門을 모사하여 새로지었는데 대문장식은 국민대 공예미술과의 협성열씨가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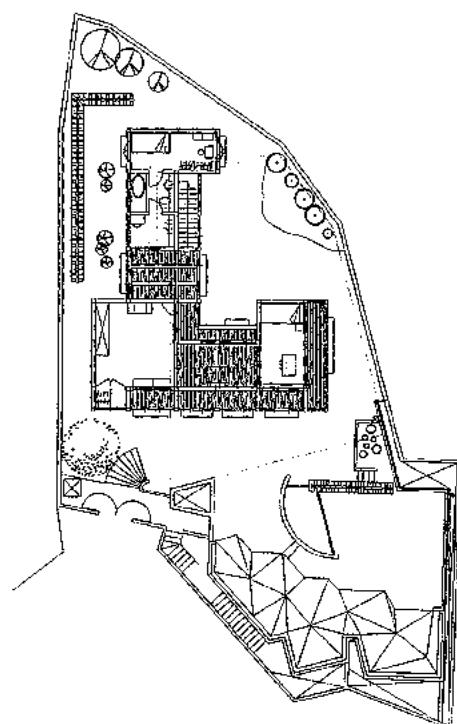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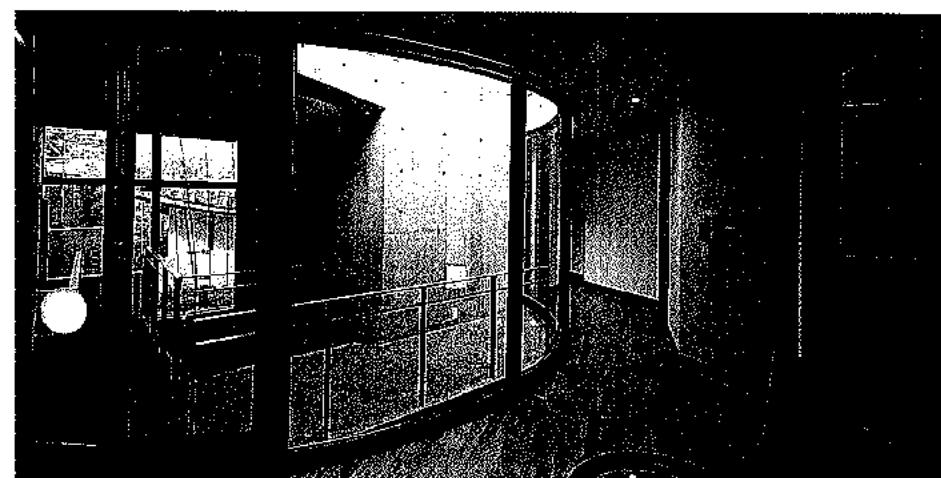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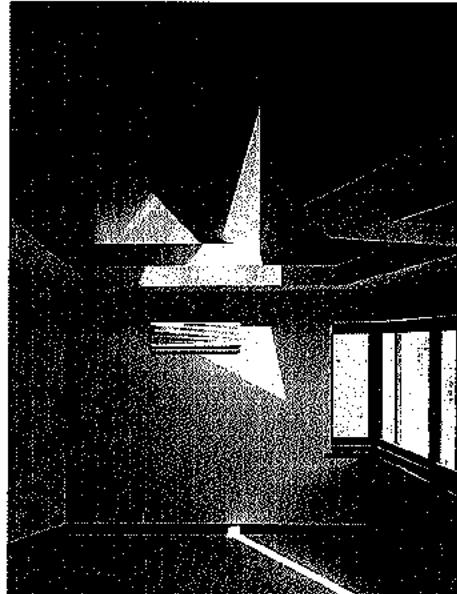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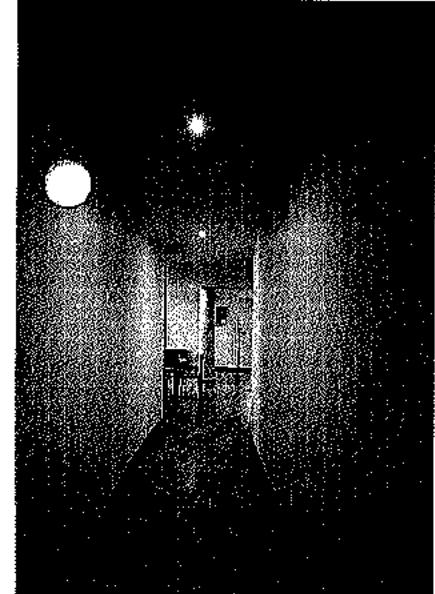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3-2, 2-6, 2-7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 고도지구
대지면적	468.57㎡
건축면적	221.48㎡
건폐율	47.27%
용적률	41.05%
규모	지상1층, 지하1층
구조	목조,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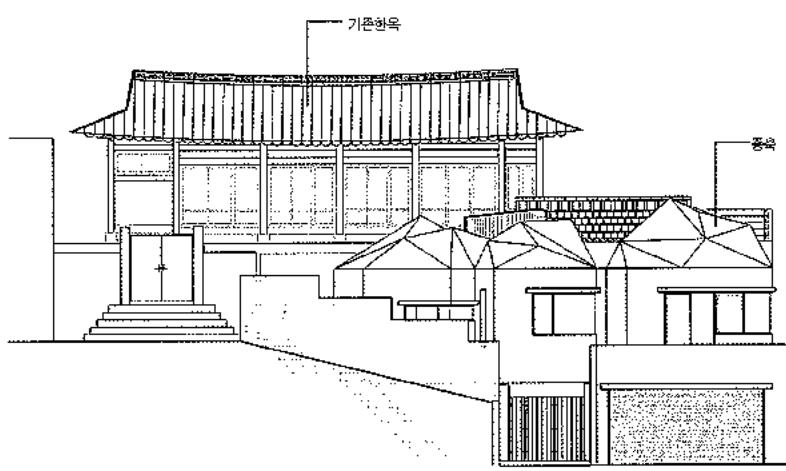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김경혜
설계기간	1995. 11~1996. 6
공사기간	1996. 7~1997. 7
구조설계	명일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설계	(주)범창종합기술
전기설계	(주)서장엔지니어링
협력자	모정원(목공), 박문구(와공), 흥성열(금속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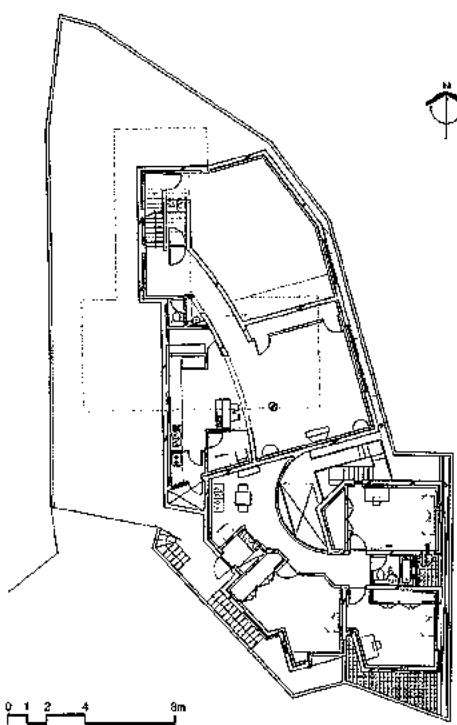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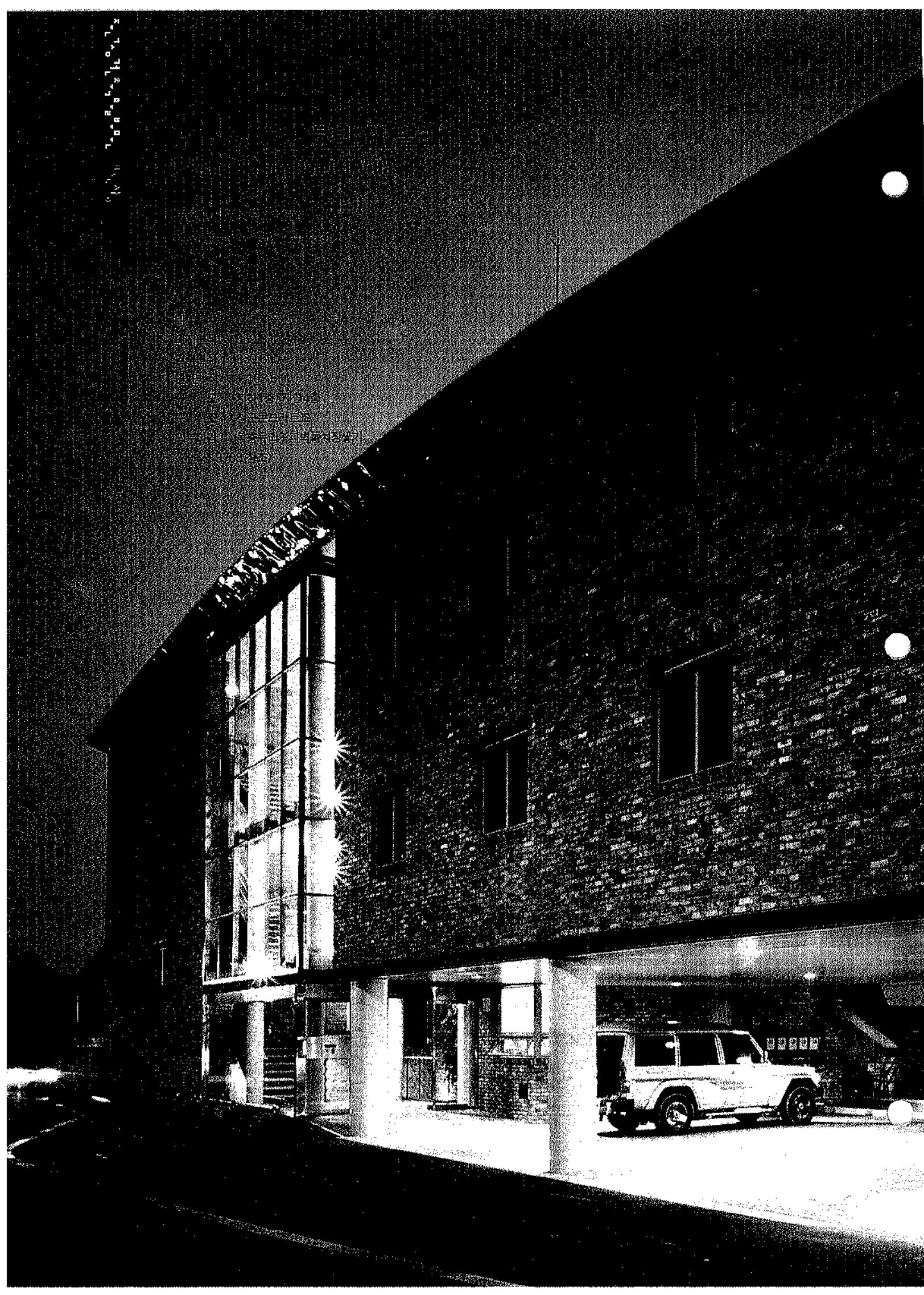
1층 평면도(레벨 +6350)



정면도



1층 평면도(레벨 +2650)



분당집합주택

Pundang Collective Housing

안명재/(주)전인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Myung-Jei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F-12-1 블럭

대지면적 3,548.3m²

건축면적 1,518.7m²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16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샌드스톤, 아스팔트 상글

〈건축사 9708 참조〉



국민생명 연수원

Kookmin Life Insurance Company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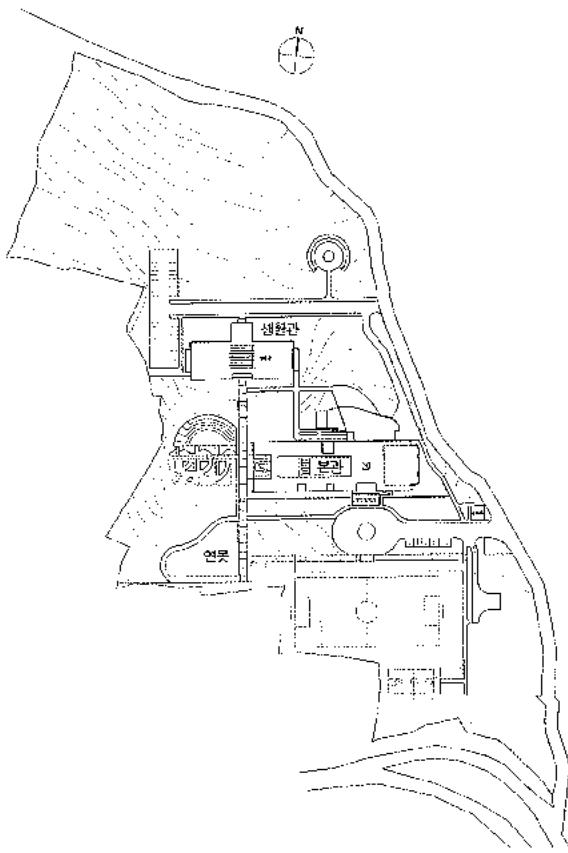
김태수 / (주)김태수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Tai-Soo

전면에는 저수지가, 후면에는 완만한 산자락이 배경을 이루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잡은 연수원 건물이다. 연수동과 속소동의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대형 연못, 야외 교육장 등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조경 속에 자리잡고 있다.

설계의 기본 개념은 진입 및 형태에 있어서의 중첩이었다. 이에 따라 몇 겹의 벽체가 놓이고 그 사이에 필요한 공간들이 배열되는 방식의 기본 골격이 정하여졌다. 공간의 필요에 따라 그 외피는 밖으로 밀려나거나 골조가 노출되거나 혹은 위로 솟아오르는 등 명쾌한 질서속에서도 부분적인 변화가 있어 건물의 경험을 보다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교육공간 대숙박 및 휴식 공간의 비율이 매우 높아 매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많은 철단장비를 설치,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로비에는 세계적인 조각가 에릭 오의 대형 물조각을 설치하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신선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소동은 연수동 뒤의 낙지막한 언덕 위에 배치되어 전면의 광활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영화관, 탁구 및 당구장, 매점 등이 설치되어 교육 중간에 충분한 여흥과 휴식을 가능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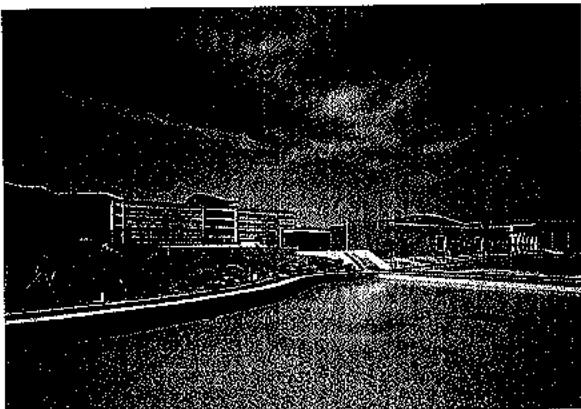
두 건물에서 모두 각종 집기를 벽속에 매입하거나 별도 구획한 실에 배치하여 건물이 완성된 후 사용함에 있어 정돈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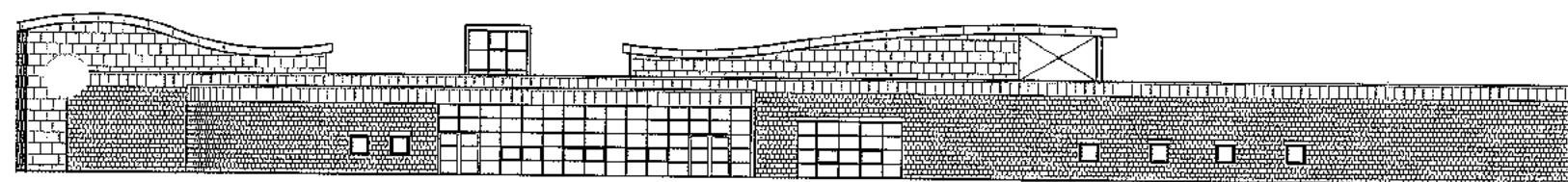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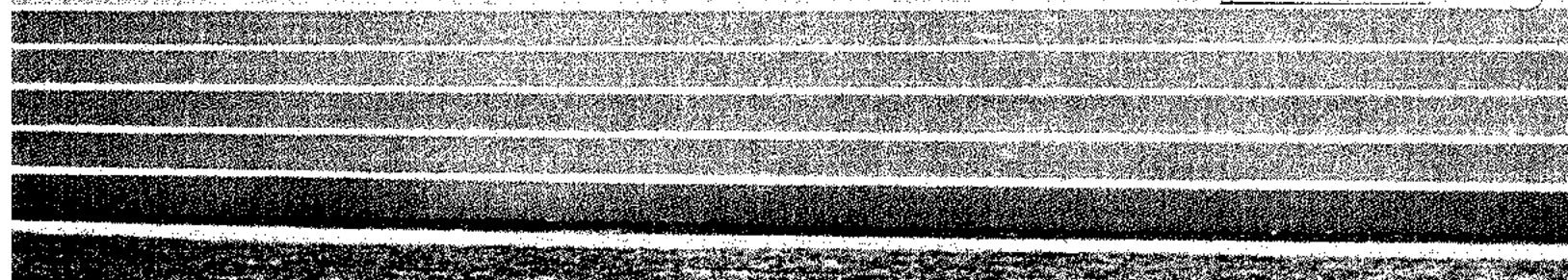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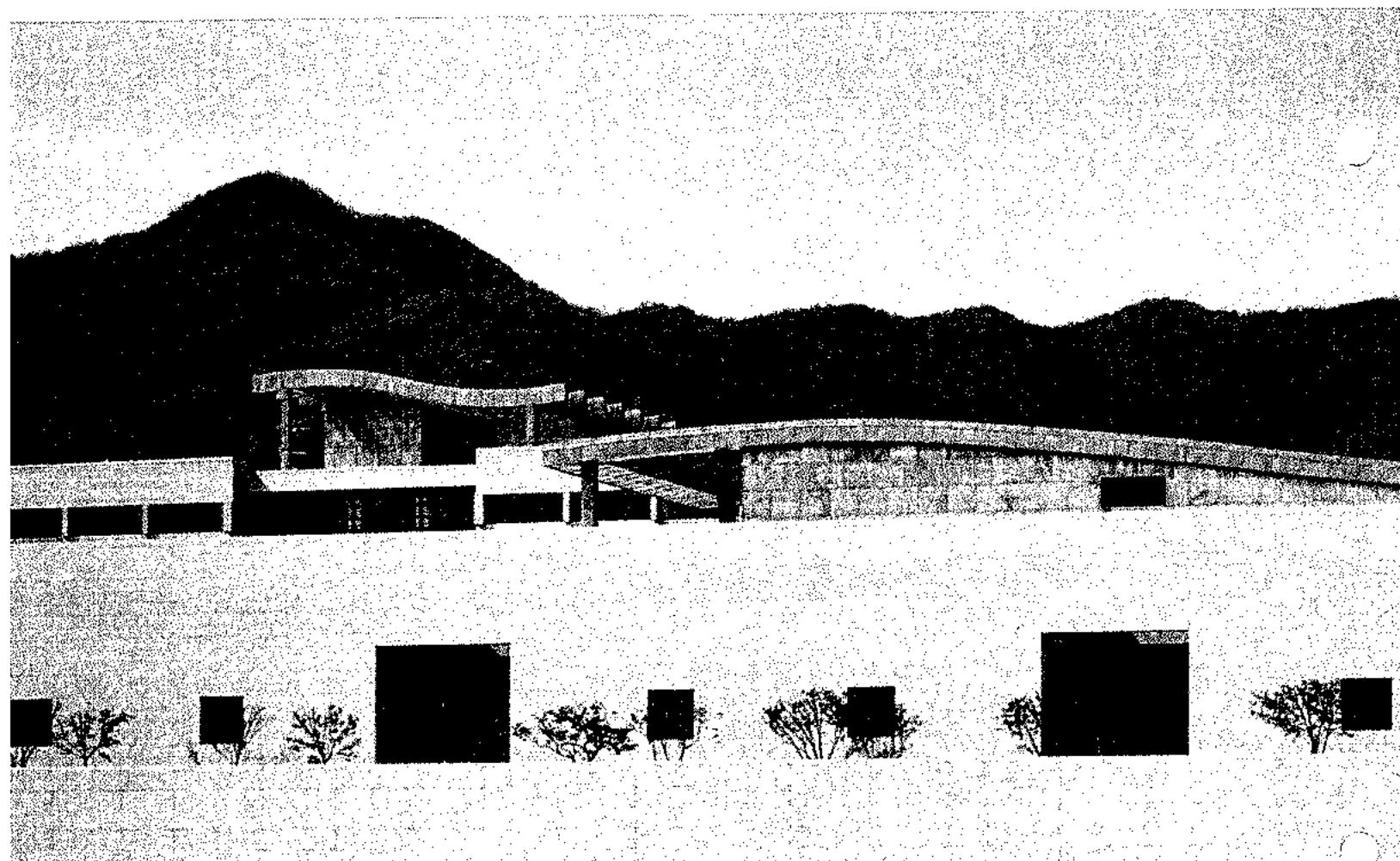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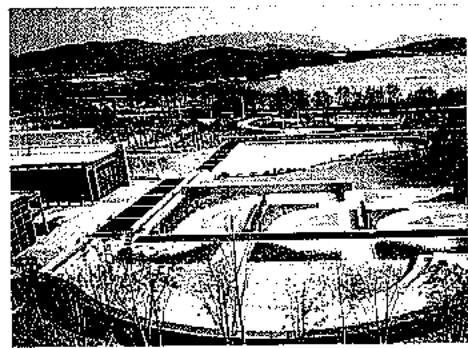
대지면적	37,315.00m ²
지역지구	농림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건축면적	본관 - 2,592.00m ² 생활관 - 1,408.27m ²
연 면 적	본관 - 2,999.00m ² 생활관 - 6,659.68m ²
조경면적	19,579.73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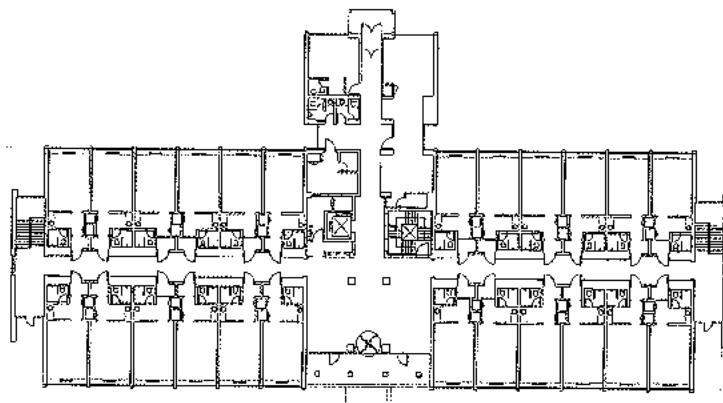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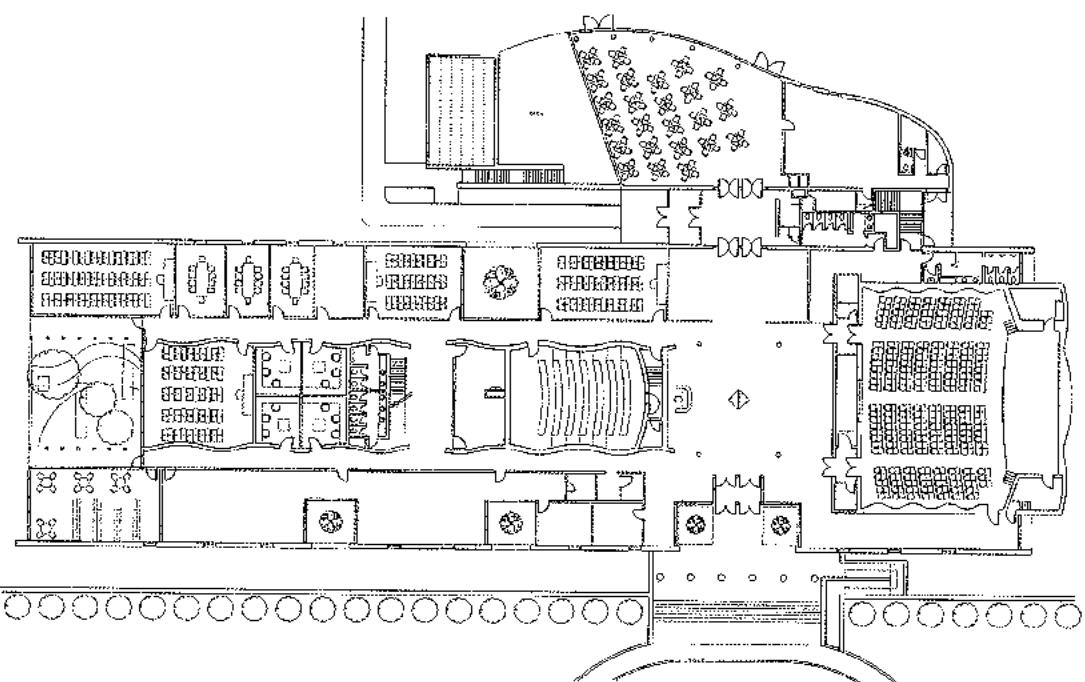
복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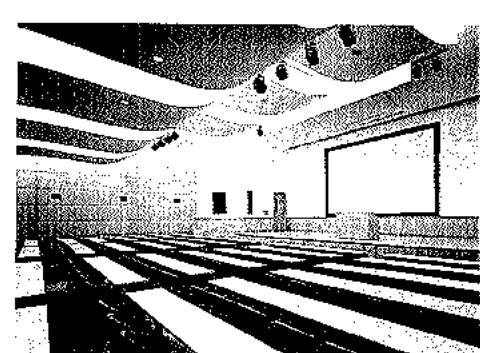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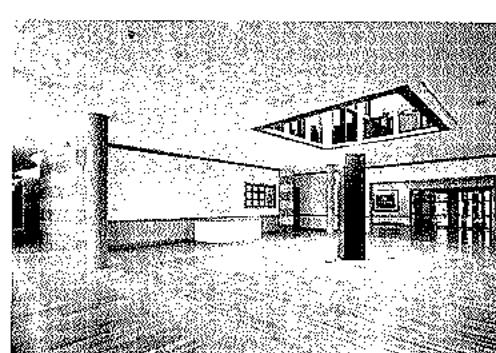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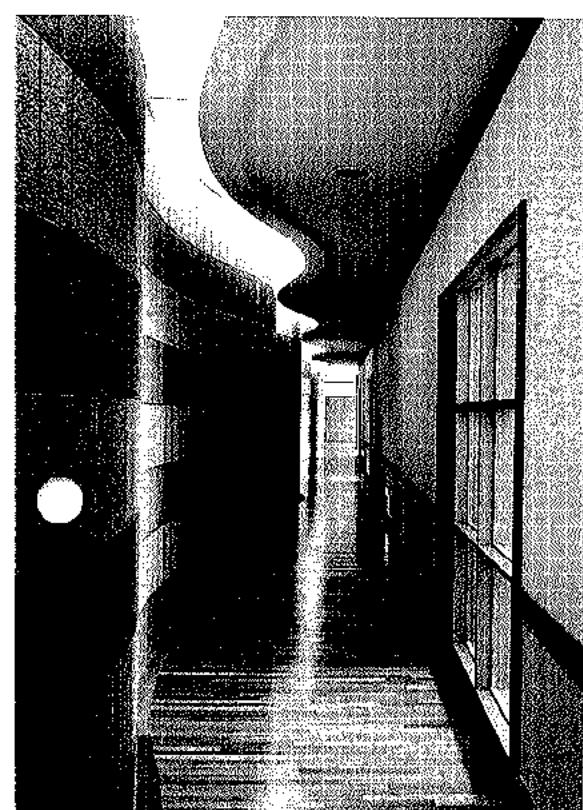




생활관 1층 평면도



본관 1층 평면도



블루힐 백화점

Bluehill Department Store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Wondoshi Architects Group Ltd.

분당신도시는 대규모 계획도시로서 아주인구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의 중산층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에 대한 편향이 두드러진 지역이며 다른 신도시보다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롭게 유통업계에 진출하면서 첫번째로 백화점을 오픈하는 건축주의 일차적인 목표는 기존의 백화점을 이용해 준 고객에게 블루힐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 환경이 단순히 판매공간을 조성하고 상품을 진열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1차적 상행위의 현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사회, 경제, 문화환경의 급변과 소비자요구의 개성화, 다양화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 업계간 경쟁의 심화 등 소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쇼핑파티이나 쇼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른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구매의 편의성과 제반 종합적인 문화생활 공간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백화점 형식이 요구되어졌으며 이를 위해 본 계획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다.

도시매력성

외관 및 외부공간을 주변지역사회의 유기적 연대환경으로 통합하였다.

- 보행자 통로를 겸한 가로광장을 대지축을 따라 중앙부에 설치하여 대지의 좌우에 있는 보행자 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적인 도시형태와 맥락에 유기적으로 통합시켰다.
- 보행자 통로 및 가로광장은 1층부터 4층까지 보이드된 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천장으로부터 자연광을 끌어들여 개방적인 공간감과 극적인 상승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서의 체험을 유도하고 공공적·사회문화적·상업적 활동을 위한 도시광장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 형태에 있어서는 솔리드한 부분과 보이드한 부분을 구분, 사용하므로써 매스를 분절시켜 거대한 매스가 주는 위압감을 없애 주변과의 조화 및 친밀감을 갖도록 하며 또한 직선과 곡선을 함께 사용하여 풍요로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통해 개성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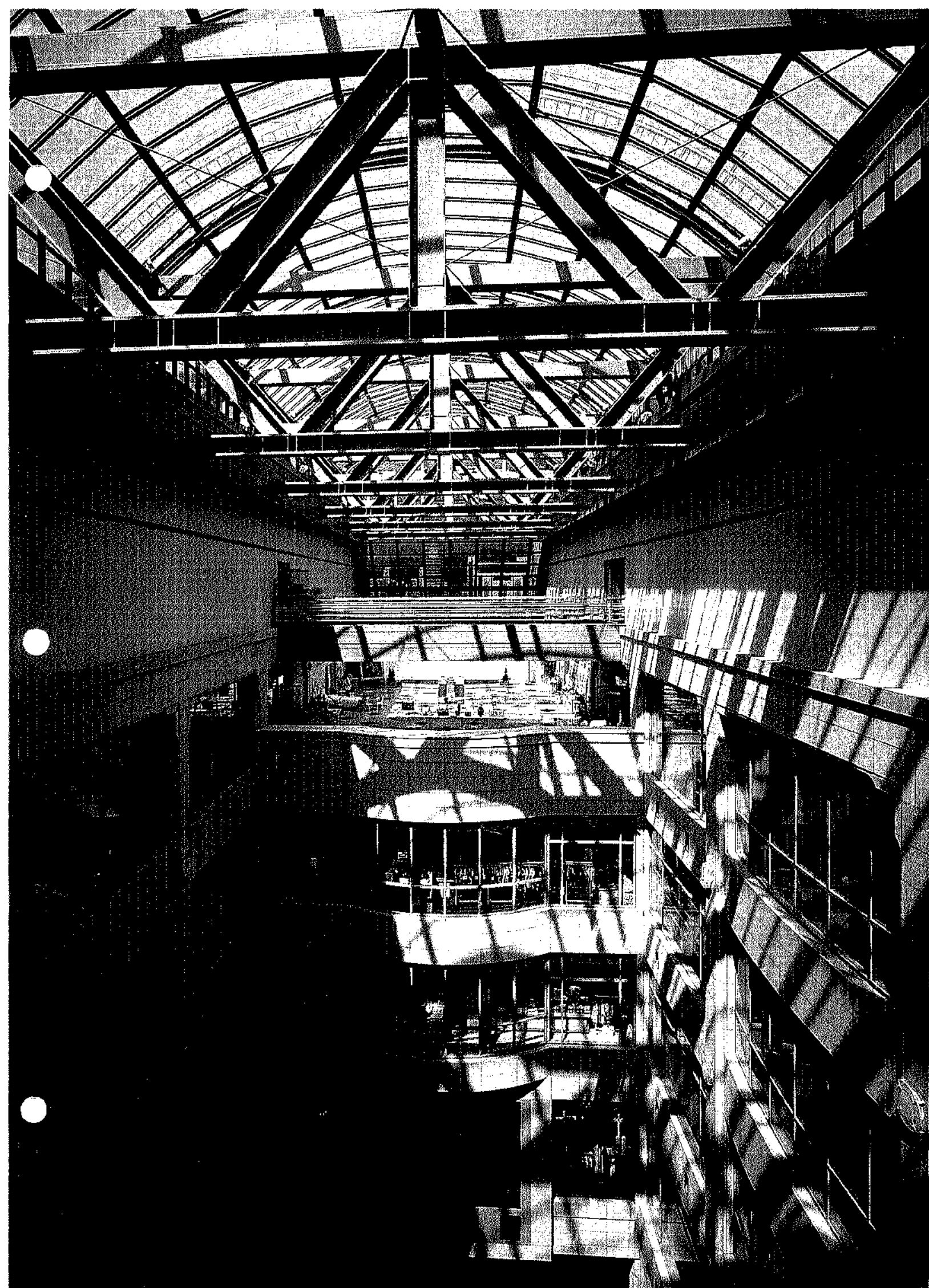
단순한 상행위의 현장으로서 최대한 매장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획일적 백화점에서 탈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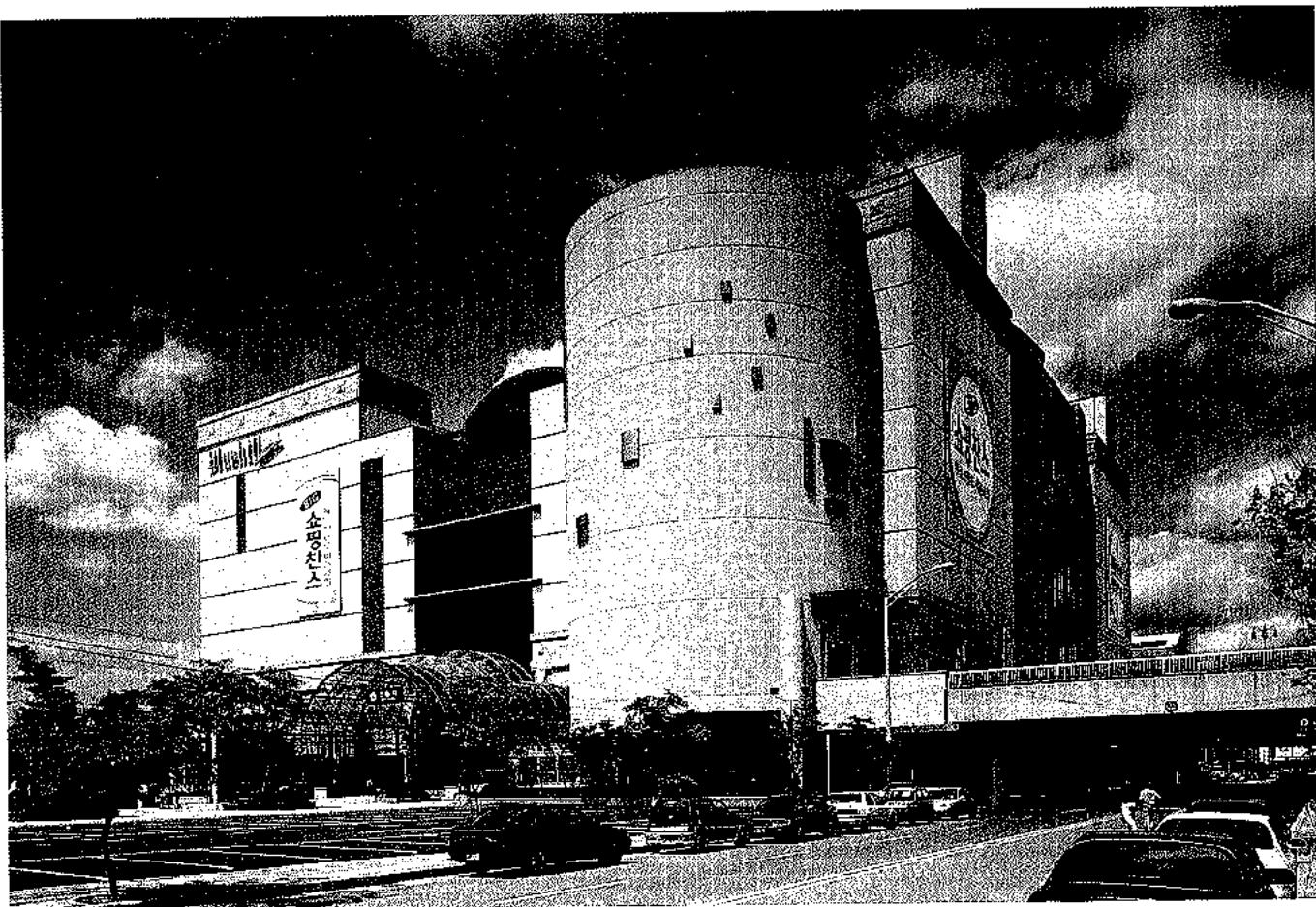
- 수익성이 높은 1층매장을 양분하는 폭 15m 4층 높이의 보행자 통로를 겸한 가로 광장을 24시간 개방하였다.
- 초립역의 대합실과 백화점이 만나는 지하2층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였다.
- 아파트 단지로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2층 고가차도에서 1층지하철 입구로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 장애자 시설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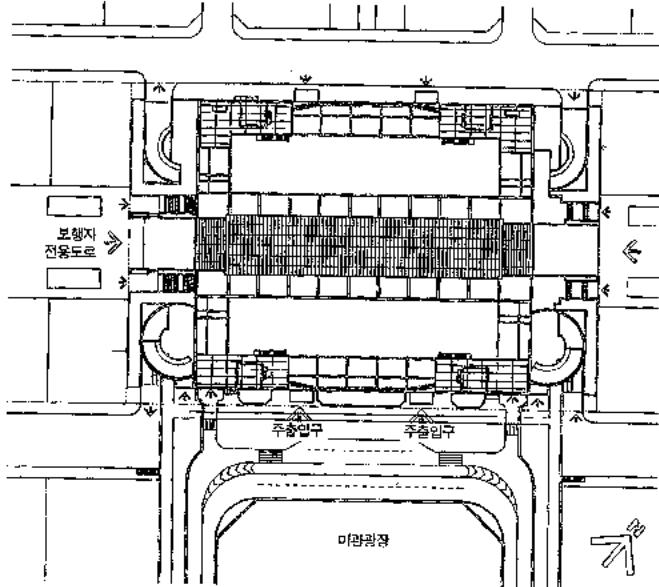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
지역지구	성남시 분당지구 특별설계구역
도로현황	전면 20m, 후면 15m 도로
대지면적	10,625m ²
건축면적	7,635.3m ²
연면적	79,598.4m ²
건폐율	67.7%
용적률	404.4%
최고높이	39.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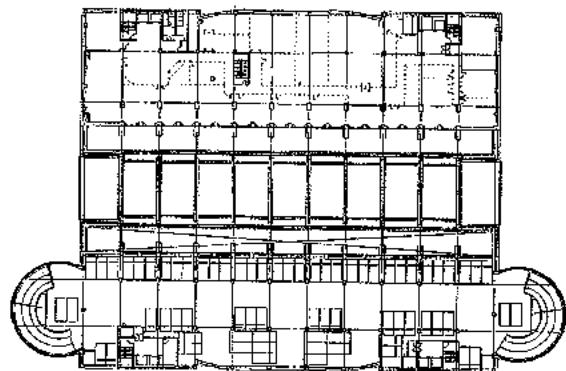
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규모	지하6층, 지상8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806대(지하486대, 지상320대)
조경면적	3,067.2m ²
주요마감	외벽 - 화강석비너마감+에이스패널 창호 - 불소수지코팅알미늄바+T24착색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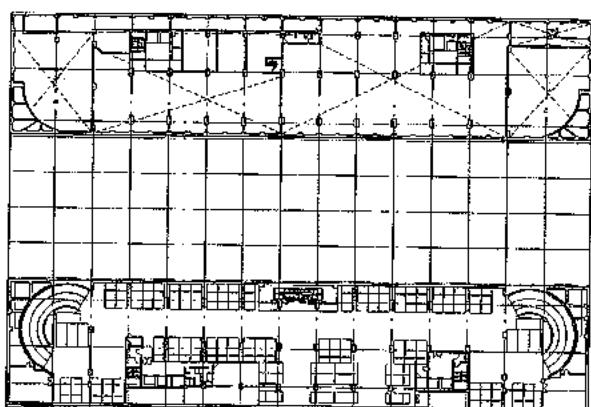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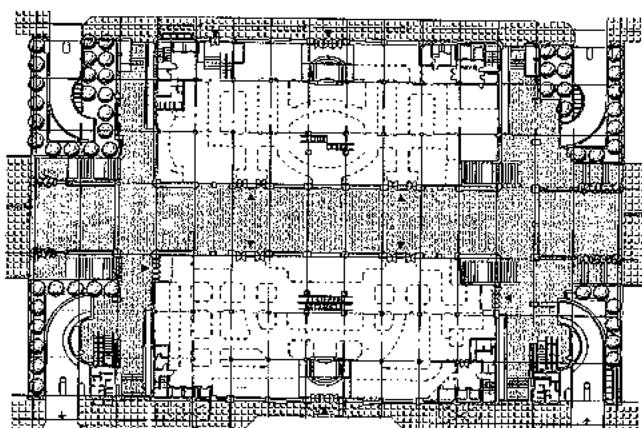
배치도



8층 평면도



지하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3 6 10m

코오롱 타워

Kolon Tower

원정수+김자호·이광만·김태집·조정호/(주)간·심간호
Designed by Won Chung-Soo+Group 3 Architects

위치 경기도 파주시 벽양동 1-23
대지면적 5,874.92㎡
건축면적 2,181.63㎡
연면적 37,251.60㎡
규모 지하5층, 지상18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알루미늄 시트(2.2t), 단열Bar+24mm 복층
〈건축사 970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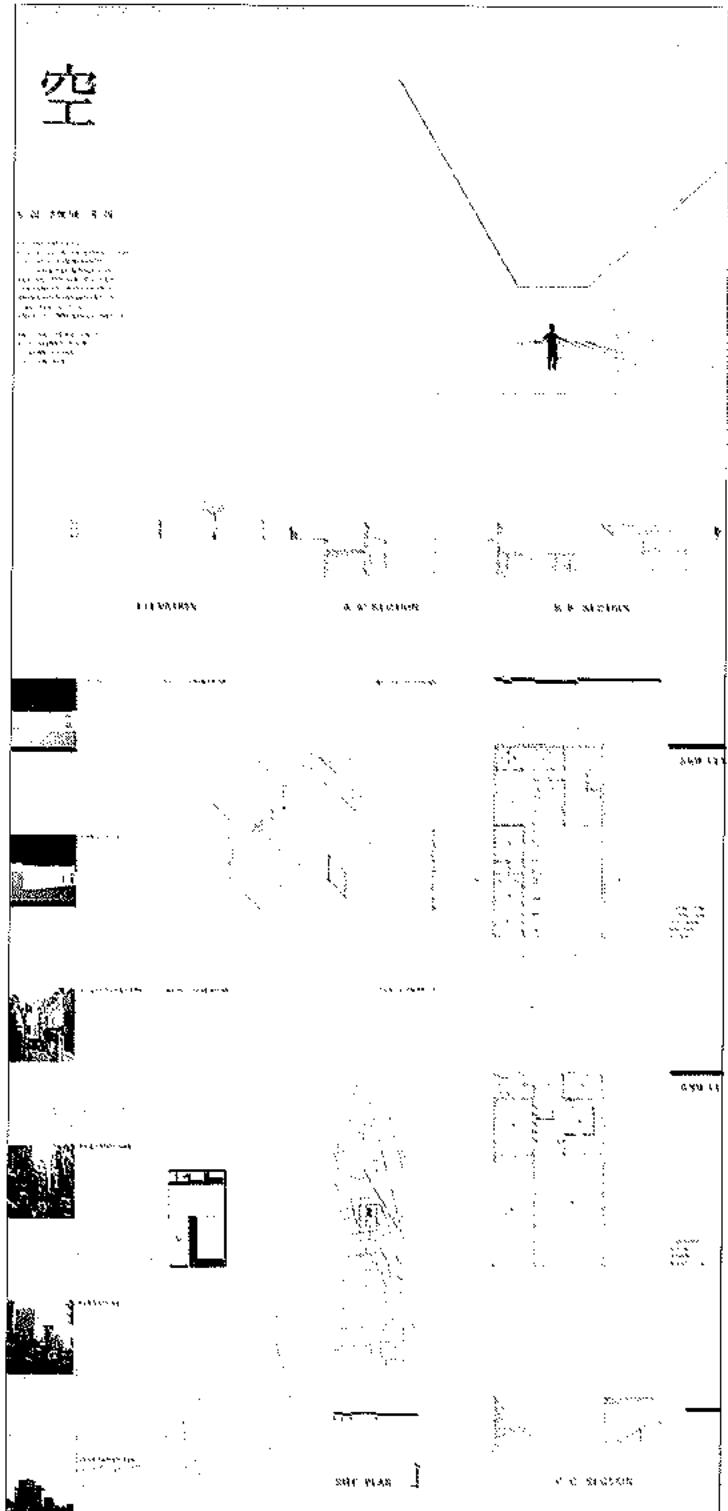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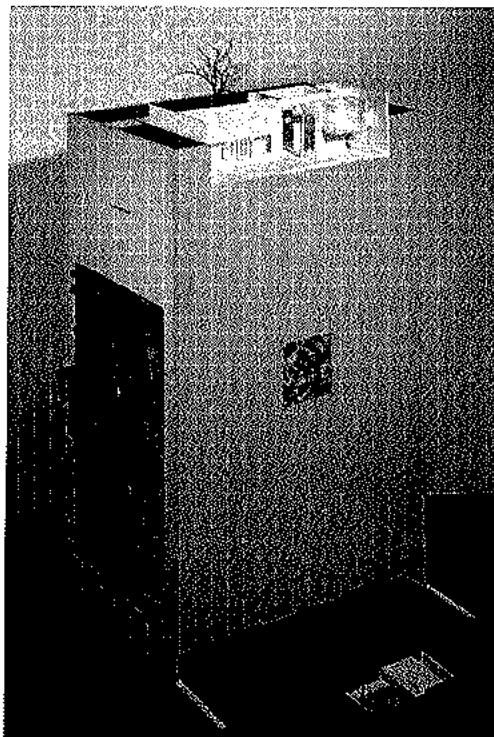


空

김연주 / 건축사사무소 세창
박창준 / 흥익대 건축과

도심 3세대 주거 계획

도시는 사람이 살아야 도시이다.
우리의 도시는 너무나 많은 상업·업무시설로 기득 차 있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도시를 생각하여야 한다.
도심은 거주성을 상실한 채 정신없이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로 정신적 여유를 느낄 곳마저 없다.
도심을 하늘에서 보면, 주택기가 도시의 여백이다.
주택기에 들어서면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높은 집들로 하늘을 느낄 공간이 없다.
집에서 보는 풍경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의 모습…
담을 조금만 밀고, 집을 땅 밑으로 넣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여유를…
사는 삶들에겐 순수한 하늘을…
그리고, 도시에는 여유를…



Divided Elevation

백종태 · 이승곤 / 숭실대 대학원 건축과

단순히 비워져 있다는 것으로는 여백이 설명되지 않는다. 여백은 시선을 끌어야 할 요소에 시선에 집중되도록 자신을 비울 때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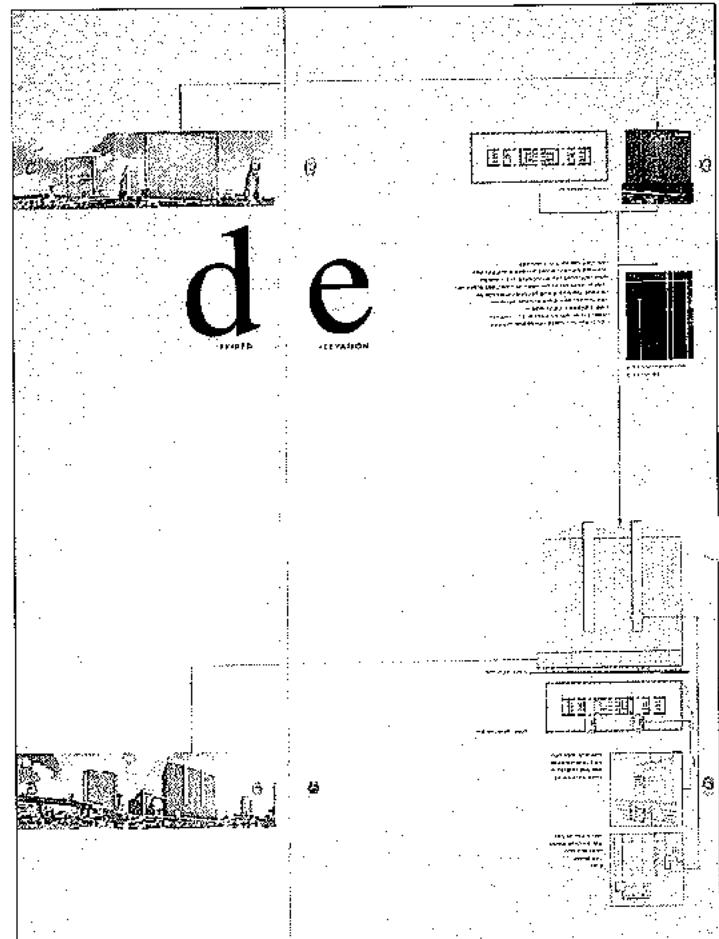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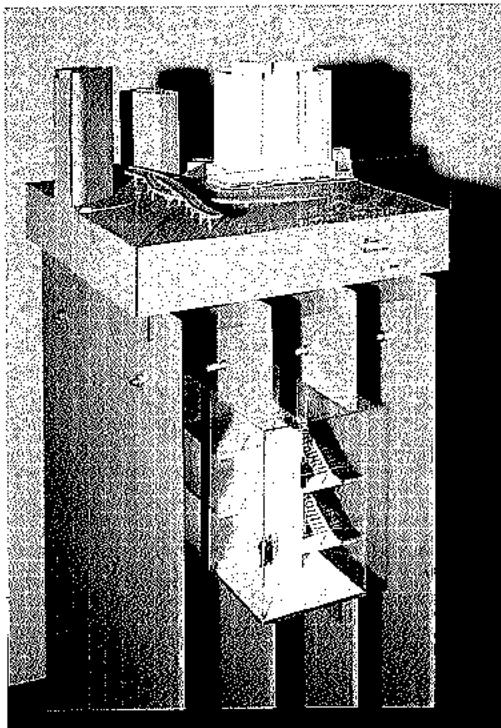
이때 여백은 그 요소가 강조되어 인지되도록 조용히 침묵하며 시선에서 벗어난다.

서울역 광장에서의 전망은 그 앞에 서 있는 D빌딩의 거대하고 무표정한 입면으로 인해 답답하다. 수직 패턴이 반복되는 D빌딩의 균일한 입면에서는 한 치의 여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균일한 입면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여백 자체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입면에는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첨가했을 때, 조용히 침묵하며 그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D빌딩 입면의 개조를 통해 서울역 광장에서의 시각적 여백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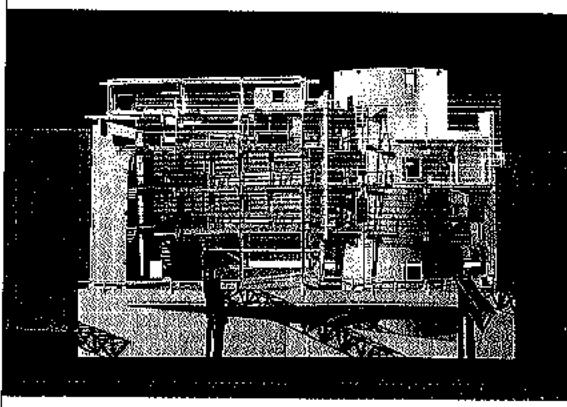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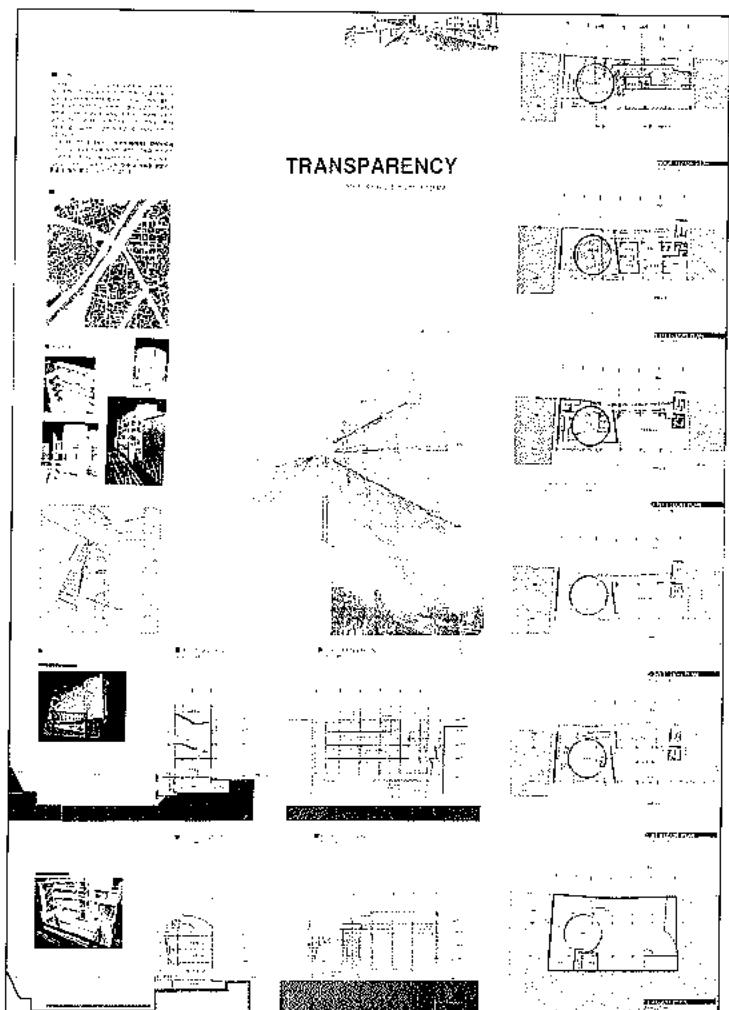
투명성(Transparency)

류상보 / 서울시립대 대학원

채호경 / 서울시립대 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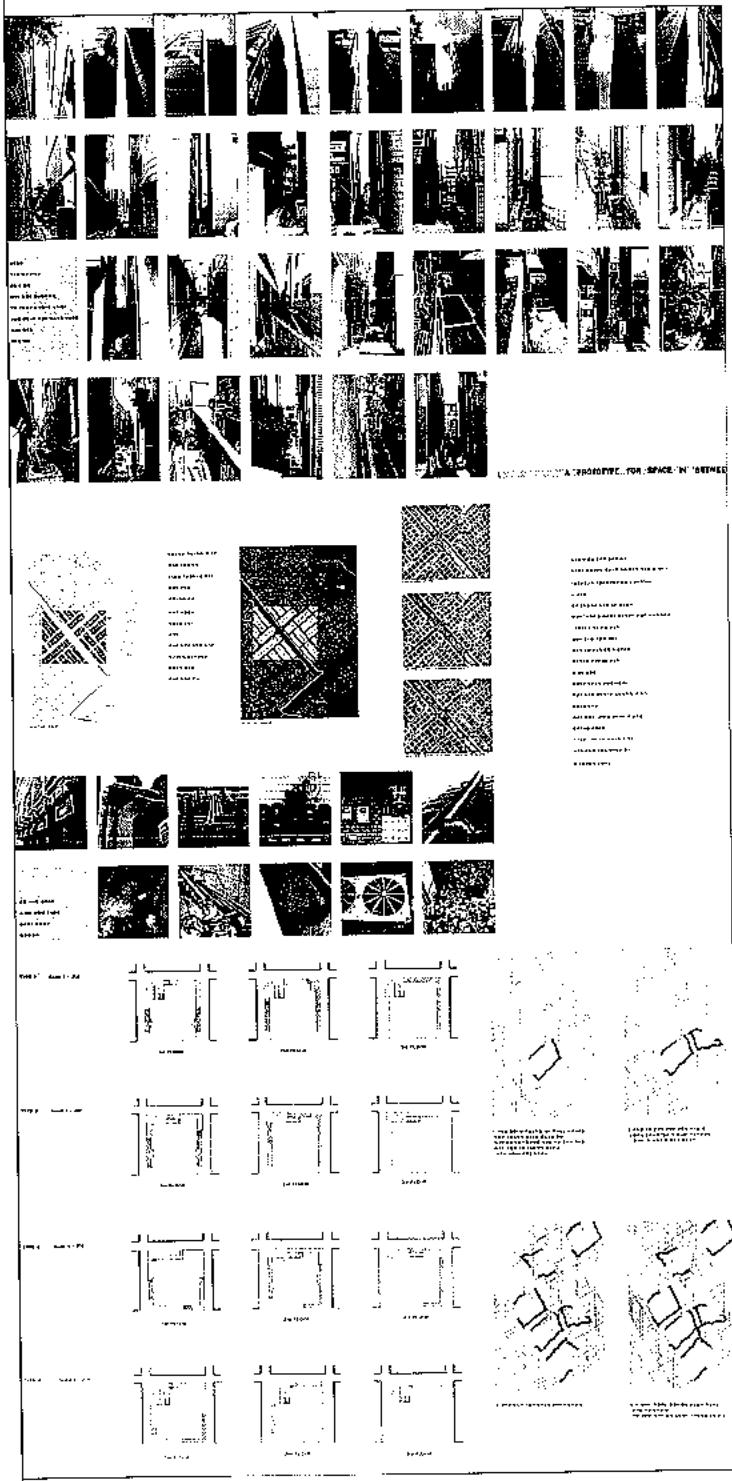
현재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무대가 되는 도시적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져 가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도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 공간은 기능적인 부작용이 먼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도시적 공간의 가치는 떨어지고 가치가 다니는 빈공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있어서 이곳은 무관심으로 가득찬 공간으로 고립되었다.

따라서 건축의 역할은 도시에서 버려지는 컨텍스트에 공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시적 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런 행위들이 도시인으로 하여금 도시의 일상을 만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 그 자체를 관망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컨텍스트에 대한 대응은 후면 철도 공간에 대해 벽을 만들어 Open Space를 외면하면서 자신을 거리쪽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또한 거리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인식체계(간판, 로고, 네온사인)로 자신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건물과 컨텍스트는 배경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건축들이 단지 물리적인 성질로만 인식되며 빈 공간을 프로그램으로 체워나가는 것이다.



A Prototype for the Space in Between

천경환 / 고려대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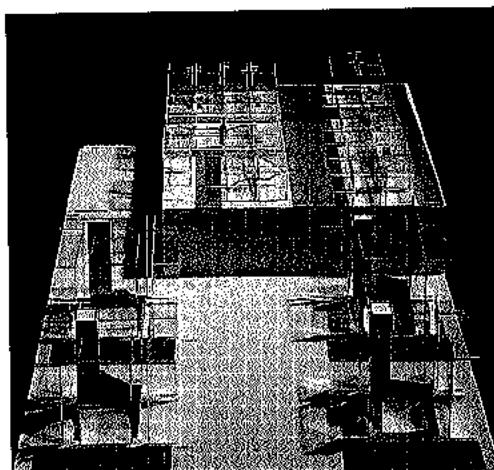
걷잡을 수 없는 밀도의 상승에 맞서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들 중 하나가 “대지경 계선과 건물 외벽면과의 최소 이격거리”이다.

이 규칙은 주위 건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없이, 최대한 ‘자기것’을 확보하고 점유하려는 편협한 의식과 맞물려, ‘비어있음의 유용성’을 상실한, 애매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밀도의 상승(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비워지게끔 보장된 이 좁은 공간은 이질적인 파편들의 집합에 다른아닌 지금의 도시를 회복시키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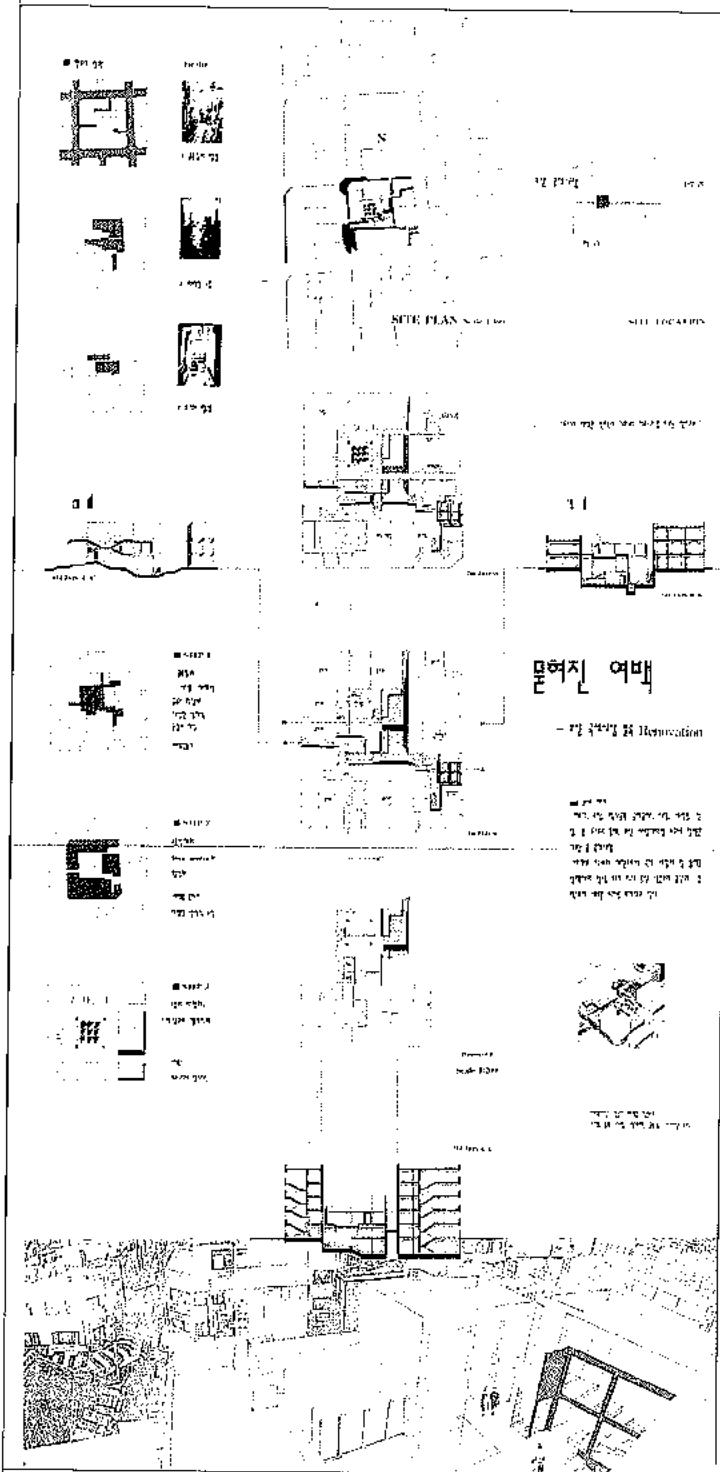
마지못해 마련된 애매한 상태의 “공백”이 되어버린 이 공간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의미있는 ‘여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건물을 제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여백이 싫어서 도시에 여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과 도시의 속성이 여백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의 여백”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밀도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물현진 여백

임규태 · 류정민 / 동의대 건축과



1. What

부산 국제시장 리노베이션

• 현 부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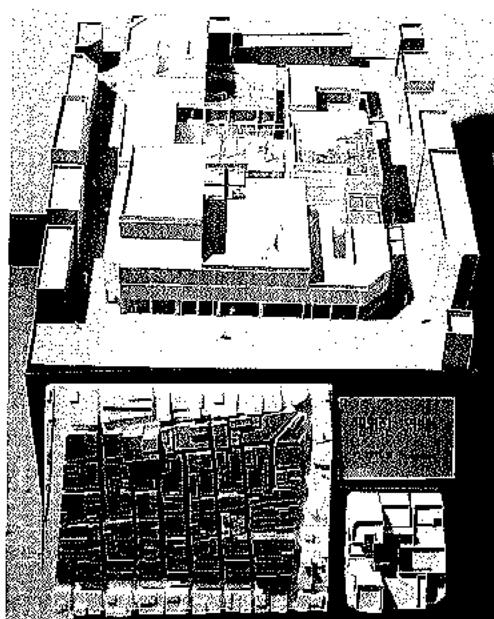
도시계획에 의한 획일적 수평 상업공간의 연속으로 획일적인 쇼핑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층 공간위주의 상업적 상황이 2층의 이용도를 떨어뜨린다. 주민들의 휴식처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다.

2. How

기존의 골목길을 살리고 동선을 유도하여 친근감을 주어 자연스러운 입체 쇼핑공간을 창출한다. 기존의 상황 등을 새로이 구성(2층 벽체의 부분을 헐어주어 쇼윈도우화한다)하여 다양한 선택적 쇼핑을 하게 한다. 지하부분과 밀집해 있던 부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든다.

3. Why

도시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도가 떨어졌던 부분을 새로이 재구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입체적이고 선택의 기회가 많은 쇼핑공간을 만들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도시의 여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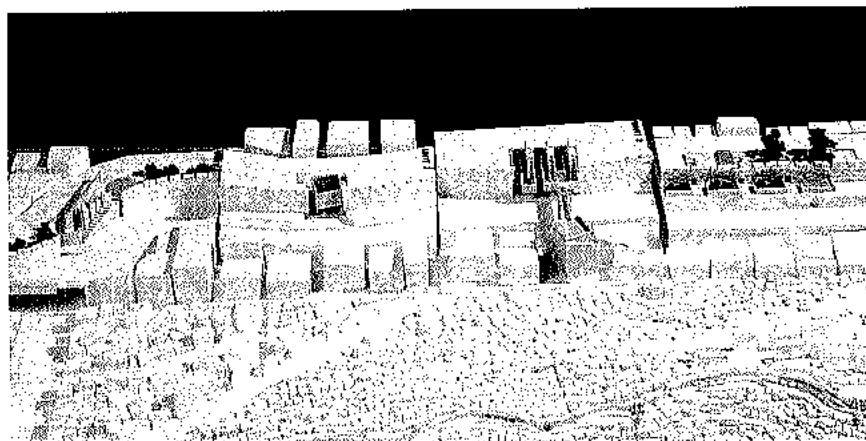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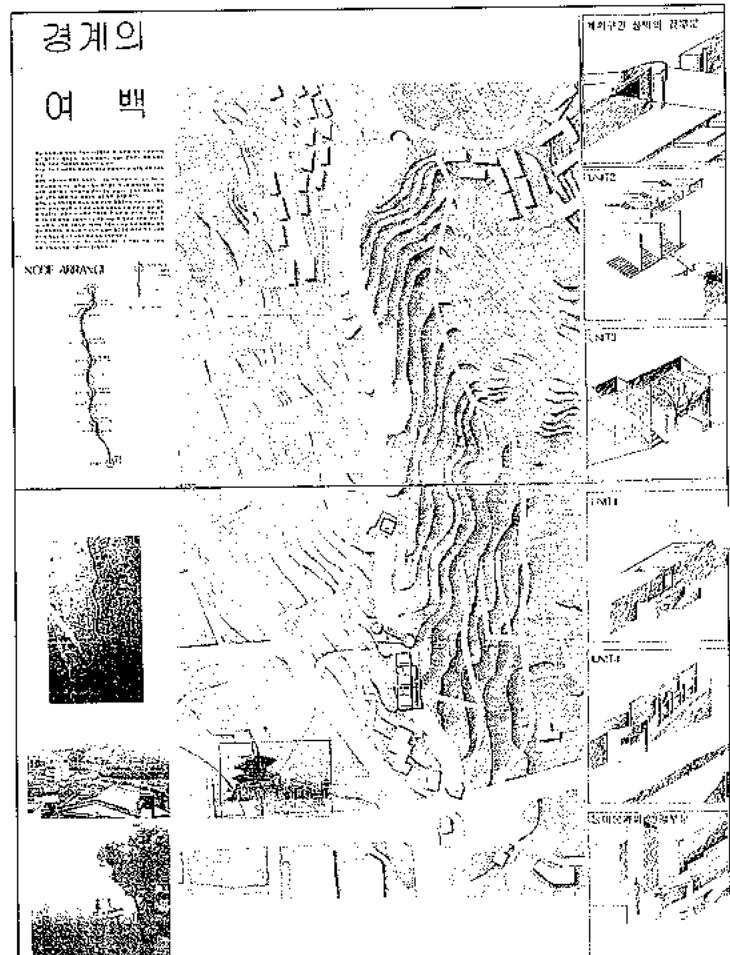
경계의 여백

문정석 · 명영은 / 중앙대 건축공학과

성벽의 기능은 지역과 지역을,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러한 성벽의 기능은 가능하지도 비활성화하지도 않다.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고 동네들을 연결하는데 성벽을 썼으면 한다.

성벽은 대개 회색 도시에서 그래도 자연이 아직 남아 있는 동네 뒤의 언덕을 지닌다. 성벽을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와 이웃동네들, 그리고 도시의 모습을 내려다 보며 아스팔트의 높과 콘크리트의 숲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흙과 나무와 하늘을 보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마신다.

성곽으로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시키고 공원의 기능도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유니트들을 계획 구간내의 성곽의 만곡부나 돌출부 등의 결절에 Node를 잡아서 좌우를 관통시켰다. 행위주체는 성곽으로 난 길을 걷거나 성곽을 관통하여 레벨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유니트가 가지는 다양한 공간들을 매개로 하여 이곳이 가지는 위치적 특성과 그 배경이 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기억하게 된다. 여기서 여백은 마을과 미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단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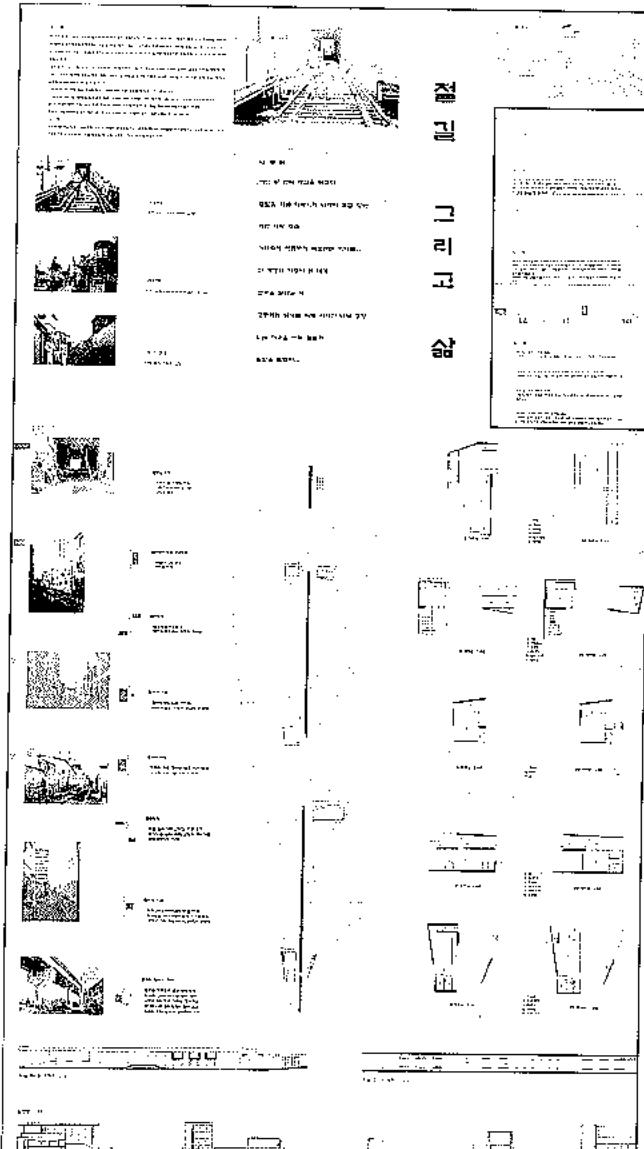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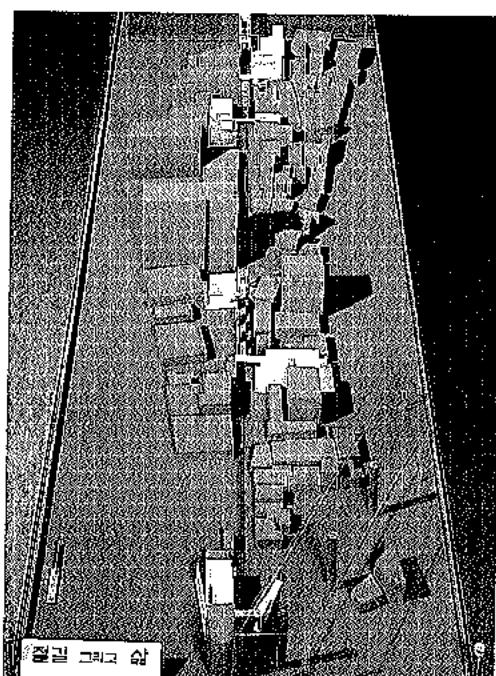


철길 그리고 삶

이형석 · 임채찬 / 부경대 건축공학과

도시의 Context를 무시한 채, 고충군 속으로 잠식되어 가는 현 대지의 상황을 여백의 공간적, 은유적 의미로 재해석하려한다. 우리는 폐쇄된 철도길(주거가로)의 Identity(상실)을 공간적 여백의 요소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주거 군을 여백의 은유적 의미(도시민의 쉼, 휴식)로 보았다. 이원적 사고는 다시 철도(과거의 역사, 기억의 단편)라는 매개를 통해 염어지기를 원한다. 「도시의 어떤 공간들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속의 어떤 대상들이 주는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경관적 우수성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장소에 대한 기억, 사건, 어떤 행사 등 시각적 이외의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느끼게 된다.」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곳, 그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곳, “고향”.

우리는 이 작업에서 산업용으로 쓰이다 폐쇄된 역사성을 지난 철로를 하나의 매개를로 도시속에서도 과거의 역사성, 그리고 연속되어져 다양성과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의 고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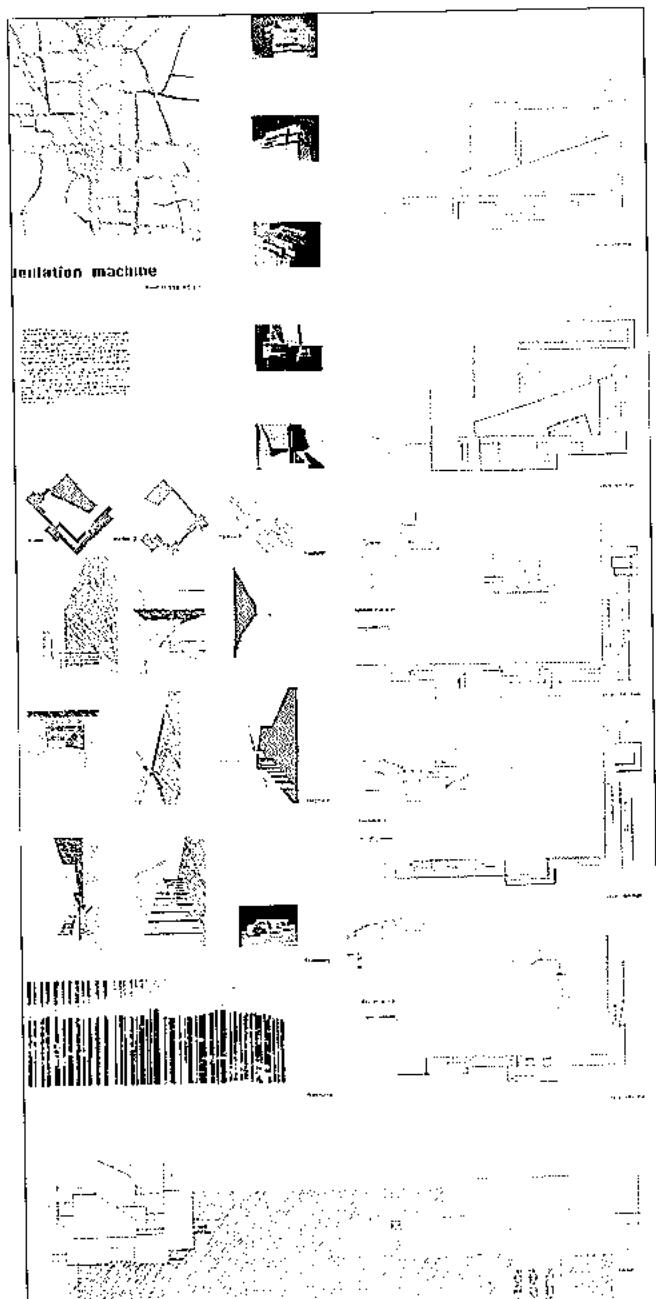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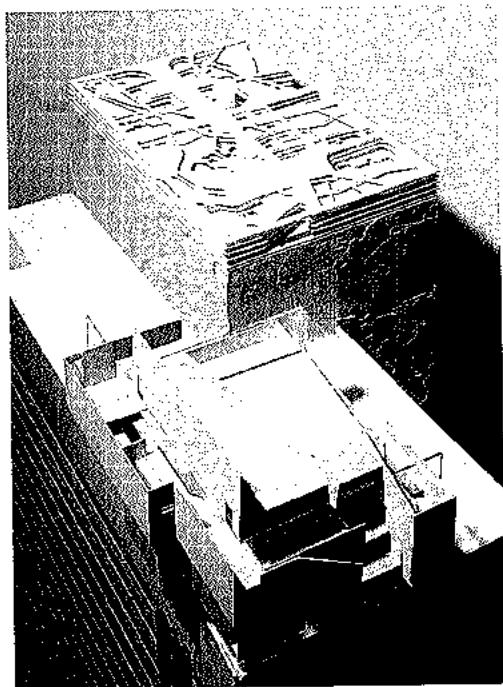


Deviation Machine

정태종 · 이강훈 / 홍익대 건축과

도시

도시는 도회적 삶이 이뤄지는 장소이다. 도회적 삶을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체계이다. 삶의 양태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고 신체를 제한하는 구조 역시 다층적이고 새어나갈 수 없는 그물과 같다. 일시적으로 도피할 수 있을지언정 항구적인 배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포획장치는 우리의 시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도시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 가로를 기득 채운 건물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물리적, 정신적 좌표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고층 건물에 의한 시각적 장애물은 근거리의 상황과 위치를 가려 버려 불안함을 유발시킨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아래를 볼 수 밖에 없고, 자본의 구조는 어김없이 소비 측진을 위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우리는 더욱 좌표 인식을 하기 어려워 불안이 가중되는 순환 구조에 놓이게 된다.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1)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원정수 / 인하대 교수
by Won Jeong-Soo

건축가 故 배기형. 그의 실미관과 독특한 건축세계는 예리한 해부학적 관점과 결부되는 구성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도 거기엔 새로움이 스며있다. 지금도 우리는 한일은행 을자로지점(1962), 한전 영월 제2화력 발전소(1962) 유네스코빌딩(1966) 등 건축사에 기록된 작품들에서 그의 건축가로서의 완숙된 건축적 기량과 높은 전문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건축가 배기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의 건축가로서의 행적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성장과정 역시 그 와 가까웠던 몇몇 분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지는 고 배기형 선생의 문하생이었던 인하대 원정수교수의 도움을 얻어 그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주변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역정과 작품세계를 총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 연재 목차 ◇

(제작일)

1. 미화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712)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
3. 증인들의 증언



한국의 근대 건축역사에서 건축계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건축가 가운데 배기형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건축가의 명성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부분 건축작품 계열이 도시 빌딩이나 문화적 공공건물에 치중하였던 건축가의 활동상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발전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고 아울러 다양한 기록으로 수록되어지고 이와 반대로 구조설계가 중심이 되는 생산시설공장, 대형공간구조 등의 구조기술 해석의 조형공간들은 건축문화발전과 무관한 것으로 외면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배기형이라는 건축가의 명성이 기억되지 못한 것은 철골구조로 조성되는 구조해석과 구조물이 주조가 되는 공장건축설계 작품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배기형은 많은 건축가와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의 완숙된 건축적 기량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치밀한 내용의 설계도가 알려지면서 건축가 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어졌다. 한국 건축계에서 주도적 활동을 펼치면서 건축작품의 종류도 도시의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교육 등 다양하고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한국 근대건축사에 기록되는 평가를 윤일주 교수의 한국 근대 건축에 관한 논문에서 발췌하여 보면,

1958년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보라매공원, 서울)
 1962년 한일은행 을지로 지점
 1965년 중앙빌딩 (서소문, 서울)
 1966년 유네스코 빌딩 (명동, 서울)

이상과 같이 네 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나 공장 및 구조물 건축에 관한 것은 관심 밖임을 알 수 있다. 공간지 1970년 7월호에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와 건축가 배기형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주요작품년보를 보면 초기작품에서 대규모 공장건축과 특수기계를 수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구조기술 해석이 특수한 건축물 설계작품의 실적이 많이 눈에 띈다.

〈작품 연보〉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1953), 대한중공업공사 인천공장 (1953),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대구공장 (1954), 파리마운트극장 (1957), 피카디리극장 (1958), 공군사관학교도서관 (1958), 충주비료 사택단지 (1958), K-2항공본창 (1959),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1959), UNESCO회관 (1959), 한국전력영월제2화력발전소 (1962), 제일병원 (1963), 중앙일보시옥 (1964), 한국비료독신자숙소 (1965), 동양나이론 울산공장(1966), 새한제지 전주공장 (1966), 국립건설연구소 수리시험실 (1967), 대한화섬 부산공장 (1967), 한국유리 인천공장제3로, 제5로 (1968), 동광판초자 부산공장 (1969), 조달청청사 (1969).

〈현상설계 응모작품〉

충주비료사택단지 (지명, 당선, 본설계 1958), 경상북도청사 (2등입선, 1959), UNESCO회관 (지명, 당선 본설계, 1959), 국회의사당 (1959), 호남비료 독신자 숙소(지명, 당선, 본설계, 1961),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당선, 1961), 이화여고 강당 (지명, 당선, 1962), 덕성여자대학교사 (2등입선, 1962), 한국전력본사 사옥 (1969).

건축작품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은 철거되었고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은 외관의 원형이 변형되었고 그밖에

공장건물은 철거되거나 크게 원형이 변질된 것이 많아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배기형의 건축세계를 재조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문헌자료를 찾아보면 다음 몇편에 불과하다.

- 1969년 1월호 공간 / 「심사평」 - 부산시청사 현상설계심사에 참여하고 나서
 - 1970년 7월호 공간 / 현대건축가상 배기형, 설계사무소팀방-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 1983년 낙산 합성권 교수 정년 기념집 / 배기형회고담 일부 수록
 - 1994년 한국현대건축 (1876~1990) 건축가 협회 발행 / 배기형 해당 기록자료
 - 1996년 5월호 건축가 / 특집 배기형 추모간담회 따라서 본론에서 그의 건축역사자료를 인용하여 충실히 기록을 정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 본론에서는 필자가 경험했던 옛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배기형의 측근에서 건축활동을 함께한 여러 증인의 증언을 모아서 전개할 수밖에 없다.

출생과 건축활동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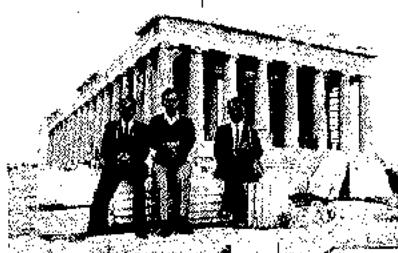
1918년 출생하여 1979년 암으로 별세하기까지 61년 동안의 생애기운데 1938년부터 1945년 해방때까지 일본에서 건축수업을 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건축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은 1954년 서울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인이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생애를 자세히 볼 수 있다.

1918년 1월 경남 김해읍 담곡리 출생
 1935년 3월 부산공립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38년 5월 규다이 임시고등건축강습소 입소
 1939년 3월 규다이 임시고등건축강습소 졸업
 1939년 5월 후쿠오카시 니시지마 건축사무소 입소



구조사 가족



영월 발전소 설계팀의 차득일방문 귀로에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에서, 우측이 합성권 교수이고 좌측이 배기형 선생(1962년)



한국의한은행 본점 현상설계 심사때의 배기형과 김희준

1942년 8월	심사재직중 일본제철, 야하다 제철소 및 주식회사 소와제강소 건축 촉탁
1945년 8월	해방 귀국
1946년 1월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창립 경영
1954년	신건축 문화연구소 창립 김희춘, 정인국, 김창집, 함성권, 엄덕문, 배기형 합동 (필자 삽입)
1956년 8월	화재로 해체 (필자 삽입)
1958년 12월	상소 주식회사 개편 대표이사 취임
1958년 5월~1965년 10월	한일은행 건축촉탁
1962년 8월-12월	영월발전소 설계를 위하여 서독 NURENBERG 소재 M.A.N.에서 현지설계 및 유럽 각국 건축계 시찰
1965년 7월	건축부장관으로부터 1급 건축사자격면허 수여(면허 제 1 ~ 382호)
1965년 3월~1968년 3월	사단법인 한국건축기협회 부회장
1968년 3월~1970년 3월	사단법인 한국건축기협회 회장
1969년 10월	세계건축기연합 (U.I.A.) 제10차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남미 ARGENTINE, BUENOS AIRES)
1972년 3월	국제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1976년 3월	주식회사 구조사 - 건축기술연구소 대표이사
1979년 4월	소장을 후진에게 인계 신임 대표이사회장 취임
1970년 5월~1977년 5월	한국산업주식회사고문 및 부설기술연구소 주재함
1977년 6월	동해랄프주식회사 건설고문
1979년 10월 17일	숙환으로 별세 (필자 삽입)

작품활동과 건축사무소가 성장되는 과정을 증언 할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우였던 몇분의 이야기 속에서 들을 수 있을뿐 유아시절의 성장과정은 유기족에게서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증언이라야 간략한 가족환경이나 외로웠던 수도 서울

에서의 가정생활 정도였다.

함성권 교수의 회고 논문집에서 배기형에 관한 몇구절을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 원래 배기형씨는 어릴적에 넉넉하지 못한데도 부산공업을 나왔고 뒤에 일본 규슈에 있는 일본 최대의 제철공장인 야마다제철소의 건축설계부에서 수련을 받은 분으로 해방후 공장설계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존재였고 나는 대한중공업 평로공장설계 때에 회사측의 소개로 처음으로 알게된 뒤 앞선 여러 기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일생동안 친교가 두터운 사이었습니다. … (후략)”

건축기협회 발행 한국현대건축 총논집에서는 배기형을 다음과 같이 기록 기술하고 있다 (109페이지 참조)

“신건축(신건축문화연구소지청)의 파트너였던 배기형은 구조사를 설립하고 독립한다. 주로 국방부의 프로젝트와 삼성 그룹과 관련이 깊어 생산시설의 작업이 많았다. 당시 건축계에서 구조사의 떠오름은 그의 현실적 감각과 기술성을 디자인에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평가된다. 산업건축이외에 196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사무소 건축에서 많은 작업을 하였다.”

나의 스승 건축가 배기형

서울 도심 종로화신백화점 옆, 장안빌딩 3층에 있는 신축건축문화연구소에 실습생으로 나간 것이 1955년 대학 3학년때였다. 당시 한 장소에서 여러 건축가가 모여 설계하는 작업을 볼 수 있는 설계사무소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건축설계를 배울수 있는 혜택과 아울러 건축가들의 사회를 볼 수있었고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한눈에 보고 배우는 귀중한 기회였다. 합동으로 모인 건축가 김희춘, 정인국, 김창집외 여러분 가운데 색다르고 남다른 모습의 건축가 한분이 흥미를 끌었던것은 오로지 제도판에서 설계작도에 몰두하고 있는 배기형이었다. 언제나 작도하고 있는 원도용지가 제도판에 붙어 있었으며 흔히 보는 건축일반도 또는 단면상세도가 아닌 고난도의 철골구조 상세도의 작도솜씨여서 언제나 내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실습생이었던 필자는 꿈을 건



건축기협회 회장재임시 총회때 사회를 보던 모습



현장감사

축가에 두었던만큼 주위에 많은 선배, 스승 건축가들중에서 이상적인 모델을 그려보곤 했고 건축가들의 건축활동상과 전문적 기량이 돋보이면, 저절로 그에게 존경심이 일어났다. 미래의 목표가 건축가가 되는 것이고 있고 더구나 내가 건축 적도한 내용을 지적하며 평가하여 주는 건축가 가운데 배기형의 지도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

신건축문화연구소의 모임은 두차례 화재의 재난을 겪고 해체 되는데 이때 배기형은 구조사의 명의를 되살려 독자사무소를 열었고 여기에 쫓아서 필자도 일원이 되었다. 졸업후 공군본부 시설장교로 복무하고 제대후 다시 구조사에 복직하였으며 그 뒤 인하대학으로 옮기고 나서도 배기형의 건축세계에서 마음을 떠날 수 없을 만큼 필자의 건축에 있어서의 생각과 행동은 그의 영향으로 굳어진 것을 느끼며 그럴 때 일수록 그의 위력에 경의로움과 존경심을 품게되었다.

필자는 신건축문화연구소에 여러대학에서 파견되어온 실습생들과 함께 여러 건축가들이 지시하에 건축계획 작도의 작업을 배워갔다.

김희준의 수원농대강당, 정인국의 공군본부청사 실시설계와 주택계획 등의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대학 출강의 시간이 없어 문하생이 없는 배기형의 조수 및 제자의 뜻을 하게되면서 단성사 개조설계와 대구제일모직공장 확장설계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 실감나는 현장 답사를 수행하며, 건축계획의 방향과 질적 내실을 철저히 훈련받으며 배기형의 건축활동세계로 밀려들게 되었다.

이제 배기형의 건축가상을 돌아보면, 나의 건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느낀다.

건축기술자인가? 건축가인가?

가장 가까운 친우 함성권 교수는 배기형을 Detailer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를 평했다. 부정적으로 보면 당신은 건축가가 아니요라는 해석이 된다.

그래서인지 배기형이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필자는 가끔 목격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고차적인 기술해석의 설계도를 그려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경지의 건축전문인이라는 뜻이된다.

배기형을 생각하면서 전문성의 저력을 지닌 선구자적 건축가를 꿈꾸게 되는 자극을 느꼈다. 배기형은 마치 루이스 칸, 일본의 시라이 세이찌(白井晟一), 무라노 도고(村野勝吾)와 같은, 대기만성의 건축가라 할 수 있다.

철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건축가

실습생시절 단성사 입면계획을 만들면서 상세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지적받으면서 실제건축 계획안을 정리하는 훈련을 받은 셈이다.

극장 외관 개조는 불발된 채 극장내 2층에 100명 수용의 시사실을 계획하고 실체를 만드는 설계경험을 가졌다.

대구제일모직 공장확장계획, 삼성 이회장 등래주택 등 여러 가지 닥치는대로 배기형의 계획구상의 조수역할을 하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부풀리며,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완성되는 건물의 구체적 실체를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을 닦은 셈이었다.

당시 젊은이의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주고 더욱 자신있는 건축의 실체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배기형은 여러 건축가들과 교류하며 건축기협회 발기에 참여하는데서 건축가의 창작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계획의 조형표현, 공간구성의 형식은 대부분 일본의 건축동향과 정보에서 많은 영향을 따르게 된다.

일례를 들면, 공군사관학교 체육관을 계획하면서 아취트라스구조와 조형구성을 당시 신축된 도쿄도 체육관의 아취트라스트의 조형을 우리기술로서 성취해보려는 의지에서 도전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부분을 모작하는 계획과 설계과정이었으나, 질적내용의 건축을 실현시키는 실험정신과 노력의 강한 투자가 옆에서 보는 이들에게 크게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단계가 쌓



아류회에서 강명구씨와 함께
배기형선생의 특유한 웃는 표정(끼끼… 옛기, 이사람)



사무실 근무 모습



신건축문화 연구소 시절

여기수록 배기형의 독창성이 표출되는 작품을 볼 수 있게 된다.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은 완벽한 배기형의 조형감각의 창출이며, 보라매 공원(현재)내 언덕위에 위치한 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우리의 전통 풍수조형으로 보이는 환경조화의 유기적 일체감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외국풍의 꼬르뷔제제, 당시의 유풍속에서 한국건축계에 보기도는 창작력의 쾌거라고 보아야 한다.

심미관의 자생적 특징

건축가들의 건축작품 평가의 가치기준을 생각할 때 대체로 선진국 건축가들의 생각과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외국을 선호하며, 동경하는 그들의 교육으로 무장된 신진건축가 일수록 가치기준의 주장은 더욱 강경하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대상은 건축의 표피적이고 시각적 감지범위에서 나타난 요소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치는 경향인데 반해서 배기형은 다르다.

배기형은 해부학적 내면과 구조세계를 마스터한 뒤에 건축가들의 무리속에 합류하면서 건축가로 지정되어지는 세계로 들어선 셈이다. 마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인(匠人)의 영향으로 건축가로 입신한 미스 반 델로에를 연상케 한다.

배기형은 철골의 연결 접합 부분도 아름다움을 의식한다. 그래서 입체적 결합 구조인 다이아몬드 트리스 연구에 깊이 빠진다.

지금은 입체, 볼조인트로 발전된 소위 메로, 체계의 입체 트리스로 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공간 및 조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사례는 다음 작품에 관한 시리즈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의 심미관과 독특한 개성적인 세계는 예리한 해부학적 관점과 결부되는 구성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지를 높이사며 관심이 높은 건축가이다.

공장설계에서 영향이 크게 작용한 산업의 발달과 변화를 체험하며, 이를 설계과정에서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즈음에 현대건축미로 평가받는 건축구조미를

구성하는 기법을 연구한 선구적 건축가였던 셈이다.

생활과 인성

건축가로 서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 작업에 몰두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며 모든 생활이 건축과 함께 혼재되는 경지에 있으면서 건축가로 자처하지 않은 건축가가 있다면 바로 배기형이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면서 배기형의 건축세계를 보면서 존경과 매력을 갖게 된 것은 건축문제에 피문히, 오로지 하나하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축생활상의 모습 때문이다. 철저한 장인정신(匠人精神), 휴일이면 전화 방해가 없어 일에만 몰두 할 수 있어 좋다면 “원군! 일좀 하제이(경상도방언)”라고 하던 모습. 심지어 “찌양은 뭐하노. 나와서 일하레이” (당시 池亭을 지양이라고 부름).

우리의 젊은시절 청춘생활은 배기형의 건축생활에 무차별 휘말리었다.

그런 가운데도 점심, 야식의 생활을 함께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낭만이 있었으며, 단성사 설계로 무료입장 할 수 있는 특전으로 명화감상을 걸들이며, 마치 배기형의 건축생활은 작업리듬에 따라 강행군 작업의 완급이 조절되는 드라마였다고 회상되며, 결코 후회됨이 없다.

작품 하나하나가 철저한 책임감으로 일관되어 완성되는 설계도. 따라서 인간의 신의를 가장 중시하는 배기형의 건축생활을 본받은 후진 건축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실습생 시절의 필자가 대구제일모직 공장 현장답사 때 배기형선생과 함께 촬영한 사진(1956년)

억달빌딩(億達 大廈)

Eok Dal Building Plan

허정도 / 건축사사무소 서진
by Heo Jeong-Do

1993년 여름.

한달간의 여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올랐던 적이 있다.

흔히 여행사나 단체가 주관하는 정해진 일정과 코스에 의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다녀보기로 한 약간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요녕성 대련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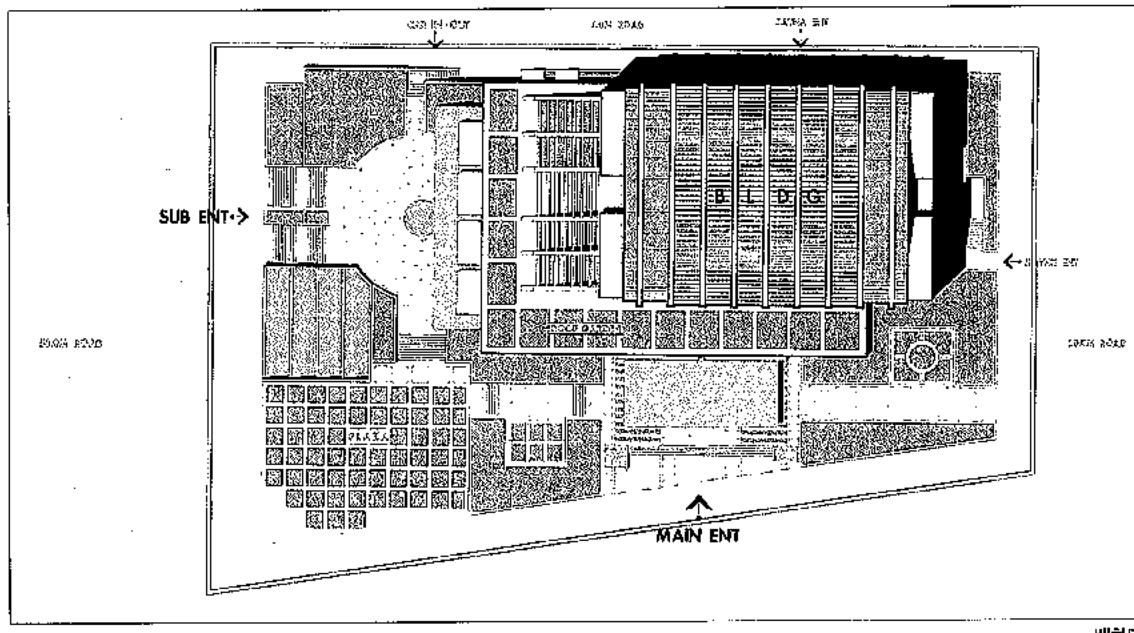
건축가 故 이천승 선생께서 1938년 납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회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실시설계와 공사감독까지 직접 담당하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확고 하셨던 대련역 청사가 지금도 시내 중심지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북방의 홍콩」을 꿈꾸는 도시. 멀게는 고구려땅이요, 북으로는 장수 양만춘이 당 태종을 막아낸 안시성이 자작이며, 외침에 대항해 고구려 사람들이 쌓은 천리장성의 기착점이기도 한, 비록 지금은 낡은 땅이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던 도시.

길립성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조선족이 제법 살고 있어 시내 중심가에 조선족 문화관까지 지어져 있을 정도로 우리민족의 혼적이 자세히 보면 도처에서 발견되는 도시다.

필자가 이렇게 대련으로 무작정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살고 계신 형님의 배려였다.

영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자의 형님은 당시 오십 대 후반의 부인과 전문의로써 소수민족으로는 아주 드물게 북경외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로부터 그곳 대련시 부산병원(婦產病院)에 배정받은후 무려 삼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를 해 오신 분으로써 당시 그 병원의 교수급 주임의사이자 원장이셨는데 그분의 요청인 즉 “직장에 분배되어 지금까지 변변히 쉬지도 않고 내내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휴가다운 휴가를 얻어서 동생내외와 우리 부부가 함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중국 곳곳을 다녀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해 여름은 넉넉하고도 즐거웠다.



배치도

물론 그때까지 중국땅에서 필자가 건축활동을 하게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아니, 할 필요도, 할 방법도, 할 생각도 없었다.

인천항에서 한중간 여객선을 이용, 산동반도의 위해 (威海)를 경유하여 다시 중국의 국내여객선을 이용, 대련까지 기는 도중의 그 아름다웠던 낭만적 풍족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십 시간의 만주횡단 기차여행, 삼총 침대 열차의 덤킹거림과 처음 배운 중국식 카드놀이의 즐거움, 무료로 제공되는 차수(茶水)보온병, 시끄러운 중국말 속에 간간이 들리는 함경도 사투리, 차창밖에 보이는 끝없는 지평선과 강냉이밭.

백두산 중턱 벌목로변 아생잣나무 수해속에서 벌보다 큰 모기와 함께 먹던 절실도시락, 은하수가 손끝에 달았던 고지 백하(白河)에서의 하룻밤, 사방백리에는 사람이 살것같아 보이지 않던 어느 산중에서 고장나버린 Beijing Jeep 때문에 황당했던 기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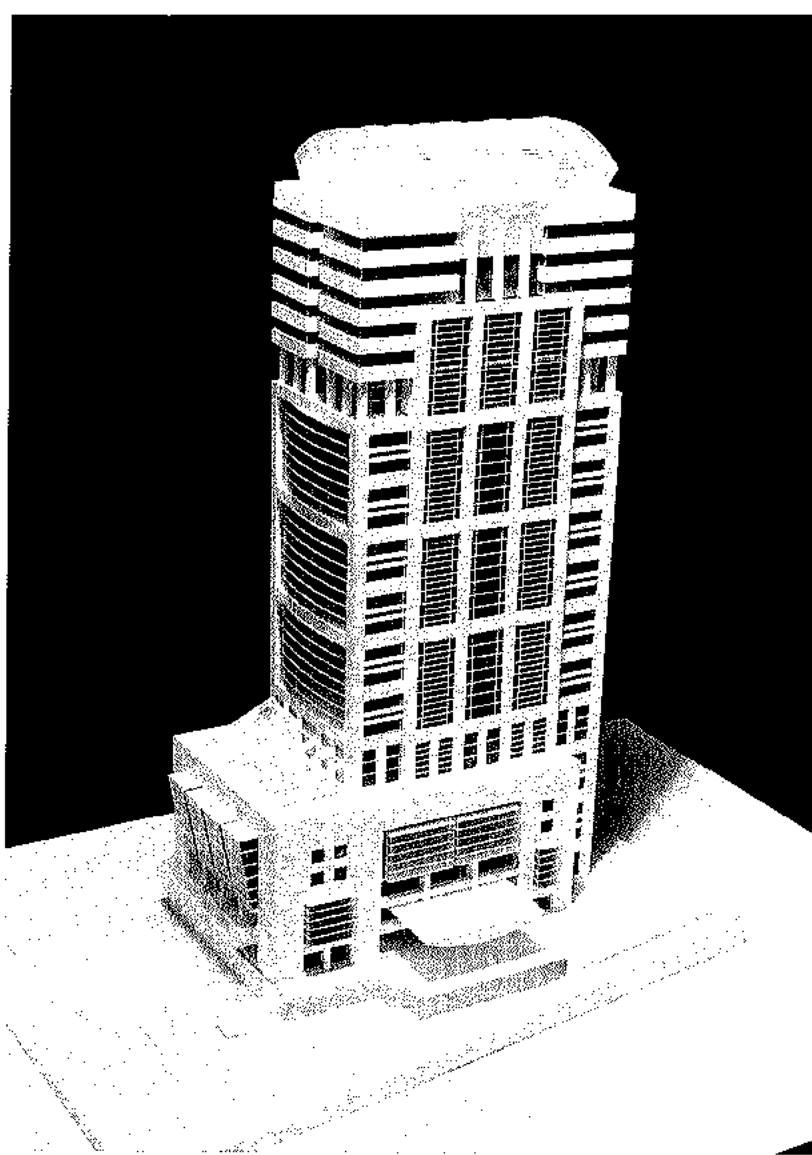
“중국여행 이야기라면 나도 일기견이 있소” 할 만큼 사건도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던중, 귀국을 일주일쯤 남긴 어느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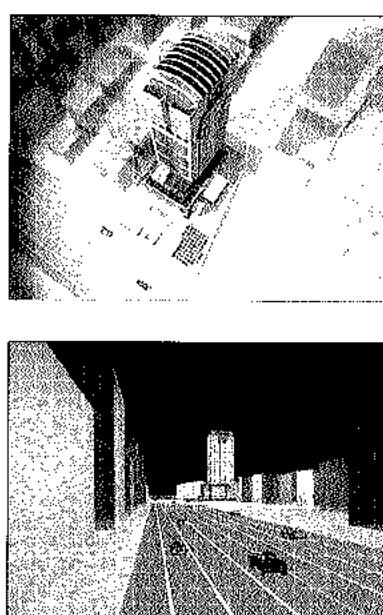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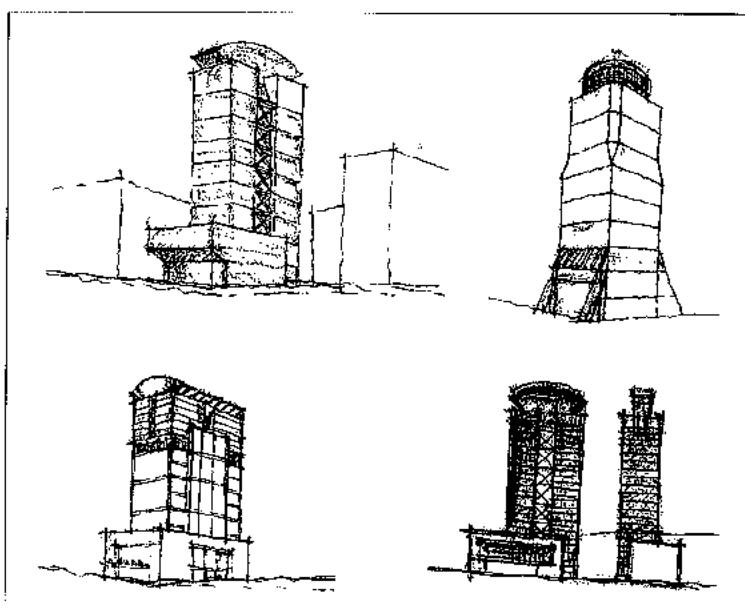
필자는 형님께 이곳 대련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중국 건축계 사정을 좀 알고 싶다고 부탁했고 그 부탁은 어렵지 않게 주선되었다. 「大連市 建築設計院」, 이곳이 내가 건축을 통해 중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첫장소였다.

설계원의 胡 秀金 원장, 孫 琦 부원장, 고급건축사 陳 由城 선생, 고급공정사 鄭 官振 선생, 그리고 대련공과대학 건축과 李 淑悌 교수 등 대련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분들의 연령은 대개 형님과 비슷했다.



설계원을 둘러보고 대학에도 가보고 그리고 두나라의 건축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견해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가진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얼마 안 있어 중국대학의 건축교육이 5년제로 바뀔 것이라는 것과 한국과 비슷한 성격의 건축사(建築師)제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Post Modernism이 어느정도 파급되고 있느냐는 질문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다음 날, 전날의 회의에 대한 답례로 나는 그분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으며 이를 후 그분들이 초대에 대한 답례로 마련한 저녁식사를 다시 같이 하게 되므로써 처음에 서먹서먹했던 우리들의 관계는 점차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식사중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두나라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내가 평소 몇 권의 책을 통해 알고 있던 중국현대사와 인물들에 대한 조그만 상식이 그분들과 내가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에게 잘알려져 있는 중국내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물론, 닉터 노먼 베운, 아그네스 스메들리, 에드가 스노우 등 중국과 관련이 깊은 외국인들과 '변신(變身)'을 비롯해 '중국의 붉은별' '한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 등 내가 읽었던 몇권의 책, 그리고 대장정과 총군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옮겨지면서 우리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단혀져 있었던 중국 현대사를 대충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나를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 보기까지 했다.

그 장면에서 뜯금없이 胡 원장께서

“**胡 선생!** 중국에 설계 한 번 해볼 의사 없어요?”

“예~예~?”

“아~ 중국에서 설계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말이요”

“예~ 너무 뜻 밖이라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한 번 생각해 보시요”

나는 그제서야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빈뜩 들어

“내가 설계를 직업으로 하는 젊은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여건 주어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천히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략 이 정도로 그날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여홍은 즐거웠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졌지만 일 이야기는 더이상 나누지 않았다.

이후 4년간, 나는 여러차례 중국을 왕래했다.

물론 일 때문 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갈때마다 이 분들을 만났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업무와 관련한 시도들이 있었다.

외국인 전용 집합주택 단지, 대련시 음악당, 중심상업지구내의 대규모 빌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만만디(漫漫的)라고 하더니만…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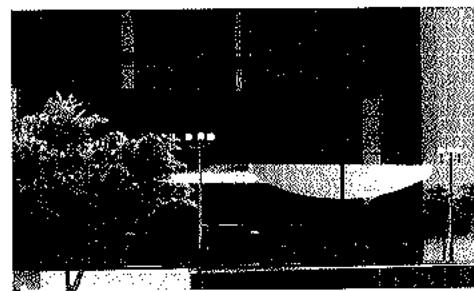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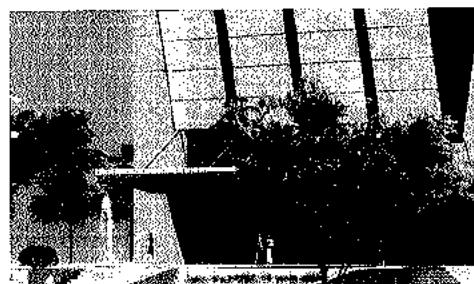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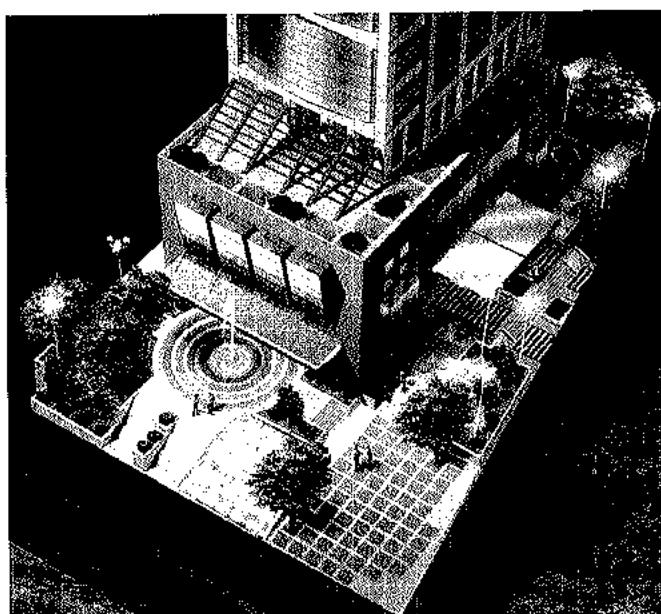
그러던 중, 올 봄.

전파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급히 중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일의 내용인 즉,

億達이라는 대련시의 비중있는 중견 집단(그룹)의 사옥 현상공모에 지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던 나는 쾌히 승낙하고서 곧장 중국으로 날아가 설계자침과 함께 건축예정 부지로 안내한 건축주 측의 설명을 듣고, 그날로 돌아와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내의 설계사무소 세군데, 미국에 있는 사무소, 그리고 우리 사무소까지 모두 다섯군데에서 응모한 본 작업은 기간이 한달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 바쁘게 진행되었다.

책상 위에서 딩글던 案은 보름만에 대략 완료되고, 이후 보름동안 직원들의 손에 의해 표현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상설계란게 원래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번 일은 특히 더 바빴던 것 같았다.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이미지와 대련의 Land Mark 역할을 기본목표로 하여, 특히 밤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



으며, 다양한 표정보다는 강하게 통일된 형태로 가야 된다는게 기본개념이었으며 첨두의 모양은 약간 상업적이긴 하지만 億達 집단의 표상인 일출을 조형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7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경. 드디어 작업을 모두 끝내고 포장까지 마쳤다.

다음날 낮 12시 반에 출발하는 서울 - 대련간 중국 북방항공 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출발 당일 아침 첫비행기를 이용해 서울로 가기로 했지만 마침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못해 월요일 아침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날밤 우등버스편으로 마산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손상할 우려 때문에 몇 부분으로 해체시켜 손가방에 나누어 들고 들어간 모형을 조립해 놓고 두어잔의 백주와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낸후, 다음날 아침 10시경, 億達 집단의 회의실에서 형님께서 해주시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가며 두어시간에 걸쳐 건축주 측에 설계내용을 설명했다.

비교적 호의적인 표정을 확인하면서 다함께 점심식사까지 마치고 자기들의 다른 Project에 대해서까지 가볍게 의견을 교환한 후 나는 그들과 헤어졌고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7월 말.

그러니까 계획안을 제출하고 돌아온지 20일 쯤 지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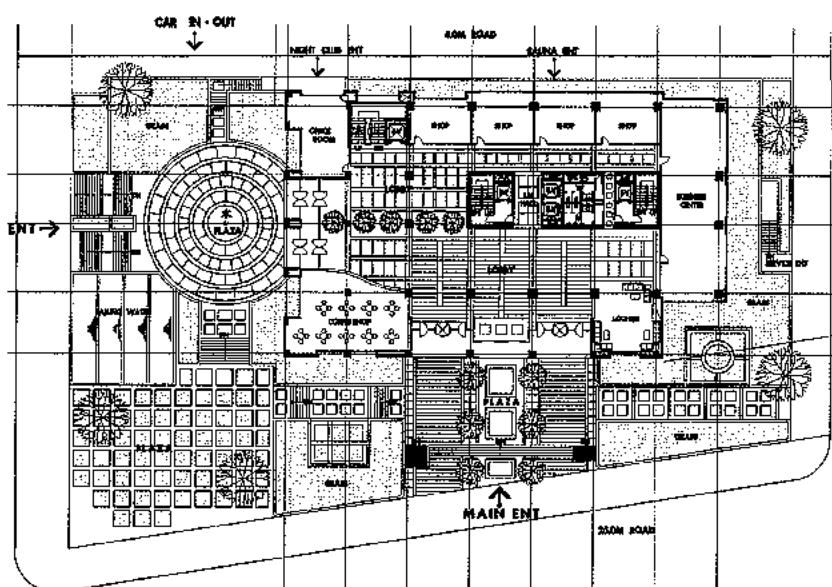
다른 案들은 모두 탈락되고 우리 案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간부회의에 상정될 것이며 아마 불원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무실의 분위기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아뿔싸! 다시 보름쯤 후.

대지조건이 바뀔지 모르며 그렇게 될 경우 재응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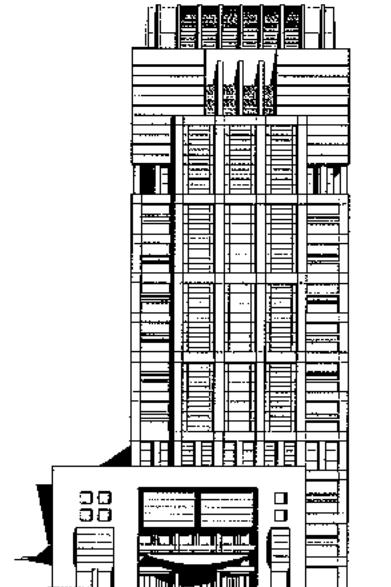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FAX가 한자로 설명하게 사무실로 전송되어 들어왔다.

물론 변경사유는 전적으로 자기를 책임이므로 지난번 계획안 작성 때 든 비용은 어느정도 보상해 줄 생각이며 대지를 두배 정도 키워 상업용과 주거용이 섞인 몇동의 건물로 계



1층 평면도



북측면도

획이 바뀔 것 같으니 그렇게 되더라도 꼭 다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노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복합건물이 지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절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내 연락을 받은 그들은 즉시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해 줄 수 없겠느냐는 연락을 해왔는데 시일이 지나 이력 저력 9월을 맞았지만 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겠지만 전력을 다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참 맥빠지는 일이다. 내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그것 뿐이다. 특히 이 작품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먹어 왔던 일이라 설계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남달리 애정이 깊다.

사실 포화상태이다시피한 한국의 설계사무소 현실 속에서, 밖으로 뛰쳐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적 체험이 나의 지적호기심을 채워주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한 나의 건축행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주위에서는 격려 반에 걱정도 반이다.

“중국사람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더라.”

“중국가서 사업한 사람치고 돈 번 사람 없다더라.”

“중국의 설계비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게 싸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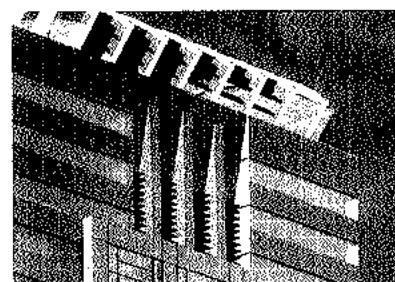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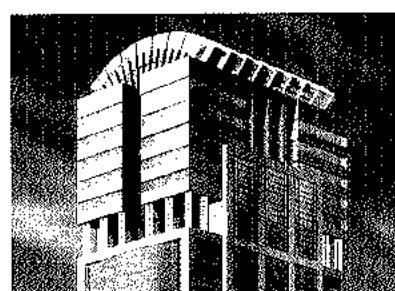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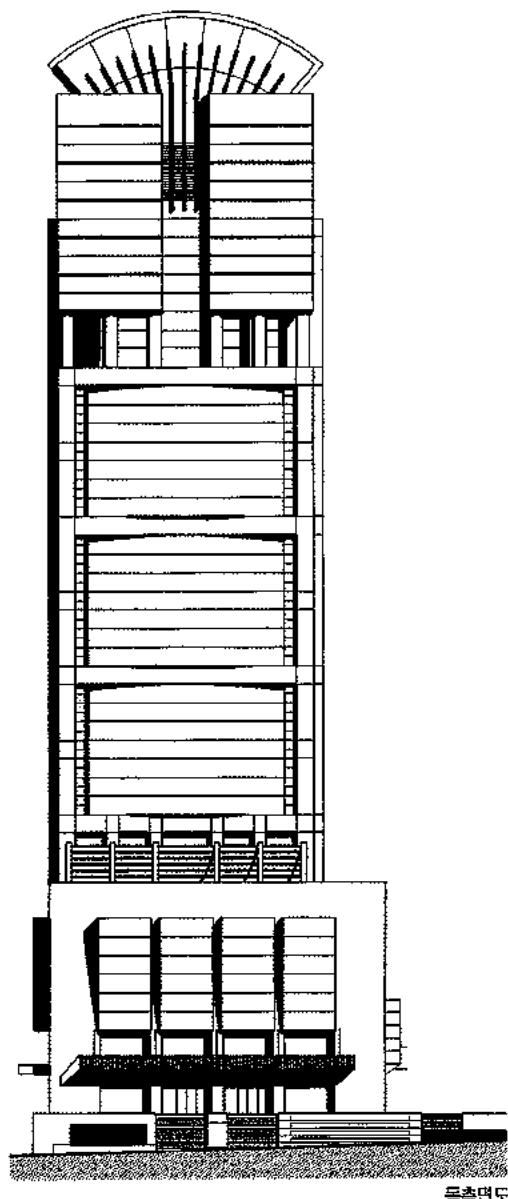
“○○○ 씨가 중국 일 때문에 아주 어렵게 되었다더라.” 등 등.

며칠 전에 있었던 친구와의 대화 한토막.

“여기서 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왜 꼭 중국까지 가서 설계를 할려고 하느냐? 왜?”

“아는가? 혹시 십년쯤 후에 내 아들 딸이 중국에 배낭 여행 하던 중에 ‘야! 저 건물, 우리 아버지가 설계한 것이야 알아?’ 하며 동행자에게 어깨라도 한 번 으쓱댈지? 또 하나. 남의 나라에, 그것도 대륙에, 내 작품을 남겨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응?”

대지위치	中國 遼寧省 大連市 黃河路 東北路 民政街 正仁街圍 合地抉
대지면적	4,784.23 m ²
건축면적	1,776.80 m ²
연 면 적	34,306.29m ²
건 폐 율	37.14%
용 적 률	605.97%
규 모	지하2층, 지상26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 학색유리
설계담당	강준규, 이정준, 구경희, 송지현 + HAN SOL C.G STUDIO



협회소식 / 112
건축계소식 / 115
해외잡지동향 / 119
현상설계경기 / 126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40
개시판 / 142

협회소식 KIRA news

- 제32회 정기총회 일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당초	변경
일시	'97.10.14(화) 09:00	'97.10.14(화) 11:00
장소	올림픽 유스호스텔	(변경없음)

이사회 개최

'97전국건축사대회 내년으로 연기

우리 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3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7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연기 승인의 건
- '97전국건축사대회를 연기해 1998년에 개최키로 함
(연기사유 : 10월 14~15일 양일간 개최키로한 '97전국건축사대회는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축제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현상황에서 자체 행사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대다수 회원들의 점서와도 배치됨)
- 제2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일시 변경 승인의 건

우리 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7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식이 지난 9월 8일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 600년기념관에서 거행됐다.

1부 전시회 개막식과 2부 시상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 이화균 건설교통부장관, 박병윤 서울경제신문사 대표 등 주최기관장을 비롯,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이충길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한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등 각 후원단체장 및 건축관련단체장, 그리고 부문별 수상자와 가족, 취재진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11시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링에 이어 전시장내 가설식장에서 진행된 부문별 입상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맨먼저 준공건축물 대상 수상작인 「LG 화학 대덕연구소」의 설계자 김태수(주) 김태수 건축사사무소 대표)씨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이어 공동설계자인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시공자인 (주)LG건설 건축주인 (주)LG화학기술 연구소원에 각각 트로피와 건물부착용 동판이 수여되었다.

또한 삼청동주택, 블루힐 백화점, 국민생명연수원, 코오롱타워, 분당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H빌라 등 본상을 차지한

6개 작품의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에게도 각각 트로피와 상패, 동판이 주어졌으며 16개 각 입선작의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상패가 전달됐다.

또 준공건축물부문에 이어 진행된 계획건축물부문 시상에서는 작품「空」을 출품, 영예의 금상을 차지한 김연주(25, 세창건축 근무), 박영준(홍익대 건축과 4년)씨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이밖에 은상 2점과 동상 5점, 입선 28점의 출품자들에게도 상이 주어졌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인사말을 통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 한해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충결산하고 수상작 전시를 통해 건축이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기에 훌륭한 건축물을 창조해 우리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이웃과 도시를 위해 큰 공헌을 한데 대한 찬사와 격려는 당연한 것"이라며 수상자들의 숨은 창작 열을 치하하였다.

한편 올해의 각 부문 수상작들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전시회 태이프팅 광경



시상식 광경

협회 대표단, 日에서 열린

「ARCASIA 포럼」 참석

회원국 대표간 건축정보 교류 및 협력증진 논의

김영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협회 대표단이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 주최 아시아건축사 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고 지난 9월 27일 귀국했다.

'아시아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이번 아카시아 토론회에서 우리협회 대표단은 아시아 15개국 건축사회 대표단들과 회원국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격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는 이관영이사와 김영석 감사 등 협회 임원 7인이 참석하였다.



공로패 전달광경 (오른쪽이 김지태(제14대회장)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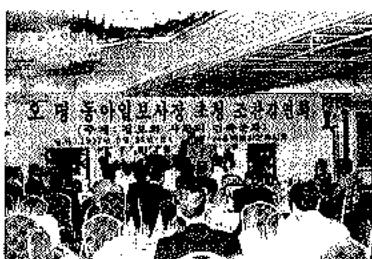
강봉진, 김두섭, 김지태 고문 등 5인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해 축하인사를 나누었다.

서울건축사회,

조찬강연회 개최

'정보화 사회의 건축문화'를 주제로 오명 동아일보사장 강연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는 지난 9월 26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오명 동아일보사장 초청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오명 동아일보사장은 '정보화 사회의 건축문화'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현재 세계각국은 각 분야의 정보화 실현에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면서 "21세기는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인만큼 건축분야 역시 정보화의 물결이 곧 다가올 것을 예상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건축정보화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이날 조찬강연에는 약 40여명의 서울건축사회 소속회원들이 참석해 사회 저명인사의 강의내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임회장 5인에게 공로패 수여

협회발전 공로 기려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2일 전임회장(고문) 5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날 공로패 수여는 그간 협회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역대 회장중 사무소를 폐업한 장기인, 강명구,

인천·전남 건축사회, 장학사업 펼쳐

지역 우수학생에 장학금 전달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윤익상)가 지난 8월 광주지역 대학 우수학생 7명에게 5백 8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9월엔 전남건축사회와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지역 우수 건축학과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하여 건축학도들의 학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매년 도내 건축학과생들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온 전남건축사회(회장 조도인)는 올해에도 고등학생 4명과 전문대생 6명 등 모두 10명의 장학생에게 총 54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상 건축관련학과에서 추천한 우수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온 인천건축사회(회장 송기준) 역시 지난 9월 24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하대 하용호(건축공학과 2년)군 등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6명에게 총 8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인천건축사회, 「건축행정 간담회」 개최

건축사의 「조사검사업무 대행 지정권」 개선방안 의견교환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송기준)는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인천 간석동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인천시와의 대판정간담회를 갖고 건축사의 조사검사업무 대행 지정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인천시청 건설국장과 건축과장, 각 구·군 건축과장 등 공무원 12명과 인천건축

사회 임원 등 건축사 16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건축사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인천시측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는 등 지역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장이 되었다.



간담회 광경

제3기 충북 시민건축대학 개강

9월 30일 개강,
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강좌 진행

시민건축대학



제3기 1997
시민건축대학
한·한·집·음·작·으·리·민
주최: 괴창정도 건축사사무소
후원: 충주군민 사업자협의 충북자회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 제3기 시민건축대학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강좌는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주시 울랑동 한국통신사업본부 회의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씩 진행된다. 특히 3기 강좌에서는 '풍수지리와 건축', '실내장식', '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강의 내용을 통해 건축관련 정보는 물론 좋은 잡

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건축지식을 전달하므로써 지역건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이번 강좌의 강의일정이다(강의 일/강의내용/강사 순).

9. 30 / 개강식,

풍수지리와 건축 / 박시익(건축사)

10. 7 / 건축행정 / 최원식(청주시청 건축과장)

건축설계의 이해 / 정의현(건축사)

10. 14 / 실내장식 / 권선국(충청전문대학교 교수)

건축과 조세 / 홍순필(청주세무서 민원실장)

10. 21 / 고건축 답사 / 장현석, 박성인(건축사)

10. 28 / 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 정경수(건축사)
종강식

문의 : 충북건축사회 (0431-223-3084~6)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4천15명 응시

응시율 87.5%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시험 포함)이 지난 9월 7일 성보중·고등학교와 선린중·고등학교 등 서울시내 4개장소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날 시험에는 응시원서접수자 4천5백여명 가운데 4천15명이 응시해, 87.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수험생들은 각 시험과목의 문제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합격여부에 큰比重을 차지하는 설계실기시험 과제로 '건축사사무소'가 주어진 것은 예상밖이라는 반응이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예비합격자는 오는 10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 건축법시행령, 9월 9일부터 시행

대형건축물 사전승인권 시·도에 이양

정부는 새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을 지난 9월 9일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중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창고건물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연면적 30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전이라도 건축행정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의 경우 종전까지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만㎡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인 건물을 삼의했으나, 9월부터는 16층이상이거나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축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이다.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를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제5조제3항),
-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함(제8조제4항).

-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 비공해공장의 규모를 2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확대함(별표1 제4호).
-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에 따라 그 허용기준이 달라 물류시설의 확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건축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별표13).

박경수, 이일성(POS-A.C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육동건(열린건축사사무소), 이영범(삼성비서실 전무, 건축설계고문)씨 등 모두 6명의 겸임교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신임 겸임교수들 역시 건축설계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로 이로써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이일훈(이일훈 건축연구소), 조병수(조병수건축사사무소) 씨 등 기존 8명의 겸임교수를 포함 전체 겸임교수진이 14명으로 늘어났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서울캠퍼스)
교학부 / 02-390-5245, 5246

경기대 건축대학원,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4년제 대졸자 대상,
3년·2년과정 건축설계 전공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98학년도 전기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는 2년과정에, 기타 학과 졸업자는 3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원서는 11월 3일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교부되며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다.

98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인가가 예정된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디자인 디렉터시스템 중심의 학부수업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절규과정외 건축전과 특강, 작품집 발간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98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전형 및 수업은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되며 입학자중 매학기 성적 우수자 14명 및 연구보조원(R.A) 2명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지난 9월 12일 유방근(2.5건축 대표), 조택연(U.C.L.A 건축도시계획 대학원 졸업),

재미 건축가 조택연 「GAIA PROJECT」전 열려

미래의 건축물과 도시를 홀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시



Eourban-V1

CAD를 사용해 2000년대 지구상의 건축물과 도시를 표출해낸 미래건축디자인전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청담동 김내현 화랑에서는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지구초유기체이론(Gaia Theory)을 미래건축에 접목시킨 재미건축가 조택연씨의 「GAIA PROJECT」전이 열렸다.

「월간 건축인 POAR」가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21C를 막연한 가상공간이 아닌 현 과학이론의 발전

가능성에 대입시켜 건축의 미래를 보여준 전시였다. 특히 공상과학영화속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에코반-V1」을 비롯해 미래의 건축공간을 3차원 홀로그램과 각종 슬라이드쇼, VTR 등 5가지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 보여줌으로써 책이라는 2 차원적 미디어의 평면위에서만 전달되던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GAIA(지구 초유 기체)이론들이 미래의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제2회 건축사진전 금상에 김동범作「時·空間의 修辭」

11월 28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한 제2회 건축사진전에서 김동범(한양대 건축학과대학원)作「時·空間의 修辭」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동범씨의 작품은 “건축적 조형미와 공간표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경을 건축물과 조화시킨 수작”이라는 평을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번 사진전에서 은상은 「숨막힘」을 출품한 송실대 건축공학과 3년 최지영씨와 「적막」을 출품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보기 등 2명이, 동상은 「조형을 사아로 본 건물」(이선호·이호디자인 대표), 「무제1」(조향만·(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대표), 「돌출」(정익재·청주대 건축공학과 4년) 등 3점이 뽑혔다.

총 1백38점의 작품이 응모한 이번 사진전은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시각적 재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건축을 이해시키고 좀 더 친근감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행사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건축사진공모전이다.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택·보육시설 심포지엄 및 작품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최
주제는 ‘미래의 중심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 앞 연세재단 빌딩내 대우주택문화관에서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복수)가 주최한 주택·보육시설 심포지엄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미래의 중심에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 순(간접건축 대표), 김진수(오픈스페이스 대표), 한숙희(민간교육시설연합회 회장), 김화연(역삼디자인 대표), 최경숙(인덕전문대 건축과 교수), 배시화(경원대 실내건축과 교수) 씨 등이 주택과 어린이 보육시설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명광 건축사사무소, ISO 9001인증 취득

설계·개발·감리·서비스 분야
품질보증체제 갖춰



(주)명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이사 조명식)가 품질보증모델중 인증과 절이 가장 까다롭다는 ISO 9001을 획득했다.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의 이번 인증 취득은 설계 및 감리분야의 경우 ISO 인증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품질보증을 통해 설계와 감리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지방 중소

업체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어 그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는 지난 96년 12월에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네빌클락의 지도를 받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으나 설계 및 감리분야의 참고자료가 전무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지난 4월말 회사 표준체제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개월 여 동안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29일에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으로부터 KS A / ISO 9001에 대한 인증을 획득, 건축공사의 설계, 개발, 감리 및 서비스 분야에서 완벽한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주)명광(엔)건축사사무소 조명식 대표이는 “초기엔 ISO요건을 이해시키기 위한 직원교육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궤도에 오르자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고 체계적인 대내외의 업무협조 등이 원만해진 것은 물론 기본단계에서부터 품질보증을 확신할 수 있어 고객에게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가치경영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ISO 인증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모든 기술분야가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왔으나 국내에서는 불과 2~3년전부터 일부 제조업분야와 건설시공분야에서 추진을 시작해 건설시공사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KS A / ISO 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한 업체수가 총 47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분야에 있어선 현재 까지 인증취득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업체의 경우 P.Q평가시 제도적으로 가산점이 보장되지만 설계 및 감리분야는 인센티브가 없어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예고를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설계 및 감리분야에도 인센티브(기산점)가 주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설계·감리분야에서도 인증획득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 특별강연」

‘근대건축의 공간’ 주제로 11월까지 4차례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는 오는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성북구 석관동 교사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10월 17일 3시에는 ‘근대건축의 공간’을 주제로 김종성(전 IIIT학장, 서울건축대표)씨가, 이어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는 서혜림(서혜림건축 대표)씨가 ‘Compressed Space’란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강연내용과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 조교실(본관 201호, 02-958-2781)이나 미술원 조교실(별관 112호, 02-958-2772)로 문의하면 된다.

제8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 작품공모

종합대상, 건축, 조경 등 5개부문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밝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정된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의 출품작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종합대상, 건축, 실내 장식, 조경, 조각 등 5개부문에 걸쳐 각 작품의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에게 상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10월 10일까지로 작품사진 (8" x 10" 정·측면사진 각 5매)과 소정양식의 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준공일

자획인서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응모작품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10월 10일 사이에 준공검사를 받은 작품이어야 하며 심사는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 한국경제신문사 사업국(02-360-4510, 02-362-6654)

광주 맥갤러리 (062-222-0992)

오토데스크 「'97 I & A 공모전」

수상자 발표

건축부문 대상에 코아종합건축
고석균씨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 “恒性” 지방순회 전시

10월 4일부터 광주, 부산, 대구
순회전 열어

지난 8월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려 건축인은 물론 많은 일반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 - 항성」이 이번에는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서울 전시회에서는 건축창작에 있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항성”을 주제로 이 출신의 건축가와 일곱명의 평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와 전시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건축의 향토적 풍토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신선감을 더해 주었었다.

오는 10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를 순회하는 이번 전시 역시 서울전시회에 참여했던 김태수, 조건영, 강남구 등 3명의 초대작가과 강일원, 김태우, 박종원 등 주최측이 자체 선정한 30대 작가들 중 6명의 대상작이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광주 전시회의 경우는 맥갤러리에서 오후 3시반부터 전시참여 작가들과의 작품설명회 시간이 마련되어 또한 류연창, 박화수, 송건, 강남구, 한진수 씨 등 광주지역을 무대로 활동중인 건축가들이 ‘광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광주건축의 미래’ 등을 주제로 강의와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진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02-304-6539),

고석균 회원(코아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오토데스크가 국내 멀티미디어 매니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97 Image & Animation 공모전에서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대표 김일호)가 지난 95년부터 멀티미디어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해 온 I & A 공모전은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예술 창작물의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창작의지 및 작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 공모전에는 건축·기계·비디오 등 5개부문에 총 240여점의 작품이 출품돼 경합의 열기를 더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건축부문의 경우 대상을 수상한 고석균 회원의 「Office Simulation」 작품을 비롯해 우수상을 받은 흥재옥(동명정보대 컴퓨터그래픽학과)씨의 「West」 등 상당수의 출품작들이 기술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독특한 창의성을 지닌 수작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 잠실롯데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는 고석균 회원을 비롯해 강지연(기계부문 대상 수상자), 황규민(도로교육부문 대상수상자) 씨 등 이번 공모전의 각 부문별 입상자 21인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경기대 건축대학원

「97건축설계교육 포럼」 개최

‘Tectonics’란 주제로 각계 전문가 참여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11월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포스코 센터 4층 강당에서 건축설계교육에 관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Tectonics’를 주제로한 이번 학술포럼에는 교육계와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동시에 건축계의 당면과제중 하나인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제적 설계’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주제발표자로는 우경국(예공건축), 조병역(N.Y. Ove Arup & Partners), 김란기(우드텍 건축연구소), 박경수(Pos-A.C. 이사보), Wolfgang Böhm(독일 Kalserslautern대), 박승규(울산대)씨가, 토론자로는 정무웅(단국대), 김역중(한남대), 김준성(경기대), 강병근(건국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02-390-5245~6)

건축설계 안내

건축디자인의 기초

건강하고 잘생긴 건물의 구조 만화로 배우는 철골건물 감리

◇ 건축디자인의 기초

이 책은 기초 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한 해설서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디자인 문제를 수집해, 그에 대한 디자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초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중 한사람인 오웬 캐플먼은 미국 텍사스대 건축학과 교수로 현

재 화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며 또다른 저자인 마이클 잭 조던은 오클라호마대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건축가이다.

이 책 제1장에는 학생들이 보내온 프로젝트의 삽화와 함께 유럽과 미국에서의 기초디자인 교육에 관한 역사가 소개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프로젝트 삽화와 그에 관한 설명, 페이지 여백의 주석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된 각 프로젝트에 관한 개요를싣고 있다. 이밖에 부록편에서는 각 프로젝트에 관한 보충정보와 상세한 프로그램 기록을 비롯, 각 프로젝트의 저자들에 대한 간략한 전기와 프로젝트 유형학에 관한 분류학적 접근방법 그리고 디자인 목표의 달성을 그것들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오웬 캐플먼, 마이클 잭 조던 공동著/ 오영근譯 / 도서출판 국제(02-359-7606) 펴냄 / A4 / 217쪽 / 1만3천원



◇ 건강하고 잘생긴 건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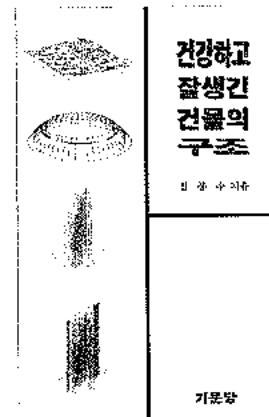
이 책은 구조설계분야에 대한 기고문들과 외국전문가의 글을 번역해 건축관련 간행물에 기고해 온 글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수록된 30여편의 글들은 모두 현실의 생생한 기록들이다.

국내 구조설계분야의 현실에 대한 예정과 국외 현실과의 유사성과 상치를 함께 드러내 놓고 있는 이 책은 구조설계에 대한 관심을 각계에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으며 구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장 구조엔지니어의 환경을 시작으로, 제2장 다른나라의 구조엔지니어, 제3장은 건물의 설계, 제4장 참여 토론 그리고

제5장 건물의 안전과 도심지의 지하공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봉수著/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360쪽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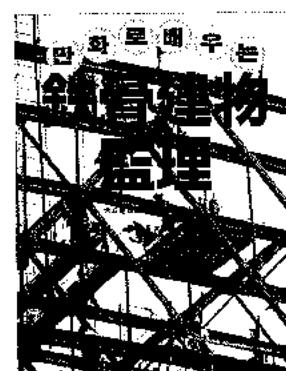
◇ 만화로 배우는 철골건물 감리

설계 종료시점에서부터 철구 가공공정과 작업현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따라 체험담을 만화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만화로 배우는 건물의 철근배치」에 이어지는 시리즈로서 철골물의 품질관리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계도서가 완성된 후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감리를 할 것인지를 건물의 시공 상황에 맞춰 만화로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다.

특히 이책은 건설현장과 철골 제작공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자와 젊은 설계자, 그리고 앞으로 건축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성건설건축구조연구회著/ 도서출판 국제(02-359-7606) 펴냄 / 4×6배판 / 134쪽 / 9천8백원



domus

ARCHITECTURAL RECORD

FARCA

建築文化

a+u

新建築

NIKKEI ARCHITECTURE

어느 시대에
나 긴 밀한
관계를 맺어
온 건축과
일반 예술
분야에 대한
이슈를 주제
로 삼은 본
호에서는 건

축에 있어서의 예술성에 대한 재고와 함께, 건축가와 예술가의 공동작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예술분야에 근접해 있는 건축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건축의 예술성에 대하여

건축을 예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종종 독창성, 개별성, 특이성과 관련시키곤 한다. 하지만 건축의 진정한 예술성은 건축을 포함한 일반 생활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를 도입함으로써 예술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분야들 사이의 건강한 종합과 타락한 오염은 구분되어야 한다.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작업을 했던 Le Corbusier가 "주류 예술계의 종합"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순수예술, 응용예술, 기계주의 기술로의 발전을 이야기했던 것은, 미와 실용성을 접합시키면서 현실 삶과 바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예술가의 역할을 강조해 주고 있다.

▶ Herzog & de Meuron의 Mulhouse Pfastatt 예술가 작업실

건축가와 예술가의 공동작업에 있어 Herzog & de Meuron과 Rémy Zaugg의 경우는 모범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들은 함께 Dijon의 기숙사를 설계하였으며, 폴피드 센터에서 열린 이들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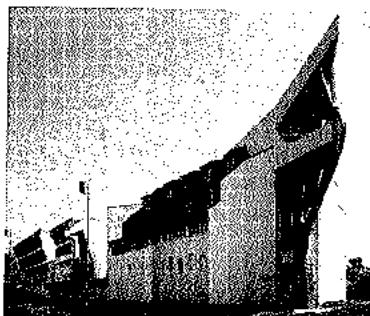
Mulhouse Pfastatt 예술가 작업실

축가의 전시회는 Zaugg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근 협력의 결과인 Zaugg의 예술가 작업실은,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술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건축가들은 일단 자신을 예술가라고 여기지만,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당대의 예술계와 얼마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있다. Herzog & de Meuron은 20년전부터 예술가들과 직접적인 공동작업을 해옴으로써, 건축과 예술이 지닌 각각의 가치를 병치시키는 단계를 초월하여 그들 사이의 적절한 접합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 Ricardo Porro, Renaud De La Noue의 Cergy-Pontoise 대학 기숙사



60년대부터 조각에 가까운 건축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쿠바 태생의 Porro는 공간과 형태의 조작에 있어 옛 표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사성, 시간성을 초월하여 견고하고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의 건축은 인간 삶의 회노애락 등 드라마틱한 면들을 직접적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그 외에 ▶Hiroshi Nakao의 Ikebana 예술가 작업실 겸 주거, ▶APM Arquitecto의 Tenerife La Laguna 대학

기숙사. ▶Giancarlo De Carlo의 San Marino 도시 진입문, ▶Corn-elius Kolig의 Carinzia Gailtal "파라다이스"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50세가 되면서 디자이너에서 보다 직접적인 사회운동가로의 전향을 공표한 Philippe Stark와의 인터뷰와 미국 LA 몬드리안 호텔 인테리어 등 최근 작품세계, ▶벽난서 예술을 증고 기구에 도입한 YA/YA의 작품들, ▶체코 프라하에 있는 입체파 건축물의 간단한 소개와 그 위치도, ▶공기를 이용한 각종 예술품 및 생활 용품들, ▶몇개의 원색을 이용한 강한 봇ter치의 양식인 "Barcelona style"에 대한 평가, ▶베니스 비에날레와 Kassel의 Documenta X 전시회 비교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7년 7/8월호

본 호에서 논의의 중심에 놓고 있는 지속성은 건축의 기초적인 속성의 하나로, 이는 시 간적으로 연속적인 것 뿐 만 아니라 그 양식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의 지속성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지속성에 대하여

건축이 지난 가장 오래된 특징 중 하나인 지속성은 영원성, 안정성, 고형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나가는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특성과 대립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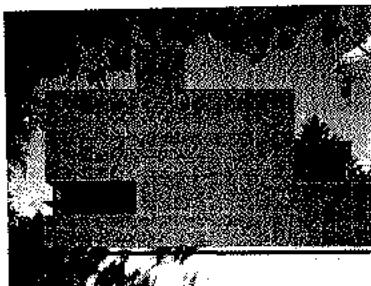
개념이다. 건축물은 일단 물질적으로 지속성은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내구성은 보편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축의 일관된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단시간적인 특이성을 극복하고 보다 넓리 상용됨으로써 보편적인 건축문화를 도래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 Mario Botta의 스위스 Tamaro산 성 메리 교회



하늘과 산이 전부인 정적인 Tamaro산의 정상에 위치한 Botta의 교회 설계는 긴 동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근대적인 건축적 산책로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내부의 프레스코화와 타일 디자인은 Enzo Cucchi에게 맡겨졌다.

▶ David Chipperfield의 독일 개인주택



일정한 규모와 비슷한 기능을 담고 있는 수많은 주택 건물들 사이에서 특이하게 주목을 끄는 주택은 무엇일까? Chipperfield의 설계는 공간과 동선, 표면과 개구부 등 양면적인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고 있다. 벽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벽면을 통해 바라보는 첫인상은 다소 내향적인 특징을 갖지만, 내부의 자족적인 단위 공간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으면서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벽돌재료를 통해 전해지는

중량감은 건물이 갖는 지속성을 나타내지만 그 내부는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극소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는 아주 미세한 변화와 차이를 통해서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시적인 효과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Gábor Turányi, László Falde의 헝가리 Visegrád 학교

석조로 이루어진 벽과 목재 지붕들로 구성된 숲속의 학교 건축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벼움과 개방성까지 발산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에도 비로소 이전의 국수적인 유기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동시대 건축양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Opus의 Seehem-Jugenheim 은행 및 동화, ▶Gustav Peichl, Rudolf Weber의 오스트리아 Vienna 학교, ▶Marco Zanuso의 이탈리아 Milano 신 Piccolo 극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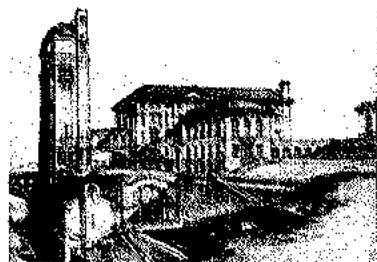
▶ Milano 가구 박람회

1996년의 Achille Castiglioni와 Joe Colombo에 이어 올해는 Gio Ponti와 Vico Magistretti의 가구 디자인을 다룬 Milano 가구 박람회는 예술과 산업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을 제공하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인 작품들로 Magistretti, William Sawaya, Ross Lovegrove, Tom Dixon, Claudio Lazzarini, Carl Pickering, Norman Foster 등의 합리적, 미적만 가구 디자인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Buol & Zünd, Miller & Maranta, Steinmann & Schmid 등의 신예 건축가 작품들, ▶파리 내에 있는 근대건축가 August Perret의 작품 소개와 위치도, ▶97년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전을 통해 새로이 선보인 각종 가구 디자인 상품들이 소개되어 있고,

▶ 저작 비평으로는 19세기 뉴욕과 보스턴 도시계획에 대한 전통의 영향을 분석한 *Invented Cities: The Creation of Landscape in Nineteenth-Century New York and Boston*, 그리고 Aldo Rossi의 CD-Rom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8월호

한 명의 건축가에 의해 전체 계획이 이루어진 대학 캠퍼스 계획, 그리고 한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진 상이한 대학의 신축 계획을 중심 기사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서는, 대학 건축계획의 현황과 아울러 도시 기반시설의 모범적인 건축사례, 건축에서의 조경작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대학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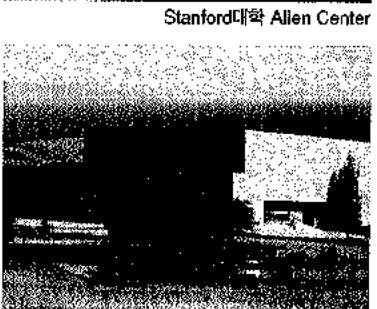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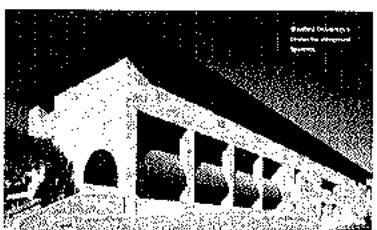
▶ 미국 팬실 베니 아주 Carnegie Mellon 대학교



대학교 전체 배치를 한 명의 건축가가 전담하여 맡는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그러나 93년의 역사를 지닌 Carnegie Mellon 대학교는 두번에 걸쳐 이러한 계획이 수행되었다. Henry

Hornbostel에 의해 이루어진 초기의 보자르 풍 배치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그러던 중 1987년 재개발에 대한 설계경기가 열렸으며 Michael Dennis가 선정되었다. 이번 호에는 시대에 따른 Carnegie Mellon 대학 건축의 변화상과 더불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Dennis가 일관된 건축적 시각을 대학교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전략 등이 소개되어 있다.

▶ Antoine Predock는 근래에 두 개의 대학 종축안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tanford 대학교 Allen Center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음악 센터로, 전자는 Frederick Law Olmsted의 로마네스크풍 마스터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후자는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물군들이 들어선 가운데 신축되어지는 것이다. 같은 건축가에 의해 적용된 두 개의 상이한 접근방식은 각각의 맥락에 호응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음악센터

■ 기반시설 건축

정책상으로 그리 중요성을 떠지는 않지만, 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도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일반 사회시설과의 긴밀한 연관이 필요한, 건축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도시 기반시설 건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Hiller Group의 미국 New York Jamaica 발전소, ▶Angela Danadjieva의 미국 Washington Seattle 하수 처리장, ▶Future Systems의 영국 London 교량, ▶Gantt Huberman의 미국 북Carolina주 Charlotte 버스 터미널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건축 분야에서 비교적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조경에 대한 전문서적 리뷰, ▶조경 전문가들의 건축에 대한 의견 인터뷰, ▶Philip Johnson의 미국 St. Thomas 대학 교회,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피아노, ▶POE(Post-Occupancy Evaluation)의 효용성, ▶건축조명의 선구자였던 Abe Feder의 사랑을 맞아 건축에서 조명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와 각종 케이스 스터디가 다루어져 있다.

건축에 있어 빛의 의미와 인공 조명이 도

PARCA

97년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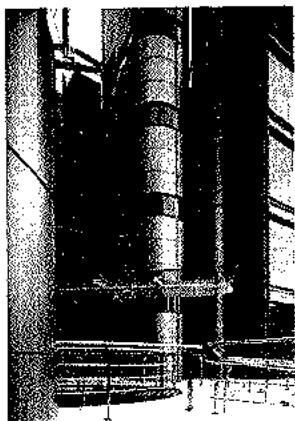


래시킨 변화에 대한 예세 이가 개제되어 있는 이번 호에서는 Richard Rogers, H rault et Arnod, Future Systems의 신작들이 소개되어 있다.

■ 건축 밝히기

근대건축에 있어서 빛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며, 건축언어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점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판테온의 천공을 비롯하여, 빛과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바로크 건축에 이르기까지, 빛은 건축에 있어서 조형적 요소로, 그리고 은유, 상징적 요소로서 널리 쓰여왔다. 전기의 발명과 함께 건축에 도입된 인공 조명은 건축과 관련된 빛의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건축 공간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라는 미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 Richard Rogers Partnership의 영국 London Channel 4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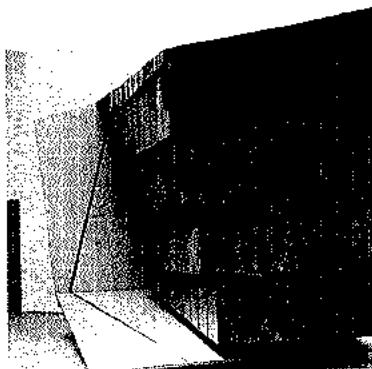


산업적, 군사적 목적의 건물이 갖는 기계적인 특성을 일반건축에 확장시키고 있는 Rogers는 엄격한 사전 공정, 조립기술, 다양한 천연재료 등을 통해서 현대적이며 우아한 고전주의를 이루어내 왔다. 사무실 공간의 사용행태에 비탕을 두고 있는 기능적 배치와 그것을 덮어싸고 있는 유리와 철재의 비물질성은 이제 Rogers의 독특한 스타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Héault et Arnod의 방랑자

의도적으로 사용 기능이라는 향을 삭제함으로써 형태에 모든 의미를 집중시킨 Héault et Arnod의 작품은 공간 내에 있는 건축의 형태적 자율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형태주의라고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통해 수많은 가능성이 물화되기 이전의 태초 상황으로 건축을 회귀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



그외에 ▶Chemetov+Huidobro의 프랑스 Paris 사무실, ▶Philippe Samyn et Associés의 벨기에 Brussels 사무실, ▶Teodoro González de León, J. Francisco Serrano, Carlos Tejeda의 멕시코 Mexico City Arcos Bosques사, ▶Mario Cucinella Architectes의 iGuizzini 사무실, ▶Smith-Miller+Hawkinson의 미국 남부 캐롤라이나 야외 극장, ▶Peter Elliott의 호주 Victoria Ballarat 원예센터, ▶Future Systems의 영국 런던 West India Quay 다리, ▶Carmelo Borz 의 Catania 공예 쇼핑 센터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각종 최신 인공조명 기구들, ▶Brunelleschi의 이탈리아 Florence 교회들 하부 choir부분 재설계에 응모된 Arata Isozaki, Mario Botta, Klaus Theo Brenner, Gabetti e Isola, Michael Graves, Hans Hollein, Jean Nouvel의 계획안들이 소개되어 있다.

建築文化

97년 9월호

이번 호는 근작들의 소개로 하라 히로시의 '京都(교오토)驛ビル딩', 이토 오 도요와 다케나와 corporation이 함께 디자인한 '오다테 주카이 둠 파크', 그리고 암스트롱 아키텍트의 '파리 일본 문화관'이 소개되었다. 프로젝트로는 Alison과 Peter Smithson의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프로젝트와 2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 작품

▶ 京都驛 빌딩(하라 히로시 설계)



京都驛 빌딩 프로젝트

238.000 평방미터(7만 2천평)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京都驛 빌딩 프로젝트는 하나의 건물군 안에 역의 시설은 물론 백화점, 소매상, 문화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구조면에서도 획기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은 470m의 길이를 가지면서도 단 한 군데의 Expansion Joint도 갖지 않는 일체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평상시대로라면 길이 470m의 건물에는 18군데의 Expansion Joint가 필요하나 여기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대지진에 대비한 구조물을 설계하게 되었다.

길이 470m의 각 층은 "Matrix" 가되어 이는 메가 칼럼에 의해 지지된다. 미로를 연상케 하는 Geographical Concourse는 구조 속을 관통하여 지나가며 역과 나머지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다테 쥬카이 돔 파크(이토오 도요 & 다케나가 corporation 설계)



도요이토와 다케나가 corporation이 연합한 팀이 1994년 3월 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에 있는 오다테 돔 파크의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다.

그들의 scheme은 아키타의 삼나무를 이용해 돔의 구조를 만들었으므로 지역성을 나타내고 새로운 구조 디자인의 도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돔 주위의 대지는 돔을 중심으로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 돔은 야구장으로 쓰여진다.

a+u

97년 9월호

이번 호에서
는 베나드 츄
미(Bernard
Tscumi)와
그루젠 셈튼
(Gruzen
Samton)이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 Lerner Student Center 를
콜하스(Rem Koolhaas)의 Breninger
백화점의 개축 프로젝트, 발리리오 올지
아니(Valerio Olgiati)의 Kucher
House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유통망으로는 알
리스와 모리슨(Alies and Morrison)의
작품 11개가 소개되었다.

■ 작품

▶ 미국 뉴욕의 Lerner Student Center
프로젝트(버나드 츄미와 그루젠 셈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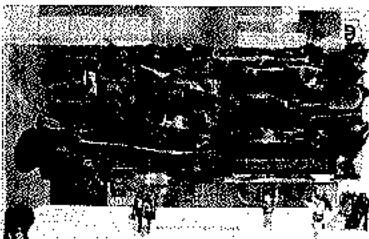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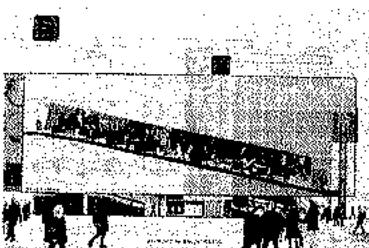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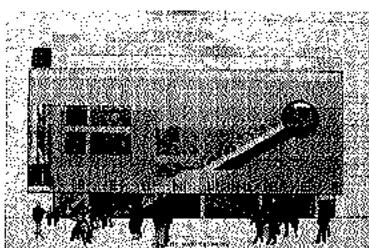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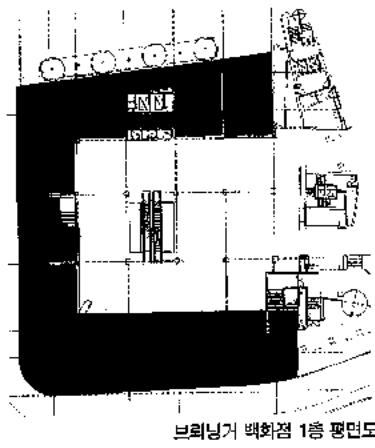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새로운 학생생활 센터를 계획중이다. 여기에는 1100~1500석의 복합강당, 집회장, 식당, 라운지, 회의실, 서점, 라디오 방송국, 학생 서클룸, 게임실, 관리제실, 블랙박스 영화관, 학생용 우편함 6천개 그리고 학생을 위한 컴퓨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의 부지는 한 편으로는 브로드웨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맥킨·미드와 화이

트가 설계한 캠퍼스의 건물들을 면하고 있다. 작기는 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부지에 새로이 들어서게 될 건물을 앞으로 신축될 건물들의 예가 될 것을 감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침을 정하였다. 외부는 기존 마스터플랜이 지시하는 공간 논리를 존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며, 내부는 20세기 종반의 사회가 설정하는 가장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는 정적으로 내부는 활기차게 하는 것이다.

▶ 독일 스투트가르트 브뢰닝거(Breuninger) 백화점 개축(램 콜하스 설계, 1995)

프로젝트의 개요는 70년대에 스투트가르트의 중심에 건설된 점포의 외관을 南 독일에 14개의 점포를 갖는 브뢰닝거社의 최유력점포로 재표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 첫째, 가로의 광장을 면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며, 건물의 아이덴티티와 기능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로에 면한 3개의 입면을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2개의 입면은 동선을 수용하고 이를 외부에 노출





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한 면은 '수직의 공원'이라 이름 붙여져 식재로 구성된 벽면을 형성하게 된다.

■특집 - 알리스와 모리슨(Allies and Morrison)

1980년대의 영국은 비생산적인 토론이 만연하여 스타일의 범람이 있었던 10년 간으로 이 시기에 알리슨과 모리슨이 나타났다. 당시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이테크 건축, 신고전주의의 시대로, 서로가 미사어구를 늘어놓던 시기로, 내용보다는 외관, 질보다는 영향력이 더 우세한 것이었다.

알리슨과 모리슨이 추구하였던 것은 이 외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세련되고, 자적이며, 신중하고 조용한 것으로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악의 결점인 수사학이나 모더니즘의 정설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事象을 교훈으로 삼았다. 그들의 작품은 평면과 입면의 차이, 벤츄리와 클리에 형제의 이론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건물의 도시적 역할을 파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축은 빛의 효과, 재료, 건물이 존재하는 형태가 고려되고 있고, 극장적인 효과에 대한 불신감이 배어있다. 이것은 영국의 아트 & 크래프트 운동이나 해외, 특히 北歐의 모더니즘에 유래하는 것이다.

新建築

97년 9월호

이번 호에서는 건축문화에 소개된 하라 히로시의 '京都(교토)驛 빌딩'이 많은 비중을 두고 소개되었다. 그 외에 히로세 겐지의 사이토바루 고대생활 체험관 등 2개 작품, 후미히코 마키의 시노하라 커뮤니티 센터, 타카마츠 신의 미나토 사카이 교류관 등이 소개되었다.



■작품

▶사이토 바루 고대생활 체험관, 코우즈 케 고쿠분지(國分寺)館 (히로세 겐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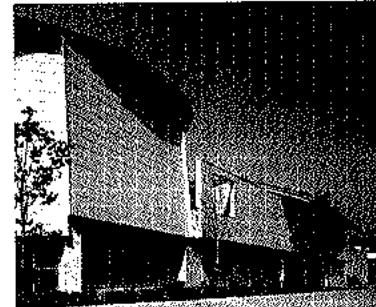


일본의 유적지와 관련된 이 두 건축물에서 작가는 다음의 3가지 테마를 갖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일본건축 각각의 시대성을 형태 뿐만 아니라 구법, 디테일을 합하여 표현하는 것, 둘째, 전통구법의 재생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것, 셋째, 풍토성, 역사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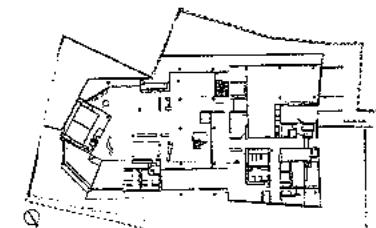
▶시노하라 커뮤니티 센터 - 마키 종합설

계사무소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케어센터(의료 기능)가 합해진 이 건물을 작가는 주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본래는 자기 완결적이며 자립해 있었던 주거는 도시에



시노하라 커뮤니티 센터



있어서 외부로의 의존성을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다. 주거가 수용할 수 없게 된 기능들을 이러한 시설(커뮤니티와 케어 센터)이 보완한다"는 작가의 말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건물의 공간이 가지는 강제력을 약화시켜 좀더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이 갖는 포용력을 늘려야 함을 작품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연재 - TOKIO계획 1997

▶project-09 하이웨이 레지던스 (Highway-Residence)

고속이동의 인프라 스트럭쳐와 주거의 혼성물에 의한 새로운 도시 구축물은, 모더니즘의 현실과 꿈의 사이에서 미래의 도시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제시한다. 이 제안은 21세기 도시를 위한 복합화된 인프라 스트럭쳐로서 도시에 들 어선 메가-도미노(Mega-Domino)이다.

新建築 주택 특집

97년 9월호

이번 호에서
는 15개의
최근 주택작
품이 소개되
어 있으며,
특별기사로는
'21세기의
겔 만들기'가
소개되었다.



또한 미팅기사로 '전통기술에서 배우는
실내환경'이 소개되었다.

■ 특별기사 - 21세기의 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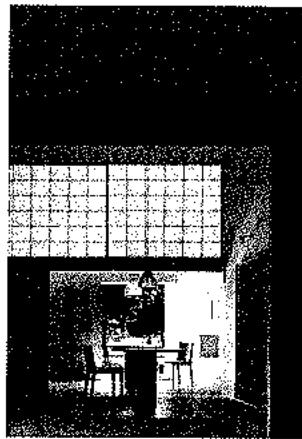


겔은 몽골 유목민의 천막 주거를 부르는
이름이다(파오는 속칭). 몽골에서는 전
통적인 겔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몽골의 전통적 겔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본 건축가들에게 몽골건축가협회는
21세기 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몽골·겔 연구회'라는
그룹을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
출해 냈다. 이번 호에는 이들 일본 작가
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작품

▶ 토우후 (玉置順 설계)

흰 육면체의 모습에 각 입면마다 하나의
개구부만이 형성된 이 건물은 그 이름이
갖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일본말로 토
우후는 두부를 뜻한다). 내부에도 깊이가
깊은 흰 벽체를 도려낸 부분들이 있어 속
이 찬 흰 매스를 파내어 만들어낸 듯한
인상을 준다. 중앙의 큰 거실을 둘러싼
방들은 흰 벽체속에 숨어 두터운 벽체들
이 둘러싼 듯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들은 각각 세면실, 조리실, 창고 등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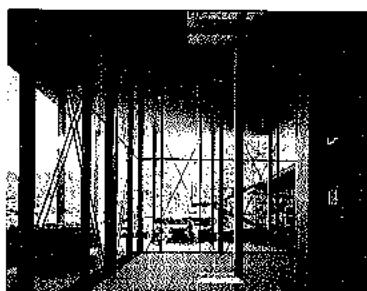
토우후

할을 하여 중앙의 거실을 드는 역할을 한
다.

크도 디자인 과정의 하나, 4. 비용 초과,
5. 설계에 있어서의 실수, 6. 현장 대응-
시공자의 경영상태도 확인 할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각 건축가들이
말하는 자신의 실패담이 소개되어 있다.

■ 작품 - Archisip Studio의 '숲의 交流館'

건물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Jr선의 역인
野山역에 위치한다. 이 건물은 임업이
주산업인 마을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계자는 건물내의 전
시관의 전시방법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그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관람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전시이다. 관람자는 수종의
모형을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NIKKEI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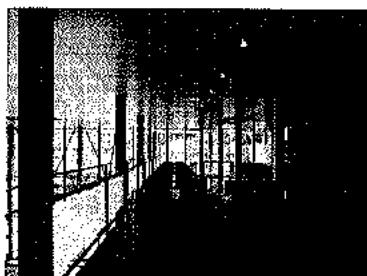
97년 9월호

이번 호에서
는 건축가의
실패 사례를
통해 실무에
서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
한 '실패에서
배운다'가 특
집으로 소개
되고 있으며 작품소개로는 이이다
Archisip Studio의 '숲의 交流館'과 히
사미가 설계한 '스포츠 아래나' 등 2작
품이 소개되었다.



■ 특집 - '실패에서 배운다'

50인의 건축가의 경험담을 통해 설계실
무에 있어서 겪게되는 곤경을 소개하여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기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각 1. 계약·설계비-
이는 사람의 소개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2. 프리젠테이
션과 건축주와의 합의-완성도 보다는 커
뮤니케이션, 3. 법규관련 문제-법규의 체



숲의 交流館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고레 기념관

동신대 강의동 · 체육관 · 문화센터

마포노인복지회관

고양노인복지회관

종량소방서

강서구민체육센터

고레기념관

Goree Memorial

세네갈 정부가 세계건축가협회(UIA)와 아프리카연합(O.H.A)의 전폭적인 후원과 UNESCO의 투자지원하에 아프리카지역의 공동체를 형상화하는 상징적 건물을 건립코자 실시한 국제 현상설계에서 무리나라의 Pos-A.C(대표 심인보)인이 2등에 당선됐다. 세네갈의 다카(Dakar)시 마들레인(madeleines)만에 들어설 이 기념관은 과거 신세계의 발전과 노예무역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유와 인내로 극복했던 아프리카인의 의지를 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국제 현상설계에는 9명의 각국 심사위원(Thomas Kancler 슬로베니아, Mbaye Bassine Dieng-세네갈, Carolyn Armenta Davis-미국, Harry G.Robinson Ⅲ-미국, Landing Sane-세네갈, Amadou Lanine Sall-세네갈, Reuben M. Mutiso-케냐, Salah Zaky Said-이집트, Suk-Won Kang-한국)들이 심사를 맡아 지난 9월 15일 당선작 및 입선작을 발표했다.

했다.

특히, 이 현상설계에서 2등으로 당선된 Pos-A.C의 안은 국제적인 자리여건의 불리함과 현지에 관한 자료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예생활의 쓰라린 체험을 관습적인 서양식 인식체계 분석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잠재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신념을 인류 뿐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에 대한 初源적 불질대시활동의 근본까지 본질적으로 표현해 심사측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국제현상설계의 일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1등 : Ottavio Di Blasi(이태리)

• 2등 : 심인보 (한국)

• 3등 : Brandi + Partner

(독일)

• 입선 : George Henry Chidiac & Fatima Nabil Saikali(레바논)
Veronique Jandelle, Pascaleine Guiller & Alice Toulemonte(프랑스)

Harden Macaux & Mathieu Rolland(프랑스)

Torsten Brecht Architects(독일)

Oliver Souquet(프랑스)

▶ 우수작 / (주)POS-A.C(심인보)



모형도1



모형도2

위 치 세네갈 다카시 마들레인만 해

대지면적	20,500m ²
연면적	14,984m ²
건축면적	9,996m ²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고레기념관은 조개(shell)와 같이 회전하면서 팽창해가며 아프리카의 번영을 상징하는 Museum(박물관)과 거대한 거목의 은유로서, 전망대로서 솟구쳐 올라가며 아프리카의 힘을 상징하는 Memorial(기념탑)으로 구성된 축제의 장으로서 과거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과 지형학적 분석, 도시축에 대한 분석 및 지리학적 특성으로부터 유추한 디자인 언어를 구성하여 나온 결과물인 것이다.

개요 및 접근성

해발 10m에서 20m의 해안 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건물은 절반이 해안절벽을 따라 가라앉은 형태로서 크게 2개층으로 구성되었다. 지상층(Ground floor)은 해발 15m 표고위에 위치해 Co-mich St.에서 중심 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지하층(Basement floor)은 해발 10m 표고위에 위치하여 Procession Path축과 동일 level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옥상층(Roof level)은 공중을 위한 산책 및 전망공간으로 이용도록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층고 level은 가급적 낮게 해발 표고 24m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고레기념관의 주출입은 2개의 축(Procession Path축/SCAT Urban축)에서 접근토록 하였으며 Procession Path 축은 장축의 넓은 가로 및 광장으로 계획하여 기념관의 진입축이 되도록 하였다. SCAT Urban축은 기념탑 중심부의 동선집입축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축을 따라 주출입구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상부의 박물관으로 동선진입을 유도하였으며 하부선축선상에는 Main Hall, Cafe 등의 유리로 뒤덮힌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시켰다. 또한 Goree섬 방향으로 사선축을 설정하여 이 축을 따라 Goree 섬으로의 직선출항이 가능한 항구 및 선착장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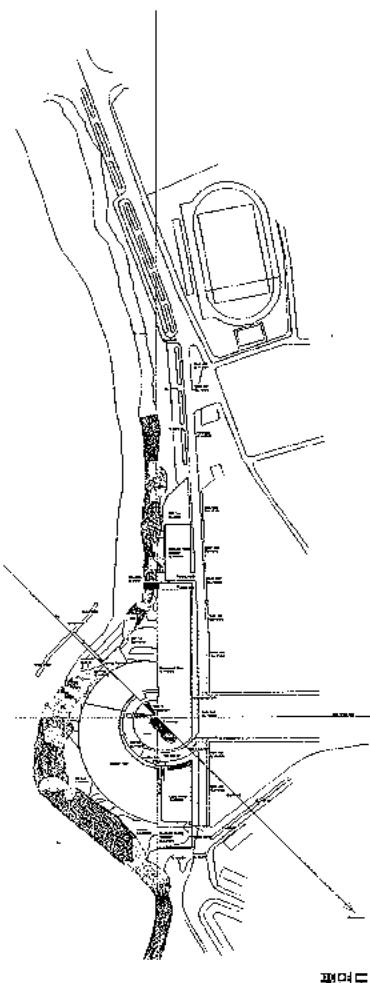
박물관

3개의 곡선벽으로 계획하여 절벽해안쪽을 따라 설치한 외벽내에 Tube형태의 무주(無柱) 내부 전시관(노예무역박물관, 전시실, 해양박물관) 및 중간 간막이 벽(구조벽)에 의한 서비스공간, 기념탑을 감싸는 내부벽에 의해 둘러싸인 중정 공간 및 연못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원형 중심축의 기념탑에서 빙사형태로 내벽들을 설치하여 Tube를 수직으로 분절하면서 건물내부의 제설 및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였고 특히 중앙연못은 기념탑이 반사로 유도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기념탑

해발 36m의 높이를 가진 거대한 고목(古木)형상을 이미지화한 기념탑은 내부 바닥의 외곽선이 고레섬의 형상을 띠도록 하였으며 중간부위에서 2개의 가지(Branch)로 분절하여 큰쪽은 Goree섬을 향하고 작은쪽은 대서양을 향하도록 하여 과거 노예무역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표현하였다.

모든 방문객들은 주출입구가 위치한 기념탑을 통해서만 건물내부로의 통행이 가능토록 하여 Program의 결절점(Pivot)으로서 작용케 하였다. 기념탑은 중공(中空)형 타워로서 36m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탑의 외벽은 $4 \times 1.5 \times 0.5$ m의 현지 목재 Block을 석조형식을 취한 적층 접합판 형식으로 계획하였고 Block들 내부에는 나선형태의 Cable을 이용하여 Post-Tension 응력을 상하부 양단지지에 의해 긴장시켰다. 진입부를 지나서 내부로 들어올시 방문객은 기묘하고 유기적인 형태의 공간을 접하면서 은은한 복재함을 음미토록 하였고 경사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상층부로 진입할 수록 거대한 개구부의 공간적 해방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부의 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은 개구부를 통해 내부하단의 관망 및 대서양의 파노라마적 경관을 즐기면서 또한 반대측상에 위치한 Goree섬도 조망토록 하였다.



평면도

동신대 강의동·체육관·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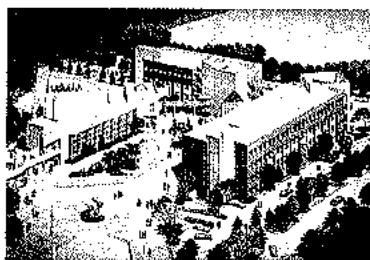
Lecture Hall, Gymnasium, and Culture Center of Dongshin University

동신대는 교육공간의 마련은 물론, 복합적인 대학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할 열린공간 마련을 위해 강의동, 체육관, 문화센터 현상설계를 실시. 지난 8월 21일 심사를 거쳐 8월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사결과 강의동은 6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가운데 우토건축(박홍근)+최일(목포대)안을 당선작, 플러스건축(조두상)안을 우수작, 대림건축(박현석)+명인설계(윤동현)안을 가작으로 각각 선정하였고, 체육관은 5개 작품중에서 대림건축(박현석)+명인설계(윤동현)안을 당선작, 예조건축(주영정)안을 우수작, M.A.R.U(김종규)안을 가작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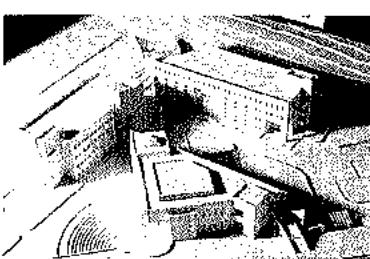
심사에는 이광로(서울대 명예교수), 이경희(연세대교수), 유희준(한양대교수), 이상순(롯데건설사장), 임영배(전남대교수), 이수곤(전남대교수), 이청웅(조선대교수), 손승광(동신대교수), 오세규(동신대교수)씨가 참여하였다.

■ 강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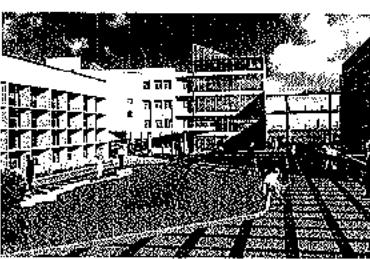
▶ 당선작 / 우토건축(박홍근)+최일
(목포대건축공학과)



조감도



모형도



부분 투시도

대지위치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 캠퍼스내 인문관

앞부지

건축면적 $2,613.14\text{m}^2$ (790.72평)

연 면 적 $8,371.79\text{m}^2$ (2,532.46평)

규 모 지하1층 / 지상4층

- 강의동:지상4층

- 연구동: 지하1층, 지상4층
- 다목적 강당동: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 쌓기(일부 선토석 엔로우) + 화강석 베너구이 + 노출 콘크리트 + 복층 유리
설계 송창환, 이정실
설계담당 윤상영, 김덕환, 김철우, 이원오, 이광덕, 김미선
C.G 이용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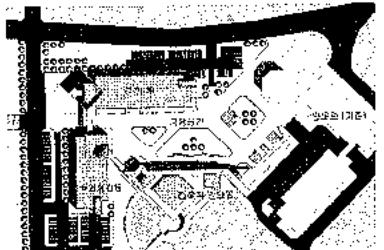
동신대 캠퍼스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주도로에 면해 있으며, 지역민의 사랑인 금성산 자락을 등지고 운치(?) 있게 자리잡고 있다(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할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크고 작은 소나무 숲과 곳곳의 훼손되지 않은 고건축(사당과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수목-미매입토지) 등은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가진 나주와 서해안 시대의 중심 대학으로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의동 계획안은 대학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또한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연계성, 그리고 대학 발전축에 따른 미래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 교내 주진입구와 인문관에서 나오는 동선이 체육관(신축예정) 시설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Y자형 선체계를 바탕
- 이동이 빈번한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동을 주출입구와 인사대(기준)에 인접시킴으로서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유도
- 이용시간이 많은 교수연구실, 대학원실 등 학과사무실을 중간위치에 배치, 이로 인한 관리 및 이용에 용이, 에너지 절감 계획에 충실히 대응
- 주변도로에서 강의동을 이격시켜 소음 문제 해결

평면계획

- 각실의 기능을 고려, 적정 모듈을 통한 융통성 및 가변성 있는 공간구성
- 브릿지를 통한 길의 연장과 상호기능의 원활성 확보



건축면적	2,399.72m²(725.91평)
면적	8,555.63m²(2,588.07평)
구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85대(기준 48대, 신설 37대, 장애자용 2대 포함)
주요외장재	적벽돌 치장 쌓기, 콘크리트 제물치장 위 애폭시페인트
주요내장재	인코트스프레이, 알면텍스
부대시설	주차장, 옥외휴게시설, 광장, 파빌리온(Pavilion), 산책로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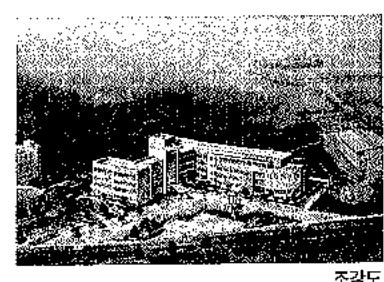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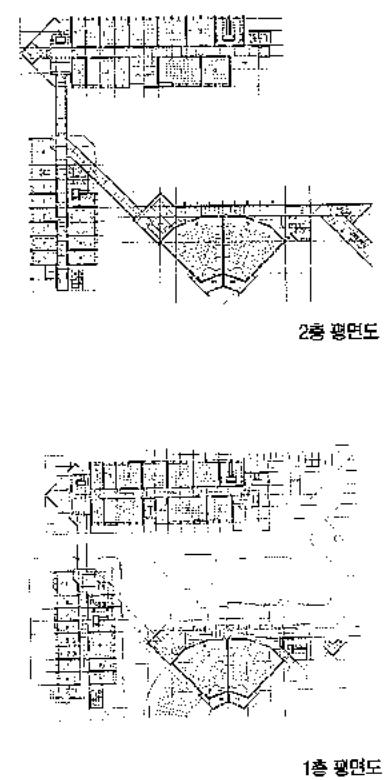
- 대학내 활동의 방향성을 고려한 Vector적 흐름의 Network에 의한 대학공간의 조직의 한 결점, 구성인자로서의 인식 및 단지계획적인 접근
- 기존의 인문대학과의 연계성의 고려 및 일체감의 조성을 위하여 중앙의 Open Space를 중심으로 건물들을 Enclosure 형성
- 캠퍼스내 도로의 흐름에 수평적 확산 개념의 배치계획 개념도입
- 건물과 연계되는 다양한 옥외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이 수용되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 → 진입로 → 옥외공간 → 건물로 이어지는 Sequence형성
-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기존 인문대학과 주차장과 건물, 중앙광장과의 시각적, 동선연결의 연계성 강조

평면계획

- 1층에 공동의 쓰임에 적합한 진입계획을 수립한다.
- 필로티 도입등으로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개방적 이미지 표현
- 중북도형 실배치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간을 배치한다.
- 교수연구실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편북도형 실배치를 한다.
- 차후 일부 학과의 신설, 증대 등을 예견하여 교수연구 Zone과 강의동 Zone의 수평연계가 가능하도록 실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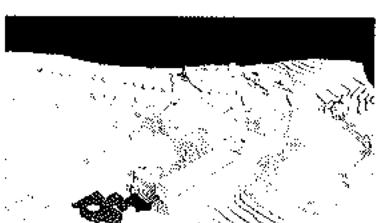
► 가작 / 대림건축(박현석) + 명인 설계(윤동현)

부지면적 캠퍼스 전체 부지면적 :





조감도



모형도

면적	536,551.0m ² (162,306.68평)
총 수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연 면 적	75,867.824m ² (기준) + 7,990.04m ² (신축강의동) = 83,857.864m ² (25,367.0평)
건축면적	21,634.841m ² (기준) + 2,010.75m ² (신축강의동) = 23,645.591m ² (7,152.79평)
용적률	14.15%
주차대수	30대(법정 26, 53대) - 기존 48대 제외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외 벽	적벽돌 치장쌓기, 외장용 본타일
지붕	우레탄 도막방수 위 무근콘크리트(펄슬라보)
창호	THK 100mm 컬러 AL-BAR, THK 18mm 착색복층유리

배치계획

- 주축의 설정 : 기존의 인문관과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고, 대학내 단지내 도로에서 주 진입시 흡입력이 강한 사선축 설정

- 공간구성의 개념

- 전체 건물은 기존 인문관의 축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방위 축과 일치하는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대학내 주 간선도로에서 새로운 인문사회관 강의동-체육관을 연결하는 공간의 구성은 건물배치에 따라 확산, 수축되

며, 이는 공간의 깊이를 풍부하게 하는 Perspective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 구 인문관과 신 인문사회관이 이루는 하나의 외부공간상에 배치된 방형의 잔디광장은 신·구 건축물 공간의 핵으로서 Activity의 절점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 시설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Box형의 Mass는 각각의 기능별로 구별, 동을 분절 배치 시킴으로써 내향적인 독립영역을 형성하는 동시에 주변외부 공간 및 자연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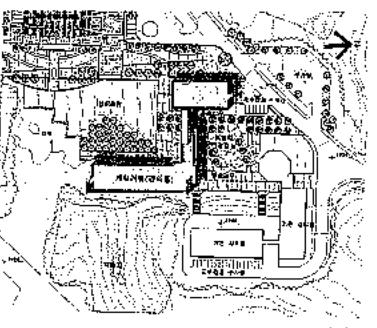
평면계획

- 광장의 상징적 방형 형태를 수용하여 광장에 면하여 그자형태를 취하였으며, 남측 방향으로 확장 연결되어 미래의 증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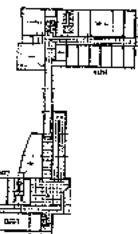
- 연구·관리 기능 영역(교수·대학원생 연구실, 세미나실, 학과행정자료실)과 교육기능영역(강의실)의 관리 형태가 다른 관계로 동을 분리하였고, 기능적으로는 입체적인 동선처리로 각 시설간의 연결성을 높였다.

- 연구 관리동의 행태는 필요에 따라서 24시간 거주 등 정적인 행태로 나타나며 따라서 장시간 각실이 동일한 쾌적한 환경확보가 요구되어지나, 편복도 배치시 공간 효율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배치하여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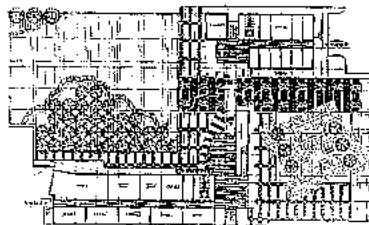
- 교육 강의동은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짧은 시간동안 거주하는 행태로 상대적으로 동적인 공간 행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행램프를 설치하여 흐름에 대응하도록 하였고, 강의동의 형태는 종복도 형태를 취하였다.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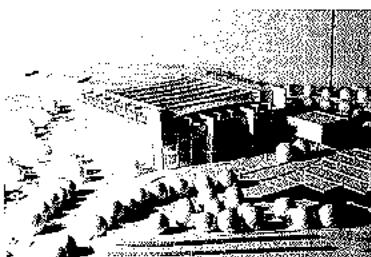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체육관

▶ 당선작 / 대림건축(박현석) + 평인 설계(윤동현)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
교 학교시설지구내 인문과 주변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교육지원시설(체육관)

대지면적 536,551.0m²
(162,306.68평)

총 수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골 TRUSS + SRC조

연 면 적 75,867.824 m²(기준)
+ 7,334.47m²(신축체육관)
= 83,202.294m²

	(25,168.69평)
건축면적	21,634.841m ² (기준)
	+4,199.86m ² (신축체육관)
	=23,834.701m ² (7,815.0평)
용적률	14.06%
주차대수	100대(법정 26.63대) -버스 5대 포함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외벽	AL. 커튼월, 적벽돌처장쌓기, AL. 복합페널
지붕	PIPE TRUSS 위 등판씌우기 /복층유리
창호	THK 100mm 월러 :AL.BAR, THK 24mm 착색복층유리

배치계획

- 기존 축의 질서와 조화
 - 기존 강의동과 같은 축으로 자연스런 정방형 외부공간형성
 - 사선축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자연스런 진입유도
 - 클러스터 형성
 - 동서축을 기준으로 북쪽에 강의동/보조체육시설을 배치하여 기존 강의동 건물과 연계된 Cluster와 중정을 형성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저층 매스의 보조경기장과 부속 강의동을 북측에, 거대구조물의 체육관을 남측에 배치 → 캠퍼스내에서 접근시 거대구조물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하고 지형스카이라인에 순응
 - 자연스런 접근성과 기능적인 배치
 - 남측으로 주경기장을 배치하여 외부진입이 용이하도록 함
 - 전면에 잔디광장을 계획하여 다양한 옥외 집회 및 문화행사시 기존 인문관 앞의 옥외광장과 연계
 - 5) 토공사량을 최소화
 - 부지 레벨을 30m 기준으로 토공Balance 유지

평면계획

- 기본개념
 - 실내 동선을 단축하고 단위 시설을 분리, 독립시키고 기능군 상호간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평면구성.

- 현관 및 로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혼잡을 배제하고 여유있는 공간계획
- 모든 공간에 가능한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여 에너지 절약(자연적 요소의 적극 도입)
- 기능별 Zoning에 따라 주경기장과 보조 체육시설 및 강의동 Mass를 분절하여 소요실 배치
 - Arena
 - 핸드볼, 농구, 배구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대규모 강연회, 집회, 공연 등에 대비한 무대시설로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려
- 관람자 시설
 - 고정석 2,500석, 가변석 1,2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계획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자석 확보
 - VIP출입 동선과 연계해서 시선대가 좋은 곳에 본부석 설치
 - 관람객의 출입은 관리, 운영, 선수와의 동선과 분리하였으며, 가시선을 고려하여 모든 관람석의 양호한 시야를 확보
 - 관람석 1단의 높이는 40~45cm로 설계하였고 1단의 폭은 의자 설치시 문제가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70cm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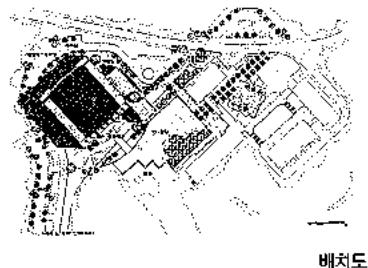
- 퇴장 시간은 10분이내 퇴장 가능토록 출입구 분산배치
- 장애자 시설
 - 1층 로비에서 장애자 전용 Lift를 설치하여 장애자석에 연결
 - 주출입구 부분에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계획
 - 장애자용 화장실을 설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
- 선수관련시설
 - 지표층에서 독립된 출입구 통해 직접 소요실로 진입하며, 출입시 선수 보호 시설을 통하여 안전도보
 - 선수대기실 및 Arena에 근접하여 환자수송이 편리한 위치에 의무실 배치
 - 선수대기실에 별도의 탈의실 및 샤워실(사우나포함)설치

- 관리 운영시설
 - 관리사무실, 심판실 등을 1층에 설치하여, 평상시 및 경기시 관리운영에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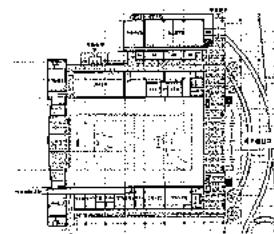
하도록 계획하고, 2층에 본부석 및 매점 등을 설치

- 보도 관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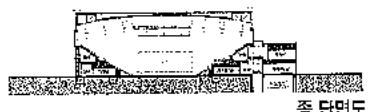
- 1층에 기자실 및 방송실을 설치하여 보도/중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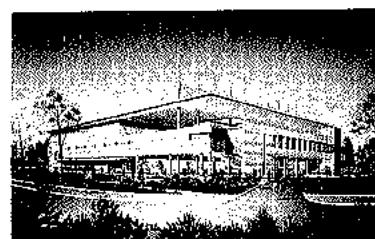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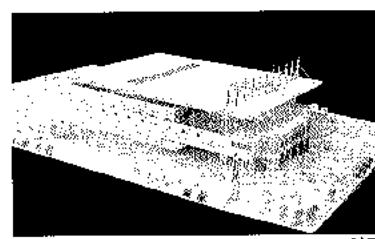


층 단면도

▶ 우수작 / 예조건축(주영정)



도시도



모형도

연면적 6,910.25m²(2,090.35평)

· 본관 5,561.10m²(1,682.23평)

· 벌관 1,349.15m²(408.12평)

건축면적 5,489.94m²(1,660.71평)

· 본관 4,579.44m²(1,385.28평)

· 별관 910.50m²(275.42평)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제파이프 트러스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59대

최고높이 19.38m

설비방식 HOVAL UNIT + F·C·U

배치계획

- 대지이용

- 기능에 따른 명확한 동선체계 분리
- 인문관과 운동장 시설을 배제하는 공간확보
- 전체적으로 실깊이가 큰 매스를 오픈 공간을 통해 공간의 무게를 줄이고 열린 시각을 확보

· 외부보행 체계의 연속성 유지

- 상이한 기능에 따른 동선별 출·입구 설정

· 체육관 동측부분 장례 주차장 중설 예정부지로 계획(매입예정부지)

- 축의설정

· 인문관과 체육시설로의 연계를 한개의 축으로 설정하고 인접도로의 접근성을 위한 교차축을 기본축으로 설정

· 두 축이 만나는 지점을 오픈공간으로 하여 전체 매스체계의 결집점으로 설정

- 공간연계

· 현수구조를 통해 시각적인 랜드마크 설정

· 진입로·진입유도·오픈공간·시각터널·운동장 및 녹지시설로 이어지는 공간요소의 전개

· 체육관과 연구동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어 소음차단

평면계획

- 개념

· 대학교육시설과 시민문화공간의 다목적기능 수용

· 복합기능에 따른 명확한 동선분리 및 관리 효율화

· 선수, 임원, 관리인과 관람인, 교내학생 및 연구원, 교수의 명확한 동선분리

- 평면계획

· 주경기장 시설이용

· 관람인들은 관람객 출입구를 통해 각

관람석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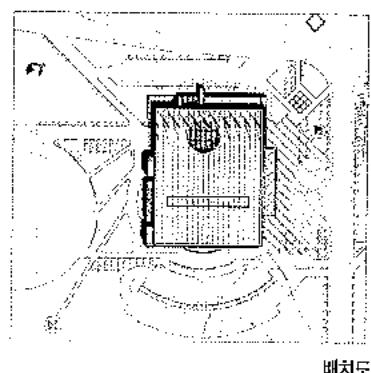
· 선수들은 관람객 출입구와 분리하여 오픈공간에 설치된 전용출입구를 통해 선수대기실을 지나 경기장으로 출전

· 각 경기 및 경기의 행사를 위하여 공간 이용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2,500석의 고정석과 함께 행사성격에 따라 1,200석의 가변형좌석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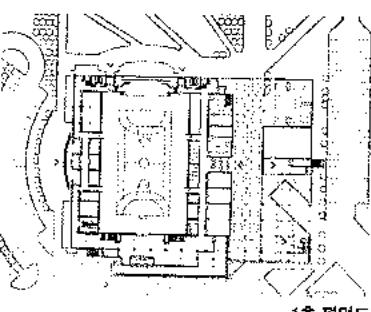
· 공간의 균일성, 실용성, 시공성의 높은 효율성과 구조합리적인 선점에 의한 6m × 6m의 모듈적용

· 긴급대피시 두방향의 외부피난이 가능

- 건물 장면방향 양축에 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유기적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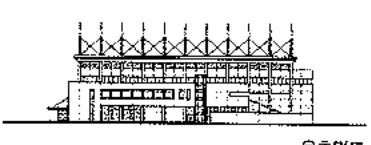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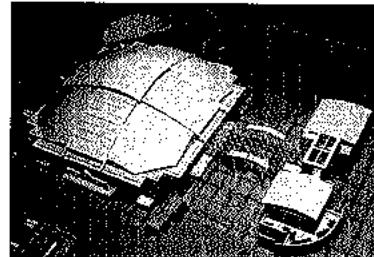
우측면도

▶ 가작 / 유한건축(유연옥)

연 면 적 6,896m² < 6,946.5m²

10%중 허용범위내 면적

건축면적 5,210m²



모형도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
(Space Frame)

총 수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주경기장 28m, 부대동 19m

외부미감 외벽:노출콘크리트위 고탄성

도료/Glass커튼월

지붕:볼소수지코팅 아연도 강판

바닥:화강석 깔기

배치계획

- 대지축, 진입축에 순응하는 외부광장의 배치와 보행자 동선계획

- 전체부지에 대해 시설배치가 균형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토지이용을 극대화

- 교내 기존 건축군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교내에서의 진입동선 연속성 부여

- 전면 스포츠광장의 확보: 여유있는 광장확보로 공공의 개방성 높임.

- 교내에서의 접근동선과 학교외에서의 접근동선의 명확한 분리

- 공동주차장에 따른 주차동선 확보

- 체육관동과 부대시설의 분리로 각각의 영역성 및 독립성 확보

- 인문대학 강의동과 체육관 사이의 시설 배치로 둘사이의 완충공간 형성

- 주변지형과 기존 교내 건물군에 순응하는 서로 직교되는 대지축과 진입축의 형성

- 동신대학교내에 위치하여 기존의 수목 및 녹지로 인한 안정적이고 정적인 분위기

- 주변이 야산 및 녹지인 관계로 주변수목 양호

평면계획

- 체육관과 부대시설의 진입의 용이함을 위한 등서측 진입광장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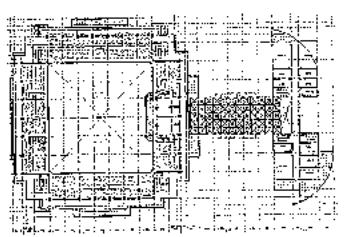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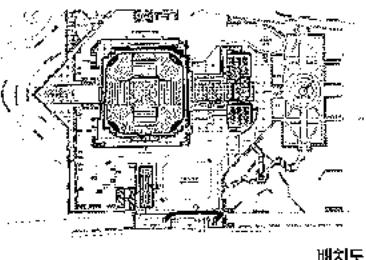
- 항후 인문대 강의동과의 전이&진입을 위한 동적공간(중심광장) 배려

- 주경기장과 부대시설동(보조경기장등) 사이의 완충휴게공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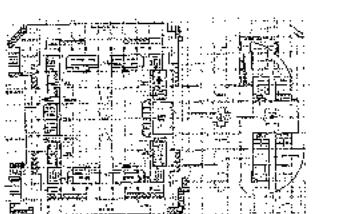
- 주관객 진입구와 VIP, 임원 및 선수진

입구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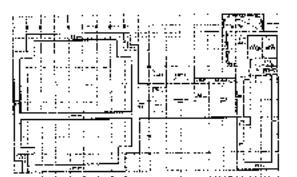
- 주경기장 및 각 부대시설(에어로빅, 웨이트 트레이닝실, 스쿼시경기장 등)에 이용이 편리한 샤워 간이실 설치
- 대외 경기대회를 위한 Broad-Casting Room(방송&중계석) 배치
- 지하 휴게공간(선큰가든) 배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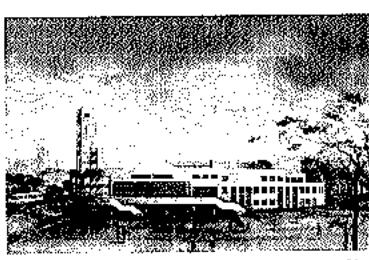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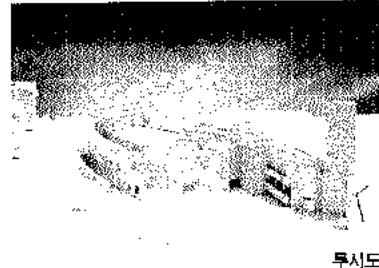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문화센터

▶ 당선작 / 유가람건축(류연창)



모형도



루시도

대지위치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부지내
지역·지구	학교시설 결정지구
건축면적	2,218.00m ² (670.00평)
연 면 적	4,526.00m ² (1,369.00평) ※ 피로티 면적: 622.00m ²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주차대수	42대(지체부자유자용 2대포함)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주요외장재	노출콘크리트, 외장페널, 컬러복층유리
부대시설	주광장, 옥외집회장, 주차장, 휴게시설

기본방향

- 대지형태와 방향성을 고려한 배치형태로 Campus 맥락중시
- 문화센터로 인지될 수 있는 Total Design으로써의 환경계획 (피로티, 옥외공연장, 녹지휴게공간 등)
- Requirement에 따른 기능의 재분배로 시설별 특성에 부합되는 Identity를 부여
- 명확한 Zoning을 설정하여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각실파의 연계성 부여
- 저형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스러운 Approach를 유도함으로서 점증적 View 확보
- Campus내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디자인에 상징성 부여(수평선 강조 및 Tower)
- 자연환경요소에 부합되는 건축의 높낮이 배치로 일조 통풍 채광에 유의
- 장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 부대설비시설의 시스템화 및 안전시설 확보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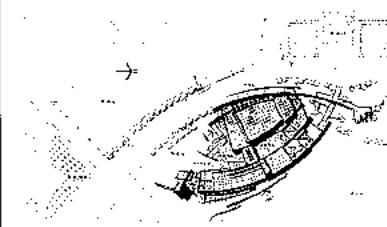
- 도로측 Level과 운동측 Level에서 정

면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형 가벽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축을 설정

- Level 차이가 있는 두군데에서 주진입이 되도록 가운데 중정 및 선콘을 두어 유동적으로 흐르는 공간으로 연계시킴
- 도로측 광장은 학생회관 정면부 피로티 부분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회관 쪽으로 열려 있으며 이 열린공간은 계속해서 운동장 쪽으로 이어져 옥외공연 마당과 램프를 통해 바로 운동장 레벨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사선형 가벽으로 둘러싸여진 Mass는 크게 공연장 역할을 하는 중강당 Mass와 강당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위주로 한 Mass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중강당은 도로측 레벨에 접근하여 배치하였고 다른쪽 Mass는 운동장 레벨을 향하여 배치하였다. 이렇게 타원형의 가벽을 둘러싼 Mass는 방법에 의하여 가운데부분 공간인 중정과 선큰가든을 도려내고 남쪽을 향하여 펼쳐져 있다.

- 기숙사동으로 향하는 도로왼편과 주광장부 반대편에 주차장을 두어 주차동선과 보행자동선을 확실히 구분하였으며, 기숙사 등 도로로 가는 쪽에서 중강당 무대 후면 소품창고로 가는 램프를 두어 소품이동이 쉽도록 하였다.

- 기숙사동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도로 뿐 아니라 운동장 쪽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타원형 가벽을 이용하여 언덕을 가로지르는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계단 창 사이로는 다시 지형을 따라 가면서 녹지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정서함양의 도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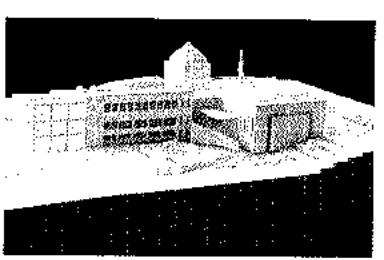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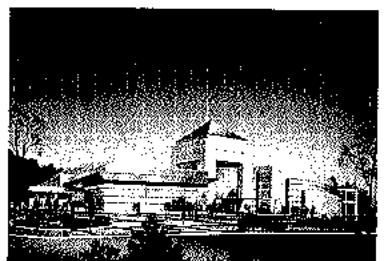
배지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예조건축(주영정)



위 치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지역지구 동신대학교 학교시설 결정지구
연 면적 4,633.16m²(1,041.52평)
건축면적 2,657.35m²(804.84평)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32대
최고높이 22.35m
설비방식 A·H·U+F·C·U방식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물갈이 및 베녀구이
 + 커튼월
지붕 : 평슬라브
창호 : THK16 컬러 페어글라스
내부마감
바닥 : 비닐계타일+화강석
내벽 : 목재푸로팅보드+인코트붐칠
천장 : 암면 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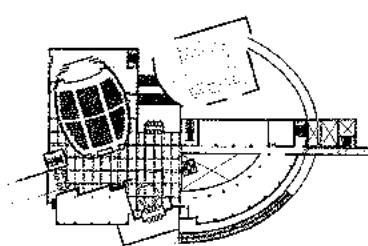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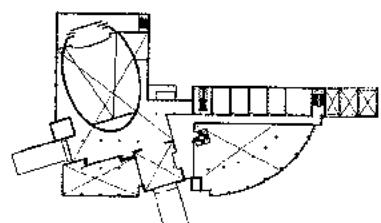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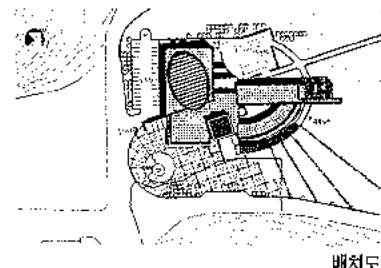
배치계획

- 개념
 - 자연성이 강한 주위의 등고선과 인위건축물의 조화를 유도
 - 자연스러운 동선의 유도를 위해 강당의 축은 약간 들어 배치
 - 진입로와 연못쪽의 시각축을 고려한 배치
- 축의 설정
 - 인접도로축과 대지의 등고선에 순응하는 축을 설정
 - 광장을 통한 주진입동선을 유도하고 램프를 통하여 시청각실로 동선유도
- 공간설정
 - 교차축을 설정하여 강의공간과 시청각교육실을 배치하면서 기능적 분리도모
 - 주진입구를 통과하여 야외공연 공간과의 연계를 둠
 - 주변 경사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매스의 조화를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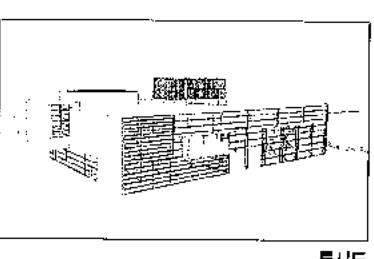
평면계획

- 개념
 - 학생회관과 진입로 및 주변 경사대지를 고려한 다축 평면형태
 - 복합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동선분리와 관리의 효율화
 - 강의동과 시청각실, 교육실의 동선분리
 - 라운지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장과 함께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지원
 - 5.4m×8.1m의 구조합리적 모듈
- 평면계획
 - 대지고저차를 이용하여 강의동으로의 이동동선을 외부에서도 유도할 수 있게 하며 배면에 위치한 야외공연 시설로의 동선을 위하여 전이공간으로서의 (Baffler-Zone) 홀의 역할을 강조
 - 주진입로에 광장을 두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원전히 분리
 - 격자형의 정연한 매스와 비정형의 오픈 스페이스를 위치시켜 지나친 인공성과 점형성을 배제하면서 접근자의 시각적 흥미를 유도
 - 500명이상 수용의 강당, 150명 이상 수용의 세미나실 등의 기능적 요구사항 충족

- 학생회관의 연계를 위해 강당 진입축을 약간 들어 계획



▶ 가작 / M.A.R.U건축(김종규)



현재의 동신대학교 캠퍼스는 개발되지 않은 야산과 갈들이 흩어져 존재하고 있다. 건물은 도로 사이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으며 전체 대지와의 비례에 있어 낮은 밀도를 나타낸다. 캠퍼스는 계획된 모습, 다시 말해 구역화된 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어진 문화센터의 대지는 기존 지형에 맞추어 완만한 경사지로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남서쪽의 테니스장, 북동쪽의 대운동장과 연결되어 빈 공간의 띠를 이루며 연속된 랜드스케이프(Landscape Sequence)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센터는 기존에 볼 수 없던 다양한 행위를 동시에 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서 제안된다. 이 계획안은 제시된 프로그램들을 대지에 펼쳐 놓기보다는 그것들을 집약시켜 길게 펼쳐진 대지 위에 하나의 오브제(Object)를 형성하고자 한다. 다양한 행위를 밀실하게 만들고 긴장 관계를 유발하며 그 틈을 조작해주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단일한 표피 - $50 \times 50 \times 12m$ 직육면체의 면 - 속에 수용된다. 그것은 주요 순환도로를 마주보며 대지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연속하여 전개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 Sequence)상에서 변화되는 접근을 통해 다양하게 인식되어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고정된 통합체로서 전체 대지 상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랜드스케이프를 바라보는 지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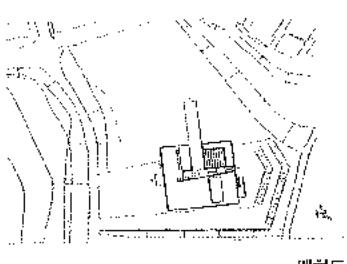
디자인의 중심 아이디어는 요구된 프로그램을 몇 개로 분류하고 그것을 조합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전체 프로그램을 강당, 전시, 서비스의 3개 군으로 나누어 직육면체의 표피에 수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2개의 길로 분절되는데 하나는 순환도로로부터 이어지는 북서 방향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남서쪽의 빈 공간을 행하는 완만한 경사의 램프이다. 그에 따라 직육면체는 3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들은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밀도를 달리하여 결합되면서 선형적인 패턴으로 합성되어 재구성된다.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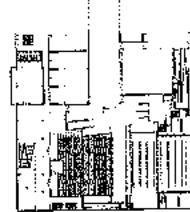
몇 개의 공간군을 구성하고 빈공간을 조직하려는 의도는 동선체계로 이어진다. 동선은 크게 두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순환도로로부터 북서방향을 향하는 진입이며 그 옆으로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다.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램프를 통해 강당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램프를 따라 계속 오르면서 내부전시실과 서비스시설에 이를 수 있다. 또 하나의 동선은 빈공간으로 연결되는 램프를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4.5m 높이에서 전시실과 서비스실을 이어주는 중정으로 연결되며 그곳에서 북서방향의 램프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두개의 외부 동선은 외부로의 조망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점에서 내부동선과 연결되어 전체 건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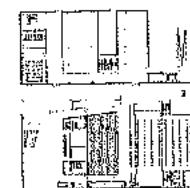
입면은 기본적으로 블루명 이중피막, 유리, 경질재료의 3가지로 구성된다. 그것은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 보이며 건물의 표피로 작용된다. 북동쪽의 중강당은 콘크리트, 단열재 그리고 유리의 켤로 둘러싸여 전체 건물로부터 자유로이 비율질화되어 블루명 한 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물의 남동쪽은 유리면으로서 전입부분으로 개방된다. 2층의 라운지에는 유리박스가 삽입되며 내부 성격에 의해 투명도가 조절된다. 이러한 유리 입면은 대지와 건물 사이에서 얇은 막으로 작용한다. 표피의 나머지 부분은 경질재료의 벽으로서 다른 재료와 대조적으로 전체 건물을 하나의 입체로 구성하게 된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마포 노인 복지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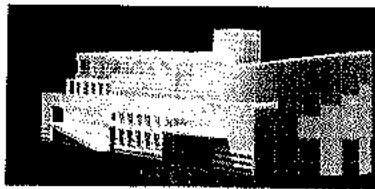
Mapo Welfare Center for the Aged

마포구는 노인과 기준생활환경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13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작에 예조건축(주영정)안, 우수작에 길공사건축(길기홍)안+이영수(홍익대)안, 가작에 서북건축(황영현)+I-GA(황태수)안을 각각 선정. 지난 9월 2일 발표했다.

▶당선작 / 예조건축(주영정)



투시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4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2종,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1,286m ²
도로현황	전면 40m계획도로, 측면 4m보차량운용 계획도로
연면적	2,407.13m ²
건축면적	693.08m ²
건폐율	53.89%
용적률	187.18%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Space Frame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5.9m
외부마감	외벽:화강석 물갈기, 흑두기마감+AL.SHEET패널+커튼월+유리블록
설비방식	A·H·U+F·C·U

배치계획

- 개념

- 자연스러운 동선체계를 위한 기능의 명확한 분리
- 40m계획도로인 서강대로에 따른 거시적 동선체계 확립
- 낙후된 주변환경을 개발을 선도하는 사회복지시설로의 계획
- 발전하는 마포구의 상징성을 Mass를 통해 현대적으로 표현
- 축의 설정
 - 전면도로축에 따른 외벽으로 강한 중심축을 설정
 - 내·외부공간을 연결하는 경사로 통한 동선유도 및 주변환경의 조망
 - 강한 축선의 결점에 장방형에 매스에 대응하는 타원형의 문화공간(강당) 배치
- 공간설정
 - 기능에 따른 진입구의 분리로 공간의 합리적 역할도모

· 주 Mass와 외부공간을 외벽으로 분절 시켜 쾌적한 내부공간 확보

· 외벽의 켜 → 진입유도 → 경사로 → 시각터널 →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요소의 전개

· 기능별시설의 중앙에 코어를 설치하여 공간의 연계성 확보

평면계획

- 개념

· 노인복지시설과 구민문화공간의 다른 기능수용

· 복합기능에 따른 명확한 동선분리 및 관리효율화

· 노약자, 일반인, 임원, 행사인원, 관리인들의 명확한 동선분리

·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Zoning계획

· 5.4m×6.0m의 구조합리적 대웅형 모듈

- 평면계획

·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시설(강당)을 양축으로 흘 및 Core를 사선의 축선상에 계획하여 목적동선과 기능을 분리

· 이용자 편의시설을 1층 코어 및 로비에 집중배치하고 2·3층은 용도에 따라 복

지시설과 사무실 등을 적절히 분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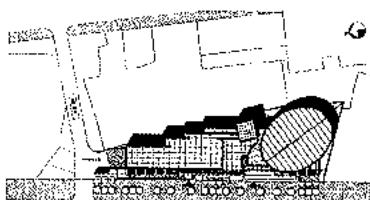
· 긴급 대피시 두 방향이 모두 피난 가능하게 유도

· 건물 장면 방향의 우측에 주계단을, 좌측에 특별 피난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유기적으로 해결

· 공간의 균일성, 실용성, 시공성의 높은 효율성과 구조 합리적인 선정에 의한 5.4m×6.0m의 모듈을 적용

· 소규모 행사시 중앙의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 외부 Ramp를 이용 진입하여 로비와 주계단, ELEV를 이용하여 각 시설에 이르도록 인지

· 소규모 행사시 중앙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강당으로 진입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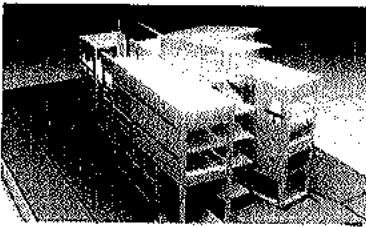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 우수작 / 길공사건축(김기홍)

+ 이영수(총학대)



도형도

대지면적 1,286.00m²

건축면적 496.33m²

연면적 2,409.08m²

건폐율 38.59%

용적률 236.54%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베녀구이
창호 - 알미늄 불소수지 도장
+컬러 복층유리

계획설계 김승주, 이재현

배치계획

- 대지와 주차로에 순응하는 자연축 형성
- 남북의 축으로 형성된 대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남향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이용대상 및 목적에 따른 동선의 명쾌한 분리

- 주 출입구로부터 개방된 남측 옥외 정원(휴게 및 풍물 놀이 공간 형성)

- 텃밭과 게이트볼구장의 배치로 소밀거리와 체육기능 부여

- 남측의 열린 공간으로 지상 및 지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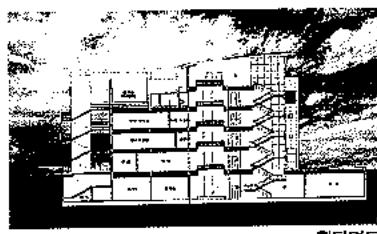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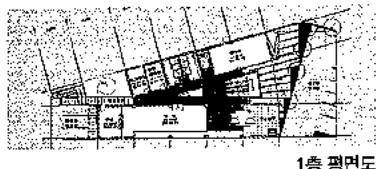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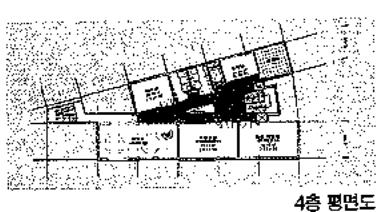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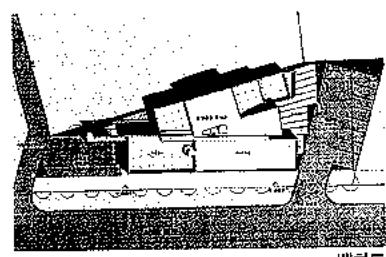
의 자연 체광유입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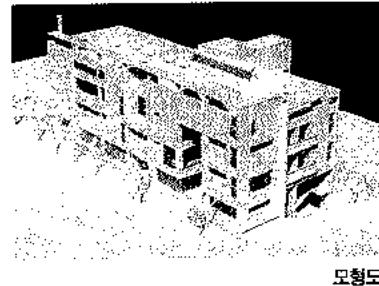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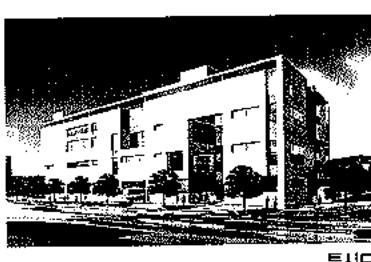
- 디중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간은 저층부에 두어 기능과 동선에 편익을 최대한 도모
- 복지와 관리, 경로의료 및 사회 교육 기능으로 분리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

- 대지 조건에 따른 남북의 긴 복도로 인하여 남측 및 북도 상부를 Open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 기능별 동선의 효율적 배치



▶ 기작 / 서북건축(황영현)
+ IGA(황태주)



도형도

대지면적	1,286m ²
도로현황	서측(전면)/40m미관도로, 북측(좌측면)/4m도로
연 면 적	2,353.07m ²
건축면적	633.07m ²
건 폐 율	49.2%
옹 적 률	121.2%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총 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4.7m
외부마감	화강석(물갈기+버너구이), 컬리복층유리
설비개요	중앙냉난방, 부분 패키지 냉방
주차개요	12대(지상 4대, 지하 8대) → 법정 11대
조경개요	206.8m ² 법정 192.9m ² (대지면적의 15%)

배치계획

- 축(Axis)

- 도시 및 자연방위축 수용/기준 도시질서 순응

- 40m미관도로에서의 진입을 주출입으로 하고 삼각형의 대지에 적합한 매스계획형태

- 동선(Circulation)

- 보차동선의 분리/지상지하 차량출입고려
- 주출입 보행동선 고려
- 비상계단 위치 고려
- 장애자용차량, 진입고려
- Sunken Garden 설치/노인목의 휴게공간 설치

- 강당(다목적홀) 벌도진입

- 법규(Rule)
- 대지 효율의 극대화/주차 진출입 설치
/옥외 휴게공간 및 조경
- 미관도로 투트/나무식재

평면계획

- 개요

- 주어진 대지활용 극대화
- 합리적 모듈계획
- 유통성 있는 평면계획
- 기능에 따른 분류조닝고려

- 동선계획

- 보차분리
- 장애자용 동선고려
- 기능에 따른 동선분리명확
- 주방별도 서비스동선 확보
- 강당, 식당 별도동선 확보

- 기능

층별기능의 명확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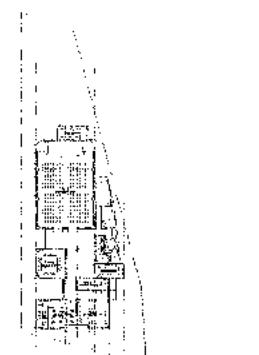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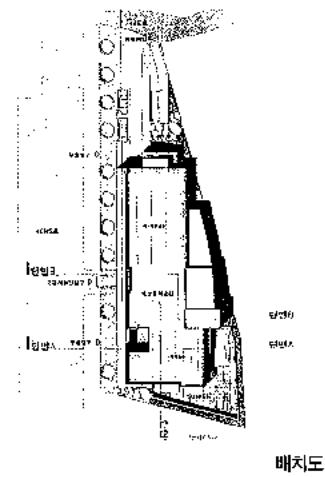
- 지하층 계획: 주차장/작정 모듈에 따른 주차공간 최대활용, 식당 및 공동작업장 / Sunken Garden 설치로 자연채광 확보

- 1층 계획: 경로의원기능 / 노인을 위한 설계배려

- 2층 계획: 일시보호 및 서비스기능/상온감시 보호자실 설치

- 3층 계획: 다목적 훌 및 직원 업무

- 옥상 계획: 노인체력단련기능



투시도



1층 평면도

고양 노인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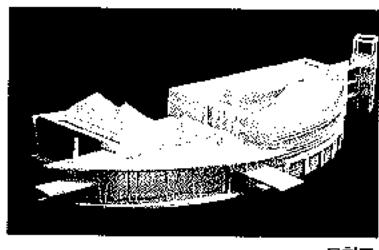
Goyang Welfare Center for the Aged

지난 5월 고양시청에서 시행한 노인복지회관 현상설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일산 신도시의 도시설계 지원과 조화를 이루고 노인들의 편리성과 창의성, 예술성을 경비한 현대식 청사 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번 현상설계에는 총 8개 작품이 제출되어 예조건축(주영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 되었다.

▶당선작 / 예조건축(주영정)



조감도



모형도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일산호수공원내)
대지면적	6,000m ²
건축면적	2,000.03m ²
연 면 적	4,832.33m ²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외부마감	외벽-커튼월, 쇠강식버너구이, 컬러복층유리 창호-THK24 컬러복층유리

배치계획

- 대지이용

- 주위 주거단지와 호수공원의 융화
- 효율적 부지 활용으로 부대시설 및 장래 증축 고려
- 발전하는 고양시의 상징성을 Mass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
- 각 기능별 동선체계의 명확한 분리
- 주위 녹지와 연계되는 진입공간 및 포장광장 확보
- 축의 설정

- 공원으로 진입을 고려, 동선의 선택이 용이하며 진입과 노인복지회관의 정형적인 정면배치에서 탈피시켜 심리적인 시각적 여유와 공간의 깊이감을 유도
- 자연성이 강한 주위의 호수축과 인위 건축물의 축을 어긋나게 하여 인간적인 공간창출
- 공원쪽의 진입동선의 사선형 직선을 도입하므로서 기이한 인상의 시각과 동선을 유도
- 전면도로의 축을 이용하여 도로축에서의 시각확보

- 공간 연계

- 매스분리를 통해 기능상의 효율을 유도하였으며 매개공간으로서의 필로터 공간을 설정하여 공원으로서의 진입 및 환경친화적인 공간의 확보
- 주거지역과 호수공원의 매개공간으로 지역의 핵 결집점으로 설정
- 상이한 기능에 따라 동선별 독립된 출입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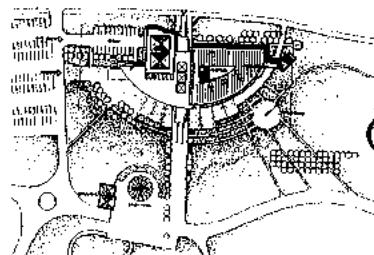
평면계획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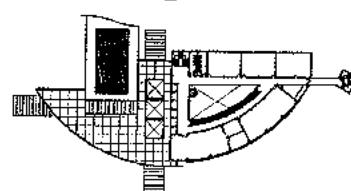
- 시민과 노인공간으로서 다목적인 기능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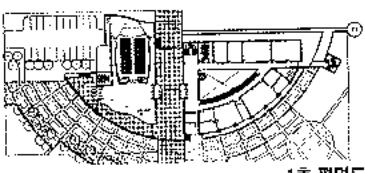
- 복합기능에 다른 명확한 동선 분리 및 관리 효율화
- 노약자, 일반인, 임원, 행사인원, 관리 인들의 명확한 동선분리
-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Zoning계획
- 평상시 노인복지 및 심신안정, 행사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용도와 동선분리
- 5.1m×7.2m 의 구조합리적 대응형모듈
- 피난공간 인지가 뚜렷한 통로
- 평면해석
- 노인복지시설과 교육시설(대강당)을 양축으로 중단하는 Main Road를 축선 상에 계획하여 목적동선과 기능을 분리
- 이용자 편의시설을 1층 코어 및 로비에 집중배치하고 2·3층은 용도에 따라 복지시설과 사무실 등을 적절히 분리 배치
- 긴급 대피시 두 방향의 외부피난이 가능하게 유도
- 건물 장면 방향의 서측에 주계단을, 동측에 특별 피난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유기적으로 해결
- 공간의 균일성, 실용성, 시공성의 높은 효율성과 구조 합리적인 선정에 의한 5.1m×7.2m의 모듈을 적용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는 Main Road로비와 주계단, 내부 Ramp, Elev.를 이용하여 각 시설에 이르도록 인지
- 소규모 행사시 중앙 Main Road 또는 서측 진입부를 이용하여 대강당으로 진입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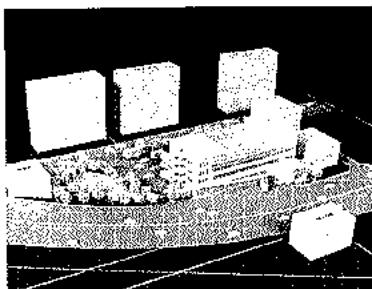
정면도

중랑 소방서

Chungnang Fire Station

신내택지개발지구내에 중랑소방서를 신설하여 소방출동 5분권역 확보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 각종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랑소방서 신축 현상설계경기를 총 6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주)일산건축(한상운)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9일 발표했다.

▶당선작 / 일산건축(한상운)



모형도

대지위치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사업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4,960m ² (1,503평)
건축면적	1,782.19m ² (539.11평)
연 면 적	4,573.4m ² (1,383.45평)
건 폐 율	35.93%
용 적 률	75.27%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8.9m

외부마감	18mm 반사복층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및 흑두기
냉·난방	중앙공급식
주차대수	옥외 40대
조경면적	1,337.37m ² (대지면적의 26.96%)
계획총괄	한옥주(설계실장)
설계담당	민준기, 한기성, 이선영, 김경선, 황병준

배치계획

소방서 건물은 소방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하여야 하는 특수처리(화재 진압, 구조, 구급)의 요구에 따라 소방출동차량의 동선이 간결하며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우선하여 배치하였으며, 24시간 대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대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건물의 축설정 : 북측 및 남측의 도로 축을 따라 건물의 축을 설정하여, 전면성을 강조하였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부지공간의 효율성 제고 : 부지를 양분하여 서측으로는 건물을 접악적으로 배치하고 동측으로는 녹지 휴게시설(체육시설포함)과 소방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사이를 주차 공간으로 하여 부지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 접근성 : 북측주도로 및 남측도로에서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가능토록 처리하였으며, 특히 차량의 동선을 양분화하여 어느 도로에서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지휴식공간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 출입구를 만들었다.

- 경제적인 건물배치 : 건물을 남행으로 배치하여 일조 통풍을 양호하게하여 에너지 절약형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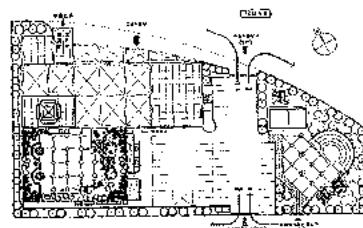
평면계획

- 각실의 필요면적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본모듈(1.5m)을 도입하고 각실의 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과 차량의 통제가 용이도록 차고를 배치하였으며, 소방대원들의 출동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실을 인접배치하였다.

- 24시간 대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을 대기실 내부에 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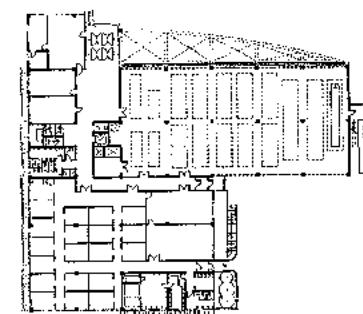
- 남쪽 저층부 옥상에 녹지휴식공간을 만들어 2층 내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식당에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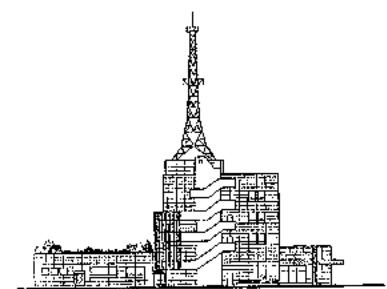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측면도

강서구민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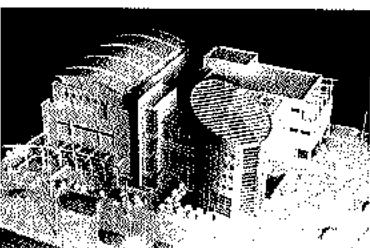
Kangseo Civic Health Center

강서구는 구민의 건강과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체육센터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13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9월 9일, (주)S·A·S 건축(심우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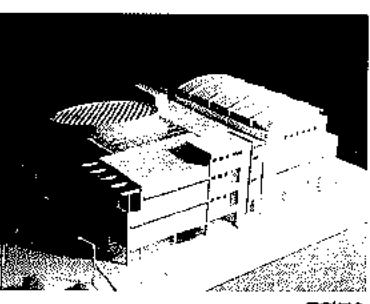
실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송성진(연세대) 전명현(홍익대) 최광수(국민대) 신범식(서울시립대)
김강수(고려대) 강병근(건국대) 윤재신(이화여대) 구영민(인하대) 정진국(한양대)
김정권(강서구건축사회) 정영문(강서구건축사회)

▶당선작 / (주)S·A·S 건축(심우근)



모형도1



모형도2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07-3
지역·자구	일반주거, 고도지구
대지면적	3,011.60m ² (911평)
도로현황	전면 20m, 16m 도로 접합
연 면 적	11,397.18m ² (3,447.63평)
건축면적	1,799.13m ² (544.24평)
건 폐 율	59.74%
용 적 률	144.30%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총 수 지하3층, 지상3층

최고높이 20.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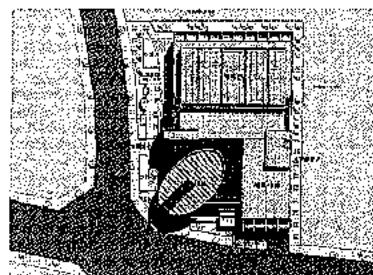
외부마감 외벽-THK3 알루미늄 복합패널

창호-THK18 컬러 목충유리

설계담당 이원준, 김상우, 강상봉, 임재

찬, 김명현, 현상윤, 조영신,

김태산



배치도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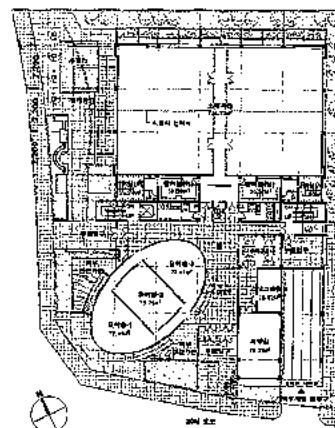
- 건물의 기본배치는 서측 16m도로와

남측 20m도로를 따르는 도로축과 주변

Site와 연계되는 대지축을 근간으로 한다.

- 전면도로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동선과 분리시키고 각 도로에서 건물로의 진입을 로비공간으로 끌어들여 연속성을 부여한다.

- 선큰가든, 휴게시설, 분수대, 파고라 등의 외부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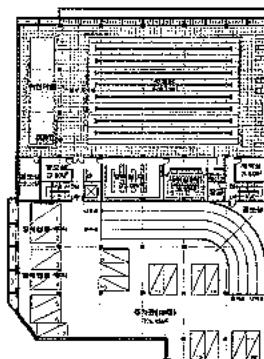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Mass계획

- Mass의 분질과 결합에 따른 Atrium과 Core의 분리 : 일조 및 채광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

- 체육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배치 : Public, Space를 통한 유기적 연계

- 진입부에서의 Open Space 확보 : 시각적 인지성을 높이고 자연채광면적을 극대화



지하 2층 평면도

평면계획

- 실의 용도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확보 : 간이칸막이 이용 (소 체육관)

- 각실의 기능 분리 및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

- 미래 증축에 대한 고려

- 로비공간의 중앙배치로 각 시설의 중심적 공간으로 구성

- 재료의 투명성에 의한 외부로의 개방성 확보

- 청소년 교육장, 시청각실, 프로그램실 등의 다목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 공간 확보



좌측면도